

이제는 **지역이 배움의 대상이요** 교과서가 되고 콘텐츠의 보고가 되 스 인다는 새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천을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나 지리적 범위, 행정적 구역으로만 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
 이고 이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르는 돌은 그냥 구르는 돌이
 수석가의 눈에는 그 돌이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
 지역의 문화자원도 그저 매장되어 있는 광물자원에 불과할
 자원은 이제 **유용한 콘텐츠로** 바뀝니다. 문화자원에 생기를
 바꾸는 힘.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따뜻한 시선을 가진 시민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인문학적 상상력
 바로 **이천의 성장 동력**입니다. 올해 이천문화원이 시도한
 강좌는 기존의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 이천이 가진 새로운 문화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천을
 스쳐지나가거나 놓쳐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새삼 놀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민속, 구전설화와 마을사, 개인의 구술생애사 등으로 **우리의 시선이**
 더 넓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시선이 오늘 이천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공간, 마을과 골목
 구석구석에까지 가 닿아야 합니다. 이 책은 **'이천을 스토리텔링하다'** 강좌를 포함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보탬이 될 만한 강좌를 지면으로
 옮긴 것입니다. 말을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불명확한 표현들을 문맥에 맞춰보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문학적 도전과 실험**
 이 이천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며 **인문학총서 둘째 권**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책자 발간을 위해 수고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천을

스토리

텔링

하다

이천 인문학 총서 2

이동준	김남일	윤석산	박홍주	이동수	최원석
김태진	최태욱	보문스님	최재현	민병은	임재해
					임승관



이천문화원
Icheon Cultural Center

발 간 사

이천문화원은 이천에 필요한 인문학, 이천시민들에게 필요한 인문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왔습니다.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은 이미 되어진 것을 그저 관행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런지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할 줄 아는 능력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역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방식을 벗어나 인문학적 시선으로 우리 지역을 새롭게 들여다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우리자신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변화를 주도할 힘을 찾아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는 ‘인문학으로 이천 읽기’라는 주제로 인문학강좌를 시작하고, 인문학적으로 이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다양한 관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이천을 스토리텔링하다’라는 주제로 두 번째 인문학 시리즈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자원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이를 활용해 창조적인 문화콘텐츠로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지역이 배움의 대상이요 교과서가 되고 콘텐츠의 보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천을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나 지리적 범위, 행정적 구역으로만 바라보기 보다는 문화적 자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과 주민들의 삶이 곧 ‘이천’이고 이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르는 돌은 그냥 구르는 돌일 뿐입니다. 하지만 돌을 수집하는 수석가의 눈에는 그 돌이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닿지 못하면 지역의 문화자원도 그저 매장되어 있는 광물자원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닿으면 자원은 이제 유용한 콘텐츠로 바뀝니다.

문화자원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것을 문화콘텐츠로 바꾸는 힘.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그렇기에 지역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가진 시민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따뜻한 시선을 가진 시민들이 바로 이천의 성장 동력입니다.

올해 이천문화원이 시도한 ‘이천을 스토리텔링하다’ 강좌는 기존의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 이천이 가진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가능성과 풍부한 자원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천을 바라볼 때 그동안 우리를 스쳐지나가거나 놓쳐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새삼 놀라게 됩니다.

과거의 기록과 유물, 문화재뿐만 아니라 민속, 구전설화와 마을사, 개인의 구술생애사 등으로 우리의 시선이 더 넓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시선이 오늘 이천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공간, 마을과 골목 구석구석에까지 가 닿아야 합니다.

이 책은 ‘이천을 스토리텔링하다’ 강좌를 포함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보탬이 될 만한 강좌를 지면으로 옮긴 것입니다. 말을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불명확한 표현들을 문맥에 맞춰보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문학적 도전과 실험이 이천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며 인문학총서 둘째 권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책자 발간을 위해 수고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 25일

이천문화원장 조 명 호

목 차 Content

I 프롤로그

지역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셔라 / 이동준	13
------------------------------	----

II 아직 끝나지 않은 이천의 이야기

1 왜 스토리텔링인가? / 이동준	25
-꿈보다 ‘해몽’이고, 역사보다 ‘이야기’가 더 중요한 시대	
2 다문화 이주민의 백가지 이야기 / 김남일	57
-아시아의 이야기가 이천에 들어와 있다?	
3 이천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 이동준	85
-이천의 지역정신, 이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신화	
4 이천의 동학 이야기 / 윤석산	125
-동학이란 씨앗이 이천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은 이야기	
5 이천의 민속에 내재된 강과 바다 이야기 / 박흥주	141
-굿 문화를 통해 지역의 생활사를 읽어내다	
6 이천의 유교문화 / 이동수	163
-이천의 유교문화에서 선비정신을 찾아라	
7 이천의 풍수와 명당 이야기 / 최원석	197
-이천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인문학	

8 이천의 천주교 이야기 / 김태진신부	215
-이천의 순교자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다	
9 개신교, 민초의 삶에 스며들다 / 최태육목사	233
-덕пл교회에서 처음 시작된 ‘민중과 함께 하는 삶’	
10 이천의 불교문화, 천년을 굽어살피다 / 보문스님	257
-미륵신앙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평화로운 세상	
11 이천의 네버엔딩 스토리 / 최재현	273
-지역의 문화자원은 어떻게 콘텐츠가 되는가	
12 끝내 만나는 지점 / 이동준	287
-우리가 이천의 기록자이고 우리가 이야기꾼이다	

Ⅲ 지역 기반, 주민 중심의 문화를 꿈꾸며

13 모든 것은 이야기다 / 민병은	313
-세상은 이야기와 그림으로 가득 차 있다	
14 지역문화 정체성, 어떻게 세워야 할까? / 임재해	325
-지역문화의 미래 가치에 대한 자각	
15 시민에게 예술은 왜 이로운가? / 임승관	347
-주민이 예술가가 되어 마을과 생활을 바꾸다	

2015년 '이천을 스토리텔링하다' 인문학 강좌

지역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셔라 》	프롤로그
왜 스토리텔링인가? 》	이동준(이천문화원 사무국장)
다문화 이주민의 백가지 이야기 》	김남일(소설가)
이천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	이동준(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이천의 동학 이야기 》	윤석산(한양대 명예교수)
이천의 민속에 내재된 강과 바다 이야기 》	박흥주(굿연구소장)
이천의 유교문화 》	이동수(안동문화원 부원장)
이천의 풍수와 명당 이야기 》	최원석(경상대 교수)
이천의 천주교 이야기 》	김태진신부(어농성지)
개신교, 민초의 삶에 스며들다 》	최태육목사(기독교역사박물관)
이천의 불교, 천년을 굽어살피다 》	보문스님(영월암)
이천의 네버엔딩 스토리 》	최재현(소릿길 대표)
끝내 만나는 지점 》	이동준(이천문화원 사무국장)
모든 것은 이야기다 》	민병은(문화집합36.5)
지역문화 정체성, 어떻게 세워야 할까? 》	임재해(안동대 교수)
시민에게 예술은 왜 이로운가? 》	임승관(문화바람 대표)

1. 프롤로그

- 지역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셔라 -



지역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셔라

이동준 |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1. '우물 안', '개천'으로 비하되고 있는 '지역'

지역은 서울과는 동떨어진 변두리다. 문명의 혜택과는 거리가 먼, 개발에서 뒤쳐진 낙후지역이다. 이런 시골지역은 대개 농산어촌지역으로 시골에 사는 사람을 뭘 모르는 촌뜨기라고 놀려대기도 했다. '개천에서 용났다'란 말은 시골출신이 중앙에 등용되는 걸 보고 이르는 말이다.

지난날 우리의 시골은 그저 중앙정부와 서울 같은 대도시의 문화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수준을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그래서 원래 그 지역이 가지고 있던 문화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수준이 낮은 변두리 문화로 천대받으며 살아왔다. 왜 시골은 개천이어야 하는가? 왜 시골을 떠나 중앙으로만 가야 하는가?

하지만 지역에는 콘텐츠가 샘솟는 우물이 있다. 지역문화야 말로 그 지역의 도시를 살리고 나아가 나라를 살리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자각이 어느덧 우리나라에도 싹이 났다. 바로 '지역문화'의 탄생이다.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다움을 발견하는 일, 그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를 찾는 일이 이제 중요해진 것이다.

촌뜨기 프랑스말이 유럽의 외교언어가 되듯이 안동사투리와 제주방언이

서울말을 물리치고 주인공으로 대접받기 시작했다. 시골말이 그 지역의 문화를 물씬 담고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되는 새로운 문화시대가 열린 것이다.

지역문화의 핵심은 지역의 관점에서 문화를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행하는 활동이라는 점이다. 내가 그 지역의 진정한 예술인이려면 그 지역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으로서의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2. '지역'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역성’(Locality)의 발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근대정신의 시작점이지요, 피와 살이 느껴지는 생활현장의 발견이다. 절대불변의 보편진리를 추구하기에 오직 라틴어로만 집전되는 중세의 보편교회(Universae Ecclesiae)에서는 가난한 시골 지역의 민중들은 성경을 접할 수도 없었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었다.

그러다가 성경이 시골말인 독일어로, 촌뜨기 프랑스말로도 번역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유럽에 ‘지역교회’(Local Church)가 등장했다. 지역말로 예배가 집전되고 지역민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와 애환을 함께 나누는 교회. 바로 그 지역의 문화와 정서, 주민들의 공동체 위에 기반하여 지역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문화’(Local Culture)의 발견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2014년 7월 29일 지역문화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이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의 문화계에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는지, 어떤 충격을 줄 것인지 아직 감이 잘 오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참다운 지역문화는 없었다. 요즘 많은 도시들이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란 시민들이 전 생애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도시다. 시민들의 학습이 필요한 이유는 배우는 즐거움이나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재고용 증대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에서 이루어져 왔던 평생학습은 그저 어느 곳에서도 별 차이 없는 평생학습에 그쳤을 뿐, ‘지역’과 ‘사람’이 만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지는 못했다. 이런 평생학습이라면 지역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다.

평생학습이 그 위에 세워져야 할 토대가 되면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가 있다. 바로 지역이다. 지역을 알아가는 일은 지역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요 그 지역의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보다 나은 지역의 미래모습을 함께 꿈꾸는 일이다.

그동안 지역의 역사에 주민의 삶과 애환은 없었다. 실록, 읍지류 같은 관찬기록물에 주로 의존해왔던 향토사에서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기 힘들다. 이제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생활 속의 이야기, 땀 냄새 폴폴 나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지역을 학습 자원으로 만들고 지역을 배움의 대상으로 삼으며 지역을 새로운 일자리의 터전으로 바꾸는 일은 이제 지역주민에게 달렸다.

3. 누구나 이 생수를 마셔라

이천을 예로 들어보자. ‘이천’의 문화는 단지 ‘이천’이라는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천’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천의 예술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천’에 주소가 있다고 해서 이천의 대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천’이라는 지역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기초로 해서 예술 활동

을 해야 그가 비로소 이천의 예술가가 되는 것이요, 학생들에게 ‘이천’이라는 지역의 소중함과 자기다움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소양을 갖춘 시민을 길러내야 비로소 이천의 학교다운 학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체 ‘이천’의 문화란 무엇일까? 그것은 이천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다. 이천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이천이고, 주민들의 삶의 현장이 이천이며 그들이 빚어내는 삶의 내용이 이천의 문화인 것이다.

또한 그것은 이천의 역사에 뿌리를 대고 있는 문화다. 주민들이 역사적으로 겪어온 삶의 경험이 이천이고, 지금의 이천을 살아가는 나의 경험이 이천이며, 그 속에서 동질성을 느끼고 이를 공동체로 수용하는 과정이 이천의 문화인 것이다.

이제 중앙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지역이라는 보물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우물에서 생수를 마셔야 할 때다. 왜냐고? 그 우물에 무한한 문화의 자원과 콘텐츠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우물이 있음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그 우물을 누구나 맘껏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다. 평생학습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지역을 알고, 지역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역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지역을 이루는 생활공간에서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창조적인 작업과 예술 활동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 이천은 그런 상상력을 지닌 시민을 찾고 모으고 도와야 한다. 그들이 새로운 지역의 변화를 꿈꾸도록 판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4. 애물단지로 전락한 ‘전통문화’

전통문화?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혹시 돌아서서는 관심 없어! 하는 게 아닐까? 전통문화가 왜 소중한가? 그 속에 삶의 지혜와 고유한 가치, 정체성이 들어있어서? 좀 더 솔직

해져 보자. 전통문화는 소중한 것이어야만 한다고... 그런 당위성으로 치부해 버리면서 전통문화는 점점 더 우리와 멀어졌다.

전통문화는 정말 재미가 없다.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가기 어렵다. 전통은 여전히 어렵고 두껍고 뻣뻣한 자세로 서 있다. 이런 모습으로는 소통이 이루어질리 없다. 전통이 전통으로만 남아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전통이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수해 주려면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어떻게 해야 전통이 현대와 만날 수 있을까? 전통은 가볍고 말랑말랑해져야 한다. 쉽고 얇고 보드라와져야 한다. 그래야 서로 연인이 되어 만날 수 있다. 옛날과 새날이 만난다. 선비가 신사의 옷으로 갈아입고 거리로 나온다. 할머니가 손자의 고물고물한 손을 잡고 말랑말랑한 얘기를 들려준다. 그렇게 시대와 시대가, 문명과 문명이 만나야 한다. 이전의 문화는 그렇게 탄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법고창신’(法古創新), ‘온고지신’(溫故知新)을 이야기한다.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것을 아는 지혜... 멋진 말이다. 하지만 이게 과연 가능한 걸까? 전통이 자기 자신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법고창신은 힘겨운 자기부정의 산고를 치루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다.

지방자치가 도입된지 이미 20년이 넘었지만, 지역의 실상은 말이 아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 이동과 교류의 일상화, 비슷한 생활 주거양식의 확산 등으로 지역의 정체성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지역과 지역, 마을과 마을이 점점 닮아져 가고 있는 것이다. 축제와 축제도 서로를 벤치마킹하다보니 그게 그거인 축제로 전락한지 오래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전통문화는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 전통문화를 지켜온 문화원은 그동안 무엇을 해왔나?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좀 더 냉정해져야 한다. 지역에서 그 동안 법고창신의 정신은 발휘되지 못했다는 점을 고백해야 한다.

이제까지 통용되어 온 전통문화의 개념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의 보존이었다. 그래서 향토사 연구는 오로지 과거의 기록과 유물의 연구에만 매달렸다. 전통문화는 문화원의 전유물로만 생각해왔다. 오로지 과거의 발굴과 보존, 조사연구가 전부였고 먼지를 털어낸 후에는 박물관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역에 내려오는 민속과 전승은 채록되거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전부였고 기능전수자를 정해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다. 전통을 박제화 시켜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동감 없이 박물관에서 박제화 되어있는 전통이 현실에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는 게 가능하겠는가?

5. 이젠 ‘보관’이 아니라 ‘활용’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의 개념, 문화의 범주가 확연히 달라졌다. 오늘날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전통문화의 개념은 보존이 아니라 상속이다. 과거의 것을 보존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상속’의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유산’이란 말이 등장했다. 전통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과거’에 두지 않고 ‘미래’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관점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상을 보여주는 물건이나 예술, 문화 등 현재의 생활문화도 미래에는 중요한 전통문화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문화를 바라보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 지역에서 현재 살아 움직이고 있는 지역문화, 생활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기록하고 담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역문화 아카이브의 구축은 전통적으로 이해되어온 ‘보관’의 개념을 넘어서서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소재의 발굴과 콘텐츠창작을 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활용’에 중점을 둔 문화콘텐츠 아카이브를 만들어야 한다. 이젠 ‘보관’이 아니라 ‘활용’이다.

문화재나 유물은 ‘과거’ 활동의 흔적이고 생활문화는 ‘현재’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활동이다. 지금의 전통문화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는 그 시대의 생활문화였다. 그리고 지금의 생활문화는 또 미래의 전통문화가 될 것이다. 생활문화가 중요한 것은 현재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활동들이 미래의 전통문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문화는 전통과 현재가 만나고 과거세대와 미래세대가 어울리는 살아있는 현장이어야 한다. 문화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은 이제 모든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수장고를 열고 보관실을 열어서 그 동안 결박해두었던 과거의 기록과 유물, 전통문화를 해방시켜야 한다.

해방시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다. 전통문화는 문화원의 전유물이 아니다. 문화예술은 전문예술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 누구나 자신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배우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의 현실은 어떤가?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읽어내기도 힘들고 따라가기도 버거운 것이 지역의 실정이다.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전히 주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6. ‘생활’의 발견, ‘생활문화’의 발견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은 기존의 관점을 뒤집는 것이다. 지역주민을 ‘대상’이 아니라 ‘주체’의 자리로 올리는 일이다. 지역을 중앙의 관찰지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돌리는 일이다. 그리고 지역의 역사를 지방관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다시 쓰는 일이다.

그동안 지역의 역사에 지역은 없었다. 향교는 그저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학교였지 지역에 대해 가르치거나 지역을 자각하게 하는 배움은 없었다. 오랜 세월동안 강학을 하거나 문묘의 향사를 지내는 공간에 불과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왕권국가여서 자치의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지방문화원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지역문화를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생활밀착형으로, 그리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지역을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자원으로, 행정구역이 아니라 콘텐츠를 담고 있는 우물로 새롭게 이해하는 관점에서 지역을 다시 읽고, 다시 그려보고, 다시 배워보면 어떨까?

최근 들어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이 중요해지면서 주민 중심, 생활현장 중심의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 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나와 이웃을 재발견하고 공감하면서 공동체적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다. 함께 일을 기획하고 마을공동체에서 이를 실천해보려는 창조적인 소통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에서 생활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자발성’과 ‘일상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우리 이천은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일상의 공간에서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힘써왔을까? 얼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해왔을까?

이런 현실인식 속에서 지금 이천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는 이것이다. 지역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창의적으로 해석하며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시민계층을 육성하는 일이다. 문화 시설이나 공간, 문화 인프라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주민들의 이해수준에서 시작하며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같이 호흡하고 주민들에게 성과를 돌려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문화운동가, 문화기획자가 필요한 것이다. 생활문화동아리, 생활문화공동체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근거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7. 삶의 냄새가 폴폴나는 삶의 현장에 주목하자!

그동안 우리는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했다. 예술과 문화 활동은 공연장과 미술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했다. 그런 고정관념의 연장선에서 전통은 향교와 서원, 박물관에서만 구경할 수 있는 걸로 생각했다.

그러나 진정한 생활문화예술은 근사한 문화시설과 공간 너머에 있고, 주민을 관객의 자리에 앉히려는 태도 너머에 존재한다.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그대로 전시장이 되고 마을의 골목에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 그대로 문화가 되는 그런 생활문화가 지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천의 평생학습, 이천의 문화예술교육, 이천의 생활문화 프로그램은 아직 강사, 강좌 중심이다. 동아리 중심, 활동 중심, 생활현장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가기에는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전문예술인 위주의 기능이나 기술 전수, 자격취득 과정, 또는 취미교실이나 문화센터 성격의 교육 프로그램이 아직도 대부분이다.

문화예술교육은 전문예술인이 또 다른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이 아니다. 생활예술은 전문예술의 하위 범주도 아니고 프로 대 아마추어의 관계는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여전히 예술인들은 예술교육을 그들의 전유물로 생각한다. 전문예술인은 ‘갑’이 되고 배우는 사람은 ‘을’이 된다. 배우는 사람은 늘 대상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생활문화가 지향하는 방향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생활문화라는 개념이 담고 있는 엄청난 변화를 지역사회에 녹여낼 수 있을까? 그동안 지역에서 해왔던 문화예술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문화예술강사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으로 전락하지는 않았는가? 정부의 학교 예술강사 파견사업은 빗나가도 한참은 빗나갔다. 여전히 구태의연한 발상이 정책 속에 섞여있다.

어디 정책만 그런가? 지역문화에도 지역의 고유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들이 섞여있다. 이렇게 혼재된 지역문화에서 무엇이 우리 지역의 정체성인지, 무엇이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인지 찾아내기가 어려워졌다. 지역을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없이 앞선 지역만을 따라가다 보니 지역과 지역의 차이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다움을 발견하는 일, 그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를 찾는 일을 포기할 것인가? 시간이 갈수록 이런 정체성의 위기와 도전은 계속될 것이고 그 속에서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가 미망과 혼란에 빠져 들수록 더욱 더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것은 지역의 내부로, 우리 자신에게로 시야를 돌려 삶의 냄새가 폴폴 나는 주민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 단위의 개념에 ‘코뮌’(commune)이 있다. 코뮌은 하루 동안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뜻한다. 그 이상이 되면 자치적으로 통치하기가 어려워진다.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범위는 단순하다. 내가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리와 공간,내가 속한 동아리와 모임, 내가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이천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롭게 풀어나가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야별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분들이지만 그들이 이천이라는 지역에 접근하는 방식과 수준은 다양했다. 이를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고 종합해 낼 수 있는 것은 이 강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거기에 코뮌이 존재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이천에 대해 고민했고 자기다움을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II. 아직 끝나지 않은 이천의 이야기



왜 '스토리텔링'인가?

- 꿈보다 '해몽'이고,
역사보다 '이야기'가 더 중요한 시대 -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문화비평가이자 실천학자. 대안학교 맑은샘초등학교 설립. 장애인교육기관 베다니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90년대 한국의 경제를 견인해온 대기업과 저임금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환경·교육·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며 통섭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과학기술과 물질문명, 성과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천에 왜 인문학이 필요한지, 어떤 인문학이 필요한지 이야기한다.

1. 이야기의 생명성

이천의 이야기라고 하면 단순히 이천 지역에 전래되어온 민담이나 전설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들이 단지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새롭게 해석되면서 다시 만들어지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야기가 가진 생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는 채록되면 이야기(story)로 그쳐버리지만 이야기하는 사람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짐으로써(telling) 생명력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는 이야기하는 행위이고 이야기되어짐으로써 이야기하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로 변화시킨다. 우리가 이 인문학강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명사'로서의 '이야기'(story)가 아니라 '동사'로서의 '이야기하는 것

'(storytelling)이다.

지난 주 프롤로그때 말한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다. 역사를 뜻하는 영어의 '히스토리'(History)를 페미니스트들은 '히즈 스토리'(His Story)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허스토리'(Her Story) 개념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그의 이야기', '남성권력의 이야기', '왕조 중심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새롭게 여성들의 시각에서 역사를 다시 읽어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신화'를 뜻하는 뮈토스(Mythos)는 '신들의 이야기',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야기는 어디 있는가? 그것을 '히스토리'(History)라고 한다면, 엄밀히 말해서 남성 중심의 이야기가 아닌, 여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어야 진정한 역사가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의 역사, 권력을 차지한 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역사, 그래서 가난한 백성은 다만 시혜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을 뿐인 왕조사를 걷어치우고 새롭게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중앙사의 변두리에서 지역을 바라보는 향토사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제는 과감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말해보자는 것이다.



21세기를 문화의 시대, 감성의 시대, 그래서 여성적 감수성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하는 시대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 딸들의 이야기, 한 집안과 가문에서 자식을 기르고 인물을 키워내며 마을과 공동체를 지탱하고 세대에서 세대로 생명력을 이어왔던 여성들

의 이야기를 여성들의 입으로 말하고 여성들의 손으로 다시 써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역사가 되었건, 마을의 이야기가 되었건 그동안 소외되고 변두리로 밀려나서 숨죽이고 살아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려는 이 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 '이천을 스토리텔링하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그동안 편찬되었던 사료들에 보이는 그 지역에 관한 기록들을 모아보면 그것이 지역의 역사가 될까? 아니면 중앙의 관리가 파견되어 중앙정부에 필요한 조세와 부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인구와 가구수, 토지와 특산물 같은 기록들을 세세하게 기록해놓은 관찬 읍지류를 통괄해보면 그 지역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중앙사의 변두리 역사에 불과한 향토사의 관점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우리들의 역사와 우리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인문학을 통해 시도해보려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나 '허스토리'가 아니다. 그런 삼인칭의 역사, 삼인칭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인칭으로서의 '우리' 속에서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나', 우리 지역에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부대끼며 한데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인 '아워 스토리'(Our Story)를 풀어가자는 것이 이번 인문학 강좌의 주제이고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냄새가 폴폴 나는 주민들의 이야기, 공동체를 이루며 대대로 살아왔던 우리 마을의 이야기, 농부와 대장장이와 씨름꾼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다시 풀어가야 한다.

물론 이 자리에는 단순히 이천의 민담과 전설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록된 이야기는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니다. 이야기는 원래 책에 기록되기 전부터 사람들의 몸에 있었다.

몸에 배어있고 삶에 배어있고 그들의 아픔 속에, 그리고 일상의 생활 속에 녹아있었다.

그래서 이야기는 명사가 아니라는 것, 사람과 같이 살아 숨 쉬며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며 움직이는 동사라는 것 - 그것이 이야기의 본질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표본화된 '이야기'를 한꺼풀 벗겨보면 이야기는 항상 우리 자신의 삶의 토대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이야기는 과거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와서 우리 안에서 잉태되고 다시 우리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 그것이 이야기가 갖는 생명성이다.

이 인문학강좌를 통해 우리는 열 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서로 다른 각도로 우리 이천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이분들은 쉽지 않게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각에서 이천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또 화두를 던질 것인데, 때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도할 용기를 주기도 할 것이고 우리의 약점과 극복하지 못했던 편협함에 대해 뼈아픈 지적을 하기도 할 것이다. 이런 길고 긴 자기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야기와 잠재적 콘텐츠들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풀어내느냐 하는 것은 역시 우리들의 과제로 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삶의 변용, 세 가지 삶의 변화

고대 인도에는 브라만이 지켜야 할 네 단계의 생활시기가 있었다. 학습기, 가주기, 삼림기, 유랑기 - 이렇게 인생에서 네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먼저 '학습기'(學習期; Brahmachari)는 어린 시절에 베다와 인생에 대해 스승으로부터 학습을 받는 시기를 말한다. '가주기'(家住期; Grihastha)는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다.

그리고 세 번째 '삼림기'(森林期; Vanastha)는 자녀를 다 키우고 가정의 책임을 다 한 후에 출가하여 삼림 속에 들어가 고행과 명상으로 인생에

대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시기를 말한다. 네 번째 ‘유행기’(遊行期; Sannyasa)는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인연에서 벗어나 여기저기를 유랑하며 사는 단계다.

생활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들어갈 때는 입는 것도 달라지고 이름도 달라진다. 새로운 생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전에 익숙해 있던 생활습관과 관념, 사고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면서 그 변화를 즐기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니이체(F. Nietzsche)는 인간의 삶의 변화를 ‘세 단계’로 이야기한다.

맨 처음 단계가 ‘낙타’(das Kameel)의 단계다. 이 단계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낙타처럼 등에 짐을 잔뜩 싣고 뜨거운 사막을 걸어가야만 한다. 삶의 모든 조건, 모든 인습들을 참고 묵묵히 견뎌야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사자’(Der Löwe)의 단계인데, 사자는 기존의 종교와 도덕, 권위에 맞서 도전하며 온갖 권위와 억누르는 권력을 용납하지 않고 투쟁하면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das Kind)의 단계에 들어서면 원한이나 상처에 매이지 않고 무구한 어린이와 같이 늘 새로운 놀이처럼 삶을 시작하게 된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간순간을 즐겨워하며 삶을 긍정하는 단계다.

이처럼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간조건의 한계와 삶의 현실에 직면해서 스스로 삶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이야기는 원래부터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내가 들은 것이다. 그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공간에서 잉태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내 안에 머물면서 자라다가 내가 이야기를 발하는 순간 그 이야기는 세상 속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 이야기에는 나의 경험이 들어가 있고 나의 눈물과 기쁨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나의 이야기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사람 속에서 뜨거운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야 한다.

3. 고갈의 시대, 새로운 이야기는 가능한가?



초봄에 모처럼 비가 내린다. 수개월 동안 긴 가뭄이 계속되었기에 지금 내리는 비는 농부에게는 그야말로 단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파종을 앞두고 내리는 비를 24절기로는 곡우(穀雨)라고 부른다. 문학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고갈의 시대라고 한

다. 이미 많은 것들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반복되고 이야기되었으므로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수궁이 간다. 이런 현대적 위기의 상황을 빗대어서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고갈의 시대, 고갈의 문학으로 규정한다.

세헤라자드, 그리고 두냐자드

지난 시간 소개했던 세헤라자드의 ‘천일야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위기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세헤라자드는 천일야화의 주인공이다. 아내의 불륜으로 여성에 대한 의심과 분노에 사로잡힌 샤리아(Shahryar) 왕은 매일 밤 처녀를 데리고 잔 뒤 다음 날이면 모두 죽이는데 이로 인해 온 나라가 공포에 떨게 되었다.

이때 지혜로운 여성 세헤라자드(Scheherazade)가 자원해서 왕의 침소로 들어간다. 그녀는 왕에게 청해서 동생 두냐자드(Dunyazade)를 침소로 불러들이고 샤리아 왕과 그녀의 동생을 청중으로 하여 매일 밤 한 가지씩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렇게 해서 천 개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천 일간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왕은 이야기에 감동하여 세헤라자드를 죽이지 않고 그녀를 왕비로 맞아들인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샤리아 왕의 동생인 샤자만 왕은 세헤라자드의 여동생인 두냐자드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와 결혼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녀에게도 천 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하지만 언니가 이미 천 개의 이야기를 다 말해버려서 두냐자드는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를 할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 두냐자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런 상황에서 대체 새로운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 이천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아닐까? 이천지역에서 채록된 민담이나 전설들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뚜렷하게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차별화된 문화자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만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이야기, 이천만의 독특한 특색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일까? 고갈의 땅에는 언제 곡우의 단비가 내릴 것인가? 그게 그거인 이야기 말고 이천만의 이야기, 아주 새롭고 독창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불가능한 것일까?

우리 삶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나만이 가진 고유하고 나만이 겪은 이야기, 나의 삶의 경험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면접을 보더라도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들이 했던 그런 정도의 이야기와 경험을 가지고는 바늘구멍 같이 좁디좁은 취업의 문을 통과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네이버 지식인이 가르쳐 줄 수 없는 지식, 그리고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수십 권에 달하는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을 연구실이나 서재에 소장하는 것이 과거엔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을 보여주는 자랑거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런 대용량의 지식백과가 사이버 공간으로 들어왔다. 1800만 개 이상의 표제어가 올라와 있는 위키피디아는 브리태니카의 정보량을 뛰어넘었다. 위키피디아 검색을 통해 클릭 몇 번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의 내용은 정말 경이롭기까지 하다.

지금 시대에는 TV를 켜면 너무도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 TV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때는 안테나를 산 위에다 설치해야만 겨우 화면을 볼 수 있었다. 옥상안테나를 가지고는 잡음이 심해서 도저히 시청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다. 수많은 잡음 가운데 원하는 신호를 골라내서 증폭시켜야만 선명한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21세기를 지식정보화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도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파묻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 원하는 자료를 찾는 것은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망망한 지식의 바다 위에서 우리 자신을 잃고 표류하는 것이다.

신종직업, 광고물 폐기자

전후 독일문학의 양심이라 불린 하인리히 뵐(Heinrich Böll, 1917~1985)은 2차 세계대전의 혼란한 사회와 황폐한 인간상을 그린 작품을 많이 썼다. 그가 쓴 작품 가운데 1957년에 발표한 ‘광고물 폐기자’(Der Wegwerfer)라는 단편이 있다.

이 소설은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류가 만나게 될 현실을 그리고 있는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에게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매일 같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쓸데없는 홍보용 편지와, 광고인쇄물을 버리는 일로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그래서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보내는 정보들을 정리해서 폐기해주는 직업, 아무 필요도 없는 쓰레기더미 광고물을 정리해주는 ‘광고물 폐기자’, ‘분류기술자’라는 직업이 앞으로 생겨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인리히 뵐(Heinrich Böll)

하인리히 뵐이 예견한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소비사회의 문제, 상품과 자본이 판치는 사회에서, 매일매일 미디어를 통해 쏟아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내가 필요로 하고, 알아야 하는 지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길을 헤매고 있는 ‘고갈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야흐로 이야기에 대한 갈망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게 그거인 이야기, 인터넷과 SNS에서 계속 실어 나르고 반복될 뿐인 뻔한 이야기가 우주공간에 우주쓰레기가 떠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는 진짜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렇다면 진짜는 죽은 것일까? 우리는 많은 영화에서 진짜가 사라지면 가짜도 환영처럼 사라져버리는 장면을 목격하곤 한다. 가짜가 우리 주변을 무수히 많이 떠돌고 있다면 그것은 어디엔가 진짜가 존재한다는 반증이 되는 셈이다. 서유기의 주인공인 손오공은 분신술에 능해서 그의 강한 적들을 상대할 때면 곧잘 그의 머리털을 뽑아 수많은 분신들을 내곤 했다. 하지만 그 분신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진짜는 어디엔가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이때 수많은 손오공들 가운데 진짜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진짜는 그림자가 있다. 실체감과 무게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환영에 불과한 분신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다. 그에 반해 진짜는 몸을 가지고 있기에 감각을 느끼며 몸의 무게로 인해 땅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바람이 불 때 차가움과 공기의 저항을 느낀다.

아무리 21세기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어딘가 진짜는 존재한다. 누군가 만일 남들이 하지 못한 이야기, 이제까지 듣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때 사람들은 외칠 것이다. - “여기 진짜가 나타났다!” 그럼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새로운 이야기란 무엇일까?

반지의 제왕, 그리고 호빗 이야기

이야기는 이야기에서 나온다. 마치 양이 양을 낳는 것처럼 이야기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이야기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 자체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플롯과 이야기 구조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이야기의 전후로 이야기를 확장해볼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1970년대부터 ‘프리퀄’(Prequel) 영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프리퀄은 본편의 이야기보다 앞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말해주는 영화다. 본편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흘러왔는지 그 이유와 과정을 설명해주는 속편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의 확장이다. 스타워



즈 에피소드 1~3편은 원래 만들어진 스타워즈 시리즈의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여준다.

2012년부터 개봉되기 시작한 ‘호빗’(The Hobbit) 시리즈 영화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주인공이었던 ‘프로도 베긴스’(Frodo Baggins)의 삼촌인 ‘빌보 베긴스’(Bilbo Baggins)

의 젊었을 적 모험담을 그린 프리퀄이다. 우리 시대에 새로운 이야기는 불가능한가? 그렇다면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그 이야기 이전의 이야기(Prequel), 그리고 그 이야기 이후의 이야기(Sequel)를 상상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확장되어 풍부해져 간다.

4. 호기심과 욕망 - 유혹에서 이야기는 비롯된다

고디바 부인 이야기

별거벗은 ‘고디바 부인’(Lady Godiva)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1926년 생긴 세계 3대 초콜릿 브랜드 ‘고디바’는 수백 년 전 영국 코벤트리 영주의 아내였던 고디바 부인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했다. 고디바 부인의 전설을 스토리로 활용해 이 회사는 초콜릿 포장에도 말을 타고 있는 고디바 부인을 그려 넣었다.

고디바 부인은 남편인 영주가 주민들에게 너무 혹독하게 세금을 부과해 살기가 힘들어지자 남편에게 세금을 줄여달라고 간청한다. 그러자 영주는 부인의 청을 거절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건다. 그 조건이란 ‘당신이 옷을 벗고 알몸인 채 영지를 돌면 세금을 내려 주겠다’는 것이다.

고디바 부인은 주민들의 세금을 낮추어주기 위해 알몸인 채로 말을 타

고 영지를 돌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실행하기로 했다. 영주의 부인이 자신들을 위해 그런 수치를 감당하겠다고 하자 그에 감동한 영지의 백성들은 그날 온 창문을 가리고 고디바 부인이 영지를 도는 동안 누구도 그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기로 약속한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고디바 부인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영지를 도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모든 창문에 커튼을 치고 누구도 밖을 내다보지 않았지만, 단 한 사람 양복재단사였던 톰이 커튼을 들어 올려 그녀의 알몸을 엿본다. 관음증자를 ‘엿보는 톰(Peeping Tom)’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이야기다. 양복재단사 톰은 고디바의 몸을 훑쳐보려 한 벌로 그 순간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보면, 결국은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암시가 ‘피핑 톰’의 일화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수산나 부인 이야기

아름다운 여성의 벗은 몸을 훑쳐본다는 유형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이야기다. 구약성서에도 다윗 왕이 목욕을 하고 있는 ‘밋세바’(Bathsheba)라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다 나무꾼이 선녀가 목욕하는 장면을 훑쳐보는 대목이 있다. 구약성서의 외경인 『수산나서』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바빌론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 요하김의 아내 수산나는 정숙하고 아름다운 부인이다. 요하김은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그를 찾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수산나 부인은 방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 정원을 산책하다가 목욕을 하게 된다. 하녀들에게 향유와 갈아입을 옷을 가져오도록 이른 뒤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간다.

한참 목욕을 하고 있는 그녀를 몰래 훑쳐보는 이들은 이 지역의 유명한 장로들이었다. 이들이 평소 아름다운 수산나 부인에게 반해 그녀에게 음욕을 품어 오다 우연히 그녀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틴토레토(Tintoretto)가 그린 그림을 자세히 보면 두 남자가 보인다. 그녀 앞 장미꽃 울타리 벽 앞에 나이가 지긋한 분이 몸을 굽혀 그녀를 훑쳐보고 있다. 그녀의 벗은 몸을 보느라 무거운 옷을 입은 채 웅크리고 목을 뺀 몹시 불편한 자세도 참을 만했던가 보다. 그런가 하면 장미 울타리 끝 쪽에도 나이든 남자가 그녀의 벗은 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같은 장면을 묘사한 루벤스의 그림을 보면 더 가관이다. 수산나 부인을 훑쳐보던 남자들이 마침내 행동에 나선다. 두 원로들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를 범하려 달려들자 수산나는 죽을 각오로 이들을 물리쳤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양심을 품게 된 두 장로는 수산나 부인을 모함하기로 했다. 수산나가 젊은 남자와 간통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법정에 고소를 한 것이다. 장로들이 치밀하게 준비를 한 탓인지 재판은 수산나 부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어 그녀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는다.



왼쪽: '목욕하는 수산나' 1555, 틴토레토. 오른쪽: '수산나와 장로들' 1607. 루벤스

하지만 이때 유대에서 온 지혜로운 청년 다니엘이 등장한다. 다니엘은 두 장로에게 각각 수산나 부인과 젊은 남자가 어디에서 관계하였는지 묻자, 한 장로는 ‘떡갈나무 아래’라고 대답했고, 다른 장로는 ‘유향나무 아래’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해서 위증이 탄로 난 두 장로는 돌에 맞아 죽고, 수산나 부인은 무죄로 석방돼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아씨시의 장미 이야기



포르치운쿨라의 프란치스코 장미 벽화

몇 해 전 이탈리아 여행을 갔을 때 아씨시(Assisi)라는 도시에서 5일간 머물렀던 적이 있다. 아씨시는 중세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작은 도시로 성프란치스코가 태어나고 자라고 죽었던 마을이다. ‘천사들의 성모마리아 대성당’(Basilica of Santa Maria degli Angeli)은 성인의 자취

를 고스란히 간직한 성당이다.

이 성당이 특별한 건 성당 속에 또 하나의 작은 성당인 ‘포르치운쿨라’(Portiuncula)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성당 안에 ‘로제토’(Roseto)라 부르는 정원이 있다. 아름다운 장미의 정원이다. 그런데 이 정원에 있는 장미에는 가시가 없다. 최근에는 얼마 전 인위적으로 가시가 없는 장미를 개발하는데 성공해서 유럽으로 수출한다는 뉴스를 들은 적도 있다. 그런데 원래 가시가 없는 장미가 바로 이 지역에서만 자라고 다른 곳에 옮겨 심으면 다시 가시가 자란다고 한다.

여기에는 성 프란치스코가 청빈의 수도생활을 하면서 생겨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진다. 성프란치스코는 어느 날 엄습해온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너무도 견디기 힘들어서 그 정욕을 이기기 위해 옷을 벗고 주

변에 심어놓은 장미 가시덤불에 마구 뒹굴었다고 한다. 온 몸이 장미 가시에 찢기며 상처가 나고 피가 흘렀다. 바로 그 순간 성인의 몸에 가시가 닿으면서 놀랍게도 가시가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그때부터 이 지역에는 가시 없는 장미가 자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원에 조성된 장미를 찬찬히 살펴보니 실제로도 가시가 보이지 않았다. 학명으로도 이 지역에서 자라는 장미를 ‘로사 카니나 아씨시엔시스’(Rosa Canina Assisiensis)라고 부르고 있다.

이 그림은 성당 안쪽 장미경당으로 들어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가운데에는 성인이 장미 관목 덩불 속에서 옷을 벗고 있고 오른쪽에는 천사가 성인을 맞이하고 있고 왼쪽에는 사단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림 속의 장미를 살펴보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 왼쪽에는 장미의 가시가 가득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장미의 가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성인의 눈은 인간적인 유혹에 어쩔 수 없이 고통받고 있는 슬픔에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하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기존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옛 것에서 새로움을 끌어낼 수 있을까 - 이런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소개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후속 이야기에 더 무게 중심이 있다.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이야기의 중심이 뒤로 옮겨지는 것이다.

5. 고갈의 문학, 우리는 전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 이천의 도자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은 도자기는 꼭 그릇이어야만 할까, 그리고 꼭 흙으로 빚어야만 할까 - 하는 점이다. 최근에 설봉공원에 있는 이천시립 월전미술관을 방문했더니 그 전시회에서는 도자기가 흙이 아니라 붓끝으로 빚어지고 물레 위가 아니라 화폭 위에 들어가 있었다. 그림 속에 표현된 도자기라는 전시 주제는 이

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도자기의 물성,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소통, 도자기의 정신성, 그리고 도자기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는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다. 이천은 도자기의 고장인가? 그리고 계속 도자기만을 고집해야 하는가? 창조적인 도자문화의 도시로 확장될 가능성은 없는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 ‘구엘공원’(Park Guell)이 있다. 구엘공원은 20세기의 위대한 건축가 가우디(Antoni Gaudi)가 설계하고 건축한 것이다. 바르셀로나의 교외 언덕에 있는 이 공원은 온통 세라믹 타일과 모자이크로 조성된 수많은 건축과 조형물과 가득하다.



그리고 공원의 모든 건축물들은 춤을 추듯 그리고 파도에 넘실거리듯 곡선으로 물결치며 흘러내린다. 어느 곳에도 직선으로 된 건물은 찾아볼 수 없다.

고집스럽게 곡선미를 추구하는 거장의 예술혼이 느껴진다. 구엘공원의 중앙광장에 있는 물결모양의 벤치에는 부서진 타일을 이용해서 구불구불 이어지는 열린 공간으로 시가지와 지중해의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데 이 벤치에는 늘 수많은 관광객으로 가득 차 앉을 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구엘공원에서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명소는 뭐니 뭐니 해도 세라믹 모자이크가 돋보이는 도마뱀 상이다.

우리 이천에도 이천의 도자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멋진 랜드마크나 예술적인 건축물이 만들어진다면 어떨까? 시내 곳곳에 세라믹 아트로 된 벤치가 놓여있고, 공공시설에는 예술적인 세라믹 소변기와 세면대가 설치되어있고, 거리 이름과 이정표, 간판, 건물의 벽과 담장, 문패

같이 소소한 시설물과 싸인물도 세라믹으로 표현되어있다면 어떨까?

이천을 ‘온천의 도시’하고 하는가? 그렇다면 사람들이 눈 덮인 미란다호텔 앞 광장에 세라믹타일로 조성된 족욕탕에서 족욕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는 장면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우리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도자문화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국내에서 유명한 도자기 도시로 만족하는가?

도자기축제는 도자기를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만의 생각으로는 절대 창의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없다. 세계적인 도자도시가 되려면 도자기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하다.

그래서 협업이 필요한 것이다. 도자기라는 실마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확장해 나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새로운 결과물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다.



몇 해 전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 100주년을 맞아 박물관 패션쇼를 한 적이 있다. '옷에 문화를 입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패션쇼였는데 정말 기발하고 독창적인 패션들이 선보였다. 백자 위에 그려진 담백한 문양을 패션에 적용하기도 하고, 고려청자의 도자기 문양을 차용해서 옷을 디자인 하거나, 청자를 헬멧으로 디자인해서 쓰고 나온 모델도 있었다. 전통문화와 현대패션의 융합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12세기의 고려청자인 표주박 주전자(일명 청자상감 포도 동자문 동채 주자)에 보면 8명의 아이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 이중섭의 그림 속에 들어와 있다. 이중섭은 이 표주박 주전자의 어린아이 모습을 너무도 좋아했다고 한다. 이렇게 고리타분하게만 느껴졌던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서 수많은 콘텐츠와 소재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훈민정음으로 디자인한 패션은 또 어떤가? 피겨여왕 김연아가 훈민정음 옷을 입으니 더 멋지고 근사하기만 하다. 한글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고유한 문화콘텐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전통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열려야만 한다. 우리가 전통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이해 수준에 따라 전통은 우리를 옳아매는 밧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문화콘텐츠의 보물창고가 될 수도 있다.



6. 중년의 위기를 맞은 페르세우스

‘베르사체’(Versace)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패션 브랜드다. 상식을 뛰어넘는 자유스럽고 도발적인 의상들을 선보이면서 관능적이고 화려한 의상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그리스 신화 속의 메두사(Medusa)를 브랜드 로고로 삼고 있다. 이 회사가 추구하는 패션의 철학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메두사는 바라보아서는 안 될 공포스런 괴물이다. 누구라도 이 괴물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온 몸이 돌로 굳어버려

죽게 되기 때문이다.

메두사는 고르곤 괴물 자매들 가운데 막내로 머리카락이 무수히 많은 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메두사를 물리친 영웅이 바로 페르세우스다.¹⁾ 페르세우스를 도와주기 위해 아테나 여신이 신들의 도구들을 페르세우스에게 빌려주었는데, 아테나의 거울 방패인 아이기스(Aegis), 메두사의 피의 독에도 훼손되지 않는 헤라 여신의 주머니 ‘키비시스’(Kibisis), 머리에 쓰면 몸이 보이지 않게 되는 하데스의 투구 ‘퀴네에’(Kynee),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샌들 ‘탈라리아’(Talaria), 불사의 신도 상처를 입으면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아레스의 검 ‘하르페’(Harpe)가 그것이다. 이렇게 신들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무기로 무장한 페르세우스는 방패를 거울삼아 마침내 메두사의 머리를 벨 수 있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영웅 페르세우스에게 갱년기가 찾아온다. 중년을 넘어선 페르세우스는 이제 결혼 생활도, 수십 년간의 왕 노릇도 권태롭기 그지없다. 메두사를 벨 때 나온 방사선에 너무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인지 몸도 굳어지고 배가 나와서 검을 다루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 그는 인생의 새로운 활기를 찾기 위해 과거로의 여행을 떠난다. 그가 이루었던 젊은 시절의 영광을 되새기며 신전을 거닐던 그는 깊은 회오리에 사로잡힌다.

1)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는 자신이 외손자에게 죽게 될 것이라는 신탁을 받고 이를 두려워해서 자신의 딸인 다나에를 청동탑에 가두어 두었다. 그러자 제우스는 황금의 구름이 되어 탑 속에 들어가 비를 뿌렸고 비를 맞은 다나에는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다. 어느날 탑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된 아크리시오스는 그 아기가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딸과 아기를 궤짝에 넣어 바다에 띄워 보냈다. 이 궤짝은 세리포스 섬으로 떠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딕티스라는 어부가 이들을 구했고 페르세우스는 아들처럼 길러졌다. 그러나 세리포스의 왕 폴리덱테스는 아름다운 다나에와 결혼하기 위해 페르세우스에게 메두사의 머리를 베어오도록 계획을 꾸몄다.

‘나는 진정 영웅이었나?’

‘내가 했던 모험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따를 만한 영웅적인 행동이었나? 진정한 영웅이라면 안전장치 없이도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페르세우스는 비로소 자기가 영웅이 아니었음을, 그가 이룬 업적은 영웅적인 모험담이 되기에는 너무도 부족했음을 깨닫는다. 여기서 메두사는 바로 마주 할 수 없는 현실, 대면하기 싫은 자신의 나약함, 공포스런 삶의 진실을 말한다. 그리고 그의 몸이 점점 굳어져 간다는 것은 메두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았어도 결국 그도 돌로 변할 것이라는 가혹한 운명을 예감하게 한다.

깊은 회오 속에서 마침내 페르세우스는 무엇이 진실인지 깨닫는다. 자신이 진정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공포스럽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했어야 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다시 한 번 고르곤 자매들이 있는 동굴로 찾아가 메두사와 대결하려고 한다.

이번에는 신들이 마련해준 무기의 힘을 빌리지 않고 아무런 방비도 없이 이 끔찍한 현실을 온 몸을 다해 끌어안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페르세우스는 진정한 영웅의 반열에 오르고 하늘의 별이 되어 빛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20세기의 이야기로 변조된 영웅 페르세우스의 신화다. 포스트모던 문학의 기수 존 바스(John Barth)에 의해 포스트모던적으로 그려진 새로운 페르세우스의 탄생이다.

7. 인도의 지혜문학 - ‘개미들의 행진’ 이야기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혜문학’이라는 형태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다. 수메르신화에 나오는 길가메쉬 서사시나, 인도의 바가밧기타 같

은 베다문학, 구약성서에 나오는 잠언과 전도서, 욥기도 일종의 지혜문학이다. 지혜문학은 인생의 허무함과 올바른 길, 인간의 지성과 그 능력의 한계를 깨우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의 대표적인 지혜문학 전승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인도신화는 그리스신화와 여러 면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신화의 제우스에 해당하는 신이 바로 ‘인드라’ 신이다. 제우스가 그 이전에 생겨난 수많은 티탄들을 물리치고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아 올림포스의 최고신으로 자리 잡았던 것처럼 인드라도 최고신으로 자리 잡기까지 여러 난관을 거쳐야 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세계는 ‘브리트라’(Vritra)라고 불리는 거대한 용이 세상의 모든 물들 - 대양과 바다, 강의 물들을 모두 마셔버리고 모든 신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 세상의 모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한다. 그때 모든 신들이 인드라를 찾아와 제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러자 인드라 신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 끝에 문득 깨달은 것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기였다. 인드라는 번개상자를 열어서 있는 힘을 다해 모든 번개를 브리트라를 향해 내던졌다. 한꺼번에 모든 번개와 뇌우를 맞은 브리트라는 힘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다시 물이 흐르고 세상은 그 물로 인해 생기를 되찾았다.



이 광경을 지켜본 신들이 인드라 신의 능력에 다들 놀라 경탄하자 인드라는 ‘나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우쭐해져서 신들의 처소인 우주산으로 올라간다. 인드라는 ‘비쉬바카르만’(Vishvakarman)이라는 건축가 신을 불러 우주산에 자신의 권능에 어울릴만한 크고 화려한 궁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궁전이 지어져갈 때마다 인드라가 와서 보고는 그 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지으라고 요구한다.

견디다 못한 건축가 신은 창조신인 브라만을 찾아가 탄원하기에 이른 다. 브라만은 신의 영광을 상징하는 연꽃 위에 앉아있는데 이 연꽃은 비쉬누 신의 배꼽에서 자라고 있다. 건축가 신이 돌아간 뒤 브라만 신은 연꽃에서 내려와 잠이 든 비쉬누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한다. 비쉬누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젓는다.

다음날 우주산 꼭대기에 지어지고 있는 궁전 문 앞에 검푸른 피부를 가진 소년이 나타난다. 지혜의 후광으로 빛나는 소년을 기이하게 여겨 문지기가 그 소년을 인드라에게 인도하니 인드라가 그에게 무슨 일로 왔는지 묻는다.

“소년이여 무슨 일로 내 궁전에 찾아왔는가?”

“내 듣자니 당신 이전의 어떤 인드라들도 지은 적이 없는 크고 화려한 궁전을 짓는다면데요? 완성하지 못할 궁전을 왜 지으려 하십니까?”

“아니 내 앞의 인드라들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나?”

“나는 그대 앞에서 수많은 인드라들이 오고 가고 사라지는 것을 보았소. 이 우주가 어떻게 태어나고 종말을 맞게 되는지를. 비쉬누는 우주의 바다에서 잠을 자는데 그 비쉬누의 배꼽에서 연꽃이 자라고 그 연꽃 위에 창조신 브라만이 앉아있지요.

브라만이 눈을 뜨면 세상이 존재하기 시작해서 다시 눈을 감으면 세상도 끝나지요. 이렇게 브라만의 하루에 78명의 인드라가 태어났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비쉬누의 배꼽에서 연꽃이 지면 브라만도 죽고 다시 연꽃이 피면 그 위에 새 브라만이 태어납니다. 브라만이 연꽃 위에 앉아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비쉬누의 배꼽에서 수없이 피고 지는 연꽃을 생각해 보세요.

바다의 물들이 모두 몇 개의 물방울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해변의 모래알이 모두 몇 개나 되는지 셀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있다 하더라도 저 브라만의 수는 도저히 셀 수 없을 거요. 그러니 오 고가는 인드라의 수는 말할 나위가 없지요.”

소년이 이렇게 말하는 동안 궁전 한 구석에서 수많은 개미떼가 바닥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 개미떼를 보고 소년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자 불안해진 인드라가 소년에게 그 이유를 묻는다. 그러자 소년은 개미떼를 가리키며 대답한다.

“이 개미들 하나하나가 모두 그대 이전에 그 옛날 이 땅을 거쳐 간 인드라들이다. 수많은 영겁의 세월동안 고매한 행위와 덕업을 쌓아 인드라의 지위에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그대와 똑같이 괴물의 정수리에 벼락을 내리치고는 ‘내가 세상을 구했다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하고 우쭐해져서 크고 화려한 궁전을 짓고는 다시 바닥으로 떨어져 개미에 이르게 된 것이다.”

소년이 이야기를 마치자 이번에는 누더기 차림의 요가행자가 궁전에 들어왔다. 늙은 행자는 맨몸에 사타구니만 가리고 있었는데 가슴에는 둥그렇게 털이 수북이 나 있었지만 한복판에는 털이 반쯤 빠지고 없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해 인드라가 그가 누구인지, 왜 찾아왔는지, 행색이 왜 그런지, 그리고 가슴 복판의 털은 왜 그런 모양으로 빠지게 된 건지 물으니 늙은 행자가 대답한다.

“내 이름은 털보라 하오.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기에 인드라를 만나러 왔다오. 내게는 집이 없소. 집을 갖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기에, 결혼도 자식도 갖지 않기로 했소. 그저 동냥으로 살아가며 비슈누의 발치에서 명상을 하지요.

그대도 알겠지만 인드라가 한 세상을 다스리다 죽으면 그와 함께 세상도 사라지고 말지요. 인드라의 수명은 43만 2천년인데 인드라가 세상을 다스리는 시간은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고요. 인드라 하나가 죽을 때마다 내 가슴털이 하나씩 빠진다고요.

내게는 브라만의 수명에 해당하는 가슴털이 나 있소. 처음엔 수북했는데 벌써 가슴에 털이 반이나 빠졌으니 나머지도 곧 빠질 테지요. 그러면 저도 죽게 됩니다.

비쉬누의 눈이 한번 깜빡일 때마다 하나의 브라만이 사라져 버립니다. 인생은 그렇게 짧고 허무한데 집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크고 화려한 궁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마치고 소년과 요가행자는 홀연히 사라져버린다. 소년은 비쉬누 신의 화신이었고 요가행자는 어리석은 인드라를 가르치기 위해 온 시바 신이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런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삶의 인드라들이다. 누구나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가 살아오면서 갖게 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의 의식 속에 형성된 세계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자기 삶의 주인이고 인드라로서 중대한 삶의 결단을 해야만 한다.

스스로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신이라고 우쭐대면서 자기 삶에 군림하며 독선적으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겸손히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이 얼마나 작고 보잘 것 없으며 또 그 기간은 얼마나 짧고 허무한지 깨닫고 현자의 삶을 살 것인가? 현자의 삶을 택한다 해도 당신은 또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한다. 세상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 고행과 명상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천복에 만족하며 왕으로서 아내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것인가?

8. 이천의 지해문학 - '효양산 금송아지' 이야기

지해문학은 이와 같이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인간의 본질과 그 한계를 알게 하는 힘이 있다. 그런데 효양산에도 이렇게 세상권력에 눈이 먼, 어리석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먼저 산신사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자연물에 예로부터 산마다 그 산을 수호하는 정령이 있다고 믿었다. 바로 산신사상이다.

산은 신이 강림하는 곳이고 신과 만나는 신성한 장소로 하늘과 땅 사이에 자리 잡아 그 두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단군신화에 보면 사람이 된 곰은 인간세계로 들어갔지만 사람이 되는데 실패한 범은 산으로 들어가 산신령을 돕는 역할로 등장한다. 산신령은 그 산의 지세와 위용, 높이에 따라 사람들에게 외경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지역을 수호하는 신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산신당이나 산신각에 모셔지기도 한다.

이천에도 산신령과 관계된 여러 산들이 있다. 원적산, 소당산, 양각산, 건지산, 마옥산, 노성산, 설봉산, 마이산, 백족산, 설봉산, 저명산, 그리고 효양산. 이 가운데 효양산은 178m밖에 안되는 작은 산이다. 그런데 이 작은 산이 신화의 세계에서는 가장 장대한 산으로 변모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효양산을 지키는 산신령이 영험하기 때문이다.



이천의 지형과 산신관련 설화가 있는 주요 산

산신령은 자기가 맡은 산과 그 주변의 지역을 지키며 그 경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보호하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장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치성을 드리며 안전을 기원하고 아들을 점지해달라거나 소원을 빌기도 한다.

산마다 그 산을 관장하는 산신령들이 있다면 산의 경역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나 주변 인간세계, 그리고 경계에 걸쳐 분쟁거리가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나 회의를 열릴 법도 하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산신령회의가 열리게 되면 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는 산신령이 있는데 그 분이 바로 효양산 산신령이라는 것이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기로 하자. 세계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또는 아시아의 스리랑카 같은 후진국의 대통령이 의장으로 선출이 되어 세계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다면 대단한 뉴스거리가 아닐 수 없다.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효양산은 언덕에 불과한 작은 산이다. 험산준령도 아닌 이 산이 모든 산들의 으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산이 갖고 있는 이야기 덕분이다.



중국 한대 황제의 대야(중국 쉬저우 박물관)

어느 날 중국황제의 세숫대야에 난데없이 황금송아지가 비친다. 그리고 그 황금송아지는 효양산의 금송아지임이 밝혀진다. 참 이상한 일이다. 중국에도 명산과 높은 산이 많고 많은데 왜 작고 불품없는 효양산이 비쳤을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첩첩산중으로 이어지면서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하는 것이다. 금송아지 전설의 이야기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 다른 이야기들과 분명히 다른 특색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가치와 의미가 숨어있는지 깊이 파헤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먼저 효양산의 산신령이 자신을 현현하는 방식이 서양의 이야기들과는

좀 다르다. 눈부신 광휘를 발하며 자신의 위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모습으로, 때로는 남루한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 중국의 사신을 따돌리기도 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피할 길을 귀뜸해 주기도 하며, 때로는 백발노인의 모습으로 현몽해서 앞날을 가르쳐주기도 한다. 그는 산신령 중의 산신령으로 추앙받는 존재다. 어찌 이런 작고 볼품없는 산의 신령이 모든 산신령들을 주재하고 그들의 리더가 될 수 있는가?

효양산은 겉으로 보기엔 야트막한 산이다. 그러나 이 산에는 아흔아홉 골짜기가 있다고 전해진다. 여덟 개나 되는 천하의 명당자리를 숨기고 있으며, 산 속 깊숙이 금베틀과 금송아지, 화수분과 같은 천하의 보물을 비장하고 있다.

천하의 보물과 명당을 비장하고 있으니 욕심 많은 이들이 기를 쓰고 산으로 들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하지만 이런 기막힌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을 지키는 ‘스마우그’ 같은 용이라든가 눈이 세 개 박힌 거인이 등장할 법도 한데 그런 무시무시한 영물은 이 산에 보이지 않는다.



톨킨이 스케치한 스마우그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보물은 지켜져 왔을까? 효양산은 아무에게나 그 품을 열지 않는다.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저 산 같지도 않은 산이요 작은 구름일 뿐이다. 그 산에 그 산신령이랄까. 효양산의 산신령은 아무에게나 현몽하지 않는다. 천하의 보물은 힘 있고, 돈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차지가 아니고 힘없고, 돈 없고, 바닥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잠시 희망을 주고는 사라져 버린다.

세상의 중심에 거대한 산이 하나 솟아있다. 그 산에는 천하의 보물 금송아지가 숨겨져 있다. 이 금송아지는 신묘한 힘이 있어 쓰다듬기만 해도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은 회복된다고 전해진다. 금송아지가 있는 곳에는 홍수나 가뭄이 없어 늘 풍년과 평화가 깃든다고 한다.

그런데 그 산이 바로 ‘효양산’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이다. 저렇게 변변찮은 작은 산이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말인가? 그런데 효양산의 보물을 찾아 저 멀리 중국에서 사신이 찾아온 것이다.

중국 사람들에게 세상의 중심은 ‘곤륜산’이다. 곤륜산은 신들이 거하는 낙원으로 그 높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산이다. 하지만 그런 곤륜산도 효양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효양산은 ‘우주산’(Cosmic Mountain)이기 때문이다. 한 백발의 노인이 사신에게 나타나 그에게 길을 가르쳐준다. 앞으로 얼마를 더 가야 효양산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자, 앞으로 오천 개의 역과 억만리를 지나 억억 개의 다리를 건너시오. 그리고 또 다시 이천 개의 역과 구만리 뜰을 지나면 거기 가 바로 효양산이래요.”

효양산의 산신령은 결코 신비로운 마법이나 막강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저 이야기로,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노력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스스로 깨우치게 만들 뿐이다. 그것이 이야기가 가진 힘이다. 과연 서희라는 인물을 나게 할 만한 영험한 산신령이 아닌가?

겉은 초라해 보이나 들여다보면 더할 나위없이 풍부하다. 진정한 깨우침은 외면적으로 위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내면에서부터 스스로 깨닫게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중심산이면서도 그 외형을 보잘 것 없는 작은 산으로 드러내는 것. 그런 독특한 특징만으로도 효양산 금송아지 이야기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지혜문학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제 효양산 산신령을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 효양산 금송아지 이야기를 소재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테베의 예언자 ‘테이레시아스’(Teiresias)는²⁾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가 눈이 멀게 된 이유는 신들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신들의 분노를 사서 눈이 멀었다고도 하고 아테나여신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여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고도 한다. 또 그에게는 진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눈이 더 있어서 그 눈으로 앞날과 진실을 보며 예언할 수 있었다고도 전한다.

아서왕 전설에 등장하는 마법사 ‘머린’(Merlin)은³⁾ 긴 회색 수염에 마법사가 입는 로브를 입거나 두건과 망토를 두른 노인의 모습으로 그려지곤 한다. 그는 반인반마로 태어났으며 초자연적인 힘과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아서왕을 곁에서 보좌하는 조언자로 알려져 있다.

호빗과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 나오는 마법사 ‘간달프’(Gandalf)는 현명한 지혜자이자 프로도의 스승으로 프로도를 지도할 뿐 아니라 그가 맞닥뜨려야 할 인생의 도전에 직면하게끔 한다. 그가 모리아 산에서 발로그와 싸운 후 심연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눈부시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는 고뇌에 쌓인 회색의 간달프(Gandalf the Gray)에

-
- 2) 테이레시아스는 오이디푸스 전설에도 등장하는데 수세대에 걸쳐 장수하며 남성과 여성을 모두 경험한 자로 최고의 정신적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 일설에 의하면 아테나여신은 그의 눈을 멀게 한 대신 그에게 새의 말을 알아듣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며 산수유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주어 어디든 다닐 수 있도록 했다.
- 3) 머린은 1136년 수도승인 몬머스의 제프리(Geoffrey of Monmouth)가 쓴 ‘영국의 연대기’(Historia Regum Britanniae)라는 책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프리는 이 책에서 영국의 중세시대에 전해져오는 여러 전설과 역사 속의 인물을 묶어서 ‘머린’이라는 인물로 재탄생시켰다.

서 이제 모든 인간적인 고뇌와 시험을 이기고 부활한 백색의 간달프(Gandalf the White)로 변용되는 것이다.



좌로부터 아서왕전설의 '멀린', 호빗의 '간달프', 그리스신화의 '테이레시아스' 효양산 '신인'

그렇다면 효양산 산신령은 어떤가? 그의 어떤 면모가 예언자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야기 속에서 그가 한 어떤 역할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만한 것이었나? 효양산의 보물은 효가 지극하거나 심성이 착하고 우직한 사람에게만 눈에 뜨이고 효험을 발휘한다. 반대로 저만 알고 욕심에 눈이 먼 사람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거나 도리어 불행하게 만드는 보물이다.

결국 보물의 효험은 보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달려있다. 누가 그 보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보물의 효험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효양산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보물을 보여주지 않는다. 창조적인 사람에게만 효양산은 자신의 아흔아홉 깊은 골짜기를 펼쳐 보여줄 것이다.

효양산의 산신령은 영험하기로 소문이 났다. 이 산은 효자를 길러내고 천하의 큰 인물을 낸다. 그리고 전쟁과 위기가 오면 나라와 백성을 구한다. 어지러운 세상에 지혜를 비추고 전쟁이 난무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지혜자로 효양산의 산신령을 세계무대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 부발읍 전설에 따르면 효양산의 산신령은 여성 산신령이라고도 전해진다. 산모신,

대모신으로서의 면모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없는 집안에 아이를 점지해주며 산 속에 살고 있는 온갖 짐승을 기르고 먹이는 어머니 같은 품성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21세기를 문화의 시대, 스토리텔링의 시대라고 한다. 또한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진단하는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제 지혜문학에 등장하는 지혜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스 신화의 예언자 테이레시아스,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 나오는 간달프, 아서왕이야기에 나오는 멀린, 그리고 구약성서의 지혜자 다니엘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이천의 효양산 산신령이 있다.

이천에서 세계지혜자대회를 개최해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동서양의 지혜자는 어떻게 우리의 앞날과 미래사회를 예측하는지 서로 듣고 토론해보면 어떨까? 멋진 발상이 아닌가? 효양산 금송아지 이야기는 세계의 지혜문학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이주민의 백가지 이야기

- 아시아의 이야기가 이천에 들어와 있다? -

김남일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아시아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 1983년 단편소설 ‘배리’로 문단에 데뷔했으며 2010년 제비꽃 서민소설상, 제2회 아름다운 작가상을 수상했다. 장편소설로 ‘국경’, ‘천재토끼 차상문’, 소설집으로 ‘일과 밥과 자유’, ‘천하무적’, ‘산을 내려가는 법’, ‘늘 푸른 역사가 신채호’ 등이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의 이야기에 주목하며 삶을 바라보는 다양한 아시아의 시선을 소개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주제소개 : 반갑습니다. ‘이천을 스토리텔링하다’ 인문학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문화 이주민의 백가지 이야기’입니다. 이천에도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지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단든지, 농촌에 다문화자녀가 많아지면서 그 지역의 정체성이 없어진단든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도 다양한 관점에서 이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가 문화의 시대잖아요. 그분들이 원래 그들의 나라에서 가지고 온 경험들, 이야기들, 삶의 지혜 이런 게 다 이천의 소중한 자원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강의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 분야의 전문가 이신 소설가 김남일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사회는 더불어 사는 일에 익숙지가 않습니다. 이방인에 대해 편견과 차별이 심한 편이지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무역이나 문화교류를 통해, 외교사절단 왕래를 통해, 그리고 크고 작은 전쟁을 겪으면서 여러 이방인들과 접촉을 해왔습니다. 신라의

처용무 설화나 가락국의 김수로왕과 허황옥 전설, 그리고 베트남 왕자로 고려에 귀화한 화산이씨 이야기들이 다 이방인과 관련된 설화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적으로 노동력의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개발국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으려고, 선진국에선 값싼 노동력을 얻으려고 국경을 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는 거지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노동자들과 결혼이주민들이 급격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시와 농촌에 정착해 살면서 다문화가족과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족 인구가 150만명이 넘는데 우리 이천도 7천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다문화사회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지만 이걸 받아들일 준비는 아직 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겠지만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토박이들은 단단히 결속합니다. 텃세가 심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천에 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이천에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선조들이 이천에 들어와 정착해 살면서 입향조가 되었던 거지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재미난 기록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사에는 우리나라에 귀화해 살았던 일본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향화왜인(向化倭人)이라고 합니다. 고려 목종 2년(999년)에 일본국 사람 도요미도(道要彌刀) 등 20호가 투항하자, 이들을 이천군(利川郡)에 살게 하고 가구에 편입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사람이 이천에 들어와 산지가 천년이 넘는 겁니다.

도립리에 영월엄씨 세거촌이 있지요. 그런데 영월엄씨 시조인 엄임의는 당나라 사람입니다. 당나라 사신 엄임의와 신시랑이 신라에 사신으로 왔다가 당이 멸망하면서 신라에 살기로 결심합니다. 영월에 터를 잡고 살면서 영월엄씨, 영월신씨의 시조가 되었던 거지요. 백사면 우곡리의 여산송씨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당나라 호부상서 송주은이 신라로 귀화해 여산송씨 시조가 되었습니다. 이천을 대표하는 이천서씨 집안도 신라말에 이천으로 올라와 효양산 기슭에 터를 잡고 살았던 거지요.

문화는 끊임없이 교류하고 부딪치면서 발전합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주민과 다문화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면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들은 우리 이천에 새로운 자원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권에서 들어온 다문화가족들은 몸만 이천에 들어온 것 아닙니다. 그들이 원래 자신의 나라에서 체득한 삶의 지혜와 경험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애달픈 삶의 이야기도 가지고 왔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아시아의 백가지 문화, 백가지 이야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고구려 주몽탄생설화에 보면 유화부인이 햇빛에 기운을 느껴 아들을 잉태하는데 달이차서 출산을 할 때 커다란 알을 낳게 됩니다. 모든 날짐승과 산짐승들이 알을 보호합니다. 저는 우리 이천에 들어온 다문화가족과 자녀들이 이 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알을 소중히 여기고 잘 보호한다면 거기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오고 수많은 자원과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지난해 경기문화재단이 기획한 아프로아시아 강좌에 참여하면서 소설가 김남일 대표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대표님이 '백 개의 아시아'라는 매혹적인 저작을 소개해주셨는데 거기서 많은 자극과 도전을 받았습시다. 틀림없이 이천 인문학강좌에 초청해도 수락해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천 시민들에게도 아시아의 드넓은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김남일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1. 황혼의 시간, 마법의 시간, 개와 늑대의 시간

제 이름이 김남일입니다. '김남일'하면 소설가 김남일 보다는 축구선수 김남일을 떠올리죠. 문학에 대한 대접이 축구보다 못한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제가 소설을 쓰지만 크게 돈 번 것도 없고 아주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소설 쓰느라 몸을 굉장히 버렸어요.

소설을 쓰다 보면 술 담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한창 때는 제가 하루에 담배를 한 갑 반 피우고 일회용 커피를 열 다섯 잔 먹고 술도 먹고 육체를 학대를 했죠. 그 결과로 소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수술도 받았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을 만나보게 되었지만 그러면서도 다시 인생을 살게 된다면 또 소설을 쓸 거 같아요. 문학을 할 거 같아요.

문학을 한다는 것, 소설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쓴다는 차원이 아니고 뭐라고 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를 소설로 다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노벨문학상을 받은 그런 존경할만한 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소설을 쓰면서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또 다시 태어나고 싶진 않지만 그럴 수 있다면 소설가로 태어나 더 좋은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제가 소설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유는 오늘 강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화 이야기를 드릴 텐데 신화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신화에 대해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제 친구들이 거의 다 은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친구들은 CEO 회사대표나 이런 사람들만 남아 있고요. 옛그제 친구 딸의 결혼식에 갔습니다. 동창들이 쭉 모였는데 돌이켜보니 우리 시절에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60명인데 다 괜찮은 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절에 취직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3,40년을 열심히 살아왔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면 먹고 살만 하니 그동안 못한 일을 해보자 하면서 친구들끼리 우르르 골프 치러 가기도하고...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마는 해외골프 치러 간다는 친구들 따라 베트남까지 갔다 왔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다 어느 날 차를 잘못 내려서 집 앞에 한 정거장 전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마침 저녁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 때까지 하늘을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힘도 빠져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하늘을 보니까 달이 떠 있더라구요.

어린 시절에 달을 보면서 엄마하고 달 이야기를 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3~40년이 지나 드디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달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꼭 달이 아니어도 좋고 어느 날 문득 그걸 바라봤을 때 아름답기도 하면서 또는 불안하기도 할 겁니다. 또는 어떤 의문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하며 살았지? 왜 살았지? 열심히 돈 벌어서 뭐했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게 ‘황혼의 시간’이거든요. 하루 중 네 시에서 다섯 시까지를 ‘마법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설가들이 좋아하는 말인데 네 시, 다섯 시쯤 되면 한 낮의 쨍쨍하던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면서 저녁을 향해서 다가가죠. 완전히 어둠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늘 그런 시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아차하면 깜깜한 밤으로 들어가는데 영원히 밤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들은 생활하는 경우가 많죠. 신화는 바로 그 시간에 있어요, 마법의 시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시간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저 산 능성에 무엇인가가 나타나요. 멀리서.. 그런데 그게 짐승인 것 같기는 한데 갠지 늑단지 정확하지 않죠.

개처럼 보이기도 하고 늑대처럼 보이기도 해요. 바로 그 시간! 우리가 1이나 2나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어떤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바로 신화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솔직하게 왜 사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왜 죽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죽은 다음의 생을 아시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은 거의 다 우리 존재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해 본 경우가 많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바로 이제껏 내가 외면했던 것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구요. 내가 몰랐던 인생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면서 더욱 더 신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 밤의 이야기, 땅 밑 세상의 이야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시아의 신화입니다. 도대체 왜 신화를 공부해야 되는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 함께 의논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화가 뭐냐 라고 질문을 던지면 늘 그러잖아요. 문학이 뭐냐 그러면 내가 문학을 하고 있지만 쉽게 대답을 못하거든요 철학이 뭐냐 라고 철학자에게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정의를 내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니고요.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쉬울 수가 있어요. 신화는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말이죠. 신화는 칠판이 아니다, 신화는 동화가 아니다, 신화는 철학이 아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신화와 혼동하기 쉬운 게 바로 역사입니다. 신화와 역사가 어느 순간 겹쳐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고하신 어느 소설가가 당신의 소설 앞부분에 썼던 말입니다. - ‘햇빛에 닿으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역사는 밝은 대낮에 일어난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독일이 대낮에 프랑스를 침공하는 것, 그게 역사입니다. 하지만 신화는 낮이 아니라 밤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들 가슴 속에 숨어있는 은밀한 이야기입니다. 공공연히 말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슴 속의 이야기, 쉽게 할 수는 없지만 저녁 때 햇불 앞에 빙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화는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 신화에 반고라는 거인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늘을 밀어올리고 땅을 눌러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믿으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건 귀신에게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화에서는 여러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도 다 그 속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요즘은 신화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지요. 신화학이나 종교학, 인류학 같은 학문의 대상으로만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신화에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스토리텔링으로서의 신화입니다. 스토리텔링은 말 그대로 이야기를 말한다는 뜻인데 그게 왜 중요할까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암기할 때 원소기호를 외울 때 이야기를 만들면 더 쉽게 외울 수 있잖아요. 스토리텔링이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요즘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면 층간 소음으로 싸움이 나고 나중에 살인까지 났다는 기사를 봅니다. 신화에서는 층간 소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화시대에 무슨 아파트가 있어 하겠지만 재밌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땅 밑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함부로 다닙니다. 쿵쿵쿵쿵 다니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거대한 8톤 트럭도 다니고 그래요. 그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가 벌을 받았습시다. 요즘 땅이 꺼지기도 하고 싱크홀이 생기기도 하죠. 앞으로 싱크홀은 점점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는 땅 밑 세상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건방진 존재거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자기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땅 밑의 생물에 대해선 존경심을 갖지 않습니다. 특

히 우리는 무생물에 대해서는 절대로 존경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까짓 돌맹이.. 이런 식이죠.. 쓰나미나 지진이 다 그런 것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남미사람들이 축구를 잘하는 이유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가 축구를 잘 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남미사람이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한 신화가 기원전 1500년부터 나온 신화인데 그 때부터 축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실제로 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축구를 했답니다. 중국에서는 저 공을 지푸라기로 만들고 나중에 돼지 오줌보로 만들었지만 중남미에서는 고무나무로 만들어서 탄력이 있었습니다.



마야인들이 축구를 계속했는데 그들이 단순히 축구를 한 건 아닐 겁니다. 바로 신화입니다. 지상의 세계와 지하의 세계가 싸운다는 뜻입니다. 한 쪽 팀은 지상, 한쪽 팀은 지하를 의미하면서 서로 싸우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전 사람들은 먹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저희 아버님도 아흔 두 살이신데 요즘도 밥은 먹었냐라고 하십니다.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벼가 싹이 트고 옥수수가 싹이 트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옥수수도 죽어버려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이.. 고맙게도 비가 오고 다시 싹이 나타나요. 이 놀랍고도 신기한 이야기도 이 신화들이 만든 거예요.

이 그림을 한 번 보세요. 마야 사람들이 공놀이를 하던 장소입니다. 이런 것이 수천 개가 있었답니다. 단순히 축구를 한 것이 아니라 축구를 잘 하면 풍작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경우에는 목
을 잘라 그 피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즐겁
게 죽었다고 합니



다. 다른 세상의 존재를 뼈 속 깊이 믿었던 거죠. 빨리 죽고 빨리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자.. 신화를 공부한다는 것은 세상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파트 층간 소음도 이야기 하고 공놀이도 이야기 했지요. 그 뜻은 인간에게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마야신화 - 후나푸 형제의 이야기

남미, 중남미, 특히 멕시코, 과테말라 지역을 마야문명이라고 합니다. 중남미의 3대 문명이 있는데 남미의 잉카문명, 중앙아메리카의 마야문명과 아즈텍문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야문명이 말하는 신화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포폴 부’라는 마야신화의 책을 보면 ‘훈 후나푸’와 ‘부쿵 후나푸’라고 부르는 두 쌍둥이가 나옵니다.

형제는 공놀이를 좋아해서 매일같이 공놀이를 하며 놀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구멍에서 부엉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도저히 못살겠으니 밑에 내려와 공놀이 시합을 하자 이런 말을 전하려고 부엉이가 메신저로 왔다는 겁니다. 내려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말렸지요.

‘내려가지 말아라. 죽을지 모르니까’. 하지만 형제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내려가면서 보니까 밑에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계곡도 있고 강도 있고... 형제는 지하세계의 신들과 공놀이 시합을 했는데 그만 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거기 신

들이 형제를 죽이고 형의 목을 잘라 나무에 걸어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 버리면 신화가 재미가 없었겠지요. 뒤를 이어서 2세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 훈 후나프의 목이 나무에 걸려 있다는 소문이 지하 세계에 퍼지면서 신들이 구경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구경 온 신들 중에 공주가 있었어요. 나무에 걸려있던 훈 후나프의 해골이 공주를 바라보다 너무 예쁘니까 침을 톡 뱉었어요. 침을 뱉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바로 사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이 하게 되어 공주의 배가 불러옵니다. 신들은 깜짝 놀라서 지하세계의 공주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지상으로 추방하지요.

공주는 훈 후나프의 어머니를 찾아가 자신이 며느리라고 신분을 밝히지만 인정을 못 받죠.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험 끝에 겨우 며느리로 인정을 받고 다시 임신을 해서 형제를 낳게 됩니다. 이 형제들은 아버지와 삼촌들의 잘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하세계로 내려가 승리를 쟁취합니다. 지하세계를 평정한 거지요.

신화의 의미

신화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눈앞의 세계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지렁이에 대해 존중심을 갖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 다른 세계에 대해 겸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 결과 함부로 모든 것을 부숴 버리고 산만 보이면 골프장으로 만들어요. 산이라는 건 복구하기가 어렵지요. 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산이 아니라 수천 만 년의 역사와 인생, 생명들이 있는 건데 하루아침에 툭 잘라버리면 당장은 편리하지만 그 순간 소중한 것이 사라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신화를 공부하면 이렇게 불편합니다. 신화를 모르면 편합니다. 신화를 공부하는 순간 불편해집니다. 신화는 인문학에 들어가는데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쓸 데 없는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쓸 데 없는 것을 배우

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차차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빌론 신화 같은 데서 보면 지하 세계에 살던 신들이 위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 전쟁을 일으킨 이야기도 있고, 중세 유럽의 영웅서사시 ‘베오울프’라는 것도 있습니다. 베어울프에 보면 커다란 궁전에서 기사들이 자기들의 무용담을 매일 자랑을 하느라 몹시도 시끄러웠습니다. 그러자 지하세계에서 살던 괴물이 건디다 못해 사람을 잡아먹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화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유럽신화.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신화가 북유럽 신화입니다. 반지의 제왕, 그리고 해리포터에 나오는 배경이 북유럽 신화입니다. 북유럽 신화에 보면 굉장히 많은 세상, 예를 들어 거기에는 아홉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미드가르트’라는 중간계고요. 지하계도 세 개가 있고 난장자들이 사는 세계..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호모 나렌스

인간을 말할 때 어떤 말을 하죠.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죠. 호모라는 것은 라틴언데 생각하는 인간, 그런데 인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인간을 호모 파베르, 도구를 다루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공작인 도구를 만드는 다루는 인간이죠. 중세 유럽에 네덜란드 출신의 문화인류학자가 만든 말 중에 호모 루텐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놀이하는 인간, 유희하는 인간, 즐길 줄 아는 인간. 인간은 축제를 즐기잖아요. 노는 것 자체가 인간의 행동입니다. 생각하는 것, 노는 것, 뭘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호모 나렌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 ‘네레이터’라는 말이 있죠. 이야기하는 인간.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할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이야기

를 들려줬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면 시끄럽다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뭐하죠. 휴대폰 하죠. 스마트폰 하죠. 지하철을 타 보면 풍경을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가장 화제가 뭐냐면 지하철에서 책보는 사람을 찍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책을 안보기 때문에 책을 보는 것이 신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세상이거든요. 그럼 찍는다는 것 행위가 무슨 뜻일까요? 이야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방식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식의 이야기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하철에서 책보는 사람 이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어떤 걸 보았냐면 젊은 애인끼리 어깨를 부딪히고 앉아 있는데 그 순간에도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무엇인가를 누르는데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찾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별 다섯 개 맛 집을 찾고 있습니다. 때론 인간이 맛있는 데를 찾아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별 다섯 개 맛 집만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산다고 행복할까요. 때론 실수를 해서 다시 한 번 반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뭐해요. 예전엔 세상 돌아가는 일을 신문을 통해 봤는데 요즘엔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야기들은 진부한 이야기뿐입니다. 소녀시대가 누구랑 결혼했다...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알아야 되요. 머리가 복잡해 죽겠는데 남의 사생활 정보를 찾고, 맛집이 어딘지 찾아야 되고... 물론 그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쪽에선 이야기들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들뢰즈라는 학자가 쓰는 개념 중에 ‘다중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멀티플리시트’(multiplicite)라고 하는데, ‘멀티’(multi-)는 멀티플레이어 처럼 여러 가지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플리’(pli)는 주름(fold)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플리’입니다. 옷 주름, 이마의 주름...

여러분, 제가 어제 산에 갔다가 내려왔어요. 새 옷을 입고 갔는데 구겨진 겉 보고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무엇인가 다른 걸 느낍니다. 바로 주름이 생겼다는 거죠. 옷 주름이 생겼고 사건이 생겼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들이 죽었다든지 그렇게 주름이 남아 있어요. 그 주름을 잘 펼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야기라는 것이 바로 주름이거든요.

3. 이야기의 중요성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요? 왜 강조를 하죠? 이야기와 정보를 비교해 봅시다.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는 흘러넘치죠. 아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가진 정보의 양이 우리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 평생 쌓았던 지식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요.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로봇 이름 다 알아요. 공룡 이름 다 외웁니다. 우리 아들이 그랬거든요.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만한 놈이 인생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글도 모르는 할머니가 인생에 대해 더 많이 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이야기의 차입니다.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이야기의 차이. 이야기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병원에서 임종 때 어떻게 하죠. 뽀뽀뽀뽀 뽀뽀뽀~ 하다가 제로가 되요. 그 순간에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죠. 작년에 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때 두 시간마다 인턴, 레지던트가 와서 ‘지금 맥박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양적으로 제로가 되는 순간 ‘운명하셨습니다’ - 이게 죽음이거든요. 끝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과학자가 쓴 베스트셀러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화나 이런 것은 다

부정하고 진화론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세상은 없다, 더 이상은 없다, 맹장 떼어내듯이 끝이다, 다른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없다 -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겐 죽음 다음은 제로죠. 죽음 다음에 다른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신화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병원에서 의사는 객관적으로 맥박이 떨어지고 호흡도 가빠지고 그럼 이젠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하죠. 제발 나는 집에 가서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집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 방에 할머니의 추억이 묻어있는 곳이잖아요. 방에 여기저기 벽지를 바를 때 영감하고의 추억이 있거든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방에서 돌아가신다는 것, 임종을 하신다는 것은 엄숙한 일입니다. 거기에 다 식구들이 와서 지켜봅니다. 이제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 말없이 손을 쥐어주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 절차가. 영혼이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집에서 맞는 임종은 끝이 아니죠.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죠.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죽음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보라는 것은 이제 끝이다, 제로다 그게 정보지요. 하지만 이야기라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야기의 세계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때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신화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리데기 신화

신화를 읽다보면 신화의 주인공 중에는 죽음에 굴복하지 않은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바리데기 공주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 어린 시절에는 바리데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1980년대 이후부터는 한국을 대표하는 신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면, 대왕 대비마마가 아이를 낳는데 계속 딸이었어요. 여섯 명의 딸을 낳고 좋아했지요. 일곱 번째는 아들이길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또 딸입니다. 그래서 함에 넣어 일곱 번째를 버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건져내서 이 아이가 살아나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님이 아픈 겁니다. 여섯 명의 딸들은 모른 채해요. 영생할 수 있는 약을 가져오라는데 여섯 딸 다들 거부합니다.

그런데 버렸던 딸 바리데기는 그 소식을 듣고 부모님을 찾아가 내가 그 일을 하겠어요 이릅니다. 내가 부모님 도움을 받은 일은 없지만 그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서천서역국으로 가서 영생 약을 구해서 부모님을 살린다는 얘깁니다.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이런 종류의 신화가 모든 나라에 있습니다.

길가메쉬 신화

그 중에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것이 길가메쉬 이야기입니다.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이야긴데, 중동, 이라크, 아라비아 반도 특히 이라크 지역의 고대 문명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당시엔 도시국가들이니까 우루크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길가메쉬는 이 우루크의 왕으로 삼분의 이는 신이고 삼분의 일은 인간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백성들이 모두 힘들어하는 폭군이었습니다. 모든 걸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해서 우루크 백성들이 싫어했습니다. 이 당시엔 왕에게 초야권이 있었어요. 첫 날밤은 모든 여인이 이 사람에게 가야되는 것인데 성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 농작물의 풍작을 기원하는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길가메쉬가 폭군으로 행세를 하니까 하늘에서 바라보던 신들이 쫓아잡게 생각을 해요. 백성들이 제발 폭정에서 구해달라고 제사를 지내자 응답을 해서 길가메쉬를 때려눕힐 엔키두라는 전사를 보냅니다. 엔키두는 신이 아닌 인간인데, 자기가 인간인 줄 모르고 짐승들 사이에서 곰처럼 살던 야생의 사람입니다. 엔키두와 길가메쉬, 이 둘이 맞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승부가 안 나고 둘은 싸우다 정이 들어 친구가 됩니다.

그 이후 둘은 초인적인 힘과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고

괴물을 죽이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나라는 여신이 길가메쉬를 좋아했습니다. 이 여신이 결혼할 것을 제안하자 길가메쉬는 여신의 품행이 싫다고 제안을 거절해버립니다. 여신은 화가 나서 신들에게 고자질을 했고 신들이 직접 그를 응징하기 위해 하늘 황소를 보냅니다. 하지만 길가메쉬와 엔키두는 그 황소의 뿔을 잘라 죽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 신들은 벌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 벌이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길가메쉬의 둘도 없는 친구 엔키두에게 벌로 죽음을 내립니다. 그 때까지 세상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엔키두가 길가메쉬에게 말을 합니다. 깜깜하고 어두운데 사람들이 미동도 없이 거기 앉아있고 진흙과 먼지를 먹고 있더라 너무 끔찍해서 거기에 정말 가기가 싫다...

엔키두가 죽는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던 길가메쉬는 몇날 며칠을 엔키두의 시신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중동지역이 얼마나 더워요. 일주일이 지나자 시신이 썩으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죽음이 다가왔어요. 좀 있으면 구더기가 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자, 길가메쉬가 미친 듯이 광야를 누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말을 해줍니다. 영생을 할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영생 약을 찾으러 길을 떠나는데 마지막 관문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트나피슈팀이라는 뱃사공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영생을 하는 사람인데 이 뱃사공이 그에게 ‘영생이란 없다’고 말합니다. 길가메쉬가 ‘너는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자기가 영생을 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것이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죠. 이 사람이 수메르 시대의 노아죠. 우트나피슈팀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신들이 홍수 전에 방주를 만들라고 미리 말을 해 주어 이 사람만 살았던 것입니다.

영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뱃사공은 대신 늙지 않는 불로초를 찾는 방법을 그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거라도 감지덕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찾았어요. 길가메쉬가 그걸 찾아서 가져오는데 칠일동안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경고를 듣습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눈꺼풀이 내려앉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깜빡 졸면서 불로초를 물속으로 빠뜨립니다. 뱀이 이걸 집어갑니다.

성경이야기랑 아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대홍수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대홍수 이야기는 중동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길가메쉬 이야기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는 순간 처음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하구요. 여러분도 꼭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바타, 또 다른 나의 분신

신화라는 것이 꼭 죽음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신화는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신화를 믿거나 제의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이야기로서의 신화를 생각해 보면 아주 재미난 게 많습니다.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지요. 아바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바타는 원래 인도 신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분신, 화신, 너는 나의 분신이다 이런 말을 하죠. 또는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보니까 문제가 많아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온다. 화신이라고 하지요. 그게 바로 아바타입니다. 정확하게 산스크리트어 발음은 ‘아바타르, 아바타라’라고 합니다.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똑 같은 사람입니다. 이 괴물이 사실은 그 사람의 화신이죠.. 변신 화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나요. 우리들은 이 순간만 진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노래의 골짜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이발사가 있는데 노총각이었습니다. 이발사는 매일같이 노래를 불러요.

‘저 산 너머 강 건너 구비를 가면 아름다운 마을이 있다네.

그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산다네.’

그런데 노총각 이발사는 마을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짝사랑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말을 못했어요. 용기를 내어 그녀 마음에 들고 싶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조건을 내세웁니다. ‘당신이 매일같이 부르는 노래에 나오는 그 골짜기를 갔다 와서 그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세요. 그럼 당신하고 결혼하겠어요.’

이발사가 한 달이 걸려 거기를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팍삭 늙었어요. 사람들이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이야기를 해 줬어요. ‘내가 노래로 불렀던 마을이 진짜 있더라.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도 있더라. 우리 마을사람들도 거기 살고 있더라. 그리고 알고 봤더니 나도 있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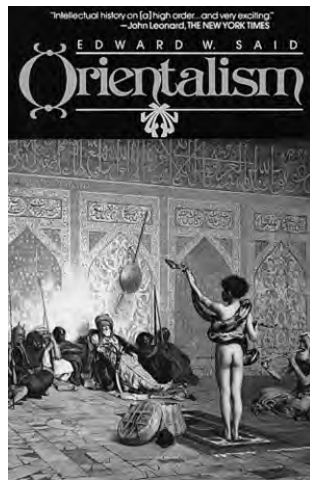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짜고 거기 있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죠. 저기 거울이 있어서 저 거울 너머에 진짜가 있다.. 아바타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 분신이 어딘가에 있다는 뜻입니다.

‘마스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원령 공주’는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원령이란 귀신이란 뜻입니다. 귀신이 붙었다는 뜻이죠. 모두 다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도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기본 골격은 다 신화예요. 베트남 마을을 미군 헬리콥터가 침공하는 장면은 아주 유명하지요. 바그너 음악이 짹 깔리면서 베트남 사람을 쏘 죽입니다. 그 장면에 ‘발퀴레의 비행’이라는 음악이 나옵니다. 발퀴레가 무슨 뜻이나 하면 게르만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전쟁터에서 용사들이 용감히 싸우다 죽잖아요. 그 영혼을 거둬들여 영생을 할 수 있게 천마를 타고 궁전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여신입니다. 천마를 타고 가서 장렬히 죽은 용사들의 영혼을 데려 옵니다.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보면 우리가 몰랐던 신화가 굉장히 많이 깔려있습니다.

4. 아시아의 신화

오리엔탈리즘, 아시아에 대한 편견

이젠 아시아의 신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잘 알면서 아시아 신화에 대해 물으면 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시죠. 아시아 신화에 대한 편견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아를 너무 신비롭게 보는 것입니다. 아라비안나이트를 보면 양탄자를 타고 가는 장면이라든지 환상적이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죠. 마르코 폴로가 살던 시기에 유럽에는 지팡구(일본)에 가면 길바닥이 모두 황금으로 되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를 너무 좋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를 너무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더럽다, 나쁘다, 괴물이 산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할리우드 영화의 악당은 누구죠? 대부분은 콧수염이 긴 아랍 사람이거나 북한 사람이거나 아시아 사람들이 악당으로 나옵니다. 미국에서 총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흑백갈 등이 많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구가 바라본 아시아의 모습은 늘 정체되어 있다, 늙처럼 고여 있다, 역사가 발전하지 못한다, 경제도 발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늘 그 모양 그 꼴로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18세기에는 달라집니다. 지리적 발견이 나오고 항해술이 나오고 황금을 찾아 아시아로 갑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가 보셨나요. 이 속에 굉장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거든요. 캄보디아가 있는 지역을 인도차이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왼쪽에 인도가 있고 오른쪽에 차이나가 있어서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거지요.

실제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말을 쓰지 않았어요. 서양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지도를 만들려면 그 지역에 대한 이름이 필요하고 이름을 만들게 되는 순간 정복의 대상이 됩니다. 처음엔 호기심을 갖고 여기에 관광을 왔다가 도굴꾼이 되어 버립니다. 앙코르와트에 제일 먼저 간 사람들이 프랑스사람들입니다.

앙드레 말로, 이 사람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드골 치하에서 문화부 장관을 지냅니다. 문화부장관이 사실은 도굴꾼이었어요. 그것도 스무 살에 귀족 출신 아내랑 결



혼하자마자 캄보디아에 가서 앙코르와트 벽에 붙어있는 조각을 톱으로 썰어서 마차에 실어 흠쳐 나오다가 감옥에 갔어요. 작가들이 구명운동을 해서 3개월 감옥생활을 하다 집행유예로 나오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이랬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동양 사람들에 갖는 편견에 대해서 학술적 용어로 오리엔탈리즘이라 합니다. 동양주의는 왜곡된 편견에 휩싸여 있다는 이 말이 20세기 후반부에 학술계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 중의 하나였습니다. 아시아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미 우리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시아를 가장 많은 연구를 한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에 해마다 몇 천 명씩 모여서 도시 전체에서 심포지엄을 엽니다. 거기에는 모든 아시아 학자들이 모여서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그 논의 결과는 영어로 기술, 정리되어 미국 것이 되는 것이지요. 아시아에 관해서 알려면 아시아가 아니라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문화 침탈

그런데 이런 미국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국력이 세지니까 미국을 대신해 아시아의 역사를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북공정이라고 아시죠.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거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서북공정, 서남공정도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거대한 나라죠. 황하 유역과 양쯔강 유역의 문명이 중국의 반쪽입니다. 또 다른 반쪽이 있습니다. 주변에 여진족, 몽골, 티벳(토번) 등 소수민족 56개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예전에 자신들을 이야기할 때 사마천의 사기를 내세웁니다. 역사를 잘 정리해 놓은 최고의 기록이거든요.

역사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은 신화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낫의 역사가 활발해질수록 신화는 사라져 버립니다. 신화는 이야기인데 일단 글씨로 굳어져 버립니다. 역사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순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해요. 단군신화를 보세요. 삼국유사에 단군신화가 들어가는 순간 짧아집니다. 옛날에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질 때 얼마나 풍부했겠습니까?

풍부했던 이야기가 그것만이 정통이 되고 다른 이야기는 가짜가 되어 버립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역사가 발전하다 보니까 중국의 신화가 사라져 버리고 서사시는 없어집니다. 중국엔 서사시가 없다. 그런데 지금은 서사시가 가장 많은 나라라 자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수민족의 것을 뺏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리랑도 가져가 버리고 있습니다. 자기네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노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 신화들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겁니다. 티벳, 몽골 것도 뺏어가고 있습니다. 마나스, 게세르, 장가르와 같은 다른 민족의 서사시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키르기즈스탄에 갔었는데 공항 이름이 마나스 국제공항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세종로 한복판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것처럼 자기네 한복판 동상도 마나스입니다. 마나스야말로 민족적 자존심의 대표인데 이걸 중국에 뺏겨버립니다. 중국 것이 되어 버립니다. 키르기즈스탄이 등재

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마나스는 없습니다. 2009년에 마나스가 중국 것으로 등재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뺏겨 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중국은 하상주단 대공정이나 중화문명 탐원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예전엔 황제와 염제를 말하다 요즘은 치우까지 끌어들여 3대 조상이라고 치켜세웁니다. 치우는 ‘붉은 악마’에 나오는 도깨비인데 동이의 조상 중에 하나지요. 예전엔 황제와 염제와 싸웠는데 어느 날 이 치우가 중화민족을 이끈 세 명의 조상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 거대한 조각상들을 만들고 하면서 10년 20년 후에는 중국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역사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우리 역사도 그 곳으로 편입되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아의 열 가지 서사시

아시아 모든 나라에 다 이런 서사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만한 열 가지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샤나메’입니다. ‘샤’는 왕, 군주라는 뜻이고 ‘나메’는 책이라는 뜻인데요. 일본에서는 왕서, 중국에서는 열왕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로 보면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이란왕조실록, 페르시아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은 어쨌죠. 역사적 사실만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란왕조실록인 샤나메에서는 상당부분 신화이야기인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왕이 있었어요. 폭군이 있는데 어깨에서 매일같이 뱀이 두 마리씩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뱀을 달래기 위해 아이들을 매일 잡아 아이들의 뇌를 먹여 진정을 시킵니다. 페르시아에서 매일같이 끔찍하게 아이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걸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왕을 쫓아내게 됩니다.

두 번째 ‘쿠쉬나메’입니다. ‘쿠쉬’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그의 일대기를 다룬 책이죠. 여기 그림을 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이 사람은 아랍풍, 이

쪽은 동양사람 신라 옷이죠. 아랍왕자와 신라공주가 만나 결혼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죠? 어떻게 아랍왕자와 신라공주가 만날 수가 있지? 무슨 뜻이나 하면 페르샤의 한 왕자가 사라센에 쫓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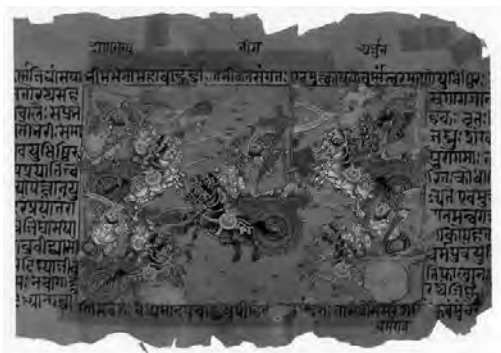


중국으로 망명을 옵니다. 중국에서 다시 신라로 도망을 옵니다. 당시 신라를 ‘바실라’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아서 역사적 사실인가를 따졌는데 거의 일치합니다. 아랍 쪽에선 신라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직접 와 본 사람이 없어서 환상적으로 신라를 묘사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유토피아적으로 그렸죠. 신라 사람들이 아름답고 예쁘게 그렸습니다.

세 번째, ‘길가메쉬’ 서사시입니다. 이 서사시에 대해서는 앞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토판에 기록이 되어 전해진 내용입니다. 네 번째, ‘마나스’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지역의 영웅서사시입니다. 중앙아시아는 초원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영웅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마나스를 직업적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이야기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인도신화인 ‘라마야나’입니다. 라마야나에는 원숭이가 나옵니다. 손오공의 원조가 이 라마야나에 나오는 하누만인데 하늘을 날고 신출귀몰한 능력으로 라마왕자를 도와 그의 아내인 시타를 구하기 위해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날아갑니다. 앙코르와트 사원 벽에 나오는 부조들이 바로 이 라마야나 이야기입니다. 저도 거기 가서 세 번을 보고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이 신화를 알게 되어 또 가고 싶은데 이제는 돈이 없어서 못갑니다. 이제는 다 이해할 것 같습니다. 태국에 에메랄드 사원 벽에도 라마야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조금 다르죠. 불교의

나라로 가니까 불교신화로 바뀝니다. 이렇게 인도에서 출발을 해서 동남아로 다 넘어갑니다. 동남아 사람들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라마야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남아로 가서 라마야나를 물어보면 변용이 되어 라마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지만 다 압니다. 그림이라든지 무용, 여러 가지 형태로 생활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하바라타’는 인도의 서사시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삼국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삼국지는 세 나라가 싸우는 것인데 이것은 사촌 형제간에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장엄하고 긴 이야기 중에서 철학적인 이야기만 뽑아서 만든 게 ‘바가바드 기타’입니다. 간디가

제일 좋아해서 삶의 지침서로 삼았던 책입니다. 함석헌 선생이 해설 본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왜 우리가 싸워야 하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마하바라타는 한 권의 책이지만 25권짜리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다섯 권 짜 나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게세르’라는 것은 티벳과 몽골 바이칼 호수 지역에서 유명한 영웅 신화입니다. 중국이 뺏어간 이야기도 있습니다. 허세르란 이름으로 되었는데 그 민족의 독특한 맛이 다 사라져 버리고 중국식으로 이름도 바뀌어 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덟 번째, ‘산해경’입니다. 중국 신화를 대표하는 것은 이 책 하나입니다. 책 이름을 풀어보면 산과 바다에 대한 책이라는 것인데 거기에는 온

갖 귀신들이 다 나옵니다. 어디에 가면 이런 귀신이 산다. 예를 들면 ‘관흉국’(貫胸國)에 가면 그 나라에는 가슴에 뽕뽕 구멍이 뚫렸다. 그 구멍에 막대를 꼽고 다닌다. 이렇게요. ‘형천’이라는 사람은 황제에게 달려들어 싸우다 목이 잘립니다. 목이 잘려도 끈질기게 다닙니다. 나중에 머리가 잘려 버리니까 젓가슴을 눈으로 삼고 입이 배꼽에 달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아홉 번째, 일본신화는 ‘고사기’라는 이 책 한 권이면 됩니다. 번역본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서기라는 책이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고사기만 보시면 됩니다. 서양 사람들이 말할 때 세계에서 가장 정리가 잘 된 신화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만큼 여러 민족들의 이야기가 얹혀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일본은 지금의 천황의 전통성을 만들기 위해 일본의 여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신화를 다 없애버립니다. 신화가 아니라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재미가 있기도 한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열 번째, 우리나라 신화로는 바리데기 이야기를 꼭 좀 찾아보시길 바라고 특히 제일 많이 남아있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의 무당들이 잘 외어서 지금까지 바리데기를 잘 전승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신화들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 거인 이야기, 설문대할망 이야기, 마고할미, 천지연본풀이 등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가꾸어야 하겠죠.

도대체 이런 신화를 왜 공부해야 될까요. 인문학이란 뭐죠. 인문학이란

인간에 대한 학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학문이란 뭐죠. 인간이 살아가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 사회에 대해 알아야 하고 자연에 대해, 그리고 지나간 시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 인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쓸 데 없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쓸데없는 것이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공부함으로써 우리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거죠. 신화 공부를 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바리데기에서 보면 버린 딸이 왕을 구하잖아요. 버렸다는 것은 중심에서 주변으로 내쫓겼다는 것인데 왕은 중심이지만 신화 속에서는 주변이 더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중심을 다시 보게 되요. 왕은 헛 껍데기고 주변인 백성들이 진짜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변과 중심이 역전이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거 아니면 저거다 라는 양분법적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신화를 공부하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신화는 제우스가 위에 있으면서 다스리는 수직적 신화인데 아시아 신화는 협력을 통해 위로 올라가는 신화가 많습니다. 우리가 서구적 사고방식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신들이 권력을 쥐고 인간을 다스린다는 생각인데 아시아의 신화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좋은 세상을 만드는 그런 새로운 관점이 있습니다.

‘트릭스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트릭은 속임수 사기.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사기꾼이 왜 중요하죠. 도덕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못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봉이 김선달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유쾌합니까. 조선왕조라는 근엄한 사회에서 성적 담론을 합니다. 근엄한 세상에서 여자들 이야기를 하고 양반들 골려먹고 그래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회에서 김선달이 이렇게 창

조적인 사유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신화 속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1세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서태지 아시죠. 바로 트릭스터입니다. 서태지는 제대로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만 다니다 그만둡니다. 스티브잡스도 대학을 안 나왔지요. 제대로 대학 나온 사람은 주어진 것만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따라 재미있는 일을 하며 실험을 합니다. 서태지는 옷을 거꾸로 입고 나옵니다. 머리도 길어요. 얼마나 보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신화 속에는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신화에는 제우스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데 방글라데시 신화에 보면 세상을 만든 게 위에 있는 하느님이 아니고 조그만 지령이, 잉어, 방개들이 조금씩 흠을 떠다가 모아서 세상을 만들고, 오리들이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세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신화는 처음 보죠. 항상 신화는 근엄해서 인간이 잘못해서 신들이 벌주고 하는 형식이 아니죠. 아시아 신화는 너무 다양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다 과거 이야긴데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의 세상은 뭐지, 나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지... 이런 것부터 생각하게 하고 옆에 사람하고 이웃하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런 지혜를 들려줍니다. 이야기를 잘한다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스토리텔링을 말씀드린 이유도 신화를 통해서 결국 우리 인생에서 겪은 일들이 다 소중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천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 이천의 지역정신은 무엇인가?

이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신화이야기 -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문화비평가이자 실천학자. 대안학교 맑은샘초등학교 설립. 장애인교육기관 베다니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90년대 한국의 경제를 견인해온 대기업과 저임금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환경·교육·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며 통섭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과학기술과 물질문명, 성과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천에 왜 인문학이 필요한지, 어떤 인문학이 필요한지 이야기한다.

1. '이천'의 유래, '이천'이 가진 뜻

이천이 가진 지역정신, 이천이라는 고을 이름에 담긴 뜻. 이천의 정체성과 공동체성... 이런 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이천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지요.

이름이 갖는 신비성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이름을 지어주지요. 아이의 이름에는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아이의 출생에 대한 기대와 생명의 신비에 대한 경이로움이 스며있습니다. 이름을 보면 물려받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성씨입니다. 성씨는 혈연집단과 거주지역을 보여줍니다. 그 집안이 어디에서 터를 잡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코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름에는 신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까요? 그 속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태어날 때 생김새가 어땠는지, 누구를 쫓 빼달았는지, 뭐가 되기를 바랬는지 그런 이야기가 스며있는 겁니다.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것이지만 내가 지은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삶에 어떤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름이 갖는 신비성이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름은 자기 정체성의 중대한 열쇠가 되는 거죠.

고을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천’이란 고을 이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국사기 아시지요? 이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나옵니다.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志) 제4, 지리(地理)2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황무현(黃武縣)은 본래 고구려 남천현(南川縣) 이었는데, 신라가 병합하여 진흥왕이 주(州)로 삼고 군주(軍主)를 두었다.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는데 지금(고려)의 이천현(利川縣)이다.’

보시는 것처럼 ‘남천’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이천의 연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이 바로 ‘하천’입니다. 지금의 ‘북하천’이지요. 그래서 이천의 정체성과 공동체적 정신을 찾아가려면 이 하천과 관련한 문화적 상징성과 의미를 그 바탕에 두고 풀어가야 하지



삼국사기 권35 잡지4에 보이는 이천에 관한 기록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주에 가면 ‘통일전’이라는 전각이 있습니다. 삼국시대 통일의 격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화들이 긴 회랑을 따라 전시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기록화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유명한 ‘남천정 출전도’입니다. 태종무열왕과 김유신이 남천정, 그러니까 지금의 이천에 모여서 군사 회의를 하는 모습을 그려 놓은 거죠.

고구려가 한강지역을 차지한 것이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한강지역으로 남진하면서 이 지역에 도착하고 보니 큰 강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남천’, ‘남매’(南買)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거죠. ‘매’(買)도 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신라가 진흥왕 때 다시 이 지역을 차지합니다. 진흥왕 순수비에 ‘남천’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고구려의 남천현을 점령하고 남천군주를 보냈다는 겁니다.



왼쪽: 경주 통일전에 있는 남천정 출전도. 오른쪽: 태종무열왕 영정.

태종무열왕 때 ‘남천정’(南川停)이란 명칭이 나옵니다. 태종무열왕이 김유신과 함께 경주를 출발해서 660년 6월 남천정에 도착해 머물지요. 일종의 군사주둔지 성격이에요. 남천정이 삼한을 통일하는 군사기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해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무너집니다.

경덕왕 때 이름을 황무(黃武)로 고칩니다. 통일 후 안정적인 국가운영을 하던 시기인데 이때 중국식으로 많은 제도를 바꿉니다. 고을이름도 중국

식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기이니 남천정 같이 군사주둔지로서의 성격을 바꾸는 거지요.

삼국사기 지증왕 조에 보면 신라(新羅)라는 이름을 ‘덕업일신 망라사방’(德業日新 網羅四方)으로 풀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업일신이라는 것은 왕의 덕업이 날마다 새롭다는 뜻입니다. 망라사방은 왕의 덕업이 천하사방 만리에 다 미친다는 뜻인데, 뜻풀이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이천의 뜻풀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이란 이름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는 우선 고려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사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고려사 권 56, 지(志) 제10, 지리(地理)1 부분을 보겠습니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고려사 권56 지10에 보이는 이천에 관한 기록

‘이천군(利川郡)은 원래 고구려의 남천현(南川縣) [남매(南賈)라고도 한다.] 인데 신라가 이를 병합하였으며 진흥왕 때 주(州)로 승격시켜 군주(軍主)를 두었고 경덕왕 때 황무(黃武)라고 고쳐서 한주(漢州)의 관할 하에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태조가 남쪽을 정벌할 때 이 군에 사는 서목(徐穆)이란 사람이 태조의 군사를 인도하여 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였으므로 돌아오는 길에 ‘이천’이라는 고을 이름을 내리고 그대로 본 목에 소속시켰다. 인종 21년에 감무를 두었고 고종 44년(1257)에는 영창(永昌)이라고 불렀으며 공양왕 4년(1392)에 왕의 할머니 신씨(申氏)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남천군(南川郡)으로 승격시켰다.’

936년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치러 갈 때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때 홍수가 나서 강물이 넘쳤기 때문에 강을 건너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효양산에 사는 서목이란 자가 왕건의 군사를 인도해서 강을 무사히 건너게 합니다. 그래서 왕건은 후백제를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고마움의 표시로 이 지역에 ‘이천’이라는 고을 이름을 내렸다는 겁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보면 왕건이 남정 길에 이천에 이르러 점괘를 보았다고 합니다. 점괘는 왜 보았을까요? 나라의 중대사가 걸린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 점을 봅니다. 강이 범람해서 군사들이 강을 건너기가 어려워지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 위해 점괘를 본 겁니다.

그때 얻은 괘의 풀이가 ‘이섭대천’(利涉大川)입니다. 큰 강을 건너면 이롭다는 뜻이지요. 왕건이 이 점사를 얻은데 힘을 얻어 무사히 강을 건넌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섭대천의 글자를 따서 고을 이름을 이천(利川)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어떤 역경을 만났다는 얘기죠. 난관에 부딪혀 위기 상황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담한 용기가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필요하지요.

이렇게 이천이라는 지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천의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천을 형성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식 속에서 그 지역을 흐르고 있는 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유대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천에 물이 좋다고 얘기하잖습니까? 특히 신문면 일대의 마을지명에 보면 물과 관련된 이름이 많습니다. 수하리, 수남리, 수광리, 남정리... 이렇게 마을 가까이 하천이 흐르고 어디에 우물을 파도 맑은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이천이 살기 좋은 고을이 된 게 아닐까요?

2. '이십대천'으로 풀어내는 이천의 지역정신



주역에 보면 이십대천이란 점사가 나오는 괘가 두개 있습니다. 수괘(需卦)와 익괘(益卦)인데요. 먼저 수괘(需卦)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괘는 '수천수'(水天需) 괄라고 부르는데요. 구름이 하늘 위에 있기는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 묵묵히 인내하며 때를 기다린다는 뜻인데요. 그러니 사람은 이를 본받아서 서두르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지내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이천은 유유자적하며 지내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곳이 장동리, 도립리, 송말리 이런 곳이지요. 조선 중종 때 기묘사화(1519년)로 조광조를 비롯한 여러 선비들이 큰 화를 당하자 이 은거지로 조선시대 초기에 많은 선비들이 내려와 살았습니다. 원적산 기슭에 여섯 선비들이 은거하며 살았던 것도 어찌 보면 이런 주역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거지요.



우곡리에 살았던 강온의 호는 '규정'(葵亭)인데 들풀로 정자를 짓고 산다는 뜻입니다. 남정리의 성담령은 '어조'(漁釣)라 했는데 낚시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장동리의 오경은 술과 자연을 벗하며 산다는 뜻으로 호를 '계산취'

로(溪山醉老)라 했습니다. 송말리의 임내신은 ‘어은’(漁隱), ‘퇴휴’(退休) 이런 호를 썼습니다. 숨어서 낚시한다, 벼슬에서 물러나 쉰다 이런 뜻입니다. 도립리⁴⁾에 은거한 엄용순은 호를 ‘남당’(南塘)이라 했습니다. 연못을 파고 정자를 지어 낙향한 선비들과 교류했는데 그 연못의 이름으로 호를 삼은 거지요.

마지막으로 모재 김안국이 있습니다. 김안국은 기묘사화 때 파직을 당하고 이천 좃골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호를 ‘주촌산로’(注村散老)라 했습니다. 좃골이 지금 어디냐 하면 부발읍 죽당리인데 바로 복하천 유역이잖아요. 그러니 수괘가 말하는 이섭대천의 뜻을 새기고 살았을 겁니다.

김안국 이분은 정말 특이한 분입니다. 당시 정국을 주도한 조광조와도 개혁에 대한 시각이 아주 달랐어요.

경상도, 전라도 관찰사로 나갔을 때 백성들이 무얼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서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농서와 잠서를 백성들이 알기 쉽게 한글로 번역하고 보급하는 일을 합니다. 여씨향약과 정속언해 같은 교육서, 의학서인 벽운방, 창진방을 보급하고 민간요법을 정리한 의서도 펴냅니다.



모재 김안국이 남긴 모재집(慕齋集)

그럼 이천에 내려와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천·여주 지역에 은거하면서 살았던 시기를 들여다보면 눈에 띄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 시기에 김안국은 학문을 깊게 연구하고 강론을 하면서 지냅니다. 귀천을 가리지 않고 향촌사람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멀리서도 그를 만나기 위해

4) 도립리(道立里)란 이름은 논어 학이편의 '본립도생(本立道生)'이란 말에서 왔는데 '근본이 서면 도(道)는 저절로 생긴다'는 뜻이다.

선비들이 찾아옵니다. 젊은 날의 퇴계도 김안국을 만나러 이천에 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직접 종이를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태지’(苔紙)라는 종이인데 물이끼와 닳나무 껍질을 섞어서 만든, 값싸고 질 좋은 종이입니다. 백성들도 쉽게 글을 쓰고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로 이런 발명을 한 거지요. 인근사찰에도 이 종이를 써 보도록 요청을 하지요.

또 하나 인상적인 건 삶의 양식을 소박하게 바꾸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그의 동생인 사재 김정국의 서신에 보면, 살면서 꼭 필요한 살림살이 10가지를 정했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1.두어 칸 집 2.두어이랑 전답 3.솜옷,베옷 두벌 4.책 한 시렁 5.거문고 하나 6.신 한 켤레 7.베개 하나 8.차 달일 화로 하나 9.늙은 몸 부축할 지팡이 10.봄 경치 찾아다닐 나귀 한 마리... 선비다운, 소박한 일상을 지키려 한 것이죠. 요즘 말로 생태적 삶을 추구한 것 같아요.

김안국은 긴 기다림 끝에 중종 32년(1537년) 다시 등용됩니다. 그리고 예조판서, 병조판서, 판중추부사, 홍문관예문관 대제학에 이릅니다. 오랜 기다림의 세월이 있었지만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이들의 교육과 교화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첩경이란 걸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 실천한 거지요. 그가 만든 태지를 왕께 올리고 각 도에 보급하도록 청하였고 백성들에게 이를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익괘(益卦)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괘를 ‘풍뢰익’(風雷益) 괘라고 부릅니다. 바람(巽)과 천둥(震)이 서로 도와 하늘은 생명을 베풀고 땅은 생명을 나게 하는(天施地生) 모습입니다. 이천이 이런 형국 이어서 기후가 온난하고 땅이 기름져 벼농사가 잘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익괘는 주역의 64괘 중에서 변화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괘입니다.

그래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는 게 이롭다고 말합니다. 그걸 이섭대천(利涉大川)이라고 하지요. 큰 강을 건너면 이롭다는 뜻인데, 큰 강이란 인

생의 곤경이나 위험을 상징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마라강에 가면 톰슨가젤이 악어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을 건너야만 목초지에 닿을 수 있는 거지요.

936년은 이천으로서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해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치러 가기 위해 북하천에 이릅니다. 하지만 여름 장마와 홍수로 강이 범람해서 건너기가 여의치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하지만 여기서 그만 군사를 돌려야 할까요? 무리하게 강을 건너다 군사를 잃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때 얻은 깨의 풀이가 이섭대천입니다.

익괘는 주역의 변화의 원리로 보자면 위를 덜어서 아래를 더한다(損上益下)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익괘를 이루고 있는 상괘와 하괘에서 상괘의 양효를 덜어내어 하괘의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괘가 자신의 일부를 덜어내어 하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결과가 바로 익괘의 형국입니다. 그럼 위를 덜어 아래를 더해주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익괘의 변화가 있기 전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익괘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비괘(否卦)입니다. ‘천지비’(天地否) 괘라고 하는데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모습이지요. 너무도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괘를 비괘(否卦)라고 부릅니다. 막혔다는 것이지요. 막혀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해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기운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땅의 기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천지가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더 위로 올라갈 생각만 하고 낮은 곳으로 밀려난 사람은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어 아래만 쳐다보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말 그대로 천지의 기가 막혀 폐색이 된 형국입니다. 주역에서는 64괘 중에 가장 좋지 못한 괘로 봅니다.

이런 짝 막힌 형국을 어떻게 돌파할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 위에 있는

사람이 나서서 자신의 것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 본을 보일 때 이 막힌 사태를 해소할 수 있고 소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군사들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한 사람이 바로 서목입니다.

익괘는 폐색되어 답답하기 그지없는 현실의 벽을 무너뜨리고 물꼬를 트는, 그런 변화의 실마리를 물고 오는 선구자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구자의 희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利)를 누리게 됩니다. 서목의 희생을 통해 황무현 사람들은 ‘이천’이란 고을 이름을 얻습니다. 주역에서는 이것을 ‘위를 덜어 아래를 더해주니 백성의 기쁨이 끝이 없다’고 풀이합니다.



비괘(否卦)와는 정반대의 괘가 태괘(泰卦)입니다. ‘지천태’(地天泰) 괘인데요. 천지의 위치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으니 자연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땅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에 있는 하늘의 기운이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만나게 됩니다. 천지가 만나고 만물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소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천태 괘를 주역 64괘에서 가장 이상적인 괘라고 보는 겁니다.

익괘의 익(益)은 홍익인간의 ‘익’자입니다. 이익을 남겼다고 말할 때 그 ‘익’ 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익’의 개념이 동양에서는 아주 심오합니다. 우리 동양의 지혜로는 항상 ‘손’을 앞세워요. ‘익’보다 ‘손’이 언제나 앞에 있고 또 강조가 되기 때문에 손익(損益)이라고 말하지 익손(益損)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Statement)

손익(損益)이라고 말하지 익손(益損)

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에 비해 서양에서는 항상 익(profit)을 우선시하지요. 기업의 목적이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손익계산서를 영어로는 ‘이익과 손실 계산서’(profit and loss account)라고 표현합니다. 서구적인 관점에서는 손(損)을 중요시하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지요.



이왕 나간 김에 한 가지 궤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손괘(損卦)입니다. 손괘를 ‘산택손’(山澤損) 궤라고 부릅니다. 산이 위에 있고 못이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못은 흙을 파낸 곳이고 산은 흙이 쌓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를 덜어서 위를 보태는 양상인데요.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비우고 덜어냄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손은 덕을 닦는 궤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이기심을 비우고 내려놓는 일. 그게 덕을 쌓는 일이기도 합니다. 손이나 익이나 둘 다 많은 것을 덜어내 모자라는 것을 채운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익은 사회적으로 선구자,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손은 내면적으로 시민의 도덕심에 의해 실천되어야 하는 덕목입니다. 기부나 후원, 자원봉사 같은 활동을 말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주역은 ‘손’(損)을 덕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손’을 앞세우는 거구요. ‘손’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손(損)을 할 때, 나를 손해 볼 때, 내가 가진 것을 우선 내려놓을 때 세상에 유익을 끼친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면에서 손(損)은 해(害)를 멀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역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장사꾼이라면 먼저 손(損)을 할 줄 아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주역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천의 유래가 되는 이십대천의 뜻과 그 속에 담긴 정신성을 이해하자면 어렵더라도 주역의 원리와

괘의 변화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신영복 선생님이 동양고전을 읽는 독법에 대해 두 권의 책을 내셨더라구요. 첫 번째가 ‘강의’, 두 번째는 ‘담론’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분이 살아오신 삶의 고뇌와 성찰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분이 삶 속에서 소화해낸 주역읽기는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고전을 읽는 안목이 타성에 젖은 우리들에게 오늘을 새롭게 해석하는 힘을 주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주역의 근본적인 사고와 사회변동의 원리를 쉽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생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천에 적용해 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역을 통달한다 한들 삶에 적용시키거나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기(地氣)에 능통해서 천하의 명당이나 복거지를 볼 줄 아는 풍수가라 하더라도 권세가들에게 빌붙어 그들의 묘 자리나 봐주는 사람이라면, 한낱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추구하는 하수에 불과하겠죠.



주역이란 변화의 원리입니다. 실천적으로는 이천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 변화의 방향을 주역에서 읽어내고 적용해보는 태도가 중요한 거지요.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막혀있는 형국이라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합니다. 먼저 본을 보이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지요. 그게 익패의 가르침입니다. 그걸 실천할 수 있다면 단언컨대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겁니다.

이천출신의 학자 중에 성천 유달영 선생이 계세요. 유달영 선생은 이천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천애향가라든지, 교가 작시도 하셨지만 제가 그분한테 빠진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분이 이천의 뜻을 이렇게 하셨어요.

‘홍이민여천수’(弘利民如川水) 라구요. 무슨 뜻이냐 하면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널리 백성을 이롭게 하여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감동입니다. 고을이름에 이렇게 깊은 뜻을 담아낼 수 있다니요. 이천이 가진 정체성에 대해 이보다 더 좋은 해몽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홍익인간의 이념보다도 더 저릿하게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까?



성천 유달영이 쓴 홍이민여천수

3. 쌀의 고장, 밥 한 그릇에 담긴 평화사상

이천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도호부가 됩니다. 세종 26년(1444)에 1천 호 이상이 되는 고을을 도호부로 하는 전례에 따라 이천현에서 이천도호부로 승격이 됩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보면 당시 이천은 인구가 1,026호, 4천명에 이를 만큼 커서 광주목이나 여주목을 앞섰어요.

경기도에서는 수원도호부 다음이었습니다. 조선 초의 대학자 양촌 권근이 지은 향교기에 보면 이천을 ‘땅이 넓고 기름지며, 백성이 많고 부유하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농사짓기에 알맞은 고장이란 뜻이지요. 이천시립박물관 가면 들어서자마자 이 문구가 벽에 써어있습니다.

이천의 풍수설화

우리 이천에는 풍수설화가 유난히 많습니다. 명당이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효양산에는 칠명당인가 팔명당이란 게 있습니다. 전설로만 내려오는 천하의 명당인데 그게 산 속에 숨어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명당은 몇 개 안됩니다. 이천서씨 시조인 서신일의 묘터, 그리고 약사암 터... 이렇게 두 군데 뿐입니다. 그럼 나머지 5개 명당터는 어디 있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효양산에는 아마리 영월신씨 묘에 대한 전설, 산촌리 비연개에 관한 전설, 마암리 장수물 전설... 이런 전설들이 많아요.

원적산에도 이런 풍수설화가 많습니다. 신라 말 도선대사가 전국을 찾아다니며 큰 인물이 태어날 만한 길지를 택해 다섯 군데에 소나무를 심었는데 그 중 하나가 송말리에 있는 반룡송입니다. 잘 아시지요? 큰 인물이 난다고 하니 이런 소문에 기대어 여러 성씨들이 이곳으로 들어와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또 원적산 아래 어딘가에 금소반 모양의 명당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금반형지’라는 건데요. 그 자리를 찾아 집터를 정하면 36대 동안 정승과 장군이 나고, 49개 성씨가 능히 거주할 만한 복거지라고 해요. 이 금반형의 길지를 찾는 비결이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도선대사가 지었다는 쇠구에 들어있다고도 하고 정감록이나 택리지에도 원적산 어딘가에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수가들 사이에 그 길지가 이 근방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대에 들어와 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최근까지도 금반형의 전설을 믿고 가산을 정리해 원적산 기슭으로 이주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순달이라는 한 만석꾼이 이 명당을 찾아서 들어왔는데 현방리에 70칸 집을 짓고 살다가 집안이 쓰러졌던 일도 있었고... 아무튼 여기에 얽힌 술한 일화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을 가끔씩 가보면 마을 어귀에 이것저것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어요. 축 사법고시 합격.. 행정고시 합격... 서울대 합격.. 뭐 주로 이런 것들이 붙어있어요. 송말리 영원사에는 아예 경내에 고시원이 있습니다.



백사면 도립리 산수유마을의 만추

아쉬운 건 풍수의 의미가 이렇게 자손이 잘되고 발복하기를 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그 이상으로 확장이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이 지요. 생각해보세요. 묘 자리를 어디에 썼더니 누가 복을 받고 장관을 했다더라, 어느 집안이 부자가 되고 잘 됐다더라... 이런 얘기는 혈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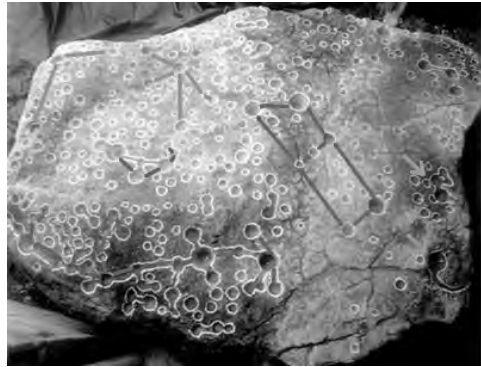
나 자연을 중심으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욕심만을 부추길 뿐 그 지역사회를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고을로 만들어가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천의 고인돌 문화

우리 이천을 풍수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늑하고 사람이 주거하기에 알맞은 지형이 형성되어 있는 거 같아요. 원적산이 북쪽에 길게 연이어 있고 서쪽으로 산줄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둔면에서부터 백사면에 이르기까지 수백 기의 고인돌 군이 길게 발견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천의 고인돌은 권 돌이 없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무지석식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건 거기에 보면 구멍이 막 뚫려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고인돌에 비해 우리 이천의 고인돌은 권 돌이 없다는 것, 그리고 성혈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는 것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살펴본 수십여 기의 고인돌을 살펴봤을 때 성혈이 꽤 많더라고요. 많게는 한 고인돌에 160여 개나 됩니다. 그 성혈에 대한 의미나 해석이 제각각이기는 하지만 아주 흥미롭습니다.

성혈과 비슷한 형태의 문양이 영국의 북 요크셔 지방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의 고인돌과 비슷한 형태의 거석문화가 영국에도 있습니다. 거기 입장에서 보면 구멍이 아니라 마크라고 하거든요 고고학에서는 이것 환혈(ring mark)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물결 파동이 있는 것처럼 바위 위에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경남 함안군 동촌리 고인돌의 성혈

우리나라에서는 성혈(cup mark)이라고 부르는데 별자리를 의미한다고도 하고 다산과 풍요를 의미한다고도 해요.

이 수많은 고인돌의 개석들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원적산 기슭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지역 일대의 마을지명에는 지석리, 도암리, 도봉리, 현방리⁵⁾... 이렇게 돌이나 바위와 관련된 지명이 많습니다. 고인돌 군은 신둔면에서 백사면, 여주 금사면 외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해발 60~90m 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뒤로는 양각산, 소당산, 원적산, 그리고 앞으로는 신둔천, 북하천 유역과의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거지요. 풍수에서 말하는 장풍득수(藏風得水)의 원리가 고인돌에도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농경문화에서 비롯된 평화정신

이천을 쌀의 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뒤로는 높은 산들이 바람을 막아주고 앞으로는 하천을 끼고 너른 평야층이 발달해 있습니다. 사람이 터를 잡고 살기에, 농사를 짓기에 좋은 고을의 형세입니다.

‘이천’이란 고을 이름이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 주제잖아요. 한 글자씩

5) 현암리와 온방리가 합쳐진 마을이름으로, 현암리는 오래된 문헌에는 묵방리(검은 바위, 검바위)라고도 불렀다.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천의 ‘이’(利) 자는 벼 ‘화’(禾)하고 칼 ‘도’(刀)가 합쳐진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낫으로 벼를 베는 것이고 농사해서 수확을 한다는 말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되니 그게 사람들에게 이롭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익(利益), 이윤(利潤), 금리(金利), 이자(利子)... 이렇게 경제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원래 ‘이롭다’는 말의 의미는 농경문화 속에서 형성되어진 한자입니다.

‘화’(和) 자도 재미있는 한자입니다. 화목하다, 조화롭다... 이런 말에서 주로 쓰이는데 ‘화’(和) 자를 보면 벼 ‘화’(禾)와 입 ‘구’(口) 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입으로 먹는다는 뜻이죠. ‘평화’(平和)라는 한자를 보겠습니다. 평화를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밥 한 그릇을 공평하게 나눠먹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천을 쌀의 고장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쌀’ 보다는 쌀에 담긴 ‘의미’와 ‘가치’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쌀 보다는 쌀 문화, 농경문화, 농사지으며 살아왔던 공동체 삶의 양식...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쌀만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만일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는 잘 먹고 장 입고 따스하게 잠을 자지만 누구는 여전히 가난하고 고통을 겪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살기 좋은 고을은 아닐 겁니다.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재능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요. 더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회로까지 가야 하겠죠. 어떤 식으로 공평하게 사이좋게 먹고사느냐 그런 생활양식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쌀이라는 ‘특산물’의 고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 속에서 공평함을 이루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그런 정신적 가치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고장이 될 것이냐 뭐 그런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겠죠.

존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책에 보면 현대사회에서 정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여기에 디케 여신이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디케



여신은 법의 여신, 정의의 여신인데 법원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신의 모습을 보면 먼저 얼굴에는 두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blind). 한 손에는 검(sword)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천칭(balance)을 들고 있습니다. 눈을 가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선입견, 혈연이나 지연, 재물이나 권력... 이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가리는 거죠.. 들고 있는 검은 법의 엄정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천칭(balance)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공정성을

의미합니다.

이천은 삼국시대에는 삼국의 쟁탈이 치열하게 벌어진 지점이기도 했고 지리적으로도 한반도의 중심에 해당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중심을 이룬다는 것, 균형을 이룬다는 것 이것을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울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성으로 이해하자면 이천은 먹고 사는 문체에 있어서 공평함을 이루는 곳입니다.

해월 최시형의 평화정신

다음 시간 강좌가 우리 이천의 동학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동학을 연구해 오신 윤석산 교수님이 잘 설명해주시겠지만, 1894년 동학혁명이 실패로 끝나면서 해월 최시형 선생이 피신생활을 하다가 이천 설성면의 수산리 쪽에, 그 당시엔 앵산동 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1년 간 숨어 사셨죠. 그러다가 여주 전거론으로 옮기셨는데 위장입교한 송경인에 의해 1898년 4월 원주 송골에서 체포되어 한양 도성으로 압상(押上)되셨어요.

1898년 6월 2일 지금의 종로3가 단성사 터에서 처형되신 후 광희문 밖으로 시신이 버려졌습니다. 당시에는 이 문이 도성 안에서 처형당한 죄수

들의 시신을 성 밖으로 내다버리는 시구문이었습니다. 처형 직전 러시아 사진사가 찍은 사진을 보면, ‘동학괴수 최시형’이란 낱말을 붙여놓고 뼈대가 앙상한 모습으로 앉아계시는데 고문으로 발은 통통 부어 처형장까지 걸어가실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 제자들이... 정암 이종훈 선생 이런 분들이 그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가보니 여러 죄인들의 시신이 뒤엉켜 있고 비가 억수로 내리는 밤중에 겨우 시신을 찾아내서 몰래 묻어놨다가 경기도 광주 쪽으로 옮겨왔어요. (이 자리에 계신 이광희 선생님도 광주 이씨라 잘 알고 계시지만) 이종훈 선생이 광주 이씨여서 급하니까 우선 광주 쪽에 매장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다가 해월의 시신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 원적산(동학에서는 천덕산이라 부릅니다)으로 옮겨오게 된 겁니다. 송말리 영원사에서 산 위로 올라가 바라보면 해월 선생의 묘소가 보입니다.

해월의 젊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최시형은 1827년 경주 황오리 출신으로 어려서 부모를 잃습니다. 17살 때부터 제지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33살 때에서야 동학을 접하고 명상과 극기로 수련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1863년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로부터 도통을 전수 받습니다. 그런데 최시형은 동학에 입도한지 2년밖에 안된 사람이에요.

특별한 연고도 혈연관계가 없는, 가난하고 일자무식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수운은 최시형이라는 사람을 전수자로 택하지요. 이게 동학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준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해월 최시형. 못 배웠지만 정말 영특하고 신실하고... 그래서 한 눈에 들어왔고 마침내 수운은 그에게 도통을 전수해주죠.



처형직전의 해월 최시형

다음 해인 1864년 수운 최제우가 처형을 당하자 동학은 위기에 빠집니다. 그때 해월의 놀라운 지도력이 발휘됩니다. 도피생활을 하면서 스승의 유족들을 보살피고 스승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계를 조직해서 교도들을 결집시킵니다. 그리고 수운대신사가 남긴 말들을 필사하고 교리로 정리해 경전을 간행합니다. 최시형이 그것을 다 쓰죠. 그래서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기독교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처형 후 예수의 행적을 기록하잖아요. 바울이 로마 전역에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교리화 하고 교회에 서신을 쓴 것과 비견될 만 해요. 책을 등짐에 지고 숨겨가지고 다니면서 전국을 발이 부르트도록 누비고 다닙니다. 전도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동학의 도를 전하는 걸 동학에서는 ‘포덕’(布德)이라고 해요. 한울님의 덕을 널리 알린다는 뜻이죠. 그 시기에 동학의 교세가 급속도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월 최시형이 ‘최 보따리’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겁니다. 20여 년간 해월의 피나는 노력으로 동학이 교세와 조직을 갖추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1892년부터 해월은 교조신원운동을 벌입니다. 교조 수운대신사의 사면을 요청하는 겁니다. 실력행사를 한 거죠. 먼저 전주 삼례에서, 그리고 이듬해인 1893년 한양에 올라가 왕에게 직접 상소해서 사흘 밤낮을 통곡합니다. 그래도 신원이 되지 않자 충북 보은에서 세 번째로 모입니다. 수만 명이 모여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화도 없고 카톡도 없는 시절이었는데 동학도들이 모입니다. 교조 사면, 부패관리 처단, 그리고 외세를 배척하여 의병을 일으킨다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놀란 조정에서 탐관오리를 파면하고 회유를 하자 자진해산을 합니다.

1894년 1월 드디어 고부에서 일이 터지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납니다. 삼시간에 호남 전 지역을 장악하지요. 조정은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했고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도 군대를 파병합니다. 외세의 침탈에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동학군은 6월 전주에서 외국군대의 철수

를 조건으로 조정과 화약을 맺고 자진 해산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철수할 리가 없지요. 드디어 청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 강토를 짓밟으며 말이죠.

전주화약 이후 동학군은 호남 53개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주민자치를 실시합니다. 폐정개혁안 이란 걸 제시하고 탐관오리 척결 등 개혁을 추진합니다. 유사 이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땅을 다스린 거죠.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시민봉기를 주도하는 마리우스

뮤지컬영화 ‘레 미제라블’에 보면 코제트의 애인 마리우스가 시민봉기 때 바리케이드를 치고 프랑스 국기를 흔들며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시민봉기가 프랑스에서는 여러 번 일어나는데 1871년에는 파리시민들이 파리를 점령하고 민중자치를 실시합니다. ‘파리코뮌’이라

고 하는데 2개월 정도 유지됐어요. 하지만 집강소는 5개월이나 지속됐습니다.

해월은 무력이 아니라 끝까지 평화적인 방식으로 개혁을 이루고자 했어요. 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1894년 9월 전봉준이 다시 삼례에서 봉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조인 해월에게 거병을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평화적인 방식을 고집하던 해월은 오랜 숙고 끝에 마침내 총 기포령을 내립니다. 전국의 모든 동학도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11월초 공주 우금치에서 동학군은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군과 맞붙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신식무기 앞에 무참히 패하고 말지요. 해월은 전열을 가다듬고 충북 일대에서 다시 몇 번의 전투를 더 벌입니다. 12월 16일 보은 북실전투, 24일에는 음성 되자니전투에서 패하자 해월은 해산령을 내립니다. 그 후 해월은 관군에게 쫓기며 교도들의 집을 전전하다가 1897년

2월 이전 양산동까지 오게 되는 거죠.

해월의 양산동 향아설위 설법

양산동에서 지내시는 동안 1897년 4월에 해월이 반포하신 유명한 설법이 있습니다. 그게 ‘향아설위’(向我設位)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를 향해 제사상을 차리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제사법은 다 향벽설위(向壁設位)라고 할 수 있어요. 벽을 향해 신위를 놓고 제사상을 차리는 제사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사는 모시는 신을 향해 제물을 올리는 거지요. 우리가 아닌, 타자.. 절대 타자인 신을 향해서 음식을 차리고, 희생물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설성면 수산리에 세워진 향아설위기념비

그런데 최시형 선생이 어느 날 향아설위를 이야기했어요. 제사상을 돌려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왜 제사상을 돌리라는 거지? 전통적인 유교 제례법에 따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제사상을 돌리라는 겁니다.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날이 득도 기념일이라 예식을 행하기 위해 제자들이 제수를 차리려고 했었나 봅니다. 향아설위의 의미는 바로 내 안에 한울님이 계시니까 내 안의 한울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이 옳다. 천지만물과 신인합일의 이치가 이미 내 몸 안에 갖추어져 있다 그런 설법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내수도문이라는 법설에 나오는 건데요) ‘만사지 식 일완’(萬事知 食一碗)이라고 하셨어요. 완(碗)은 그릇 완입니다. 세상만사의 모든 이치가 밥 한 그릇 먹는데 숨어있다는 뜻입니다. 천의인 인의식(天依人 人依食) 그러니까 한울은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데 의지하니 만사를 안다는 것은 밥 한 그릇을 먹는 이치를 아는데 있다는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화(平和)라는 말에 ‘화’(和) 자가 들어가잖아요. 밥을 먹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평화라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밥 한 그릇을 공평하게 먹는 이치를 깨닫는데 있는 겁니다. ‘만사지 식일완’이라는 것도 모든 세상만사의 진실이 밥 한 그릇을 공평히 먹는 데에 있다는 걸 밝히는 거예요.

밥 한 그릇 앞에서 누구나 평등합니다. 상하귀천 남녀존비 이런 온갖 차별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동학에 입도만 하면 상놈, 백정, 양반, 노비... 뭐 이런 신분 다 내려놓고 서로 맞절을 하고 경어를 씁니다. 그야 말로 천국(天國) 천민(天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학의 사상이지요.

이천의 동학이야기는 감동스럽다

해월선생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저는 초기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서 세워져가는 과정과 여러모로 공통된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해월은 수운대신사의 가르침을 필사하고 정리해서 경전을 간행하고 그것을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맨발이 부르트도록 동학을 전파하죠. 그렇게 해서 기반이 세워진 동학이 세상의 불의와 정면으로 대결합니다. 동학혁명으로 말이죠. 그리고 패배합니다.

그 후 전국을 숨어 다니면서 앵산동에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설법을 합니다. 거처를 여주로 옮기면서 병으로 몸져눕지만 서서히 관군의 포위망이 좁혀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의암 손병희에게 도통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됩니다. 스승이 체포되자 의암 손병희, 정암 이종훈 이런 제자들이 그 뒤를 쫓아 서울로 올라옵니다.

해월이 처형되고 나서 제자들이 비가 쏟아지는 밤에 광희문 밖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광주 송파까지 옮겨옵니다. 하지만 관의 지목이 두려워 다시 천덕산으로 이장하게 되지요. 춘암 박인호 선생이 유골을 운구합니다. 밤새도록 내리는 비를 맞으며 산으로 올라갑니다. 1991년 임권택 감독이 만든 ‘개벽’이란 영화를 보면 해월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영화 내용이 거의 군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장면들입니다. 가족도 못 챙기고 팔도를 떠돌며 굶고 노숙하고 평생을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 속에서도 그는 스승인 수운의 가족을 돌보고 경전을 간행하고(아마 그가 17살부터 제지소에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새끼를 꼬고 하면서 손을 놓지 않습니다. 잠잘 때가 아니면 방에 눕지를 않았어요. 한울님이 쉬지 않으시니 나도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해월의 삶을 그린 '개벽' 1991. 임권택 감독

그리고 약자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해월이 청주에 있는 한 제자 집에 들렀는데 베 짜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누가 베를 짜느냐?”

“제 아내입니다.”

“누가 베를 짜느냐?”

“제 아내입니다.”

“한울님이 베를 짜고 있느니라.”

원주 송골은 해월이 체포되신 곳입니다. 해월에게서 감화를 받아 독특한 생명사상을 틔운 분이 있는데 바로 무위당 장일순 선생입니다. 나락한 알 속에 우주의 이치가 들어있다 이게 무위당의 사상인데요. 해월도 밥 한 그릇 속에 세상의 이치가 다 들어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사상의 연결성이 있습니다. 해월의 사상에 굉장히 감화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중 김지하 시인이나 도올 김용옥 선생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백범 김구 같은 분도 유교집안이었지만 동학을 접하고 동학교도가 되었습

니다. 나중에는 기독교인이 되었지만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천으로서는 굉장한 문화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재기 선생님이 설성면 주민자치위원장이신데요. 1년 전인가 문화원을 찾아오셨어요. 수산리가 해월 선생이 머무셨던 앵산동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설성면의 자원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6월 2일이 해월 선생이 순도한 날이거든요. 원적산 뒤편에 해월선생 묘소가 있습니다. 천도교에서는 매년 6월 2일 버스 두 대로 참배를 오기 때문에 그때 같이 올라가 기념식에도 참석하고 오후에 설성면 앵산동으로 가서 마을사람들과 서로 이야기할 시간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천도교에는 신도들이 어르신이 많잖아요. 고령화되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천도교는 제사법 자체가 극도로 간소합니다. 청수 한 그릇만 올립니다. 일체의 형식과 허례허식을 다 없애요. 향아설위라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혁명적이잖아요. 그렇게 간소화되다 보니까 종교적 유대감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젊은 층에게 동학의 정신을 새롭게 이해시키고 현대적인 미디어를 활용할 과제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천도교 중앙총부에 가 봐도 거의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주 돌아가시니까 제가 1997년인가 해월 선생 묘소에 갔을 때만 해도 버스가 세 대, 네 대 이렇게 왔었는데 지금은 두 대 정도 오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김재기 위원장님과 만남을 주선해서 6월 2일날 천도교에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김재기 위원장님이 이천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작년 12월에 향아설위 반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조금 더 바램이 있다면 거기에 조그맣게 향아설위 기념관을 세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한옥마을에 있는 동학기념관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동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봐야 할 순례코스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구연영의 의병 활동

해월이 가르치고자 했던 동학의 가르침은 결코 무력이나 폭력에 의한 사회변화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세상은 무력이 아니라 덕으로 사람을 교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거지요. 동학혁명이 실패로 끝나고 그 다음해에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내려집니다. 이에 분개한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이천에서도 의병이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무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민족의 갈 길을 열어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연영 의사입니다.

구연영은 김하락, 조성학, 김태원 등과 1895년 11월 이천, 광주, 양평, 여주 등지를 다니며 의병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단발령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천수창의소’라는 의병을 조직해 1896년 1월 넓고개(靑峴)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⁶⁾ 남한산성을 2개월 동안 점거하면서 서울 진공작전을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패퇴하고 남은 병력을 이끌고 제천, 안동, 의성, 청송... 이렇게 경북 지역까지 내려가 끝까지 치열하게 전투를 벌입니다.

김하락은 경북출신이어서 그 지역 지세에 많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구연영을 따랐던 의병들은 이천 광주 출신이었기 때문에 낮은 산악지대에서 싸워야 하는 불리한 조건이었지요. 5월 청송 비봉산 전투에서 맞붙게 됩니다. 처음엔 기습공격으로 큰 승리를 거두는 듯 했어요. 하지만 관군은 계속 증원되고 일본군의 신식무기 앞에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결국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막판까지 온 거지요.

구연영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무력

6) 김하락의 진중일기를 보면 백현으로 되어있는데 넓고개(靑峴)를 말합니다.

항쟁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승산이 있을까? 또 나와 함께 했던 동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무모한 희생보다는 남은 병력을 모아 후일을 도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내면의 갈등을 겪는 거지요.

5월 27일 구연영은 회군을 합니다. 그를 따르던 경기도 출신 의병 30여 명을 이끌고 말입니다. 김하락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과 좌절을 안겨준 소식이었어요. 그는 이천으로 돌아와 기나긴 침거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무력 항쟁으로는 승산이 없다. 이런 방식으로는 일본을 물리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무력항쟁에서 계몽운동으로

얼마 뒤 그는 기독교로 회심하고 매서인이 되어 이천 곳곳을 누비고 다닙니다. 하지만 이런 갑작스런 변화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큰 오해를 받습니다. 구연영의 집안 역시 전통적인 유교 가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에 있던 가재도구를 정리해 팔고, 종들을 해방시키고,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그러지요.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걸 두고도 많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사람 또 무슨 꿍꿍이속이야?’ ‘그가 정말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봐?’ 이런 의심스런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던 겁니다.

1899년 이천에 최초로 덕들교회가 세워집니다. 구연영은 세례를 받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등에는 복음괘짝을 메고 이천의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전에는 의병장이 되어 총을 들고 나섰던 무력항쟁의 길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들고 검비와 사랑으로 무장하고 나선 평화의 길이었습니다. 참다운 힘이란 싸움을 그치게 하는 힘입니다.



1900년대 초 복음을 전하는 권서인들

힘이 없어서 물러선 게 아니잖아요. 그 힘은 내면에서 비롯된 거지요. 결코 의기가 모자라 회군했던 배신자가 아니라는 걸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구연영 부자가 순국한 이천장터

1902년 경 구연영은 구국회를 결성합니다. 민중들에게 새로운 구국의 길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이죠. 새로운 방식으로 민족의 앞날을 내다본 겁니다. 안옥희, 장준명, 한창섭, 차화춘, 전무호... 그와 함께 의병에 참여했던 동지들도 이제는 구연영을 따라 개종하여

전도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들이 시도했던 의병운동의 가치는 무력항쟁으로부터 계몽운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았고 그걸 끝까지 목숨 걸고 실천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4. 설화를 통해 읽어내는 이천의 정서, 기질

지역마다 그 지역의 정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기질이란 게 있습니다. 흔히들 경상도사람은 ‘무뚝뚝하고 고집이 세다’ 이러잖아요. 기질은 그 지역을 이루고 있는 자연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산악지역에서 살았는지, 평야지대에 살았는지, 바닷가나 강변에서 살았는지에 따라 그 지역 사람의 기질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어온 역사적 경험들도 지역 기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질을 잘못 풀어내면 그 지역을 폄하하거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지역을 바라보게 만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역감정을 조장하기도 하구요. 하지만 그런 표피적인 것 말고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기질은 그

지역의 정신성으로 연결됩니다.

그 지역의 기질을 모르면 그 지역에 들어가 살기 어렵지요. 물이나 공기, 토질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사람의 기질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질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을 붙들고 여기 사람들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신들이 살아온 지역의 기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저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래서 타지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이런 차이점은 타지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체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천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천은 평야지대로 땅이 기름지고 소출이 풍부해 사람이 살기에 좋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수많은 전쟁과 수탈을 경험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힘없는 백성들이 고향산천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힘이 필요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줄 장수가 필요합니다.



이영환 화백의 '구만리들'. 2006. 지본수묵담채

이천사람들은 나라가 어지러울 때 수탈이 심할 때 그리고 잘못된 일을 볼 때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반골기질이라고 할까요. 뭔가 속박당하기 싫어하거든요, 누군가 외부의 힘이 들어와 다스리려고 하거나 억압하려고 하는 일이 있으면 강하게 저항하려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큰 화를 당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광해군 때 이천이 도호부에서 현으로 강등됩니다. 인조 때, 영조 때, 그리고 정조 때도 현으로 강등됩니다⁷⁾. 다 역적으로 몰리거나 역모와 관련된 일들 때문입니다.

7) 광해5년(1613년) 이경준이 역모하여 주살되다. 인조22년(1644년) 홍양걸이 역적으로 사살되다. 영조5년(1728년) 박필상의 역모사건이 있다. 정조1년(1776년) 유한

1871년 신미양요 때 어재연 장군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 나갔어요. 승산이 없는 싸움이지요. 병력이나 무기, 화력 그 어느 것으로도 이길 방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끝까지 지켜낸 전쟁이었죠. 조선군 전사자 350여명, 미군은 단 3명. 어재연장군과 그 부하 장졸들이 끝까지 목숨을 던지며 순절한 거죠. 조선 조정에선 미군이 물러갈 때까지 개항에 대한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켜낸 겁니다.



어재연 장군기를 빼앗아가는 미군

1900년대 초기에 이천지역에는 수많은 무력항쟁과 크고 작은 전투, 민중봉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군이 의병들을 색출하고 보복으로 이천지역의 모든 민가들을 죄다 불태우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참화에 대해서 맥킨지라는 외국기자가 쓴 기록도 남아있어요.

신라가 진흥왕 때 이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경덕왕 때 새로 붙여진 이름이 ‘황무’(黃武)인데요. 이 ‘무’(武)가 이천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 같아요... ‘무’는 단순히 힘이 세다거나 힘으로 누구를 제압한다거나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를 이루고 있는 한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창 ‘과’(戈)에다가 그칠 ‘지’(止)입니다. 창을 내려놓는 거지요. 싸움을 그치는 겁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서, 싸움에 져서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고 상대보다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싸움에 패한 자들이 취하는 굴욕적인 모습인 거 같습니다. 싸움에 지면 무기를 내려놓고 손을 올리거나 무릎을 꿇어야 하니까요. 다시 말해서 ‘무’(武)란 스스로 내

신이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계된 장소로 역적으로 죽게 되다.

려놓는 힘, 싸움을 그치는 내면의 힘입니다. 구연영 의사도 이걸 깨달은 거지요.

이런 부분은 이천지역의 설화가 다른 지역의 설화에 비해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분석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천에는 장수설화가 유난히 많아요. 의기가 충만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힘이 세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디 그리 만만한가요. 힘만 가지고 덤비다가 그만 권력에 무릎을 꿇던지 거사를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실패를 하고 말지요. 눈에 보이는 힘의 한계를 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려면, 백성을 구하려면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설봉산 삼형제 바위

그럼 이천의 몇 가지 설화를 살펴보겠는데요, 영월암에는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영월암은 천년고찰이지요. 영월암 위쪽 바위에 보시면 보물로 지정된 마애여래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봉산에는 아주 유명한 바위가 있습니다. 바로 삼형제바위지요. 삼형제바위 전설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전국에 참 많이 있습니다. 많긴 많은데... 이천에 있는 삼형제바위 설화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걸 찾아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야기가 ‘미완성’이란 점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옛날 우애가 깊은 삼형제가 설봉산에서 흠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나무하러 간 아들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걱정이 된 어머니

는 아들들을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 아들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형제들은 산 속을 헤매며 어머니를 찾았다. 그때 갑자기 큰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달려가 보니 절벽 아래에 어머니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기 일보직전이었다.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삼형제는 절벽에서 용감하게 뛰어내렸다...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이야기가 미완성 구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딱 멈춰버리죠. 누군가 이야기를 이어가야 합니다. 적어도 이 인문학 강좌를 들으시면 그 전 이야기, 그 후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도 1~3편이 프리퀄(prequel)로 만들어졌지요. 그 전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또 들리는 소문에는 앞으로 만들어지는 새 스타워즈 시리즈는 그 후 이야기, 시퀄(Sequel)로 전개된다고 합니다.



‘텔마와 루이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아주 유명한 끝 장면이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너무도 지겨운 두 여성이 건잡을 수 없이 일탈 행동을 하게 되면서 쫓

기고 쫓기다가 그랜드캐년 벵글 끝에 물리게 됩니다. 수많은 경찰들이 총을 들이대고 있는데 둘은 조수석과 운전석에서 서로 손을 꼭 잡고는 절벽을 향해 엑셀을 끝까지 밟으며 날아옵니다. 얼마나 통쾌한 장면인가요. 거기서 딱 스틸 컷으로 멈추고 영화는 끝나거든요! 많은 영화들의 끝 장면이 이런 스틸 컷 장면입니다.

서양의 그리스 신화에도 이런 스틸 컷 장면들이 있어요. 강의 요정 다프네는 아폴론이 너무도 싫습니다. 하지만 에로스의 화살을 맞은 아폴론은 다프네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 미칠 지경입니다. 아무리 숨고 싫다 해



도 아폴론이 집요하게 쫓아오는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다프네는 하수의 신인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저를 살려주세요. 그때 갑자기 월계나무로 변해버리죠. 거기가 스틸 컷입니다. 수많은 거장과 화가들이 이 스틸 컷 장면을 그렸습니다.

고통스럽게 몸이 뒤틀리며 머리와 손이 가지가 되고 다리는 땅에 박혀 뿌리로 변해가는 다프네와 그녀를 바라보는 아폴론의 모습이야말로 예술가가 포착하고 싶어 하는 장면입니다. 아폴론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된 월계나무의 가지를 꺾어 머리에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월계관은 승리와 명예의 상징이 됩니다. 이탈리아 조각가 베르니니(Gian Lorenzo Bernini)의 ‘아폴론과 다프네’는 최고의 걸작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유사에도 스틸 컷 장면이 나옵니다. 의상이 당나라로 갔을 때 선묘낭자가 그의 설법에 반해서 사모하여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죠. 하지만 의상은 불법을 배워야 하는 학승이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요. 그러자 선묘는 스님이 수행을 다 끝내고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스님께 지어드릴 가사장삼을 일일이 바느질해 만들어놓고는 재회할 날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의상이 신라로 돌아가는 그 날 둘은 만나지 못하고 간발의 차이로 배가 떠나버리고 말죠. 그래서 선묘는 의상이 무사히 신라로 갈 때까지 풍랑을 잠재우는 용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 장면에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야기는 계속 되요. 의상이 신라로 돌아와서 화엄의 큰 가르침을 전할 사찰 터를 찾고 있는데 도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비켜주지 않는 겁니다. 의상이 이들의 횡포에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때

선묘가 큰 너럭바위로 변해서 도적들을 위협합니다. 여기가 스틸 컷입니다. 바위의 위협에 놀라 도적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사찰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커다란 돌이 공중에 떴다 하여 부석사(浮石寺)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제 설봉산 삼형제바위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서도 스틸 컷 장면을 앞으로 해서 비디오 영상을 돌려보듯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상황에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삼형제가 뛰어내렸죠? 그것도 삼형제가 동시에 말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형제들은 공중에서 갑자기 바위로 변한 채 그렇게 바위가 됐을까요? 그렇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과연 어머니는 목숨을 구하셨을지, 아니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혔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만일 어머니만 홀로 목숨을 건지셨다면 이제 흠어머니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뛰어내리는 것도 좋지만 무모하게 다 죽는 것보다는 누군가 남아서 어머니를 모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순서를 정하든지, 역할 분담을 해서 누가 남아 어머니 시신을 수습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을 텐데 왜 생각 없이 삼형제는 동시에 뛰어내렸을까... 이 대목에서 신나는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어떨까요? 이야기 구조를 이렇게 변형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형제는 누가 뭐랄 것도 없이 동시에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그러자 세형제가 커다란 바위로 변하더니 허공에 뜬 채로 한 덩이의 바위는 어머니를 해치던 호랑이를 막아서고 다른 한 덩이는 어머니를 수호하고 세 번째 덩이의 바위는 호랑이의 머리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위협하니 호랑이는 이내 달아나버리고 말았다.

어머니가 정신을 차려보니 호랑이는 온데 간데 없고 절벽에는 세 아들이 변한 바위들이 우뚝 서 있었다. 어머니는 세 덩이의 바위가

아들들임을 알고 부처님의 은덕을 감사하며 기도를 드린다...'
미완성의 이야기가 이렇게 고쳐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영월암 위에는 마애여래입상이 커다란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바위에는 나옹스님의 천도담 이야기가 서려있지만 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을 거 같구요, 다만 영월암의 마애석불이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올라가서 보면 이천이 다 내려다보이거든요. 이천 정토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이천사람들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굽어보면서 자비하는 마음으로 내려다보았을 이천의 모습을 찬찬히 읽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암산 아기장수

이천에 장수설화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호암산은 북하천, 백사면 쪽에 있는 작은 산인데, 바로 이 호암산에 아기장수 설화가 있어요. 여기서 아기장수가 태어나는데 배경은 뭐냐 하면 백성들이 너무나 폭정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든 상황을 구원해줄 누군가가 태어날 거다. 그게 아기장수 설화예요. 구원자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지요.

어느 지역이나 이런 설화들이 있는데 그럼 이천에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힘들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큰 장수가 나타나 그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기대에서 아기장수 설화가 이천에 정착을 한 겁니다.

호암산 아기장수설화가 다른 지역의 아기장수 설화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어머니 아버지가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더러 겁이 나는 거지요. 아

사실이 알려지면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될 테니까요. 아기를 보니 겨드랑이에 조그맣게 날개가 달려있는데 부모는 겁이 나서 쥐어뜯는 거예요 미리... 아기는 오그라져 죽고 말지요.

다른 지역의 설화에서는 또 다르게 나와요. 날개가 뜯겨져 아기장수가 그대로 죽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버전에 의하면 이 아기장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른데서 자라고 있어요. 바위에서 말입니다. 아기가 일종의 미숙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완성체가 되기 위해선 인큐베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아기를 보듬고 장수로 키워줄만한 진정한 태가 바로 바위인 거지요.

바위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되는 바위 속에서 아이가 자라거든요. 달을 채워야 그 바위가 열리게 되는데, 애석하게도 그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포악한 군졸들에 의해 바위가 갈라지고 말지요.. 그래서 완전체로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기장수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호암산 설화는 또 다른 예고를 해줍니다. 바로 그때 장수를 태울 용마가 나타나 북하천으로 빠져 죽게 되는 장면이 있지요.



2015 경기도자비엔날레에 출품한 Johnson Tsang의 작품

또 다른 소문은 북하천에서 아기장수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도, 바위도 지켜주지 못한 아기장수를 이번에는 하수가 받아서 길러냅니다. 끝내 살아서 이천 백성들을 구해낼 것이라는 희망이지요.

지금 경기도자비엔날레를 하고 있잖아요. 설봉공원 경기도자센터에서 국제공모전 전시를 하고 있는데 대만 작가 존슨 창(Johnson Tsang, 張貼在)이란 분이 있습니다. 쪽 걸어가며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데 이 분의 작품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날개가 달린 어린아이가 죽어있고 그 주위에 똑같은 어린아이들이 특공부대 군복을 입고 서로를 가리키며 울고 있습니다.

다가가보니 ‘누가 저질렀나?’(Who did it?) 이런 제목이 붙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기장수를 죽여놓고 서로를 지목하며 통곡하고 있는 거지요. 아이러닙니다. 같은 신분이잖아요, 아기장수와 백성들은. 아기장수의 부모님도 똑같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인데 그들을 구원할 아기장수를 그들 손으로 죽이고 밀고를 하고 총으로 사살하는 겁니다.

효양산 산신령

효양산, 겨우 178m밖에 안 되는 작은 산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숨어 있는 이야기와 사상은 거대합니다. 효양산에 전해오는 설화들 가운데는 아주 독특한 얘기들이 많아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효양산 화수분, 금베틀, 그리고 금송아지 이야기입니다. 다 천하의 보물입니다. 178미터의 작은 산에 천하의 보물이 3가지나 있답니다.

효양산 금 베틀 이야기에다 바위가 등장합니다. 효양산 어디선가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면 쿵덕쿵덕 소리가 나요. 바위 속에서 들리지요. 베틀 째는 소리인데 저절로 베를 짍니다. 하지만 마냥 베틀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여인이 부르는 노래 소리에만 베를 짍니다. 가난한 백성의 소리에만 신묘한 금 베틀이 움직이는 거죠. 효양산 화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탐하거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들의 눈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문학의 특징입니다.

금송아지 이야기는 이천이야기의 최고봉입니다. 어느 날 중국황제의 대야에 갑자기 금송아지의 찬연한 모습이 비칩니다. 놀란 황제는 일관을 불러 이 일이 무슨 까닭인지 알아내라고 하지요. 일관은 그 금송아지는 신묘한 힘을 가진 천하의 보물이라고 알려줍니다. 황제는 신하에게 명을 내려 그 금송아지를 찾아오도록 명합니다...

참 이상한 얘깁니다. 왜 효양산 금송아지가 중국황제의 대야에 비칩니까? 기암괴석을 자랑하는 천하의 명산들이 중국에도 즐비한데 178미터밖에 안 되는 효양산이 왜 비쳤을까요? 사실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이야기가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산의 기운이 세고 영험해서 그 기운이 황제의 대야에까지 비쳐졌다는 거지요. 또 하나의 이유는 효양산에 천하의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말입니다. 끝으로 효양산이 세상의 중심산이기에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산이기에 비쳤다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만 지혜문학에서는 아득하게 높이 솟아있는 곤륜산이 우주산이 아니라 낮고 볼품없는 효양산이 진정한 우주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주산이란 게 하늘과 땅, 두 세계를 이어주는 장소를 말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본질중의 하나가 성육신, 육화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저 까마득한 하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지상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얘가지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주산이 되려면, 까마득히 높아야만 되는 게 아니고 막혀있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설화에서 효양산 신인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평범하기 그지없는 노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남루한 누더기옷을 입은 걸인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놀랄 만한 이야기는 효양산의 산신령이 영험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모든 산신령 중에 으뜸이라는 얘깁니다. 또 효양산의 신인은 여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중성을 갖는 거지요. 성과 신분을 초월하고 또 모두를 아우릅니다.

서희의 평화정신



오원 장승업의 '사슴'

효양산의 신인은 또 자연스럽게 이천서씨 시조 설화와 연결이 됩니다. 이천서씨 시조로 알려진 서신일은 신라에서 아간 벼슬을 한 사람이지만 신라가 국운이 다했음을 알고 효양산 기슭에 은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서신일의 동생인 서목은 효양산에 사는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어느 날 서신일이 효양산에서 화살에 맞은 사슴을 구해주고 그날 밤 꿈에 신인과 만나면서 얻게 된 자식이 서필이고 서필이 낳은 아들이 바로 서희입니다. 서희 선생이 이렇게 어린 시절을 효양산에서 살았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서희가

평화적인 정신을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서희는 효양산 신인의 정신과 얼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효양산 신인은 금송아지를 탐내어 찾아온 중국 사신을 이야기로, 지혜롭게 설득하여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서희도 거란의 장수 소항덕을 탁월한 언변으로 설복해서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이야기로, 외교력으로 적장을 물러가게 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천에는 공동체 의식 속에 평화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막힌 것을 뚫고 소통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정신이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야기라면, 우리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풀어내야한다면 그와 같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재해석된 우리 이천의 이야기를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의 동학 이야기

- 동학이란 씨앗이 이천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은 이야기 -

윤석산 현재 한양대 명예교수, 천도교중앙총부 상주선도사, 교서편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30년 가까이 동학을 공부하며 ‘용담유사 연구’, ‘주해 동학경전’, ‘동학의 다시개벽’, ‘이야기 동경대전’, ‘일하는 한울님’ 등의 동학 관련 책과 주해서를 냈다. 어린 시절부터 시를 써왔으며 1967년 중앙일보, 1974년 경향신문 신춘문에 시 부문에 당선되었고 ‘바다 속의 램프’ 등 여러 권의 시집을 내기도 했다. 한국시인협회 사무국장을 맡았다.

1. ‘다시개벽’으로서의 동학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경험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을 말할 때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고 말한다. 개벽은 세상이 처음으로 열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개벽이라 하면 보통 신화에서 말하는 맨 처음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 것을 뜻하거나, 지금 세상이 가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는 의미의 후천개벽을 말한다. 그러나 동학에서는 후천개벽이라는 말보다는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다시개벽’이란 말을 쓴다.

동학의 역사는 불과 150여 년뿐이 되지 않았다. 어느 종교에 비하여 일천한 역사를 지녔다. 그러나 동학은 한국의 근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상이며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에서 새로운 미래적 전망을 보여준 종교로 인구에 회자된다. 어느 종교에 비해서도 그 역사가 일천한데도 왜

그러한가? 한국의 역사는 조선조 후기 이후 일컬는바 개화기, 그리고 근대로 이어지면서 격동의 시기를 지나왔다. 이와 같은 격동의 역사 속, 동학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 역사의 소용돌이를 헤쳐 나가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동학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인 모습들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894년 일어난 갑오동학혁명, 1904년의 갑진개화운동, 동학을 이은 천도교에 의하여 주도된 삼일 독립운동, 그리고 삼일운동 이후의 출판, 문화, 어린이, 농민운동 등을 들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조 후기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봉건, 외세를 물리치고자 했던 동학혁명을 일으켰고, 근대적 삶을 실천하고자 한 개화운동, 또 일제의 식민침탈에 저항한 독립운동, 그리고 근대적 문명, 문화를 위한 출판문화운동 등 동학은 한국 근대사의 중심에서 활동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과 함께 우리의 뇌리에 가장 깊이 각인되어 있는 동학혁명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동학’이라고 하면 ‘머리띠’를 두르고, ‘죽창’을 든 성난 민중들의 모습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동학의 실체는 투쟁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동학혁명은 동학의 정신이 시대적 역사적 현실과 만나 비릇된 모습이며 현상일 뿐이다. 이러한 하나의 현상만을 가지고, 동학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며, 코끼리의 전부로 말하는 것과 비유될 수 있다.



동학의 근본적인 정신은 투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변혁에 있다. 변혁을 위해 역사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투쟁이라는 방식이 선택되기도 했던 것이다. 갑오 동학혁명은 봉건의 억압과 외세의 침략에 항거하므로 진정한 삶을 얻으려는 노력이었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일상적 삶의 양식을 새롭게 변혁하고자 한 것이 갑진 개화개혁운동이었다. 또한 일제의 식민 수탈로부터 벗어나 민족의 독립과 함께 새로운 삶을 이루려는 노력이 기미 삼일독일운동이고 새로운 사조인 근대적 사유를 적극적으로 현재적 삶에서 이루고자 했던 노력이 출판, 문화 농민운동이었다.

이와 같이 변혁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동학에서 '다시개벽'이라고 한다. '다시'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열어가는 그 노정이 한번이 아니라 거듭됨을 말하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여하히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로 열어간다는 데에 '다시개벽'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다시개벽'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시', 그 시대적 소명과 함께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데에 그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 후천개벽이라 하면 한 번에 끝나는 개벽을 의미할 뿐이지만 '다시개벽'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동학이 말하는 다시 개벽은 시대적 소명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또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이룩하고자 변혁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

2. 수운 선생과 다시 개벽

수운 최제우 선생이 경신년(1860년) 4월 5일 결정적인 종교체험(宗教體驗)을 하면서 세상에 펼친 가르침의 핵심은 '사람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시천주(侍天主)' 사상이다. 이 시천주는 당시 조선의 봉건사회를 뿌리부터 뒤엎을만한 크나 큰 반역이며 하나의 혁명적 발언이 아닐 수 없었다. 지존(至尊)인 임금도, 최하층민인 천노(賤奴)도 다 같이 한울님이라

는 신을 모신 존재로, 본원적으로 서로 같은 존재라고 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봉건적 질서를 유지해온 신분의 문제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어 놓은 충격적인 가르침이었다. 이와 같은 시천주의 가르침에서부터 동학의 새로운 삶의 질서를 이룩하고자 하는, '다시 개벽'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동학이 창도되던 19세기 중반 무렵의 조선은 서서히 유교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신념체계와 사회질서가 아직 대두되지 못하던 혼란한 시대였다. 또한 세도정치로 인해 국가의 재정과 제도가 정치적으로 문란해졌다. 겹치는 흉년과 함께 전염병이 나돌아 민생의 삶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허덕이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서양의 침략이 가시화되면서 시대적 불안이 가중되던 시기였다.



수운 대신사 최제우

당시의 시대의식은 지배계층이 훌륭한 정치를 펴서 요순(堯舜)과 같은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하층민 역시 잘 살 수 있다는 매우 수동적인 자세였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층민뿐만 아니라, 하층민 역시 그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수운 선생의 가르침이었다.

수운 선생의 가르침은 '시천주', 곧 모든 사람이 본원적으로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모두가 평등하다는 가르침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울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현실 문제에 수동적이던 민중들에게 자신도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각성을 주게 되었다. 당시 억압받던 하층민 역시 시대 변혁의 선두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오늘날 민주사회가 말하고 있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면과 그대로 통한다.

시천주를 통한 의식의 변혁이 민중들 사이로 파급되면서, 당시 19세기

중반이 지닌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를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계층만이 아닌, 상층민, 하층민을 망라하고 모두 함께 힘을 합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자각을 주었다.

또한 당시 조선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수운 선생의 인식은 달랐다. 조선사회가 시대적 위기를 맞은 것은 어느 한 계층, 곧 상층계층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보았다. 상층, 하층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타락과 함께 오는 위기라는 것이 수운 선생이 지닌 당시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이었다. 따라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망라한 민족의 단위로, 국가의 이름으로 시대적 위기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운 선생의 가르침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학에 입도를 하게 되었고, 하층민만이 아니라 시대의 개혁을 요구하는 지식인들 역시 동학으로 많이 모여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면에서 동학은 일부 하층민을 위주로 한 폭도들의 집단이 아니라, 시대를 바르게 개혁하고자 하는, 시대적 사명을 지닌 사람들의 집단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경주에 있는 천도교 성지 왼쪽부터 포덕문, 성화문, 용담정

3. 해월 선생의 가르침 - 생활 속에서 개혁을 이루라

수운 선생으로부터 도통(道統)을 물려받은 해월 최시형 선생은 빈천(貧賤)한 신분의 사람으로, 배움도 많지 못한 사람이었다. 학식도 재산도 없는 당시에 소외된 하층민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 정성이 하늘에 이어져

높은 경지에 이른 분이다. 수운 선생은 해월 선생의 이러한 부분을 높이 사서 도통을 전수해 준 것이다.

이러한 도통 전수는 곧 동학이 보는, 사람에 대한 평가기준이 일반적인 평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시사한다. 흔히 외양적인 것, 학식이나 신분, 부(富) 등을 중시하는 것이 일반이지만, 동학은 외적 조건이 아닌 내면의 세계를 더 중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해월이 도통을 전수받은 후 얼마 안 있어 수운 선생이 체포가 되어 순도를 하고, 조정에서는 동학의 뿌리를 뽑고자 해월 선생 등 당시 동학의 지도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지명수배령을 내린다. 해월 선생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어우러지는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산간마을 50 여 군데를 전전하며 36년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숨어 지낸다.



해월 선생은 관으로부터 집중적인 지명수배를 세 차례에 걸쳐 받는다. 그러나 그가 산간마을을 전전하며 다만 숨어 지낸 것만은 아니었다. 30여 년의 긴 세월을 숨어 지내면서, 삼남(三南)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세를 확산시키는, 수십만 명의 커다란 교단으로 동학을 키워나간다.

이렇게 동학의 교세가 커지고 조직이 정비되자 동학은 조정을 향해 스승인 수운 선생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伸冤)하고자 교조신원운동을 펼쳤고, 또 갑오동학혁명을 주도하는 큰 세력의 교단으로 성장을 한다. 동학은 더 이상 산간에 숨어 지내는 무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당당히 자신의 주장을 펴는 교단으로 발돋움하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동학이 전국적인 규모의 교단으로 그 교세를 떨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해월 선생의 가르침에 의한 지도 때문이었다. 해월 선생은 당시의 소

외된 사람, 그리고 새로운 변혁의지를 지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이들에게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동학 2세교주 해월신사 최시형

해월 선생의 가르침은 스승의 가르침인 시천주를 바탕으로 했다. 이러한 가르침을 간략히 요약하면, 사인여천(事人如天), 삼경(三敬), 이천식천(以天食天), 향아설위(向我設位) 등이다. 이들 가르침들은 새로운 차원의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가 된다.

봉건사회의 신분제도는 반상(班常)에 의한 차별만이 아니었다. 아직 그 당시 사회가 인식하지 못한 남녀, 노소 등의 횡적인 차별도 내재되어 있었다. 해월 선생의 가르침인 사인여천(事人如天)은 봉건사회가 지닌 종적, 횡적인 차별을 뛰어넘는 데에 그 본의가 있다.

그 구체적인 실례로 ‘떠느리도 한울님이다.’라는 가르침과 ‘어린아이를 때리지 마라.’는 가르침이 있다. 이와 같은 사인여천(事人如天)은 궁극적으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가르침이다. 이 사인여천의 가르침은 ‘삼경사상(三敬思想)’으로 이어진다.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의 삼경사상은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 온 인간중심의 사유를 벗어나, 만유(萬有)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가르침이다. 또한 이 삼경사상은 ‘일마다 한울님 일이 아님이 없다.’는 사사천(事事天)과 ‘물건마다 한울님 모시지 않음이 없다.’는 물물천(物物天)으로 이어진다.

이 사사천, 물물천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 온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어 놓고자 하는 가르침이다. 따라서 이 가르침에는 모든 일

이 한울님의 일이라는 사유가 깃들여 있고, 따라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이 성스러운 일이라는 가르침이 된다. 이는 곧 일상의 삶을 성화(聖化)시키는 가르침이다. 즉 속(俗)으로서의 일상을 성(聖)스러운 차원의 삶으로 바꾸고자 하는 가르침이 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농사일을 한다거나 밥을 짓는 일을 한다고 해도, 혹은 비천해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해도, 이 일이 곧 한울님의 일인 성스러운 일 이 된다. 그러니 자신이 행하는 일이 성스러운 일이라는 자각으로 인하여 자신의 일에 스스로 자긍심을 지니게 된다.

삼경(三敬)을 근간으로 하는 사사천(四時天)은 또한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 온 귀(貴)와 천(賤)의 관념은 바꿔놓는다. 지금까지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귀천(貴賤)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가 귀천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삼경의 가르침은 부와 권력만이 중시되는 속되고 천한 삶의 풍토를, 보다 경건한 삶의 자세로 바꾸어놓는다. 나아가 인간 중심의 오만으로 인해 빚어진 환경 파괴의 삶을 근원적인 면에서 만유와 어우러져 사는 삶으로 그 인식을 바꾸어 놓는다.

‘한울로서 한울을 먹는다.’는 이천식천(以天食天)은 만유를 인간의 편견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일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사상이다. 해월은 만유가 모두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니, 이 만유가 먹는 것도 결국 한울님을 먹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이러한 이천식천에는 동질적 기화(同質的 氣化)와 이질적 기화(異質的 氣化)가 있다. 비를 내리고 햇살을 보내 동식물이 살아가는 것을 동질적 기화라고 한다면, 서로 먹고 먹히므로 종족을 보존해 나가는 것을 이질적 기화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이천식천은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온 살육과 다툼이라는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인식을 서로 어우러져 살아간다는 기화작용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 즉 기화작용(氣化作用)을 통해 만유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공생(共生)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생명의 본질이 바

로 이 기화작용에 의한 조화와 균형, 공생에 있다는 가르침이다.

또한 이천식전은 불균형과 부조화의 삶을 균형과 조화의 삶으로 바꾸는 가르침이다. 생명의 본질이 다툼과 살육이 아닌, 조화와 공생에 있음을 천명한 가르침이다. 인류의 삶을 보다 다른 차원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시천주를 이은 해월 선생의 가르침은 ‘사인여천’, ‘삼경’, ‘이천식천’ 등의 가르침으로 이어졌다. 인간 중심의 삶을 생명 중심의 삶으로, 속(俗)의 삶을 성(聖)의 삶으로 이끄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보여주었다. 해월의 가르침은 인간의 삶을 개혁하고자 하는, ‘다시개벽’의 길이었다. 해월 선생이 펼친 개벽은 다름 아닌 시천주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의 변혁이며, 끊임없이 다시 이어질 삶의 개벽이었다.

4. 이천 앵산동과 향아설위

1894년 12월 24일은 동학군이 충북 음성의 되자니에서 최후의 결전을 치른 날이다.(양력으로는 1895년 1월 30일) 해월신사는 남은 병력을 정비하여 동학혁명의 마지막 전투였던 되자니에서 일전을 벌였다. 그리고 되자니에서 패한 해월신사는 각 지도자들에게 해산령을 내렸다.

동학 지도자들은 충청도 이북의 산간지역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일원으로 몸을 피한다. 해월도 여러 제자들과 함께 강원도와 충청도 일대의 산골마을로 거처를 옮기면서 숨어 지내다가, 1897년 2월 음죽군(陰竹郡) 앵산동(鰲山洞, 현 이천군 설성면 수산리)이라는 산골 마을로 숨어들었다.

이 기간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금까지 유교적 관습에 의하여 실행해 오던 제례를 동학의 전신이 담긴 제례법으로 바꾸어 시행한 사건이다. 이 무렵 동학교도들 가운데 상을 당하면 초하루와 보름, 곧 삭망(朔望)으로 치성(致誠)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해월신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사문(師門)의 유법(遺法)이 아니니 영영(永永) 물시(勿施)하는 동시(同時)에 다만 조석(朝夕)으로 식고(食告) 예(禮)를 행(行)하며 지성(至誠)껏 한울님을 봉양(奉養)하라.’

또 이어서 말하기를 ‘수도(修道)는 내외화순(內外和順)이 제일(第一)인데 그 근본(根本)은 힘쓰지 않고 한나라 때 무고(巫蠱)의 여풍(餘風)을 사모하니 실로 통탄할 일이다. 도가부인(道家婦人)이 혹(或) 경외지심(敬畏之心)이 있어 청수(淸水)를 받들려거든 3.7일이나 7.7일 또는 100일 등 기일을 정하여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정성과 공경으로 한울님의 감응(感應)을 받도록 하라’ 고 분부하였다.

이와 같은 해월 신사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행해오던 전래의 유교적 제례를 버리고 동학의 정신이 담겨진 제례를 행함으로써 그 종교적 심지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해월 신사는 이곳저곳으로 숨어 지내면서 각 처의 교도들에게 법설과 동학의 정신이 담긴 의례를 시행함으로써 무너진 동학을 다시 추스르고 재건하고자 하였다.

그 해 4월 5일 수운 선생 득도일을 맞아 제례를 행할 때, 해월 선생이 제자들에게 향아설위(向我設位)에 의한 제례를 모시도록 하였다. 향아설위(向我設位)는 지금까지 위패를 벽을 향해 세우는 ‘향벽설위(向壁設位)’가 지닌 관념을 뒤바꾼 것으로, 인류 역사상 초유의 대사건이다. 이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사 물으시기를 ‘제사를 지낼 때에 벽을 향하여 위를 베푸는 것이 옳으냐, 나를 향하여 위를 베푸는 것이 옳으냐.’ 손병희 대답하기를 ‘나를 향하여 위를 베푸는 것이 옳습니다.’ 신사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니 이제부터는 나를 향하여 위를 베푸는 것이 옳으니라.’
...

임규호 묻기를 ‘나를 향하여 위를 베푸는 이치는 어떤 연고입니까.’ 신사 대답하시기를 ‘나의 부모는 첫 조상으로부터 몇 만대에

이르도록 혈기를 계승하여 나에게 이른 것이요, 또 부모의 심령은 한울님으로부터 몇 만대를 이어 나에게 이른 것이니 부모가 죽은 뒤에도 혈기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요, 심령과 정신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제사를 받들고 위를 베푸는 것은 그 자손을 위하는 것이 본위이니, 평상시에 식사를 하듯이 위를 베푼 뒤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심고하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의 교훈과 남기신 사업의 뜻을 생각하면서 맹세하는 것이 옳으니라.’

위(位)를 벽을 향해 세운다는 것은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제례법이다. 신이 먼 초월된 공간에 계시고, 또 죽은 혼백 역시 신이 계시는 초월된 공간으로 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이 계신, 조상의 혼백이 계신 곳을 향해 신위를 세웠던 것이다. 그 일 예로 유교의 제례법을 보면, 혼백(魂魄)이 멀리 구천(九泉)에 있어 먼저 혼백을 부르는 초혼(招魂)을 한다.

그래서 향을 피우고 향기가 나는 술을 뿌린다. 향을 피워서 천상으로 떠도는 혼(魂)을 지상으로 내려오게 하고, 술을 뿌려서 지하에 있는 백(魄)을 오게 하여, 안치한 신위(神位)에 모셔놓는다. 즉 이 위(位)에다가 신이나 조상을 모셔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이나 돌아가신 조상이 계시는 곳, ‘나’라는 살아있는 사람과는 다른 저쪽, 곧 벽 쪽에 이 신위를 세웠던 것이다.



2014년 12월 설성면 수산리에서 향아설위 기념비를 제막했다.

5. 제례법의 혁명 - 청수일기와 향아설위

신위(神位)를 벽을 향해 세우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제례법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통적인 제례법이다. 이에 비해 향아설위(向我設位)는 나의 혈기와 부모의 혈기, 그리고 한울님의 영기가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동학의 시천주 정신이 그대로 담겨진 제례법이다.

시천주의 정신에 의하면, 나는 한울님을 모시고 있고 한울님은 나의 근본이 되는 천지부모이다. 따라서 이 천지부모인 한울님은 나의 근본인 동시에 모든 조상의 근본이기도 하다. 그러니 나의 조상이 다른 먼 곳에, 피안 너머에, 벽 쪽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 벽을 향해 신위를 세울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내 안에 모셔진 조상을 향해 신위를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다. 이와 같이 향아설위는 선천의 어느 가르침, 어느 제례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사법이다.

이 향아설위의 정신이 발현된 것은 이미 1875년부터였다. 이때 이미 이와 같은 정신이 담긴 제례법이 해월 신사에 의하여 제정된 바 있다. 1875년에 이르러 해월 신사는 단양 송두독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제례를 열었다. 이때 참석한 사람들은 강수, 유인상, 전성문, 박규석, 김연순 등이었다.

제례를 준비함에 전일의 예에 의거하여 제수(祭需) 음식을 마련하여 제상을 차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례를 행하려 할 즈음에 이르러, 해월 신사가 문득 강화(降話)의 가르침을 받고는, 앞으로는 제물을 진설하지 않고, 오직 청수(淸水) 한 그릇만 모시고 제례를 지내는 날이 틀림 없이 올 것이라고 설법을 하였다.

제수(祭需)란 흔히 조상이나 산천의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조상이나 신들이 흠향(歆饗)하게 하기 위하여 차려놓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제수는 곧 제를 지내는 사람의 정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제수를 마련하고 또 차리면서 살아계신 조상께 음식을 대접하듯 그러한 정성으로 제수를 마련하고 차리는 것이다. 즉 제수라는 것은 이렇듯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육신을 지니지 않은 조상, 그러므로 이제 한울님의 영기라는 근원적 생명과 혼연일체가 된 조상이 상에 차려진 제수를 흠향할 수 없다는 것이 해월 신사의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비록 청수 한 그릇이라고 해도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고 또 정성이 있으면, 이는 제수를 차리지 않아도 그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러한 청수일기(淸水一器) 제례법은 해월이 앵산동에서 제창한 향아설위 제례법의 바탕이 되었다. 쉽게 말해서 청수 일기의 제사법이 동학 제례의 외양적인 형식이 된다면, 나를 향하여 위패를 세우는 향아설위 제례법은 곧 정신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6. 향아설위가 지닌 의미

앵산동에서 해월이 펼쳤다는 향아설위는 지금까지 인류가 벽을 향해 신위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던 것을 일시에 무너뜨리고, 나를 향해 신위를 돌려 세운 전혀 새로운 제례법이다. 향벽설위는 '조상과 나', '신과 나', '죽음과 삶'을 구분하고 이분화 시켜 버린다. 이로 인해 내가 조상을, 내가 절대자인 신을, 그리고 삶이 죽음을 섬기기만 하는 제례법이 된다. 이를 바꿔 생각하면, 조상이 나를, 신이 나를, 죽음이 삶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런 관념의 제례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아설위(向我設位)는 '조상과 내'가, '신과 내'가, '죽음과 삶'이 모두 하나이고, 그러므로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어우러져 살아가는 동학의 정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제례법이다.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온 위계에 의한 억압의 구도가 아닌,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룸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인류의 삶은 모든 것을 이분화하고 위계적 질서를 이루는 삶이었다. 이로 인해 모든 것이 지배와 억압, 피지배와 순종이라는 구도

속에서 이루어졌다. 중세까지의 위계질서는 신이 인간의 우위에 있고 인간이 자연의 위에 있어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근대 이후의 위계질서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층계층이 하층계층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聖)이 속(俗)을, 신(神)이 인간을,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구도를 이룬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다.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온 이와 같은 관념을 무너트리고 성(聖)과 속(俗)이, 신(神)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유기적 관계를 지니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는 데에 동학의 정신이 있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동학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현실 위에 나타난 것이 향아설위 가르침이다. 인간과 인간의 조화만이 아니라 삶과 죽음, 나아가 신과 사람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해월이 이천 앵산동에 숨어살면서 수운 선생의 득도일인 4월 5일 행한 향아설위 설법은 그동안 모든 종교가 시행해온 제사법을 일시에 뒤집는 혁명이며 후천개벽을 실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하다. 나를 향해 위패를 세운다는 향아설위는 지금까지 벽 쪽에 세우던 위패를 돌려 ‘나’, 곧 ‘살아있는 사람’ 앞에 되돌려 놓음으로써 조상과 나를, 신과 인간을 하나로 합일시키고, 인류의 삶을 조화와 균형의 삶으로 바꾸어놓는 대전환의 사건이었다.

앵산동에 남아 있는 그 정신은 속(俗)의 삶에서 성(聖)의 삶으로,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남성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분열과 갈등에서 화합과 조화로 인류의 행보(行步)를 옮겨 놓는 바탕이 되는 정신이다. 동시에 동학이 지향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 곧 ‘다시개벽’을 여는 위대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7. 해월신사 최시형 약력

- 1827 3월21일, 경주 황오리에서 탄생하다.
부친은 경주최씨(慶州崔氏) 종수(宗秀), 모친은 월성배씨(月城裴氏)
본래 이름은 경상(慶翔), 포덕 16년에 시형(時亨)으로 고치다.
자는 경오(敬悟), 호는 해월(海月)이다.
- 1861 35세에 경주 용담에서 동학에 입도하다.
- 1863 7월, 수운 대신사(최제우)로부터 해월(海月)의 도호를 받은 후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에 임명되다.
8월14일, 대신사로부터 도통을 이어받다.
- 1867 10월, 「양천주(養天主)」의 설법을 하다.
- 1871 3월, 영해에서 교도 6백여명을 동원, 교조신원운동을 하다.
- 1872 1월, 「대인접물(待人接物)」에 대한 설법을 하다.
- 1880 5월, 인제군 갑둔리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하고
6월 15일, 경전 간행 치성제를 행하다.
- 1881 6월, 단양 남면 샘골에서 『용담유사』를 간행하다.
- 1883 2월, 충청도 목천에서 『동경대전』, 1000부를 간행하다.
- 1884 10월, 조직편제의 하나로 6임제(六任制)를 정하다.
- 1885 9월, 「천주직포설(天主織布設)」의 설법을 하다.
- 1890 11월, 금릉군 복호동에서 「내수도문」과 「내칙」을 반포하다.
- 1891 10월, 「임사실천(臨事實踐) 10개조」를 반포하다.
- 1892 10월에 공주에서, 11월에 삼례에서 교조신원운동을 하다.
- 1893 1월, 「천지부모」에 관한 통유문을 반포하다.
2월, 교조신원을 위해 광화문전에서 복합상소를 하다.
3월, 보은 장내리와 전라도 원평에서 3만명이 모여 척왜양창을
내세우며 집회를 주도하다.

- 1894 3월 21일, 백산에서 김덕명, 김개남, 손화중 대접주가 전봉준을 대장으로 추대, 동학혁명의 깃발을 올린다.
5월, 청일양군(淸日兩軍)이 상륙하여 주권을 침해하자 9월 18일, 해월신사는 옥천 청산에서 총기포령을 내려 항쟁에 나서게 하다.
12월, 공주전투를 고비로 일본군에 밀려 혁명운동은 잠정상태가 되다.
- 1897 4월 5일, 이천 앵산동에서 「향아설위」의 설법을 하다.
12월 24일, 도통을 의암성사(손병희)에게 전수하다.
- 1898 4월 5일, 원주 송골에서 관헌에게 피체되어 한성으로 압상되다.
6월 2일, 한성감옥에서 72세를 일기로 교수형으로 순도하다.

이천의 민속에 내재된 강과 바다 이야기

- 굿 문화를 통해 지역의 생활사를 읽어내다 -

박흥주 굿연구소 소장. 경희대 국문과 객원교수. 전주산조예술제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자칭 굿전도사인 그는 대학에서 탈춤을 만난 뒤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굿(무굿, 탈굿, 풍물굿, 소리굿)을 직접 배우고 연구해왔다. 특히, 마을굿의 가치에 주목하면서 전국의 마을 굿 기록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굿의 가치와 굿의 미학을 정리하여 ‘살아있는 굿문화 만들기’ 작업에 노력 중이다. 저서로 ‘서울의 마을굿’(2001), ‘서울굿의 이해’(공저 2007), ‘바람난 삼신할매’(2009) 등이 있다.

1. 굿 문화 속에 스며있는 한국인의 정체성

반갑습니다. 제가 청년시절 ‘탈춤’을 만나면서 탈춤이 뭘까 탈춤에 담긴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굿’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굿을 공부하기 위해 팔도를 이 잡듯 돌아다녔습니다.

탈춤과 굿을 분리시킬 수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 하회탈춤(하회별신굿)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 하회탈춤이 전승이 끊어졌는데 1920년대 초반 정도가 마지막이었지요. 그것을 대학 선배님이 복원해서 해보고 싶다고 저희 후배들을 끌어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술도 많이 먹고, 육도 많이 하고, 세상 육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굿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되었지요.

그래서 요즘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네 직업이 뭐냐 하면 ‘굿전도사’

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직업이죠. 결국 오늘도 이천문화원에 와서 이 강의도 굿을 전도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굿을 공부하다 보니까 현장을 많이 가야 되고, 무당, 굿도 많이 보게 되는데 굿이 한가지만이 아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무당들이 하는 것만 굿이라고 하는데, 한국문화와 굿을 깊이 공부하다 보니 풀물, 단소, 판소리, 민요를 다 접하게 되더라고요. 한국문화, 전통문화라고 하면 그것을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 문화나 예술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민속예술인들은 팽과리 치는 것도 굿, 활동사진도 굿보러 가자, 불구경도 불굿 구경가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요. 요즘에 와서는 ‘민중예술’이라고 거창하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분들은 이걸 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랑을 하고 자식을 낳고 키우고 돈 버는 이 모든 것들을 굿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두레’라는 것도 결국 굿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라는 고민에서 나온 문화라고 할 수 있죠. 두레는 굿으로 해야 됩니다. 일꾼조직에 반드시 풍물패가 결합이 됩니다. 풍물패 조직, 그러니까 지금의 예술조직이 함께 따라 나갑니다. 모도 심고 김도 매는 일을 함께 하는 거지요. 군으로 비유하면 대대에서 1중대는 일꾼조직, 2중대는 풍물패 조직이라 볼 수 있죠. 학교나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 아파트나 동

호인 모임에도 자생적인 풍물패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계’ 하시는 분 있나요? 계가 만들어진 이유는 같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공동으로 필요한 재산, 자본, 자금을 마련해서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 갈 때 쌀을 조금씩 가져간 적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계의 연장선에서 나온 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은행에 갈 수 없을 때 은행기능을 하는 것이 계가 될 것입니다.

재미교포들이 미국에 가서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는데 기여한 것이 ‘계’였다고 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를 통해 서로를 밀어준 것입니다. 세탁소를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려면 계를 통해 기반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계도 굿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한국문화 자체가 굿이라는 기반 위에 있어요. 굿문화를 바탕으로 그 위에 불교도 유교도 도교도 그리고 요즘은 기독교도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문화는 비빔밥문화입니다. 가닥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섞여있는 거죠. 맛있는 문화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데 동네별로 맛이 세거나 하는 이런 차이만 있습니다.

한국문화는 어느 시점을 잘라서 보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바다의 문화도 한 축을 차지하고 섬이 아니니까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대륙의 문화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대륙의 문화가 내려오고 바다의 문화가 올라와 섞여있는 문화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뒤섞여있고 인문지리적으로도 뒤섞여 있습니다.

한국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독특한 한국문화, 독특한 소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기름과 고추장이 그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뭘 비벼도 기가 막힌 비빔밥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천의 문화는 어떤 비빔밥일까?, 이천의 비빔밥은 어떤

맛일까?, 이천만의 쏘스는 무엇일까? 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찹쌀고추장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 밀가루고추장은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자신을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천에 있는 내부자의 목소리만 말하지 말고, 오픈해서 다른 시각에서 판지를 걸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천의 문화, 이천의 민속에 있어서 제가 자신 있게 떠들 수 있는 분야가 민속입니다. 제가 자칭 굿전도사인데, 아르바이트도 하고 대학에서 공연도 하고 방송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천의 현장을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 남한산성 일대는 집중적으로 이 잡듯이 다녀봤지만 여기는 아쉽게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천, 여주도 이 문화권으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한강을 통해서 오고 가는 문화의 충돌, 그리고 그 문화를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상권다툼, 뒤에서 움직이는 돈을 바탕으로 세력을 가지려는 끊임없는 투쟁,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이천이 가지고 있었던 농토, 쌀, 땅의 문화하고 끊임없는 전쟁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 흔적이 남한산성에도 많이 남아있고 이천에도 많이 남아있다는 그 단초들이 보였습니다.

2. 땅끝마을 칩머리당에 숨은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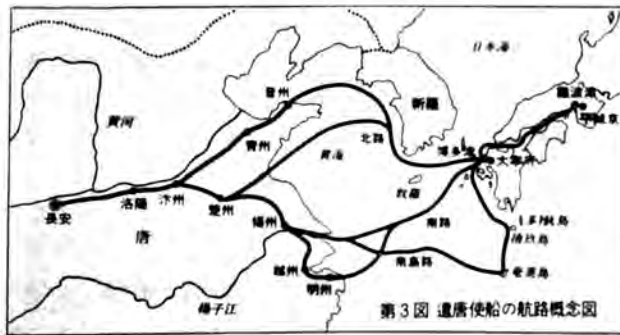
우선 소개를 하고 싶은 게 ‘땅끝마을’입니다. 가 보니 땅끝이 실질적인 땅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마을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남군에서 집중적으로 정책적으로 밀어서 키운 것이죠.

땅끝을 옛날 말로는 ‘갈두’라고 했습니다. 칩 갈(葛), 머리 두(頭), 한국말로 바꾸면 칩머리가 됩니다. 땅끝마을을 가보면 뒤에 있는 전망대가 바로 갈두산입니다. 그 산에 칩이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전망대 반대편 기슭에 조그마한 이 항구가 있습니다. 2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



왼쪽: 해남 땅끝마을 침머리당. 오른쪽: 갈두산 전망대와 인근의 항구

다. 항구가 있는 곳에 서있는 이 당(앞 사진)이 ‘침머리당’입니다. 폐허가 된 것을 다시 복원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청자’가 나왔습니다. 갈두마음이 예전에 엄청나게 흥성했는데 기차와 같은 내륙교통이 발달하면서 쇠퇴를 했습니다. 땅끝마을의 이 당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지도(동아시아 고대 항로)를 염두에 두고 봐야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장보고가 이 일대를 놀이터로 만들면서 장사를 하며 권력도 행사를 하던 센터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장보고의 해상왕국이 공식적으로

활동한 것은 20년 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10년 가지고도 될까말까 한데 이런 정도의 해상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면 적어도 5년 사이에 네트워크를 깔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천이 도자기가 유명하지요. 장보고가 돈을 번 것은 바로 청자입니다. 청자라고 하니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고려청자가 만들어지기 전 당나라 월주지역에서 청자가 많이 생산됐습니다. 주로 찻잔입니다. 차 문화가

신라시대에 당나라로부터 들어왔어요. 흥덕왕 때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대림이 차씨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보입니다. 당나라에 유학한 승려들도 차와 차잔을 좋아했고 신라 경주의 귀족들에겐 필수품이었어요.

9세기 초에 우리나라 서남해안 일대에서 해무리굽 청자가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고려청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중국 월주청자의 해머리굽 모조품을 개발을 해서 대량으로 만들어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 유럽으로 팔아먹었던 겁니다. 그 정도의 광활한 스케일을 가지고 천 년 전에 이런 사건을 벌였던 것입니다. 천 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전부터 형성된 네트워크 기반 속에서 장보고가 이걸 장악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고대 항로들이 처음엔 연안항로로 갔습니다. 당시엔 상하이 위쪽 ‘주상 군도’가 중요한 거점입니다. 이렇게 다니다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시간과 돈을 줄이기 위해 연안보다는 직접 가는 항로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여기(땅끝)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한반도 내에서의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곳이 중요하냐 하면 이 옆에도 바다인데 이곳이 바다 물결이 세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라 모든 배들이 이곳에 기착을 하는 거지요. 이곳에서 물때를 보고 물자도 보급하고 휴식도 취하는 항구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출항하기 전 불안을 달래고 무사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 사람들이 ‘취머리당’에 와서 무사안녕을 비는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취머리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끝이라는 것보다는 지형상, 교통상 이곳에 머물다 갈 수 밖에 없었고 머무는 과정에서 교류가 일어나는데 한반도 사람만의 교류가 아닌 국제적인 교류의 장, 아라비아 상인들도 머물며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중국은 빈번히 드나들었고, 삼남지방의 어부와 상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이란 것이 종교적인 신앙의 자리인 것 같지만 여기에서 기원, 발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살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치성을 드렸는지, 그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곳에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역사가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그 땅만을 생각하지 말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어떻게 교역과 문화적 교류가 형성이 됐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라를 보더라도 경주의 ‘석인상’의 모양이나 ‘처용’ 설화나 고려가요에 나오는 ‘동동’, ‘쌍화점’ 등에 나오는 아랍계 인물도 신라에 와서 머물다 갈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동안 얼마나 좁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김수로왕이나 허황후 설화도 들여다보면 이들이 어디를 거쳐 왔는지 반드시 배를 타고 물길을 따라 왔다는 흔적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후손들이 정착해 살면서 자손을 퍼뜨리고 하면서 피가 많이 섞였을 것입니다. 과거엔 우리민족을 단일민족이라 생각하고 이런 설화나 흔적들을 무시해 왔지만 지금은 다문화 사회가 되었으니 이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이야기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촌에서 동남아시아 후손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인 아시아의 친척집, 처갓집의 문화를 흡수해서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이들이 새롭게 입향조로 이천에 들어와 제3, 제4의 풍성한 문화를 창출해낼 것인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이천의 문화자산으로 재생산해내고 이천의 것으로 멋있게 창조해낼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하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천 년 전부터 이어온 것들을 살펴보면 수업료를 덜 치르며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진도, 완도와 가까운 곳에 소안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항사’와 관련된 설화가 있습니다. 미항사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 풍물패들을 한두 달 돈을 주고 사서 흥행에 들어갔습니다. 풍물을 치는 연예인들

을 60명 정도 초대해서 스님이 앞장을 서서 배를 타고 청산도를 최종 목적지로 하고 가는 도중 배가 뒤집어져 ‘장구수’ 한 사람만 살아남고 모두 물에 빠져 죽은 사건입니다.

지금도 합동제를 지내준다고 하는데요. 완도 쪽에서는 장구수 설화로 남아 있습니다. 보름만 되면 장구소리가 들리는데, 빠져죽은 굿쟁이들이 장구수가 없어서 굿을 못하니 빨리와라 빨리와라 했답니다. 3년을 듣던 장구수가 괴로워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오래지 않은 구한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 삼남지방과 세곡선, 수성당과 금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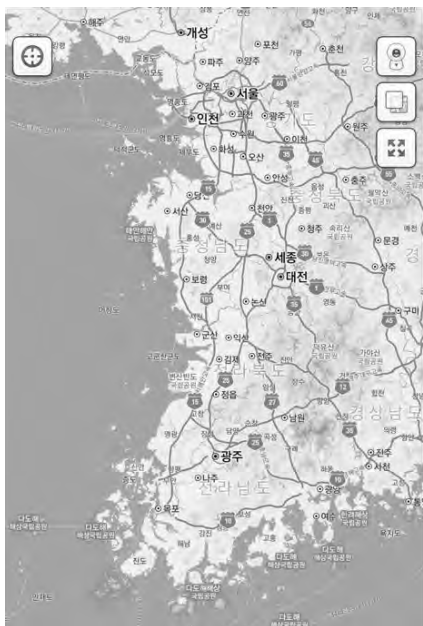
전남 부안에 가면 ‘수성당’이 있습니다. 한강변으로 올라오면 ‘금성당’이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두미암 설화’가 양천읍지에 실려 있습니다. 한 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두미암(염창동)은 매우 경치가 좋은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그런데 이 ‘두미암’에 고려시대 이래로 전라도 나주의 귀신이 래접하여 영험이 있는 불상이 있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재앙을 받는다는 속설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행인들이 다투어 기도를 하였으나 점차 사람들의 내왕이 끊어져 드디어 수목이 우거졌고, 종종 임금 때에는 호랑이가 서식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충청병사를 지낸 김말손이 활로 석불을 쏘니 그 석불은 피를 흘리면서 그날 밤으로 강을 건너 도망을 갔다. 김말손은 그 나주석불이 있던 자리에 정자를 짓고 ‘영벽정’이라고 하였다.

이 김말손이 쏜 화살을 맞은 나주석불은 강 건너 지금의 성산동으로 건너갔는데 석불이 지나간 자리를 나주의 별호인 ‘금성’(金城)이라 하고 석불을 모신 자리를 ‘금성당’, 그리고 금성당이 있는 산

이라 하여 ‘성산’이라 이름하였다. 성산동과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한다. <양천읍지>(1899)

‘금성당’은 일산으로 가는 자유로길, 망원동 정자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금성당과 관련된 재미있는 얘깃거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금성당을 매입하여 3층 건물을 지었는데 계속해서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전도사도 죽어 폐허가 되어 누구도 손을 못 대다 2000년대 초반에 누군가가 매입을 한 후 끝이 났습니다. 한강 주변을 이 잡듯이 조사해 보니 어딜 가나 전부 금성당 얘기를 합니다. 금성당은 기와집이었는데 ‘청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 정신병자들이 치유를 하기 위해 이곳을 돌고 곳을 하면 영험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성당’입니다. 이름을 보면 나주가 금성이죠. 고인들의 세력들, 북방설, 남방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남방설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인들을 퍼뜨린 해양세력이 인도네시아, 대만, 오키나와 등에서 올라오는데 디아스포라인 거죠. 콜럼버스가 신천지를 찾기 위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전라도 이 곳 육지에 닿아보니 땅이 넓고 경치, 먹거리가 풍부하여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여유롭게 사는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뺏으려 합니다. 전라도는 30년 단위로 큰 사건이 있었죠. 광주의거, 광주항쟁이 그렇죠. 이곳이 살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나주를 기반으로 세력 확장을 꿈꾸다 뱃길을 따라 한강 금성당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고려시대는 개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양천이 직통로죠. 마포 서강은 조선시대가 되어야 발달을 하고 국제항구인 벽란도는 회회인까지 와서 국제교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몽골에 의해 장악당해 쇠퇴하기 시작하다 다시 힘을 쓰게 되는 것이 조선의 한양천도입니다. 마포 서강으로 기착을 해서 남대문을 통해 한양으로 들어갑니다.

세력 싸움이 김말손으로 대변되는 세력과 불상을 중심으로 한 뱃사람 세력과의 싸움으로 벌어진 건데 여기서 불상이 화살을 맞았다는 것은 바닷가 사람들이 저서 쫓겨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성당’은 뱃사람들 세력의 ‘당’이었습니다.

이천의 근세사와 연결지어 보면 그 세력들이 주로 운수업을 하며 힘을 썼는데, 조선중기 임란 이후 혼란한 틈을 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다를 기반으로 해 힘을 발휘하는 데 세공물이 올라오거나 소금이 신안에서 올라오기 위해서는, 당시에는 해상교통, 특히 대단위의 물량을 움직이긴 위해서는... 배를 부리는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됩니다.

세공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은 고려 중후기인데 관선을 부리는 이들이 꾀수를 부려 일부러 배에 구멍을 내고 배가 가라앉는 위기상황을 만들어 배에 실린 물건을 빼냅니다. 염창동 소금창고에 오기 전에 물건을 빼돌리는 것이죠. 국가에서 관리하기 어렵게 되자 돈 있는 사람이 사선(私船)을 만들어 운임을 챙기는 일도 생겼습니다.

17,8세기에 많은 물류가 생기면서 자본이 축적이 되니까 매점매석이 성행을 하는데 그것을 소재로 한 소설이 허생전, 홍길동전입니다. (매점매석이 아직도 버티고 있는 곳이 제기동 약재시장입니다. 1970년대 복부인들이 이곳을 장악하려 했지만 강력한 카르텔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부상들을 중심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남한산성 일대와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해양 세력이 물길을 따라 올라오는 거죠. 여주 이천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4. 한강 부군당 문화

한강은 ‘올라가는 문화’와 더불어 ‘내려오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소금, 새우젓, 조기 등은 정선 아우라지까지 올라가고, 남한강을 따라, 북한강을 따라 뗏목을 타고 내려오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한남동’ 앞이 한강인데 내려오고 올라가는 전체를 아우르는 곳입니다. 이곳에 ‘부군당 문화’가 있습니다. 무사안녕을 비는 부군당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마포 불당’입니다. 불이 많이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포 불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명성황후가 돈을 많이 지원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경강상인들 중 거부인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한남동인데 지금의 강남 주택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강의 상권은 ‘한남동’이 한강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한 축이 되고 여기에 ‘남한산성’이라는 자본 축이 가세를 합니다. 남한산성 축조가 1602년인데 그때 ‘청량당’이 지어졌습



한강 부군당

니다. 당을 찾아가는 사람의 대부분은 객주나 여각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산성이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군수물자가 올라가고 생필품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남한산성의 지형상 하남시에서 뚝짐을 메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남한산성이 돈이 많은 곳이고 군사 정치 행정도시이기 때문에 집권당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광주 부근을 거쳐 세력을 키워하려고 합니다. 잠룡들이 꼭 거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진 세력이 많습니다. 꿈을 꾸는 신진 세력도 많죠. 그래서 그들이 자본을 가지고 돌리는데 송파장을 돌리는 것이 남한산성의 돈줄들입니다.

한강 나루터를 따라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까지 판소리가 많이 불렸습니다. 술과 여자, 가무, 기생이 따르고 최신곡이 불리어집니다. 상것이 황제 앞에 나가 판소리를 할 정도로 신분상승이 된 거죠.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서태지와 같은 가수를 안방에 불러들여 듣는 거와 같은 개념이죠. 판소리가 불리어진 것이 ‘아전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주를 아전도시라고 하는데 황현이 조선이 망한 악습 세 가지가 ‘평양기생, 충청도양반, 전주아전’이었습니다. 전주는 아전들의 힘이 세어 지방관의 임기가 고작 2년이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전들이 문화(판소리)를 비롯해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신재효는 아전인데 기획을 뛰어나게 잘 했습니다. 남자들만 하던 아이템을 여자 걸그룹을 만듭니다. 제자인 진채선을 궁전에 흥선대원군에게 보내 사랑방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였습니다. 신재효 선생의 말년에 진채선은 운현궁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스승인 신재효가 그녀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접하고서는 스승에게로 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보필을 하고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흔적도, 역사도, 집안도 남지 않았습니다. 스토리텔링으로 기가 막히지요.

이천에서 신재효와 같은 가상인물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죠. 꼭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그걸 일본인들이 굉장히 잘 합니다. 2,30년 전 굿판이 등장하는데 비타레코드란 일본 음반회사에서 한국의 음반회사를 이용해 동해안 별신굿을 몰래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 간첩질을 하라고 시킨 것이지요. 아시아의 민족음악을 수집해 음반을 만들어 팔아먹으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서희선생은 천 년 전 고려의 인물인데 이천에서 왜 지금 서희를 조망하는가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큰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나 결과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나 귀감이 되고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기리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백년, 이백년 뒤를 생각하고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천사람들이 고향이든 아니든 그 이야기를 듣고 영화를 보고 자부

심을 갖게 되고 또 서로 공감하게 되면 이천문화로 점점 자리잡아가는 것입니다. 이천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 됩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설렁탕 문화입니다. 조상의 뼈다귀를 계속 우려먹는 실정이라 새로운 맛이 안 납니다. 이제는 설렁탕 그만 하고 새로운 비빔밥을 다시 만들되 이천의 쏘스를 찾아 개발해야 합니다. 정신이든, 물질이든, 풍광이든 때와 상황에 따라 여러 개의 쏘스를 개발해야 되고, 먹는 사람의 취향에 맞춰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이천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 전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5. 청량당과 남한산성

청량당은 대단한 정치의 현장입니다. 돈과 권력과 세력이 오고가는 곳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뒤에서는 파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청량당의 모습입니다. 전주들, 곧 퇴역고관들이 투자터를 찾다가 한강변을 찾은 것인데, 이분들의 집을 살펴보면 마포 뒷골목에서 멋진 집을 짓고 포진하고 있다가 전진 배치해서 끊임없이 돈을 불립니다.

그러면서 17,8세기 한국의 자본주의가 움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맹아라고 하죠. 그런데 방법이 매점매석이었습니다. 제가 마포 쪽에 객주 연구를 위해 추적하다 보니 그들의 후손이 자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말하면서 ‘등치면서 살았지’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만든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사는 곳이 바로 한남동입니다.

석빙고, 염창동 사람들이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객주, 여관 등의 관광업, 유통업, 자본 투자로 모은 돈을 가지고 급기야 땅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 신분 해결을 위해 교육에 투자를 하여 자식들을 유학시킵니다. 한남동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들 중 자각을 한 자녀들 중에는 모스크바로 유학을 가는 등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부상 문화가 발전하였습니다. 광주의 큰 시장을 도

는 소상인들이이죠. 돈이 많이 도니까 기생이 많고 장국밥 파는 소상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부자들이 정책 결정을 스스로 짓지 못하고 껄렁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단골무당에게 신통력 있는 조언을 들어야 판단하기 좋다고 여기듯이 그때도 철마다 재수굿을 하고 지금으로 치면 1,2억 짜리 재수굿을 합니다. 굿을 하는 중간에 사물놀이패를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고 2,3천만 원을 줍니다. 말하자면 굿은 돈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이 돌면 떨어지는 것이 생기고 문화, 예술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 갈등관계가 많았습니다. 물론 협업관계도 있고요.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풀고자 총 연출격인 남한산성의 전주들이 돈을 내서 도당굿이 성행하게 되는데, 도당굿을 통해 갈등도 해소하고 협업을 돈독히 하는 기능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외적 이미지를 위해 축제, 예술을 내세우듯 남한산성의 축성, 관리를 위해 도당굿의 하이라이트인 ‘군흥굿’을 지냅니다. 군흥굿은 갯쟁이 연주자들이 앞장서고 참여한 모두가 산성을 빙 둘러보며 허물어진 곳도 발견하여 보수하고 고향에 대한 사랑을 읊트게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는 겁니다. 교묘하게 예술 문화가 어우러지고 거기에 종교가 가미된 것입니다.



6. 남한산성 도당굿

남한산성 축성에 관련된 이회 장군 설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축성의 총책임자는 이서이고, 서북성은 벽암대사가 이끄는 승병들이, 동남쪽은 이회장군이 나누어 쌓았다. 벽암대사는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이회는 사재를 팔아서 경비를 충당하며 축성하여도 지세가 험하여 성 쌓기가 늦어졌고, 경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공사경비를 주색에 탕진하였다는 누명을 썼다. 이회는 구차한 변명 없이 “내 죄가 없다면 매 한 마리가 날아올 것이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참수 당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이회 장군의 목을 베자, 이회 장군의 목에서 매 한 마리가 튀어나와 근처 바위에서 슬피 울다가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멀리 날아가 버렸다. 사람들이 그 매가 앉았던 바위를 보니 매 발톱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축성공사 한 성체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회장군이 쌓은 성은 견고하고 과학적인 축성기법으로 만들어졌음을 알게 되어 무고였음이 드러났다. 이후 사람들은 이회 장군의 목에서 나왔던 매가 앉았던 바위를 매바위라 부르고, 이 바위를 신성시하기 시작했다. 원래 이 매바위에는 실제로 매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이회 장군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 밝혀지자 마을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크게 안타까워하고, 그를 기리는 뜻에서 그가 죽음을 당한 수어장대 곁에 사당을 만들었다. 사당 이름도 ‘대감당’(매당 or 청계당)이라 부르며 도당신으로 모시게 되었다.

‘정의가 산다’는 만고의 아이템인데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영혼을 달래고 거기에 남한산성을 관리하고 애향심과 자부심을 더해 이루어진 게 남한산성 도당굿입니다. 굿이라는 것은 문화인데 특히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문

화는 정치가 있고 정치에는 돈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배제하고 껌 데기만 하면 피에로 인형극과 같은 것이 되고 우아하고 멋있는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60년을 우려먹다보니 쏘스가 고갈되어 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답이 없는 거죠. 그러나 시간만 조금만 돌리면 엄청난 노하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한산성 수어장대 바로 옆에 청량당이 있습니다. 이회 장군이 축성을 하는데 나랏돈이 아닌 자기 돈으로 하려고 하다 부족하니까 성금 모금운동에 부인 두 명을 삼남으로(강원·충청·전라)으로 보냈습니다. 성금으로 쌀을 모으기 위해 보냈는데 거둔 쌀을 어디다 싣

고 오겠습니까? 뱃사람들이었겠지요. 세곡미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위해서는 뱃사람들이 동조했을 가능성이 크죠. 매년 도당 곳을 할 때 뱃사람들이 이러한 축성을 하는데 찾아와 공헌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고 전주들과 같이 어울리며 지냈을 겁니다. 금성당은 없어졌지만 청량당은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서 계속 보존이 될 것입니다.

이 분(위 사진 속의 무당)이 한양곳을 하는 사람인데 이회 장군이 신으로 들어와 “예야, 빨리 와서 밥을 올려라, 배가 고프다”고 하여 무당이 된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자들과 신도를 태운 버스가 10대씩 와서 곳을 해 줍니다. 그런데 청량당을 장악하기 위한 무당들 간의 치열한 암투가 있습니다. 무당을 당주로 세울 때 힘이 작용하는데, 남한산성의 유지가 자신과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는 사람을 지지하지 적대감이 있는 사람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이 1920년대 일제에 의해 와해되면서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자 무당들끼리 이전투구를 6.25까지 벌이게 됩니다. 1970, 80년대 흐트러진 상황에서 이 분이 개인적으로 와서 청량당을 부활시키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건물만 달랑 있다가 이런 지킴이들이 콘텐츠, 스토리텔링 시대가 되면서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고 세계문화유산이 되면서 도당굿 자체가 풍성한 문화콘텐츠가 되어 다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움을 발휘하면 모두의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청량당에서 인연이 되어 새벽에 굿을 했는데 ‘오마르’란 인디밴드를 하고 있는 아랍 친구를 불러다 자기나라 음악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했냐면 동아시아의 교류를 했던 것을 남한산성 청량당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만들어보고 재조명해보자 라는 식으로 신고식을 했습니다. 재미있었지만 무대가 아니라서 그 친구는 부담을 가지더라고요. 이 장면은 한양굿에서 통돼지와 붉은천을 감은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7. 한남동과 인천 여주

한남동에 ‘부군당’이 있는데 인천쌀과 한남동을 생각해 보죠.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점해서 나라를 잃었지만 돈은 정권이나 나라의 흥망과 관계없이 버는 측면이 있고 경강상인들은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미두’를 한 것입니다. 미두라는 것은 지금의 선물거래와 같은 거죠. 영국이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1899년 인천 미두거래소가 최초로 생기는데 일곱 가지 품목을 미리 선점해서 거래를 하였습니다. 쌀,

콩이 나오기 전에 미리 거래를 하는 투기가 성행했었지요. 미두꾼들로 자본시장이 형성되어 1910년이 되면 서울 진고개(명동)로 넘어와 미두가 꼽수를 부리게 됩니다.

여기 돈줄이 한남동이죠. 쌀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철도가 개설되면서 물류유통에 의존했던 상권이 죽어 돈줄이 바닥이 납니다. 지금 신당동에 아직도 쌀시장이 있는데, 이촌동 쌀 거래소였습니다. 경상북도 쌀은 원주의 가흥창으로 집결을 합니다. 철도가 청량리역이 되니까 청량리로 다 모이게 되고 결국 신당동이 망하니까 그 돈이 쌀 투자로 가고 돈놀이로 갑니다.

그러한 것의 결정적인 기반이 된 곳이 이천 여주 용인이었습니다. 남한 산성 부자들은 송과장에 투자를 했지 쌀은 중점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남동 쪽 부자들이 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천과 여주의 땅은 매점매석 등으로 돈을 번 운수업 경강상인들이 야금야금 차지하기 시작을 했는데 좋은 쌀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주·이천의 땅 주인 대부분이 한남동 사람들입니다.

한남동 쪽은 완벽한 자본주의 시장의 맹아가 된 곳으로 이 ‘미두’로 이동을 합니다. IMF의 원인이 해지펀드이지요. 그 펀드의 핵심이 유대계 사람인데 한국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장난을 해서 IMF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주 이천은 그런 기반이 된 곳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기반과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혜택이 이천에 얼마나 미쳤는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8. 이천과 남한강

이동준 국장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살피다가 이런 부분이 다가왔습니다. ‘북하천과 청미천은 많은 세곡선이 드나들던 곳이었으며, 이천 시내 북동쪽

으로 한해를 끼고 있는 배증개는 진상미를 실어나르는 포구였다고 한다. 1930년대 일제 강점기 때 수여선 철도를 개설하여 운행한 것도 이천지역의 품질 좋은 쌀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한다.’

바로 이 문화를 조망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경문화의 소산으로만 생각했던 거북놀이와 줄다리기도 더 깊이 파고들어가 보면 바다이야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민속놀이의 유래와 이야기 서사구조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이천의 거북놀이는 복을 주는 영물인 거북이가 동해용왕의 아들로, 거친 파도를 거치고 태백산 높은 봉우리를 건너서 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여주에는 흔암리 쌍룡거중다리기, 굴암리 줄다리기, 천송리 소지개줄다리가 있는데 모두 남한강변에 있습니다. 이들 줄다리를 하는 과정에 어떤 절차가 있느냐 하면 배두음고사가 있고, 강변으로 이동해 뱃길, 뱃사람들의 안전과 무사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강고사를 지낸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강고사를 지내는가.

또한 백제를 세운 온조왕의 기반이 한강, 비류백제는 인천인 바다인 점에서 강가, 바다라는 기반은 같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해상을 통해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세력을 넓혀 22담로를 건설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 중 하나가 필리핀까지 추정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9. 이천의 민속과 한강

이천에서 줄다리가 전승되는 용면리, 단드레 지역을 지도상으로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복하천, 신둔천 같은 큰 하천이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지만 물과 세곡선과 연관이 된 줄다리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1921년 3월 2일 마전터 일대(관고3리)에서 벌어진 줄다리에 관한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줄다리기 하는 사람 6천명, 구경꾼 3만명, 줄의 길이가 800미터... 그 시기에 이런 대규모 인원이 모였다는 것은 이것이 갖는

큰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힘을 바탕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엄청납니다. 그 당시 이천장이 대단히 큰 장이었어요.

요즘 파워블로거처럼 그걸 묶어낼 수 있는 중심세력은 엄청난 정치세력이었습니다. 왜 그때 그런 대규모 줄다리기를 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명분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고 줄다리기를 해봤더니 나쁠 게 없더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큰 줄다리기를 할 때 지금은 줄 재료를 무엇으로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폐품, 비닐로 하면 어떨까? 그것이 이천의 쏘스가 될 것입니다. 그저 옛 방식을 따르기 보다는 농촌지역에 산재한 폐비닐을 수거하고, 도시에서는 라면봉지라든지, 가정에서 내놓는 폐품을 활용해서 환경을 살리는 환경행정, 지역의 산하를 살리는 시민환경운동 등 범시민 동참이 가능한 명분을 만들어라, 이런 것을 통해 꿈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농촌마을과 시내권주민을 포함해서 여러 동네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내고 제시하는 것이 이천문화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찾아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답이 반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효과와 결과가 어떨는지 면밀하게 예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줄다리기를 오늘날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어떤 요소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 고민해야지요.

없으면 갖다 쓰면 됩니다. 중국 것이든 일본 것이든 한양 것이든 가져다 써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 사람이 임자다.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지요. 가치를 잃으면, 때를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자원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때를 잃은 것입니다. 일본에는 마을주민이 남녀노소 다 같이 참여하는 마쓰리 축제가 많습니다. 그것도 좋은 요소가 있다면 결합시키는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천조대신도 우리의 딸이었다고 갖다 써야 됩니다. 천조대신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시집을 갔을 겁니다.

10. 이천의 마을굿과 바다

마을굿과 바다문화의 흔적을 찾아보니 마을에서 하는 치성의 날짜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정월 초하루, 초이틀, 초삼일은 ‘바닷가’ 문화입니다. 대보름에 하는 것은 ‘농사’ 문화입니다. 설성면 수산리처럼 산신제를 하는데 초에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산신제 수산리(정월 5일), 어농2리(정초 택일), 마을굿 이치2리, 정월 정제사 매곡리 돈의실 마을(정월 3일), 이런 곳들은 분명히 뱃사람이 장악하고 살거나 강력하게 경제적·정치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던 동네일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조사해보면 무궁무진한 스토리텔링이 있을 것입니다.

쌀과 신앙을 생각해 볼 때 쌀이 없다면 한국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쌀이 돈이기도 했다는 점을 잘 음미해 봅시다. 한 남동의 뱃사람들이 돈으로 샀던 ‘이천의 쌀’. 그걸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냥 쌀이 아니라 쌀을 통해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우주적이고 국제적인 무엇인가를 던질 수 있을까? 쌀 속에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을까? 그 속에 무엇이 있을 거다... 이렇게 자꾸 화두를 던져보는 거지요.

요즘 ‘영성’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대한 공부? 다 배부른 정신병자들이다. 왜 사람들이 애완견에 목을 맬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안 되니까... 애완견은 배신을 하지 않고 사람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애완견을 키우는 거지요. 돈이 만들어 낸 천민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사를 지내는 무당들이 고사를 지낸 후 분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권한이 가져가는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씨앗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쌀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는 것입니다. 쌀 한 톨의 경제적 효과가 대단한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같은 생명을 잉태시키는 기운, 영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영접의 자리에 함께하는 의미로 ‘쌀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쌀’은 먹고 사는 음식의 근원적이고 ‘알’은 생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와 상징을 끊임 없는 경배한다... 궁극적으로 너도 생명 나도 생명.

마을곳을 지낼 때 쌀을 올려놓은 이유는 쌀은 돈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도 살아야하고 나도 살아 같이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앙과 결합을 시키기 위해 쌀을 올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천은 쌀 말고도 도자기를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도자기와 영성을 왜 결합을 못시켜요? 만들면 됩니다. 이천쌀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끌어내야 합니다. 근거를 찾고 이천이 가지고 있는 영성적 요소를 찾아내어 이를 현대적으로 접목시켜야 하는 거지요. 이천쌀을 출하할 때 모든 종교가 합동으로 와서 대동하고, 서희선생 후손들도 오고한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세련되게 만들어 너의 것이기도 하고 나의 것이기도 한, 보편성을 가진 이천만의 색깔로 디자인하고 포장을 하면 못할 게 없다고 봅니다.

이천의 유교 문화

- 이천의 유교문화에서 선비정신을 찾아라 -

이동수 안동문화원 부원장. 안동유교문화교류협회 회장,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상임이사, 성균관청년유도회 중앙회장. 대구한의대 철학박사로 동양철학과 주역사상을 연구하였다. 퇴계 후손이기도 한 그는 하회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비롯해, 안동지역에 산재해 있는 고택문화재와, 고산구곡 같은 전통적인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의 전통문화 가치를 높이고 자원화하기 위한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1. 이천과 안동의 인연

오늘 이렇게 이천에 와서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안동과 이천은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자매도시입니다. 2012년 4월에는 안동문화원과 이천문화원이 문화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안동은 유교문화의 본고장이자 정신문화의 수도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이천은 도자기와 쌀이 유명한 문화의 도시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천에 직접 와서 보니 도시가 분지형태로 배산이 잘 되어 있고 또 깨끗하고 조용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제게 숙제를 너무 많이 주셔서 강의 준비를 하는데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나름 자료들을 연구해보니 이거 안동과 이천이 너무나 인연이 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도시의 옛 이름을 살펴보니 이천은 ‘오래도록 번창한다’는 뜻의 ‘영창’(永昌)이란 이름이 있었어요. 안동

의 경우는 ‘오래도록 아름답다’는 뜻의 ‘영가’(永嘉)라고 불렀습니다... 안동과 이천이 문화교류를 하게 된 게 우연이 아니구나. 뭔가 대단한 인연이다.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다시 맺어질 수가 없다... 옛부터 선대에 이런 깊은 인연이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문화적으로 교류를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려 개국과의 인연

고려가 개국한다든지, 조선이 개국한다든지 이렇게 역사의 큰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에 각 지역의 주도세력들, 지방호족들은 누구를 잡아야 할지, 어느 세력에 줄을 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런 혼란한 시기에 개성을 중심으로 일어난 왕건은 후고구려의 궁예를 몰아내고 918년에 고려를 개국하게 되는 거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견훤을 평정해야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이때 견훤은 신라를 침범해서 무자비하게 도륙을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경순왕이 왕건에게 SOS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이 신라를 구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견훤의 세력이 너무도 강성해서 오히려 927년 팔공산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신숭겸장군까지 전사를 하고 겨우 살아남습니다... 이런 유적이 지금도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밀려서 안동까지, 도산서원 앞까지 밀려와 거기서 마지막 일전을 치루는 거지요. 안동의 호족들은 왕건을 도와 930년 병산전투에서 마침내 승리를 합니다. 이때 왕건은 자신을 도왔던 세 사람의 성주에게 태사 벼슬을 내려요. 그걸 기리기 위해 지금까지 천년동안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안동의 삼태사 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 병산전투에서 유래한 동채싸움이 안동의 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매년 이 놀이를 하고 있어요.

왕건이 안동까지 내려가려면 보급로가 중요한데 식량과 자금을 대는 배후 주력 세력이 뒤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든든한 후원자가 바로 이천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936년 왕건이 후백제를 치러 남하하다가

북하천이 범람해서 강을 건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효양산에 사는 서목(이천서씨 시조인 서신일의 조카가 됩니다)이 길을 인도하여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왕건은 이를 고맙게 생각해서 이천이란 이름을 하사했던 거구요. ‘이천’은 ‘이섭대천’(利涉大川)에서 온 말인데 주역에 보면 이 말이 11군데 나옵니다. 큰 강을 건너면 이롭다. 여기서 큰 강이란 어려운 일, 난관을 의미하는데 그걸 극복하고 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란 뜻이지요.

안동이란 이름도 고려 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삼태사가 병산전투에서 왕건을 도와 승리할 수 있었기에 동방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의 ‘안어대동’(安於大東)에서 이름을 따서 ‘안동’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려 개국과 관련하여 안동과 이천은 대단히 깊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고려 말 공민왕과의 인연

원나라가 쇠퇴하면서 흥건적이 여러 차례 고려로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흥건적이란 게 원래 백련교 같은 비밀결사로 민심의 동요를 틈타서 난을 일으켜 세력이 커진 거지요. 하지만 원에 대항할 만한 조직을 이루지 못하고 원에 쫓기다가 잔류세력들이 고려를 침공하게 된 겁니다.

공민왕이 흥건적의 난을 피해 피난을 내려갈 때에도 이천을 거쳐 안동까지 내려갔습니다. 공민왕이 이천의 원적산(圓寂山)에 잠시 머물렀다고 해서 원적산의 주봉인 천덕봉을 공민봉(恭愍峰)이라고 부르고, 인근에 있는 다리를 공민왕이 잠시 쉬었다 간 다리라 해서 휴궁교(休宮橋)라고 부른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개경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공민왕은 안동으로 피난을 와서 청량산(淸涼山)에 70일간을 머물렀습니다. 청량산성이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고 ‘안동웅부’(安東雄府)라는 현판도 남아 있습니다. 공민왕이 안동백성들



의 환대에 고마움의 표시로 안동을 대도호부로 승격시키면서 내린 현판입니다. 또 노국공주가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이 지역 아낙네들이 허리를 굽혀 지나가게 하였다는 일화가 전하는데, 그게 유래가 되어 뚝다리밟기 같은 민속이 안동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2. 이천의 민족정신

고려 조에서 크게 활약한 문중(門中)의 하나가 이천에서는 이천서씨 문중입니다. 6대가 연달아 재상(宰相)을 지냈습니다. 안동의 고성씨씨 또한 고려조에 크게 기여한 문중인데요, 수많은 관료와 5대가 연달아 재상을 지냈습니다. 고려 말에 고성씨씨는 이천서씨씨와도 교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서씨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장위공 서희입니다. 고려 초에 거란이 80만 대군으로 쳐들어왔을 때 외교담판으로 거란을 물러가게 한 인물입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고려의 땅을 떼어주고 화친을 하자는 할지론이 나왔을 만큼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때 서희가 나서서 적장과 담판을 하게 되지요. 적장은 왜 고려가 우리 거란과 가까이 있으면서 멀리 있는 송나라와 친교를 하느냐고 문책을 합니다.

이에 대해 서희의 답변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단지 국호만 따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뭔가 설득력 있는 얘기가 없다면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천서씨의 유래를 보면 우리민족의 상고사인 고조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조선의 후손 이천서씨 - 행촌 이암의 ‘단군세기’

고성씨씨의 대표적인 인물이 공민왕 때 문하시중을 지낸 행촌 이암(李壘; 1297~1364) 선생입니다. 고려 말의 대학자이기도 하고 ‘단군세기’(檀君世紀)란 책을 쓰신 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삼국사기는 관변 역사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 삼국유사는 불교적인 관점으로 우리나라의 설화를 모은 책입니다. 그에 비해 단군세기는 우리민족의 상고시대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단군47대 임금 2096년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행촌 이암은 당시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시절 고려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 민족의 상고 역사를 후세에 전해주기 위하여 필생의 사업으로 ‘단군세기’를 남겼던 거지요. 이암의 후손들 역시 상고사에 대한 많은 기록들을 정리해 태백일사(太百逸史)⁸⁾, 환단고기(桓檀古記) 같은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이천서씨의 성씨 유래 기록과 너무나 일치하는 겁니다.

단군세기에 이천서씨의 조상으로 전해오는 ‘여수기’(余守己)는 3세 단군 가락(BC2182~2138) 시대의 인물입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수기(余守己)라는 분이 단군(檀君)과 더불어 예국(滅國)⁹⁾의 추장(酋長)으로 있으면서 아홉 아들을 낳았다. 이들에게 여러 고을을 나누어 다스리게 한즉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 공(功)이 많았으므로 ‘여’(余) 자에 두인변(弔)변을 부쳐서 ‘서’(徐) 씨를 성(姓)으로 삼도록 하사했다.’

‘서우여’(徐于餘)는 21세 단군 소태(BC1337~1286) 시대의 인물입니다. ‘환단고기’(桓檀古記)에는 ‘서우여’(徐于餘)는 변한조선¹⁰⁾의 왕으로 기준(箕準)의 조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준’(箕準)은 기자(箕子)의 42세손으로 고조선이 망하고 북부여 3세 단군 고해사(BC169~121) 때 인물로 기씨조선 마한의 마지막 왕임니

8) ‘태백일사’의 저자 이맥(李陌·1455~1528)은 이암의 고손자로, 이 책은 삼신오제·한국·신시·고려국 등 우리 고대사 전체를 다루고 있다.

9) 예맥(濊貊)은 단군조선의 후에 부여족이 여러부족으로 갈라져 기원전 2~3세기 경부터 송화강, 압록강 유역과 동해안 일대(한반도의 평안도·함경도·강원도, 만주의 라오닝성과 지린성)에 걸쳐 정착하며 활동한 대부족이다. 부여(扶餘)·고구려·옥저·동예 등으로 부르는 여러 족속들은 모두 예맥에 포괄되며, 여기에 부여의 한 갈래로 한강 유역에 자리잡고 커진 백제 역시 예맥족의 후손이다.

10) 변한(番韓)은 고조선 단군시대에 한반도 내에 거주하던 한 부족으로 기씨조선의 후예로 변한이라고도 한다.

다. ‘위지동사강목’(魏志東史綱目)에는 그가 위만¹¹⁾에게 쫓겨 지금의 이천 땅 서아성(徐阿城)에 피신하여 살았기 때문에 후손들이 그 지명을 따서 성(姓)을 서씨(徐氏)라 하였다는 겁니다.

‘서신일’(徐神逸)은 기준의 후손이자 신라의 개국공신인 ‘서두나’(徐豆羅)의 후손인데 신라 효공왕(897~912)때 아간대부(阿干大夫) 벼슬을 했던 사람으로 이천(利川)서씨(徐氏)의 시조(始祖)가 되는 인물입니다. 서신일은 자신의 선조가 대륙을 호령하던 고조선의 후예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우리나라 상고역사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었으니까요.

서희의 상고사에 대한 인식

이렇게 이천서씨의 연원은 우리민족의 상고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신일이 비록 벼슬을 버리고 내려와 살고 있었지만 그 집안이 고조선의 후예임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서희는 이천서씨의 유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서희는 거란의 적장인 소항덕과의 담판에서 지금 고려는 한반도 이내에 살고 있지만 상고시대 이후 부여와 고구려가 모두 한민족이었고 만주 서부지역을 근거로 일어난 거란과도 동일민족임을 내세워 적장을 설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역사인식 하나 가지고 거란을 물리친 거지요. 상고사에서 거란과의 동질성을 역설하였기에 말 한마디로 적군을 물러가게 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고려시대만 해도 우리나라 상고사에 대한 이해가 김부식이 기록한 삼국사기와는 너무도 달랐던 거지요. 서희가 알고 있던 역사인식이 행촌이 기록한 고대 상고사의 기록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희는 이런 역사인식에 근거해서 ‘나는 이천서씨 출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구려가 있기 전부터 그 땅을 다스렸던 후손이다. 정통성으로 보자면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한 것이다. 거란도 옛 고구려의 고토

11) 위만(衛滿)은 단군조선의 뒤를 이은 북부여의 후예가 중국 패수(溟水) 이북 요동 지방에 토착한 부족으로 한반도내의 기씨조선 준왕을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였다.

였다. 그러니 거란과 우리는 같은 땅에서 일어난 동족이며 같은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송나라를 섬기면서, 본격적으로 사대를 하면서 우리 역사는 없어진 거지요. 송나라, 명나라 같은 나라를 사대하며 거기에 매달려 사는 입장이 되었으니 우리가 중국의 역사보다 앞서선 안 되거든요. 고려 때는 송나라를 섬겼고 조선시대 때는 명나라하고만 외교를 맺고 임금이 세자를 책봉하거나 동지 때, 명절 때마다 명나라에 가서 공물을 갖다 바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려 초기에는 아직 고구려의 정신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기록도 하고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천서씨들은 자기 조상들에 대한 이런 기록들을 반영해서 조금이나마 흔적을 남겨놓은 거예요. 김부식이 삼국사를 편찬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직은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국 동북지방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지금은 아직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 안쪽이 우리나라다 생각하는데 사실 고구려 때는 이 중국 동북지방 전체가 우리 땅이었어요. 고려 때에도 어떻게 하면 고구려의 넓은 고토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의도에서 왕건이 고구려를 계승한다 해서 고려라고 이름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역사인식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성이씨 이상룡선생 같은 분은 독립운동 하실 때에 전부 보파리 싸가지고 만주로 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선조들이 옛날 살았던 그때 땅이니까. 우리 여기 가서 독립운동 해 가지고 나라를 되찾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유학을 공부하다보니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요순시대에 이어서 우, 탕, 문, 무, 주공, 공자 -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손바닥 알듯이 압니다. 춘추예기에 보면 여기서시대에 임금이 어떻게 통치를 했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다 깨알같이 적어놨어요. 조선의 유학자들이 중국역사는 깨알같이 다 알면서 우리 역사는 하나도 모릅니다. 고 조선의 역사가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행촌 이암 선생이 이것을 기술해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지요. 그것을 고성이씨들이 궤 밑에 감추어가지고 지금까지 보존해 가지고 있다가 1980년이 되어서야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런 상고역사 기록들이 조선시대 때 전부 불태워 없어지고 했는데 문중에서 이걸 목숨을 걸고 보존해 오다가 공개를 한 거지요.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의존이 되었어요. 20년 만에. 미국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고 중국의존을 안할 수가 없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또 일본이 계속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일제강점기와 같은 그런 암흑기가 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박제상의 ‘부도지’ - 민족의 시원사상 마고전설

제가 두 지역의 설화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민족의 시원사상인 마고(麻姑)할미 전설이 이천의 도드람산에 있습니다. 안동에도 마고동천과 마모골에 마고할미 전설이 남아있습니다. 마고동천을 보면 마고할미가 내려와서 목욕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마고할미는 일반적으로 우리 우주의 시원이라고 할까요.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하는 신입니다. 이천의 도드람산에 전해오는 마고할미 전설은 이런 내용입니다.

‘마고할미는 세상을 만든 거대한 여신으로 한라산을 베고 누워 한 다리는 서해에, 또 한 다리는 동해에 두고 손으로 땅을 훑어 산과 강을 만들었다고 한다. 것처럼 기이한 위력을 지닌 마고할미가 금강산을 만들 때의 일이다. 육지에서 흙과 바위를 한 움큼 퍼다 나르던 중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고 올려다보다가 그만, 손에 쥔 흙 한줌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때 실수로 흘린 흙 한줌이 산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천 도드람산이다.

또 마고할미가 지리산 도드람봉을 옮겨오던 중 힘겨워서 잠시 주저앉은 자리가 지금의 도드람산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당시에 나무로 만든 다리가 있었는데, 마고할미가 말을 달려 지나갔다고 해서 '말다리'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도드람산 북쪽 기슭에 구멍 뚫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구멍은 마고할미가 도드람산을 옮겨올 때 끈을 꿰어 끌고 오던 구멍이라고 한다. 도드람산 중턱 바위틈에서 솟아 나오는 샘물도, 마고할미가 산을 날라올 때 목을 축이기 위해서 가져온 샘물이라 한다.'

또 삼신할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얘기 냈으면 삼신할미한테 물 떠놓고 빈다 이러잖아요. 이 삼신이라는 게 하늘과 땅과 사람입니다. 우주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천지인이라고 합니다. 서원이나 향교에 가면 하늘과 땅과 사람 우리나라의 삼태극 정신을 그려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우주형성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 조상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과학자들은 그것을 수십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신라 때 박제상(朴提上 363~419)¹²⁾이란 분이 있어요. 박제상은 신라 때의 대단한 학자인데 그분이 쓴 '부도지'(符都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박제상이 삼량주 간(干)으로 있을 때 보문전에서 열람한 자료와 가문의 비전서(秘傳書)를 정리해서 저술한 책입니다. 우리 민족의 창세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符)라는 것은 하늘의 이치에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도지'는 하늘의 이치에 부합하는 도읍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도지에 보면 처음에 마고 얘기가 나옵니다.

12) 박제상 : 박혁거세의 후손이자 파사(婆娑)이사금의 5세손이며, 파진찬 물품(勿品)의 아들이라고 한다. 벼슬길에 나아가 삼량주(叡梁州)의 간(干)으로 있던 중 고구려와 왜국(倭國)에 볼모로 간 눌지왕의 아우들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제상은 눌지왕 2년(418)에 고구려에 사신으로 가서 장수왕을 설득해 눌지왕의 아우 복호(卜好)를 데려왔다. 또, 같은 해에 왜국(倭國)으로 건너 가 눌지왕의 아우 미사흔(未斯欣)을 빼돌려 신라로 도망치게 하였다. 이를 안 왜왕(倭王)은 그를 목도(木島)로 유배보냈다가 곧 불에 태운 뒤 목베었다. 이에 눌지왕은 제상에게 대아찬(大阿飡) 관품을 추증하고 제상의 둘째 딸을 미사흔의 아내로 삼게 했다.

이 마고가 인격화되어 나오는데, 마고가 궁희와 소희를 낳았다고 합니다. 낳는 게 아니고 우주가 생겨나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인격화시킨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늘이 열려요. 이때의 시원을 ‘마고’라 그랬습니다. 궁희, 소희라는 것은 뭘까요? 음과 양을 말하는 겁니다.

유학에 보면 태극도설이라는 게 있는데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음과 양이라는 기운이 모여져서 양기는 남자가 되고 음기는 여자가 되고 이렇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이 태극이라는 것도 음과 양입니다. 그래서 세상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음과 양의 그런 기류만 있었던 이 시대를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천지인의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바탕이 되는 이 땅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늘이 생기고 그 다음 우리 지구의 땅덩어리가 생겼다. 이것이 천지인의 ‘땅’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땅이 생긴다고 그때부터 바로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또 풀도 생기고 동물도 생겨나고, 거기서 원숭이 같은 게 점차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는데 원시인류가 출현하게 된 건 한 백만 년 전쯤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천지인의 ‘사람’은 내가 인간사회의 유익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만물, 나무와 풀에도, 개미와 같은 미물에도 나의 영향 나의 따뜻한 마음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것도 잘 보존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삼태극, 우리나라의 정신입니다

여기서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홍익인간이라는 게 세상에 아주 널리 유익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널리 유익하게 행복하게 도와주고 사랑하는 정신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신 천지인 사상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자, 그런 정신을 우리가 고구려로부터 가지고 있다, 우리 피 속에는 그렇게 남을 사랑하는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부도지를 보면 황궁씨, 청궁씨, 백소씨, 흑소씨가 세상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궁씨는 황인종, 청궁씨는 새파란 눈을 가진 사람, 백소씨는 백인종, 흑소씨는 흑인종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그 시원이 어디냐 하면 지금 티벳 파미르 고원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부도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황궁씨, 종갓집입니다. 황궁씨의 후예인 거지요. 해가 뜨는 동쪽으로 자꾸 오다 보니까 중국, 몽골, 바이칼 호수 밑으로 해서 중국 심양 동쪽, 동북 지역에서 우리 고대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황궁씨로부터 유인씨가 나오고 환인씨, 환웅씨가 뒤를 잇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구할 때 붉은악마 하는 게 그때 환웅임금입니다. 지금부터 4~6 천 년 전에 중국대륙 동북지방에 환웅시대가 열려서 천오백 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이 환웅임금시대가 18대 동안 이어지다가 기원전 2333년 전 단군임금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단군임금이 끝날 때까지 역사가 얼마나 하면 2096년입니다.

하지만 2096년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과서나 역사에서 배운 건 단군임금이 혼자 천년을 사셨다가 산으로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단군신화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역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신화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부도지에 의하면 고조선의 시원은 파미르고원의 마고성¹³⁾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고의 자손 열두 개 파는 지유(地乳)가 솟아나는 낙원 마고성(麻姑城)을 잃고 네 파로 나뉘어 운해주, 월식주, 성생주, 천산주의 동.서.남.북으로 분거를 시작했다. 이때 장손 황궁(黃穹)¹⁴⁾ 씨는 천산주에 정착하여 복본(復本)했으며, 유인(有因)¹⁵⁾ 씨의 시대를 거쳐

13) 마고성(麻姑城) : 마고가 사는 성으로 천산주 남쪽(중아시아 남동쪽 파미르고원)의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가장 오래된 성이며 네모난 형으로 천국이나 낙원을 의미하는 성이다.

14) 황궁씨 : 마고가 궁희를 낳고, 궁희는 황궁씨와 청궁씨를 낳았는데, 황궁씨는 유인씨를 낳았다.

환인(桓仁) 씨가 남하하여 적석산에서 등극했다. 환웅(桓雄) 씨는 동쪽으로 나아가 섬서성의 태백산에서 개천하고 배달국을 세웠으며, 단군(檀君)은 아사달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였다.’

3. 퇴계 이황의 도(陶)산서당과 이천 도(陶)자기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선생은 우리나라 유학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퇴’(退)라는 글자와 ‘도’(陶)라는 글자가 그분이 사셨던 삶을 상징하는 말로 남아 있는데, 퇴계(退溪)는 아시다시피 그의 호이고 도산(陶山) 또한 그를 우러르는 상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퇴도’(退陶)라는 표현은 그에 대한 최고의 존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산서원의 사당에 ‘퇴도이선생’(退陶李先生)으로 위패가 모셔져서 세인들에게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은퇴하여 이곳에 살면서 ‘퇴계’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로 인해서 원래 ‘도계’(兎溪)라는 실개천의 이름은 ‘퇴계’가 되었고 또 퇴계 선생의 호가 되었습니다.



退溪 퇴계

身退安愚分 신퇴안우분/ 몸은 물러나니 어리석은 내 분수에 편안한데
學退憂暮境 학퇴우모경/ 학문이 퇴보하니 늙고막에 걱정스럽네
溪上始定居 계상시정거/ 퇴계의 위쪽에 비로소 거처를 정하게 되니
臨流日有省 임류일유성/ 흐르는 물 바라보며 날로 성찰하게 되네

15) 유인(有因)씨 : 황궁씨의 아들이며, 환인씨의 아버지이다.

도산(陶山)이란 이름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가 지은 ‘도산서당’이란 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산의 ‘도’(陶)는 순임금이 임금이 되기 전에 도자기를 구우면서 즐겁고 편안한 삶을 즐긴 것을 말합니다. 또한 도연명(陶淵明; 365~427)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내려와 은거하면서 노동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는데 자신의 은퇴 후 즐거움을 빗대어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도산서당 陶山書堂

大舜陶樂且安 대순친도나차안/ 순임금 친히 도자기 구우니 즐겁고 또 편안하였으며,
淵明躬稼亦歡顏 연명궁가역환안/ 도연명 몸소 농사 지으니 또한 얼굴에 기쁨 넘치네.
聖賢心事吾何得 성현심사오하득/ 성현의 마음 쓰는 일 내 어찌 얻을수 있으리오 마는
白首歸來試考槃 백수귀래시고槃/ 흰머리 되어 고향 돌아와 詩經의 考槃詩 읊어 보네.

순임금은 몸소 도자기를 구우면서도 즐겁고 편안하였고, 도연명은 손수 곡식을 심으며 기쁜 얼굴을 했습니다. 퇴계는 학문과 인격을 도야(陶冶)한다는 의미와 도연명의 안빈낙도하는 삶을 흠모해서 그걸 시로 표현한 겁니다. 도연명의 성씨가 바로 ‘도’(陶)입니다. 퇴계는 도옹(陶翁)이라는 호를 쓰기도 했는데, 그건 도연명처럼 었매이지 않는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램을 담고 있는 거지요.

퇴계 선생은 ‘도(陶)’라는 글자에서 ‘나아감’(出)의 표상과 ‘물러남’(退)의 표상을 함께 담아냈습니다. 순임금은 도자기 굽는 일을 했지만 임금이 되어 세상에 어진 정치를 펼치는 일을 했고, 도연명은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하며 살았습니다. 도자기를 굽는 군주와 도씨 성을 가진 은둔자. 이 두 사람의 상반되지만 일관하는 소박한 삶을, 퇴계는 ‘도산(陶山)’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했고 거기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겁니다.



퇴계는 도산서당에 제자들의 숙소를 짓고 거기에 ‘농운정사’(隴雲精舍)라는 현판을 걸었습니다. 퇴계가 도산서당에서 읊은 시를 정리해 놓은 도산잡영(陶山雜詠)에 보면 ‘농운정사’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도산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농운정사 隴雲精舍

常愛陶公隴上雲 상애도공농상운/ 은자 도홍경이 언덕위에 구름을 늘 사랑하는 것처럼.
 唯敢自悅未輸君 유감자열미수군/ 오직 스스로 즐길 뿐 그대에게 보내진 못하겠네
 晚來結屋中間臥 만태결옥중간와/ 늦그막에 집 하나 얹어 그 가운데 누웠으니
 一半閒情野鹿分 일반한정야록분/ 한가로운 정취 절반은 들 사슴과 나누어 가지네.

‘도공’(陶公)은 중국 양나라의 도홍경이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도홍경은 은둔처사의 상징적 인물로 ‘농’(隴)이라 부르는 언덕에 살았다고 합니다. ‘농상운’(隴上雲)은 농 언덕 위의 구름을 말하는데 은둔하는 삶의 즐거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산’이란 말은 퇴계가 은둔처사 도홍경의 삶을 흠모하여 그가 사는 농 언덕의 이미지를 그대로 끌어온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열’(自悅)은 깨달음의 기쁨을 주는 학문의 세계를 말하는데 자신만이 즐길 뿐 남에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언덕위의 구름(隴雲))을 보내줄 수가 없는 거지요. ‘도산’이란 말에는 이렇게 농운정사에 거하는 제자들에게 열심히 공부하여 스스로 학문하는 기쁨을 맛보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퇴계는 도연명의 시를 좋아해서 은퇴 후 시골에다 집을 짓고 은거하며 사는 소박한 삶을 표현하는 시를 여러 편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 도연명이 쓴 ‘이거’(移居)라는 시에 운을 맞추어 퇴계가 쓴 시가 두 편 있습니다. ‘이거’란 거처를 옮긴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집을 짓고 유유자적하며 산다는 뜻이지요.

거처를 옮기며 移居

其一 (韻字 宅,夕,役,席,昔,析)

我生五十年 아생오십년/ 내 태어난지 오십년
今有半成宅 금유반성택/ 이제 겨우 반만 지은 집을 가졌네.
地僻人罕至 지벽인한지/ 땅이 궁벽하여 찾아오는 이 드물고
山深日易夕 산심일이석/ 산이 깊어 날은 쉬이 저녁이 되네.
亦知生事疎 역지생사소/ 살아가는 일 쓸쓸한 줄을 또한 알건마는
猶勝勞形役 유승노형역/ 육신의 노예로 수고로움보다는 낫다네.
省力撤舊材 성력철구재/ 힘을 살피 목은 재목을 덜어내고
隨宜展敝席 수의전폐석/ 편의를 따라 헤진 자리를 펴네.
無論固窮節 무론고궁절/ 본래 궁하다는 절개는 논하지를 말거나
野性諧夙昔 야성해숙석/ 전원을 좋아하는 성격 예로부터 어울렸으니.
苟爲道不同 구위도불동/ 진실로 도가 같지 않다면
千言難剖析 천언난부석/ 천 마디 말로도 판단하기 어렵다네.

퇴계는 풍기군수를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 1550년 2월 계상의 넷가 서쪽에 초가 3칸 규모의 ‘한서암’(寒棲菴)을 짓게 되지요. 평소에 도연명의 은거하는 삶을 흠모해오던 터라 그에 맞는 작은 집을 마련한 기쁨이 무척이나 컸던 것 같습니다. 태어난 지 50년 만에 겨우 집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것이 자기의 분수에 맞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계는 단지 작은 집을 짓고 유유자적하게 사는 정경만으로 끝나지 않고 도(道)를 이야기합니다. 초야에 묻혀 살아간다고 하여 마치 궁함의 절조를 지키는 양 하지도 않고 시골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이런 생활이 옛날부터 잘 어울렸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전원생활을 즐기는 데서

더 나아가 자신의 성정을 기르고자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지요.

집 앞에는 광영당(光影堂)이란 연못을 파고 매화와 버들을 심었고 사립 담장과 세갈래 길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도연명이 말하는 귀거래사의 깊은 뜻을 살려 세상일에 얽매이지 않고 고향에 돌아와 오직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며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뜻도 담겨있습니다. 그가 한서암에서 지은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연명의 음주 시에 화답하다 和陶集飲酒

高蹈非吾事 고도비오사/ 높은 벼슬 하는 것 나의 일 아니어서
居然在鄉里 거연재향리/ 편안히 고향 마을에 있네.
所願善人多 소원선인다/ 바라기는 착한 사람 많이 나는 것이니
是乃天地紀 시내천지기/ 이는 곧 천지의 밑바탕이기 때문이라네.

퇴계선생이 말하는 ‘도’(陶)의 의미는 학문을 닦고 인격을 도야(陶冶)하여 우리사회에 쓰임이 되는 그릇인 참된 인간을 만드는 것이요, 이천 도자기의 ‘도’(陶) 역시 욕심 없는 마음으로 흙을 빚어 이 사회에 쓰임이 되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계의 도의 의미나, 이천 도자기의 도의 의미는 모두 우리 인간에 쓰임이 되는 그릇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그릇이요,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인격자입니다. 이천에서 만든 아름다운 찻사발에 차 한 잔 우려내어 한 모금 마시면서 욕심에 더럽혀진 마음을 순수하고 착하게 만드는 것이 안동과 이천이 바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 이천의 선비와 청백리

제가 이천의 유교 관련 문화재와 이천출신의 유학자들을 자세히 찾아보

니 이천에도 유교사상이라고 할까 선비정신으로 선양하기에 손색이 없는 대학자들이 계셨습니다. 이천에는 보존되고 있는 옛 건물들이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안동은 너무 많아서 제대로 관리하기가 힘이 들 지경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에 담긴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천은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1478~1543) 선생이 내려와 머물렀던 곳입니다. 김안국은 우리나라 최고의 실천 유학자라고 할까요, 도를 머리로 아는데서 그치지 않고 몸으로 실천했다는 점에서 ‘도학자’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정의를 위해 깨끗한 성비정신을 지켜 오신 분으로 당시 모두가 우러러 존경했던 학자이자 재상이었습니다.

그가 1517년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해서 퇴계의 숙부인 송재(松齋) 이우(李堉;1469~1517) 선생을 만나러 왔을 때, 당시 17살이었던 퇴계(退溪)와 그의 형 온계(溫溪) 이해(李滉;1496~1550)는 모재 선생을 만나 뵈고 존경과 흠모를 드러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김안국은 온계, 퇴계 형제를 만나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들에게 성리대전 책을 주며 깊이 공부할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퇴계가 그 후 청량산(淸涼山)에 들어가 독서를 하게 된 겁니다.

그 후 퇴계가 33살 때 충재(冲齋) 권벌(權穰;1478~1548) 선생과 함께 성균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가을에 고향으로 내려오다가 여주 이호촌(梨湖村)에 은거하고 있던 모재 선생을 찾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모재를 만나게 된 거지요. 퇴계가 ‘지금도 보니 참으로 정인군자(正人君子)를 만났다’고 술화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모재 선생의 덕망과 인품에 퇴계가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동의 영호루(映湖樓)와 농암(農巖) 이현보(李賢輔;1467~1555) 선생의 애일당(愛日堂)에는 지금도 모재 선생의 시판이 걸려있습니다. 모재 김안국 선생은 이천의 설봉서원에서 배향하는 인물이고 고정육현 중의 한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봉서원(雪峯書院)은 경기도 지역 최초의 서원이지요. 서원에서 배향하

는 인물이라든지, 도립리에 있는 육괴정(六槐亭)에 모여서 교유를 했던 여섯 선비 같은 분들은 귀중한 선비정신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의 유학자, 선비로 귀감이 될만한 분을 꼽으라면 조선 초의 양촌 권근, 조선중기의 모재 김안국, 조선 후기의 청백리 송정규 이렇게 세 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촌 권근 - 고려 말 조선초의 문신·학자

양촌 권근(權近;1352~1409)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학자로 한 때 이천에 은둔하며 살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권근이 살았던 곳이 양아리, 양야촌(陽也村)이라고 부르는 마을인데 지금의 울면 산양2리입니다.¹⁶⁾ 그래서 그를 ‘양촌(陽村) 선생이라 부릅니다. 그가 이천에 은둔하면서 ‘오경천견록’(五經淺見錄)이란 책을 쓰는데 이 책이 조선 유학의 시원이라고 할 만한 저술입니다.

오경천견록은 유교의 경전인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를 주석한 책입니다. 권근이 유배생활을 하면서 쓰기 시작하여 14년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왕조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고 권근의 학문과 경륜에 대해 소문을 들은 이성계가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양아리에서 동쪽으로 2리 정도의 거리에 ‘어래암’(御來岩)이라 부르는 바위가 있는데 권근이 공부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래바위’라고도 부르는 이곳에는 조선을 개국한 태조가 왕위에 오른 후 이곳에 우거하고 있던 권근을 방문하여 이 바위 위에서 그와 함께 국정을 담론하였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권근은 목은 이색(李穡)의 문하에서 정몽주·이숭인(李崇仁)·정도전 같은 당대 석학들과 교유하면서 성리학을 연구했던 학자였습니다. 공민왕 때

16) 또 다른 설은 권근이 유배생활을 하다 충주지역에 머물러 살게 되었는데 지금의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지역으로 보는 견해로 권근의 후손은 이곳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등용이 되어 춘추관, 성균관, 예문관 같은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공민왕이 죽고 나서는 정몽주(鄭夢周)·정도전(鄭道傳) 등과 함께 배원친명(排元親明)을 주장했고 고려의 사절이 되어 여러 차례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명나라 외교문서(禮部咨文이라고 부릅니다)를 도당에 올리기에 뜬어본 죄로 여기저기 유배생활을 하다가 충주, 음성지역에 우거하게 됩니다. (권근, 권제, 권람 3대묘소가 음성 생극면 방축리에 있는데 어래암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조선이 개국한 후에는 명나라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경사(經史)를 강론했습니다.

그는 고려 말의 학풍을 일신하고, 이를 조선의 유학계에 계승시키는 데 크게 공헌을 한 인물로 평가가 되지요. 그의 학문적 업적은 주로 ‘입학도설’(入學圖說)과 ‘오경천견록’(五經淺見錄)으로 대표됩니다. 입학도설은 뒷날 이황(李滉) 등 여러 학자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고, 오경천견록 가운데 들어있는 ‘예기천견록’은 태종이 이를 주자(鑄字)로 간행하고 경연(經筵)에서 이를 강론하게 했다고 합니다.

모재 김안국 - 조선초 문신학자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1478~1543)은 조선 중종 때의 문신·학자입니다. 조광조(趙光祖)와 함께 김굉필(金宏弼)의 문인으로 도학에 통달하여 지치주의(至治主義) 사립파의 선도자가 되었던 분입니다.

1503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였고 1517년에는 경상도관찰사로 있을 때 각 향교에 ‘소학’(小學)을 나누어 가르치게 하고, ‘이륜행실도언해’(二倫行實圖諺解)·‘정속언해’(正俗諺解) 같은 교화서(教化書)를 간행·보급했습니다, 향약을 시행하도록 해서 주자학적 향촌질서의 수립에 힘을 썼습니다. 그밖에 ‘농서언해’(農書諺解)·‘잠서언해’(蠶書諺解) 같은 농서와 ‘벽온방’(辟瘟方)·‘창진방’(瘡疹方) 등의 의서(醫書)도 간행하였습니다.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김안국도 아우 김정국과 함께 파직되어 이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천 주골에 조그마한 정자를 지어 ‘은일정’(鴈

逸亭)이라 이름하고 날마다 제자들과 함께 경학을 강론을 했습니다. 1528년에는 여주로 거처를 옮겨 이호(梨湖)에 ‘범사정’(泛槎亭)이란 정자를 짓고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1537년에 다시 등용되어 예조판서·대사헌·병조판서·대제학·판중추부사·세자이사(世子貳師) 등을 역임합니다. 시문을 잘 짓기로 명성이 높았고 대제학으로 죽은 뒤 인종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고, 이천의 설봉서원(雪峰書院)과 여주의 기천서원(沂川書院), 의성의 빙계서원(氷溪書院)에도 배향되었습니다.

김안국, 김정국 형제는 또 효성이 지극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거처할 때에나 음식을 먹을 때에나 평생토록 부모를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김안국은 호를 모재(慕齋)라 하였고 동생 김정국은 호를 사재(思齋)라 하였습니다.



모재 김안국의 동생인 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1485~1541)은 형과 함께 김광필의 문하에서 수학했습니다. 형제가 다 문과에 급제를 했고 기묘사화 때 형과 함께 삭탈관직 되어 고양(高陽)에 내려가 살게 됩니다. 스스로를 ‘삼여거사’(三餘居士)라 칭하고, 학문을 닦으면서 저술과 후진교육에 전념을 하지요. 이 때 많은 선비들이 그의 문하에 모여들었습니다.

삼여(三餘)란 세 가지 남은 것을 뜻하는데, 잠자리에 누우면 남은 공간이 있고(臥外有餘地), 옷을 입어도 남은 옷이 있으며(身邊有餘衣), 사발 바닥에는 남은 밥이 있다(鉢底有餘食)는 말입니다. 궁색하게 살아도 스스로 족한 줄 알고 여유를 즐긴다는 뜻이지요. 김정국도 형과 함께 1537년에 복직이 되어 다음해 전라도관찰사가 됩니다.

김안국은 그의 동생인 김정국과 연 1회 정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각

기 여주의 이호와 고양의 망동에 퇴거해 살았기 때문에 매년 한두 번씩 와서 손잡고 담화하다가 10여 일만에 돌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형제가 항상 동거하지 못하는 것이 한(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형제가 우애가 깊었고 검소하게 살아가려는 삶의 양식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사재 김정국의 친구인 황 아무개가 늙어서도 계속 집을 짓는 등 호사스럽고 욕심 사납게 산다는 소문이 사재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사재는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충고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지요.

‘자네가 쉬지 않고 집을 짓는다는 소문을 내가 서울에서 들었다네. 남들이 전하는 말이 정녕 사실이라면 차라리 그런 짓을 그만두고 조용히 살면서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70세를 산다면 가장 장수했다고 한다네. 가령 나와 자네가 그렇게 장수하는 복을 누린다고 해도 남아있는 세월이라야 겨우 10여 년에 지나지 않네. 무엇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말 많은 자들의 구설수에 오를 짓을 사서 한단 말인가?

내 이야기를 함세. 나는 20년을 가난하게 살면서 집 몇 칸 장만하고 논밭 몇 이랑 경작하고, 겨울에는 솜옷, 여름에는 베옷 몇 벌을 갖고 있네. 잠자리에 누우면 남은 공간이 있고, 옷을 입었는데도 남은 옷이 있으며, 주발 바닥에는 먹다 남은 밥이 있다네. 이 여러 가지 남은 것을 자산으로 삼아 한 세상을 으스대며 거리낌 없이 지낸다네. 천 칸 되는 고대광실 집에도 일만 종(鍾) 이밥을 먹고, 비단옷 백 벌을 갖고 있다 해도 그 따위 물건은 내게는 썩은 쥐나 다름 바 없네. 호쾌하게 이 한 몸뚱어리를 붙이고 사는데 넉넉하기만 하네.

듣자니 그대는 옷과 음식과 집이 나보다 백배나 호사스럽다고 하던데 어째서 조금도 그칠 줄 모르고 쓸데없는 물건을 모으는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기는 하네. 책 한시렁, 거문고 한벌, 벼 한사람, 신 한켠레, 잠을 청할 베개 하나, 바람 통하는 창 하나, 햇볕 쏘일 뒷마루

하나, 차 달일 화로 한개, 늙은 몸 부축할 지팡이 한개, 봄 경치 즐길 나귀 한마리가 그것이네. 이 열 가지나 되는 물건이 많기는 하지만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네. 늙은 날을 보내는데 이밖에 구할 게 뭐가 있겠나.

세상사 분주하고 고단하게 꾸려가는 중에 저 산수간에서 열 가지 물건과 보낼 재미를 생각하기만 하면 어느새 돌아가고픈 기분에 몸이 뿔뿔 날 듯하네. 그러나 몸을 빼내어 돌아갈 방법이 없으니 어찌면 좋겠나. 내 벗은 이 점을 잘 헤아리게나.’¹⁷⁾

청백리(淸白吏) 송정규

송정규(宋廷奎; 1656~1710)는 이천 출신의 청백리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보면 ‘조선시대에 청백리로 뽑힌 자는 겨우 110명으로 조선 말기 이후로는 이렇게 뽑는 것조차 끊어졌다.’고 개탄하였는데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청백리가 되기란 어려운 일이어서 조선시대 청백리라고 하면 가문이나 그 지역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정규는 숙종 5년(1679) 진사시에 합격하고, 숙종 9년(1683) 증광별시에 급제하여 황해도 장련현감(長連縣監),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을 역임하였는데, 성격이 강직하고 올바른 일을 직언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폐출된 인현왕후 민씨(仁顯王后閔氏) 처우문제로 상소를 올렸고, 인현왕후가 죽자 고부사(告訃使)로 청나라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1700년 나주목사, 1701년에는 제주목사, 1708년에는 강원도관찰사로 부임을 했고, 숙종 36년(1710) 향년 55세로 타계하였습니다. 묘소는 백사면 내촌리 여산송씨 문중 묘역에 있습니다.

송정규는 제주목사로 부임해서, 권근(權近)의 ‘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 목판본을 다시 간행하였고, 제주의 풍속을 채록한 ‘탐라지’(耽羅誌)와 ‘탐라

17) 이 글은 사재(思齋)가 친구에게 보낸 충고의 편지 가운데 있는 내용으로 조선중기 송와 이기(李瑩 1522~1600)의 저서 ‘송와잡설(松窩雜說)’과 권별(權鰲)의 ‘해동잡록(海東雜錄)’에 실려 있다.

지도’(耽羅地圖)를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치적이라 할 수 있는 ‘해외문견록’(海外聞見錄)을 저술했습니다.

현재 해외문견록은 일본 천리대학이 소장하고 있는데 이 책은 송정규가 제주에 표류한 외국인이나 타국에 표류했다 돌아온 제주사람들로부터 보고들은 이야기를 기술한 책입니다. 책에는 당시 제주에 다른 나라 배들이 표류해온 이야기, 반대로 제주사람이 표류하여 멀리 베트남이나 오끼나와까지 표류했다가 살아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하멜 일행이 제주에 표류한 사건도 들어가 있습니다.

5. 선비문화의 이해

‘유학’이다 ‘유도’다 하면 진부한 것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유교로 인해서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을 사회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고 해서 유교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선비정신이란 게 사실 이런 것이다. 아, 선비란 것이 바로 이런 분들이었구나. 조선시대에 선비로 사셨던 분들은 정의롭게 생각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인간답게 살고자 했던 분이었구나. 또 나 혼자 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이 바로 선비였었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 선비라는 것이 조선시대에만 있었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살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런 바른 생각하고 바른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곳곳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의 지도자이고 우리의 선비란 말이죠. 선비는 한자어로 유(儒), 사(士), 군자(君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의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儒)는 선비 ‘유’ 자입니다. 유생(儒生)의 의미로 쓰이지만 이 선비 ‘유’(儒)를 가만히 보면 이게 사람 인(人) 변에 쓰일 수(需) 자입니다. 우리

인간사회에 쓰임이 되는 존재, 필요한 존재 이런 얘기입니다. 선비는 그 시대의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식 집단, 유학을 공부하여 인격을 완성하고 유교의 이념을 실현하는 신분계층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선비 ‘사’(士) 자도 있죠. ‘사’(士) 라는 것은 오늘날 의사다 변호사다 사(士) 자 달린 사위 보려고 어머님들이 난리지만 원래 이 사(士)라는 건 옛날에 주로 벼슬하는 관료(仕)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 벼슬하는 사람을 통칭해 말하기도 합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하늘과 땅을 관통하는 사람이 선비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진리를 깨친 사람, 그런 것을 공부하는 사람이 선비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군자’(君子)는 선비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지식과 인격을 갖추고 인간의 도리를 실천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학자를 말합니다. 공자 맹자의 학문을 배우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사’(士)라고도 하고, ‘유자’(儒者)라고도 불렀어요.

‘유교’(儒敎)는 선비가 되기 위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유학’(儒學)입니다. 유학이라고 하면 사회에 쓰임이 되는 존재, 선비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공부 이것을 유학이라고 합니다. 또 ‘유림’(儒林)이란 말도 있습니다. 유림이라고 하면 이러한 선비들의 집단이 나무와 같이 뽕뽕하게 있다 이래서 유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도’(儒道)란 말도 있지요. 사회에 쓰임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한 그런 길을 유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설명보다는 좀 더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 논어 태백편에 있습니다.

士不可以不弘毅 선비라는 것은 넓은 포용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任重而道遠 그 책임이 무겁고 가는 길이 멀기 때문이다
仁以爲己任 不亦重乎 인(仁)으로 임무를 삼으니 어찌 무겁다 않겠으며
死而後已 不亦遠乎 죽은 뒤에야 그칠 것이니 어찌 멀다 않겠는가

선비는 모든 사람들을 군자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안 따라오는 사람

들도 포용하고 설득을 해서 정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넓은 도량을 가져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군자의 세계로 전부 데리고 가야하니 정말 임무가 무겁다, 책임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쉽고 가까이 있었으면 벌써 누구라도 다 갔죠. 근데 그러한 길이 우리의 역사 중에 요순시대와 같은 그런 행복한 시대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사실 유학의 이상사회는 꿈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꿈꾸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따라오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길로 가게 해야 한다. 그러니 넓은 가슴과 굳센 의지를 가져야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뜻입니다. 그래서 도산서원에 가면 홍의재(弘毅齋)라고 현판이 붙어있습니다. 넓은 포용력을 ‘홍의’(弘毅)라고 하지요. 서원에 기거하는 방 이름을 홍의재라고 해놓았어요.

우리나라 유생들이 공부하는 기관으로 성균관(成均館)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성(成) 자, 고를 균(均)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균관이라고 한 의미가 뭐냐 하면 여기 자료를 보시면 ‘성인재지미취 균풍속지부제’(成人材之未就, 均風俗之不齊)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 성취하지 못한 인재를 가르쳐 인격을 완성시키고, 가지런하지 못한 풍속을 순화하여 고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성균관이라는 것은, 향교나 서당이나 서원이나 성균관이나 하는 것은 아직 성취하지 못한 인재를 가르쳐 인격을 완성시킨다 이런 거지요. 우리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물렁물렁한 도자기 만들 때의 태토와 같은 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흙을 가지고 빚어서 여러 그릇도 만들고 유약을 칠해서 쓰임이 되는 이런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물렁물렁한 태토와 같은 상태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완성된 인간으로 되기 위해서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는 것이 ‘성’(成)의 뜻입니다. 우리가 완성된 인간이 아니지만 완성된 그릇이 대기만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균’(均)이라는 것은 가지런하지 못한 풍속을 고르게 한다 이 말이지요. 인재를 배출하는 곳이 옛날에는 성균관이나 향교, 서당, 서원 이런 곳이었지요.

그렇다면 지금도 사회적 리더, 사회에 쓰임이 되는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 바로 오늘날 서당과 서원, 향교, 성균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비라는 건 바로 어느 사회든 그 시대에 세상을 깨닫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리드해 나가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 질의응답

(질문1)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선비를 양성하신 목적이고 선비는 수기안인(修己安人) 정신을 가져야한다는 건데, 이렇게 좋은 자료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참고가 엄청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나눠드린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 자료를 보고 재구성해 만든 겁니다. 어쨌든 이 선비라는 게 우리 사회에 이런 분이 있으면 하잖아요. 우리가 뭐 김수환 추기경이라든가 존경할만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이 종교와 관계없이 선비입니다.

(질문2) 강연 말씀하시는 중에 도산서원 선비수련원에 전국에서 연간 7만 명이 교육을 받으려온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강의하시는 게 어떤 내용을 하시고 과정이 뭐가 있는지 설명 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네 그런 것은 선비수련원에 들어가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선비라는 것이 이렇게 사회를 정의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뭐 그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강의를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정도 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체험이고 답사입니다.

답사는 도산서원을 가서 직접 퇴계선생께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나도 선생님과 같은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당에 가서 참배

하는 것도 본래 뜻은 이걸 퇴계선생을 높여가지고 추앙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내 삶의 본보기로 삼자 하는 거지요. 나는 퇴계선생을 그런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여기 이천에서는 나는 모재선생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 보겠다 라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유적을 답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끔씩 문화유적을 직접 돌아보면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이 강의실은 잠만 오고 한 시간만 해도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자연과 함께 다니면서 하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자기들끼리 한 여덟 명 정도 자기가 느낀 점 등을 분임토의를 해서 내가 지금 살아온 것을 반성도 해보고, 나는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겠다 아주 쉬운 것부터 나는 기본이 좀 안 되어있는데 이걸 고쳐보아야겠다 라든지. 뭐 이런 자기성찰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퇴계선생 종손이 지금 83세신데 이분이 귀도 잘 안 들리시지만 초등학교 아이들도 와서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하고 일어나는데 이분은 거의 30초정도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자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2박3일, 1박2일 사회인들이 수련원에 와서 그런 감동을 받도록 우리가 해주자 유교라는 것이 진부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그런 생각을 더 크게 하는 것이다.. 거기서 또 즐거움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3) 아까 선비를 양성하는 목적인 성균(成均)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유교의 학자라고 하면 공자 맹자 순자 등이 있잖아요? 여기서 성취하지 못한 인재를 완성시킨다고 하는 게 선한 것을 발현시켜주는 건지 아니면 어지러운 것을 바로잡는 성악설에 근거한 것인지 그런 이념도 있나요?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답변) 사실은 유학이라는 게 깊이가 수박 한 덩이 큰 게 있으면 수박을 갈라먹을 때 밑으로 자를 수도 있고 옆을 자를 수도 있고 합니다. 그렇다

면 어디로 들어가서 유학이란 덩어리를 자를 거냐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부터 천자문을 가르치고 동몽선습도... 모재선생이 하신 건데.. 그 다음에 소학을 가르치고 논어 맹자 중용 대학 같은 사서를 가르치고 시경 서경 주역 이렇게 해서 철학적 세계에까지 이르게 가르칩니다.

거기서 내가 인격을 닦아야 하는데 성악설이든 성선설이든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한 본성을 잘 회복하겠는가 하는 것도 유학의 하나의 공부 방법이고요.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가르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가르쳐서 착한 길로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결국 목적은 같은 겁니다.

사실은 맹자와 순자 모두 사람이 착한 길로 가도록 하는 건데 순자는 교육을 더 중시했고, 맹자는 그런 착한 본성을 자기 노력, 성찰을 통해서 그런 길로 가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유학이라는 것은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기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자기가 그런 행실을 안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신부터 유학의 가르침을 실천하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학은 실천입니다. 실천을 해서 남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도학군자’라고 합니다. 그냥 유학자와는 다릅니다. 도학자들이.. 실천을 해서 정말 본보기가 되는 그런 분들, 우리사회에도 많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덕망 있는 그런 인격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도 삶을 본받아 살아갈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감사합니다. 두 시간동안 애를 써주셨는데 강의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천을 ‘흙’의 도시, 안동을 ‘물’의 도시라고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만들어지려면 흙과 물이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또 완성된 그릇이 되려면 ‘불’을 만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 길을 오셔서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주신 이동수 부원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비정신

① 수기안인(修己安人)

선비는 도를 알고 그 길을 걷는 도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바로 중용지도(中道)를 말한다.(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중도란 희노애락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고요한 마음상태에서 절도에 맞는 길을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과 욕망 때문에 올바른 길을 걷기가 힘들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수신이 필요한 것이다.(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선비는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어진 마음을 기르고 감정을 통제하면서, 또 한편으로 의리와 예의와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공자는 “군자는 의를 기본 바탕으로 삼고, 그것을 예로 행하고 겸손으로 표현하고 믿음으로 완성한다” 라고 하였다. 인이 인격의 바탕이고 내면의 문제라면, 의리와 예절·지혜는 인에서 외부세계로 표출되는 도리와 규범 및 기술과 방법에 해당된다. 비유컨대, 義가 올바른 길과 방향을 가리킨다면, 禮는 그 길을 가는 태도와 자세이고 智는 그 길을 가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선비가 인격을 연마하고 공부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달과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게 하는 것이 공부하는 목표이다. 즉, 자기 자신을 갈고 닦은 후에 세상을 위한 공부였던 것이다. 한 마디로 선비의 세계관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로 요약되는데, 그것은 수신을 통해 갈고 닦은 내면의 세계를 외부 세계로 무한히 확장하는 일이다. 그를 통해 선비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을 완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비는 먼저 자신을 갈고 닦아 인격의 완성체를 이룬 뒤 집으로, 국가로, 세계로 나아가 공인(公人)으로 쓰이는 존재였다. 그런 만큼 철저한 자기 수양과 인격 도야가 요구되었다. 반대로 선비가 제대로 수신이 되지 않으면, 위험한 인물이 된다. 선비는 지식인이다. 그러므로 선비가 마음을 바로 쓰지 않으면, 그의 지식은 남을 해치고 사회와 나라를 쪼먹는 무기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선비가 세상에 통달하고 벼슬살이를 하는 것은 부귀영화를 위한 것도, 사람을 통치하기 위함도 권력을 농단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궁극적으로 인간과 세상을 편안하게 하여 행복의 길로 이끄는 매개자, 또는 안내자, 또는 정치 및 사회 지도자가 되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비의 요체는 '수기안인(修己安人)'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비는 단순히 세상에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해야 한다. 진정한 선비는 질박하고 정의롭고 겸손하여 집안과 세상에 통달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후사(先公後私), 억강부약(抑強扶弱), 박기후인(薄己厚人)의 정신은 기본이다. 한 마디로 그것은 이타적 삶이라 할 수 있다.

② 사회정의 실천

선비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 단위로 모아지면서 여론이 형성되고 그 여론이 그 사회와 국가와 역사를 이끌어가게 된다. 그 때문에 16세기 이후 조선을 이끌고 간 것은 선비의 정치집단인 사림(士林)이다.

천하의 공정한 말을 '사론(士論)'이라 하고, 당세의 제일류를 '사류(士流)'라 이른다. 사해(四海)에서 의로운 명성을 얻도록 고무하는 것을 '사기(士氣)'라 이르고, 군자가 죄 없이 죽는 것을 '사화(士禍)'라 이르고, 학문과 도를 강론하는 것을 '사림(士林)'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한 시대 한 사회의 여론은 선비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론(士論)이다. 이 사론은 선비들이 옳다고 여기는 공의(公義)로서 그

들의 의리정신과 결부되어 조선시대에 목숨을 건 정치투쟁의 명분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만연하였던 사화나 당쟁 역시 그와 같은 선비들의 사론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조선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1762-1836) 역시 그와 같은 선비들의 정치적인 역할을 매우 강조하였다.

다산 정약용은 선비란 기본적으로 벼슬을 하는 존재로 보았다. 무릇 선비는 위로 임금을 섬기고 아래로 백성에게 은택을 베풀면서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존재이지,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거나 괴이한 행동으로 사람의 이목을 끄는 시대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선비는 부단한 공부와 자기 수행이 뒤따라야만 하였다. 그래야 개인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안락을 통제하고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시대를 이끌고 못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선비는 세상을 등지고 혼자만의 청빈낙도를 즐기는 부류와는 다르다. 세상에 귀를 열어 놓아야 한다.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사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선비란 기본적으로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지성인이기 때문이다.

③ 지조와 절개

선비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선비의 성품은 기본적으로 곧고 바른 인품의 소유자였다. 그러기에 세상을 대할 때 떳떳하고, 사물을 대할 때 사사로운 물욕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선비는 설령 가난하고 권세가 없을지라도, 힘 있는 자에게 아부하거나 빌붙어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선비는 어떤 상황에서도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조선 선비들은 지조와 절개를 매우 강조하였다. 그래서 조선 선비들은 선비들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사군자를 좋아하고 그 기상을 따르려 하였으니, 사군자란 바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말한다.

선비란 깨끗한 지조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려워 않는 강인한 기개,

옳은 일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던 불요불굴(不撓不屈)의 정신력, 항상 깨어 있는 청정한 마음가짐을 한 인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흔히들 말하는 ‘선비정신’이란 이 같은 정신을 상징한 것이다. 이 같은 선비상은 원시 유학에서부터 강조되어 온 것이다.

원시유학의 선비상이 춘추전국시대의 불우한 현실에서 형상화 되었듯이, 조선시대의 선비상도 양반의 권위와 존재가 흔들리던 조선후기에 형상화 된 것이다.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 1737-1805)은 <원사(原土)>에서 무릇 선비는 아래로는 농민(農民), 공인(工人)과 나란히 서며 위로는 왕공(王公)과 벗하며, 지위는 등급이 없고, 덕을 평상으로 일삼으니 한 선비가 책을 읽으면 은택이 사해(四海)에 미치고, 공훈(功勳)이 만세에 드리워진다.”

④ 청렴과 청빈낙도

선비는 기본적으로 세속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 글 공부가 업이었다. 그 때문에 청렴과 청빈한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었다.

공자가 “선비이면서 편안히 사는데 연연한다면 그것은 선비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듯이, 선비는 곧고 바르게 자기 길을 갈 뿐 빈부귀천과 지위 고하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맹자 또한 “선비는 아무리 궁해도 정의를 잃지 않기 때문에 선비는 자기를 지켜 나갈 수 있고, 아무리 영달해도 정도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는다(窮不失義故士得已焉 達不離道故民不失望焉)”고 하였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청렴과 청빈은 선비의 큰 미덕으로 칭송하였던 것이다.

진정한 선비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가난하든 앓든 독서와 학문 연구에 몰두하다, 혹 때를 만나면 치인의 길을 걷고 때가 다하면 다시 청빈한 삶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이와 같은 청렴·청빈한 삶은 인간의 삶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비는 다른 어느 무엇보다도 내 몸

을 갈고 닦는 수신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래서 선비는 늘 ‘경(敬)’과 ‘성(誠)’을 화두로 마음공부를 하였다.

⑤ 도예일치(道藝一致)

선비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인이지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 공부의 결과는 문학예술 활동으로 이어진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즐기는 것은 기본이다. 즉, 풍류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선비가 글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를 짓고 낭랑한 목소리로 소리 내어 읽는 경전성독이 노래가 되고, 글을 쓰다 보면 선비의 방에서 그윽한 묵향이 풍겨 나온다. 풍광 좋은 정자에 올라 벼들과 시를 읊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다보면 옆에서 어느 벼이 타는 가야금 소리가 들려온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선비의 일상 문화요 풍류였다.

선비가 예술적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림이나 글씨가 손끝의 잔재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갈고닦은 글공부가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무위자연’ 예술행위였다. 왜냐하면 선비가 좋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려면, 가슴 속에서 만권의 독서량이 쌓여서 피어나는 문자향(文字香)과 책에서 나오는 상스러운 기운인 서권기(書卷氣)가 흘러 넘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도문일치(道文一致)의 선비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문일치란 도(道)의 구체적인 표현이 글이요 글씨란 의미이다. 그렇게 되려면 선비가 쓰는 글과 글씨는 단순한 미사여구의 나열이 아니라, 선비의 마음과 사상이 담겨 있어야 하고 선비가 그리는 그림, 자연의 음율이 담긴 음악 또한 그러한 것이다.

공자는 시와 예와 음악을 하나의 몸통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예와 악이 몸과 마음을 닦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비는 시서예악(詩書禮樂)을 겸비해야 하였다. 도심(道心)으로 시를 짓고 글씨를 쓰고 예의범절을 갖추고 음악을 즐기는 선비, 그것이 선비의 예술적 완성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지성과 감성을 겸비하고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덕이 뛰어난 사람은 현자(賢者)라 하고, 예(藝)에 뛰어난 사람을 능자(能者)라고 하였다. 예(藝)는 기본적으로 기술이지만, 그 속에 덕이 있고 중도가 있으며 조화가 스며있어야 한다. 그것이 선비다운 예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비의 풍류문화는 인문예술이 되어야 한다.

인문예술이란 인간의 내면세계와 외부세계가 소통하고 표현되는 예술이다. 인간의 궁극적 가치인 선비의 4덕이 흐르는 예술, 철학이 있는 예술, 하늘과 땅과 사람이 화이부동하는 예술을 말한다. 한 마디로 그것은 도와 예가 하나인 ‘도예일치(道藝一致)’의 예술이기도 하다.

곧 선비는 현실적·감각적 욕구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높은 가치를 향하여 상승하기를 추구하는 가치의식을 지닌다. 그리고 그의 신념을 실천하는 데 꺾이지 않는 용기를 지닌다. 자신의 과오를 반성할 줄 아는 성찰 자세가 필요하며, 사회의 모든 계층을 통합하고 조화시키는 중심의 구실이 있다. 선비는 이제 신분적 존재가 아니라 인격의 모범이요, 시대사회의 양심으로서 인간의 도덕성을 개인 내면에서나 사회질서 속에서 확립하는 원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천의 풍수와 명당이야기

- 이천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인문학 -

최원석 경상대학교 인문한국사업단 교수.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회장. 20여 년 동안 우리 산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연구해오고 있다. 고려대에서 ‘영남지방의 비보’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 일본 중부대학에서 연구했다. 저서로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2014), ‘한국의 풍수와 비보’(2004), ‘도선국사 따라 걷는 우리 땅 풍수기행’(2000)이 있으며, 주로 비보풍수, 불교와 풍수의 연관성, 한국 전통풍수문화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1. 이천의 정체성, 땅의 정체성

우리는 산(山)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마을에는 뒷산이 있었습니다. 주산(主山)이 있었습니다. 풍수에서는 ‘주산’(主山)이라 그러합니다.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듯이, 우리 마을에, 집에, 여기 이천 관아 터에도 뒷산이 있습니다. 망현산을 보고 터를 잡아냈습니다.

모든 우리 전통공간들은 이 이천의 수많은 마을들과 집들과 관아와 역사적인 전통적인 공간들은 전부다 그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산(主山)을 보고 그 주산(主山)에 맞게 들어섭니다. 주(主)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주(主) 다음에는 객(客)이 있습니다. 주산(主山)과 객산(客山)을 축으로 해서 관아가 입지합니다.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객사나 동헌이나 어떤 방향을 보고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팅도 배치인데 주객의 가장 기본적인 축선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 이천에 보면 망현산과 마주한 ‘객산’(客山)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지도에 보면 이곳의 객산은 남산(南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천남초등학교 앞 군청자리에 산(언덕)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역의 정체성은 사실 땅의 정체성입니다. 주(主)와 객(客)이 있어야 하는데 ‘객’이 없고 ‘주’만 있다면 사실은 어떻게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천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여러분만이 지금 이천에 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천은 앞으로 이천에서 살아가게 될 후손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이천 시내를 보면 지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개발을 하느라. 여기 산천(山川)이 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主)와 객(客)이 있으면 다시 주 뒤에는 조(祖)가 있지요. 할아버지 ‘조산’(祖山)이... 망현산은 설봉산과 이어집니다. 풍수는 우리가 단지 ‘공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장소’로 생각합니다. ‘공간’이 백지 같은 것이라면 ‘장소’는 의미가 있고 정겨움이 있고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2. 풍수란 무엇인가?

풍수의 나라 한국

풍수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풍수란 무엇인가? 뭐가 풍수 같습니까? 서원 같은데서 풍수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저 좋은 땅, 묘 자리 잡는 공부가 풍수입니까? 풍수를 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풍수란 자연과 산천과 조화롭게 사는 지혜입니다.

풍수라는 것은 아주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100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 풍수의 시조를 ‘도선’(827년~989년, 신라)으로 보고 있는데 이천의 반룡송과 관련된 도선의 설화도 있습니다. 풍수는 한국문화 중에 아주 독특합니다.

가장 자연친화적인 산천(山川)에 대한 언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

는 세계적으로 동아시아에만 유일합니다. 그래서 풍수를 요즘 중국과 한국에서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2014년 김치문화 처럼...

이런 우주적인 지혜와 관습, 자연에 대한 인류의 중요한 지식이고 무형의 유산 중에 하나가 풍수입니다. 동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에는 풍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풍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풍수의 기원지는 중국이지만 역사적 영향력으로 볼 때 전 계층, 전 국토적으로 영향을 미친 나라는 한국입니다. 중국보다 한국이 풍수 영향이 더 강합니다. 일본의 경우엔 일부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풍수의 시조 도선국사

한국의 모든 문화에 풍수가 통용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과 마을의 입지, 또 문학, 그림 등 이런 생활문화 곳곳에 풍수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풍수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풍수가 뭐다 이렇게 실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풍수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풍수하면 터, 살기 좋은 곳, 명당 이런 게 떠오르지요. ‘명당’은 한국 사람이라면 가슴 속에 먼저 낙인처럼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풍수, 명당에 대한 다양한 이해

명당이란 어떤 것 같습니까? 살기 편안한 곳, 산수가 좋은 곳, 햇빛 잘 들어오는 곳... 어떻게 하면 살기 좋지요? 편안하다, 햇빛이 잘 들어온다... 예, 햇빛이 밝으면 마음도 밝아지지요. 바람은 불게 하고, 물은 흐르게 하고 그게 풍수입니다. 풍수란 글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연과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 풍수입니다.

‘명당’이라는 개념은 시대적으로 다른데요. 조선시대의 명당과 오늘날 명당은 다르겠지만 풍수에서 말하는 명당이라는 것은 요즘말로 번역하면 자연생태적인 개념입니다. 땅의 생기가, 자연의 생기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 이러한 곳이 ‘명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풍수하면 생각나는 것이 묘지입니다. 조선시대의 경우는 묘지풍수가 효(孝) 관념하고 결합되어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쳤고 나름대로 순기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화장문화가 일반화되어서 사실은 거의 묘지풍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삶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개되었는데 그러면서 풍수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겹가지 같은 것이 많이 붙었습니다. 과학적인 면도 있고 미신적인 면도 있습니다.

풍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신적인 면에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풍수라는 범위가 과학에서 미신까지 종교, 신앙적인 면, 문화, 민속적인 면까지 한 덩어리가 되어있습니다. 풍수라는 것은 그래서 그걸 코끼리를 만지듯이 어떤 사람은 과학이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신이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풍수라는 것은 문화로 접근하는 것이, 문화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척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저를 초청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3. 풍수를 알면 좋은 점은? 풍수의 시선으로 보면?

풍수, 내 몸처럼 산과 땅을 보다

풍수를 알면 땅을 사랑하는 마음, 땅과 아주 긴밀해집니다. 산을 봐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몸처럼 산을 보고 땅을 봅니다. 우리 지역 환경을 봐도 우리 마을을 봐도... 내 몸이라는 것이 자연과 비교하면 숨은 바람이고, 뼈와 살은 우리 땅을 보면 흠이지요.

대동여지도를 만드신 김정호 선생 같은 분은 산의 등선과 물의 흐름은 지표면의 ‘근골’(근육과 뼈)과 ‘혈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천은 물이 흐르는 혈맥, 산은 우리의 뼈와 살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수라는 시선을 가지고 보면 우리 지역 환경에 대해서 마치 내 몸을 보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또 애정 있게 나와 한 몸이란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을 봐도, 여기 설봉산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내 몸처럼 보는 이러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생태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인문학적으로 자연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터전을 대대손손 보전하기 위해서 마치 이천이라는 땅을 내 몸처럼 이해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도시계획이나 개발을 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추진을 할 테니까 말입니다. 풍수를 공부하면 이런 깊은 마음과 시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풍수, 이천 땅과 관계 맺고 살아가기

산과 물에 대해서, 산의 방향과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건물의 배치와 나무, 돌 하나라도 다 이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 하나 어떤 기능과 이치가 있듯이 이 지역 이천이라는 땅의 모든 지리적 요소, 풍수적 요소들은 서로 연관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거지요. 하나하나 그 이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마을, 일하고 있는 장소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의식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땅하고 이천하고 그 장소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집을 짓고 길을 내고 혹은 나무를 심고 건물을 짓고 어떤 관계를 맺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과 이천이라는 산천과 여러분이 두루 함께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요.

역사는 오랜 동안 우리가 단순히 자연, 혹은 생태적 보전만이 아니라 이천이라는 땅과 산천을 만나 서로 함께 공생 공존해 나가는 역사적 과정이고 문화적 진화라 생각합니다. 문명사적 진화가 아니라, 어떤 기술이나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만나 어울려 살아가는 만남의 미학이랄까 그게 오늘날 풍수가 추구해야 될 핵심적인 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명당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자연명당, 비보명당, 마음명당

풍수에서 명당 그러면 어떤 땅입니까? 완벽한 땅입니다. 풍수에는 명당의 형국이 있습니다. 청룡(靑龍), 백호(白虎), 현무(玄武),朱雀(朱雀) 이런 형국을 갖춘 것을 ‘자연명당’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자연명당이 별로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한 명당이 있습니까? 교과서에만 나오는 완벽한 명당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완벽한 존재가 이 우주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비보명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명당입니다. 비보(裨補)라는 것은 보완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보완해서 명당으로 터를 가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어머님한테 타고난 몸이지만 살아가면서 자기를 가꾸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목표를 향해서 이상적인 사람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터도 그렇습니다. 비보명당(裨補明堂)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곳이나 명당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만남의 미학이랄까요. 이러한 것이 풍수 명당에 대한 올바른 견해입니다. 우리가 사는 거주지, 이천이라는 향토를 좋은 명당으로 가꾸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명당입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은 아무 터도 상관이 없습니다. 불가에서, 깨달은 자는 어디에 가도 명당이라고 합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주적인 존재로 깨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건 어디에 집을 짓고 살건 다 명당이겠지요.

명당이 되기 위한 조건

명당이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전통적인 풍수) ‘주산’이 있어야 하고 주산에서 이어지는 ‘맥’이 있어야 합니다. 북악산에서 형제봉으로 인왕산, 삼각산으로 맥이 이어집니다. 이런 쪽 연결되는 연결선이 중요합니다. 산줄기는 생태통로이기도 하고요. 풍수에서는 지기 혹은 생기가 흐르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동여지도-산수지도를 보면 산줄기와 물줄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몸의 핏줄기처럼 한반도를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천(山川)의 특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아주 둥글 둥글하여 우리 산의 이미지를 어머니 같다고 표현도 합니다. 어머니가 잉태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산이 쪽 우리 마을 뒤에까지 이어져 내려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에워싸듯이 산이 가까이 있습니다.



북악산에서 형제봉, 인왕산으로 이어지는 맥

중국의 땅을 보세요. 북경이라는 데는 산이 있습니까? 중원은 다 평원입니다. 황토고원입니다. 일본도 우리와 산이 다릅니다. 일본은 신생대 화산지형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산은 아주 젊습니다. 서양의 산은 자연생태의 산입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경외스럽고 위압적인 산으로 느껴지지요. 일본만 해도 산과 사람의 주거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산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줄기가 쪽 마을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주 사람과 가까운 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산’이란 표현을 씁니다. 혈맥을 잇듯 우리 땅은 생기와 생태가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명당이 되기 위한 두 번째의 요건은 에워싸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풍수에서는 ‘장풍’(藏風)이라고 합니다. 생기와 기운을 잘 갈무리한다

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주작, 현무라는 말도 동서남북으로 두루두루 산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물(水) 조건입니다. 명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득수’(得水)라고 하지요. 물이 생명의 기원이기도 하고 사람이 사는 주거지는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산천(山川)은 산과 물, 산과 하천이 함께 어울려 있어요. 그래서 ‘산수’(山水)가 한 단어입니다. 서양에서는 산수(山水)라는 합성된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산이 있으면 반드시 물이 같이 흐르지요. 이게 한국의 지형적 특성입니다. 우리는 골골마다 다 맑은 물이 나옵니다. 이런 지형도 세계적으로 흔치 않습니다. 화강암 산지이기 때문에 화강암이 필터 역할을 해서 어디나 물이 맑습니다.

풍수 형국론

풍수에서는 ‘형국’ 이야기도 하는데 모양새로 땅을 비유합니다. 예전에 향일암은 신령스러운 거북이라는 뜻으로 영(靈)자 거북 구(龜)자를 써서 영구암이라 하였습니다. 흙무더기 돌무더기로 이루어진 산이 아니라 신령스러운 거북으로 유기체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풍수에서는 ‘형국론’이라고 합니다.



왼쪽 사진: 여수 향일암. 오른쪽 사진: 내하마을 뒤에서 본 백사면 내하마을의 명당 형국

여기는 이천의 내하마을입니다. 명당 형국을 갖추고 있나요? 좌청룡 우백호 같이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 앞(남쪽)이 열려 있어서 숲으

로 막았습니다. 이 숲은 자연적인 숲이 아닌 인공적인 숲입니다. 마을 사람이 비보한 겁니다. 이 숲을 만둑으로 해서 이 땅은 비보명당이 되었습니다. 이 숲은 마을의 대문역할도 하고 커텐 역할도 해서 외부 시선으로부터 마을에 이르는 시선을 적당히 가립니다. 또한 이 숲이 있음으로 해서 토양의 유실도 막습니다,

옛 사람들은 비보한다는 이유로 비보명당을 만들었지만, 이 숲으로 인해서 홍수 시에 하천의 물이 범람하여 주위의 흙이 깎여 내려가는 토양 유실도 방지하는 실용적 기능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런 숲이 예전에는 웬만한 마을마다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휴양림 역할도 하였습니다.

내하마을에는 비보 못도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물은 실용적인 기능을 하지만 또 조경이나 생태 등의 다기능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천의 산 이름과 풍수

산 이름에는 풍수의 유래나 형국을 알 수 있는 이름이 많습니다. 이천도 그렇습니다. 호랑이를 제압하는 의미로 호랑이 형국의 입 부근에 비보사찰(약사암·호암사)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 풍계 3리의 용봉(龍鳳) 같은 경우는 지네산(백족산)의 기운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네와 상극이 되는 닭 형국을 배치했습니다.

계룡산(鷄龍山) 잘 아시지요. 계룡산 옛 지도를 보면 산맥이 닭 벼슬 같기도 하고 용 모양 같기도 해서 계룡산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산에 대한 시선, 용산으로 본 시선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81호인 백사면 송말리에 있는 반룡송은 소나무의 생김새



좌측: 계룡산의 옛 지도, 우측: 이천 백사면 송말리의 반룡송

가 마치 용이 서려있는 듯, 하늘로 오르기 위해 꿈틀거리는 용의 형상을 닮지 않았습니까?

산 이름	위 치	풍 수 적 유 래
무학산 (舞鶴山)	이천시 관고동	부학(浮鶴)이라고도 하며 설봉산 산세가 학이 날개를 편 모습과 비슷하여 유래
청룡산	대월면 부필리	용의 형상
호암산 (虎巖山)	백사면 우곡리	산 능선에 호랑이 형상으로 생긴 바위가 있다고 하여 붙은 이름
효양산	부발읍 마암리	호랑이가 앉아있는 형상으로, 산 위의 큰 두개의 바위는 호랑이의 눈에 해당한다.
마산(馬山)	신둔면 용면리	말의 형상
용산(龍山)	율 면 산양리	용의 형상
두루미산	율 면 총곡리	두루미처럼 생김(총곡리, 월포리 경계)
백족산 (百足山)	장호원읍 진암리	산의 형국이 지네 같아서 지네의 별명인 백족을 닮았다고 하여 백족산이라 부름

이 반룡송에는 비결풍수적인 내용이 얹힌 설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신라 말 풍수의 시조, 도선국사가 명당을 찾아다니다가 이곳을 비롯해 함흥·서울·강원도·계룡산에 반룡송 다섯 그루를 심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이천의 반룡송이라는 것입니다. 풍수적인 의미로 해석된 반송입니다.

이천의 지역 가치를 매길 때 이 나무에 대한 가치뿐만이 아니라 이 나무가 터 잡고 있는 가치도 한 번 더 플러스(+)하면 더 가치가 더해질 것입니다. 가치는 자꾸 부여하면 커집니다. 풍수에 대한 가치, 땅에 대한 가치, 장소에 대한 가치, 나무에 대한 가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도선국사가 터 잡은 곳은 중요한 가치로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천의 단맥설화 현장

설성면과 안성군 경계의 삼실고개에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군 이여송이 삼실고개에 무쇠창을 묻어 혈을 끊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설성면 암산 2리 마을앞 산꼭대기에는 거북의 형상을 한 큰 바위가 있어 거북되라고 부르는데,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이 지역의 혈을 자르기 위해 거북바위를 깨뜨렸다고 합니다. 또 마장면 덕평리 마심이고개에는 장수혈이 있는데, 일제 때 일본군이 민족정기를 말살하려는 목적으로 말뚝을 박았다고 하지요. 그 때 붉은 피가 솟구쳐서 주위에 피가 낭자했다고 합니다.

백사면 호암산은 예로부터 장수를 길러내는 산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혈을 자르려고 말뚝을 박고, 호랑이 눈 부위의 바위를 뽑아 제방을 쌓았다고 하지요. 그 후로 장수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 산에 보면 쿵쿵 소리가 나는 속빈 바위와 독수리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의 혈을 끊는다고 쇠말뚝과 못을 박아 깨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부발읍 매봉산 밑 삼신리 길등(조은매기)도 같은 설화가 전합니다. 장수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일본인들이 이곳을 파 해쳤다고 하지요. 효양산 매봉재 정상의 장등에도 일본인들이 박아놓은 쇠말뚝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끊어진 맥을 풍수적으로 다시 이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해 구지봉은 6가야의 태동지이자 금관가야의 성지인 곳입니다. 이곳이 꼭 거북이 모양인데 일제강점기 때 목 부분을 신작도로 끊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992년 김해시민들이 끊어진 목을 다시 이어야 한다 해서 김스한 것처럼 윗부분을 연결시켰습니다.

5. 이천고을의 풍수

이제 이천고을의 풍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천부 관아의 입지를 보겠습니다. 위로 고을을 진호하고 있는 설봉산(雪峰山)을 진산(鎭山)으로 삼고, 이 설봉산의 주맥이 동북쪽으로 뻗어서 기치미고개(音峴路)를 넘어 유순한 형세를 띠고 봉긋이 뻗은 신사산(옛 望峴山)을 주산(主山)으로 삼아, 그 양지바른 산기슭에 남향하여 입지하였습니다. 관아를 기준으로 주산은 망현산(신사산), 좌청룡은 망현산(신사산) 지맥, 우백호는 설봉산과 저명산이 되었고, 조안(朝案)은 남산이 됩니다.

풍수상, 우백호에 비해서 좌청룡 산세가 허약한 점이 단점이나 이러한 결점은 안흥지(安興池)가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안흥지는 기록에 따르면 이천부 동쪽3리에 있는데 둘레는 200보이며 가운데에는 작은 섬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종의 셋째아들인 안평대군이 여주영릉에 참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이천에 와서 앞뜰을 바라보고 수원이 부족함을 탄식하여 만든 연못이라 합니다.

안흥지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조성이 되었을 터인데 그 중에 중요한 목적중 하나가 이 고을 터를 비보하는 목적으로도 안흥지가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저습지역이긴 하지만 옛날 이천읍 지역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읍 수구(水口)에 연못을 만들면 화재를 예방한다고 하여 연못을 만들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수구(水口)는 물이 만나서 나가는 입구를 말하는데 풍수적으로는 마을에서 양갈래 명당수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이 허결한 경우에 합수터 수구 부분에 숲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수구비보’라고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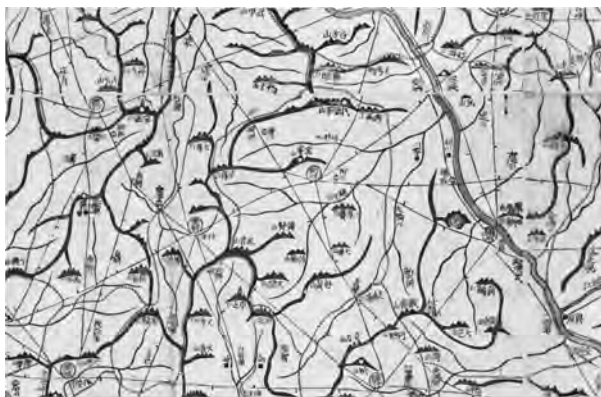
대동여지도로 보는 이천고을

대동여지도는 산수지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백두산부터 땅 끝까지 산줄기가 다 이어져 있지요. 우린 섬도 많지 않습니까. 섬의 산줄기도 백두산하고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 속으로 지맥이 이어졌다고 생

각합니다. 고산자(古山子)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지도를 보면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의 산맥체계를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태백산맥, 노령산맥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고 또분지로(小藤文次郎)라는 일본사람이 지질구조를 가지고 만든 산맥체계로 우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 산줄기에 대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백두대간은 우리 한반도의 등줄기이고 거기에서 하나의 정간과 13개의 정맥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남정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강 이남에 있다고 해서 한남정맥입니다. 한강 이북 쪽은 한북정맥이라 합니



다. 이천은 한남정맥(漢南正脈)의 계통인데요. 백두대간의 결절점인 속리산에서 한남금북정맥이 분기하고 이것이 서북진하다가 죽산의 칠현산 줄기에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서쪽으로는 금북정맥이 되고 북쪽으로는 한남정맥이 됩니다. 칠현산에서 구봉산으로 뺀 후에 한줄기는 서편으로 성문산이 되고, 동편으로는 이천의 산가지를 이룹니다. 이천의 오음산을 기점으로 이천의 동쪽과 북쪽으로 뻗은 지맥은 설봉산을 진산으로 한 이천고을의 터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 옛지도를 보겠습니다. 1871년에 만들어진 ‘이천부읍지’(利川府邑誌) 중에 있는 ‘이천일경지도’(利川一境地圖) 그림을 풍수적인 시선으로 보면 명당형국 같지 않습니까? 꽃처럼 생각해 보지요. 관아 터를 중심으로 꽃잎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오른쪽 맥은 어떻습니까? 잘 감싸고

있는데 왼쪽은 상대적으로 좁
약한 면이 있지요? 안흥지가
비보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
잖아요. 주산이 있으면 객산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요. 주산인
망현산과 남산을 축으로 해서
관아 터를 배치합니다. 기본적
인 건축공간에 구도는 1차적
인 축입니다. 옛 그림과 지도
는 풍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이천의 마을 이름과 풍수

마을이름에는 풍수적 유래와 문화가 스며있습니다. ‘용머리’ 같은 마을 이름에는 재미있는 스토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땅에 이야기를 붙이면서 땅과 조화롭게 사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다시 지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백 년 지속된 전통마을 자체가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을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이름과 문화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연 조건도 갖춰져야 되고 공동체적인 질서도 요청됩니다.

자연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또 적절하게 보존하면서 자손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연과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처럼 쓰고 버리는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땅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마을은 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천에도 수많은 마을 들은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사는 상생 관계의 코드를 가지고 이어져 왔습니다. 오래된 마을로 전통이 이어져 왔다는 것 자체가 매우 가치 있게 생각됩니다. 이런 마을들은 대부분 다 풍수적인 이름과 스토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마 을 명	풍수 형국의 유래
대월면 구시리 용머리	마을 터의 형국이 용머리 모양인데서 유래
백사면 우곡리(牛谷里) 소골	산의 형국이 소의 모습이어서 소가산이라 부르 고 마을이름을 소골이라 함
백사면 상용리 용머리	마을이 용산의 머리 부분에 입지한데서 유래
백사면 내촌리 쇠일	마을터가 소의 형국
부발읍 신하리 매곡	매화낙지골, 매화터라고도 하며 마을의 지형이 매화꽃이 땅에 떨어진 형국(梅花落地形).
부발읍 가좌리 청룡뿌리	가재울 청룡 쪽에 있는 마을이라서 붙은 이름
부발읍 마암리(馬岩里)	말 바위가 있어서 붙은 이름
부발읍 송은리 소눈골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므로 소눈골이라고 하였 는데 변하여 소론동 또는 송은동이라 함.
설성면 제요리 반월성	뒷 산의 형국이 반달을 닮아 붙은 이름
설성면 상봉리 반월	마을 지세가 반달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
설성면 대죽리 황새달	마을형국인 황학포란형(黃鶴抱卵形)에서 유래
신둔면 용면리(龍眠里)	지형이 용이 누워서 자는 형국
율 면 북두리	지형이 북두칠성처럼 생겼으므로 붙은 이름
율 면 북두리 용머리	지형이 용의 머리처럼 생겼음
호법면 후안리 용머리	용의 머리 형국
호법면 유산리 달개실	마을 뒷산이 닭과 같이 생겼다고 유래된 지명

소일마을의 풍수

내촌리 소일마을에는 소형국의 부속물로서 소꼴더미라는 자연 언덕이 있고 소구유, 소빫장 (소나무)등의 인위적인 조경장치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소의 형국과 관련시켜 여러 가지의 비보장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숲이 소가 나가지 못하게(‘빫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빫장을 질렀습니다.

‘소’라는 것은 은유입니다. 이 땅의
생기, 형국, 지형 상징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라는 것은 어떤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또 산세 자체가
소처럼 생겼기도 했지만 그 소가 나
가지 못하게 빗장, 비보를 한 것입니
다. 생태적인 마을을 만든 것입니다.
숲으로 둘러싸 마치 허리띠를 두르듯이 이런 본을 만들어서 생태적인 단
위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스토리입니다. 빗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
미가 있습니다.



소의 배에 해당되는 명당에는 조
선후기 철종 때 이조, 예조판서를
지낸 김병기(金炳冀, 1818-1875) 고
가(古家)가 입지하고, 그 중에서도
혈의 위치에는 고가 뒤에 있는 묘
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소의 꼬리
부분은 마을회관 자리라고 주민들

은 알고 있습니다. 마을 안 동편에 있는 볼록한 형태의 동산은 소의 먹이
인 풀(풀)을 베어다 쌓아 놓은 것으로 소풀(풀)더미라고 부릅니다. 내촌리
를 와우형(臥牛形)이라고 하고 소의 머리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부발읍 응암리의 풍수

부발읍 응암1리는 ‘키형국’이라고 합니다. 비보하기 위해서 마을 숲을
조성했습니다. 마을 뒷산인 매봉재(鷹峰)에서 두팔을 벌려 마을을 안았는
데, 마을 터의 형상이 키와 흡사합니다. 옛부터 이 마을에서는 키형국이어
서, 주거지를 끼고 있는 좌우 지맥(地脈)의 경사가 완만해지는 마을 앞을
가로질러 비보적 동기로 소나무 숲을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복이 나가지 마라’고 숲을 조성하였다는데, 키형국의 지세상 마을 앞이

허결하기에 숲으로 조산한 것입니다. 마을이 개발되면서 차츰 훼손되기 시작하여 현재 소나무 숲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키형국의 앞으로 큰벚들에는 앞뜰이 있는데 된섬(똥섬, 독내, 독상이라고도 함)이라는 자그마한 흙 둔덕이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 둔덕을 키로 겨를 까불고 난 찌꺼기가 모인 것이라고 상징화합니다. 상징화 된 이름을 가진 언덕, 이런 풍수설화가 주민들의 삶, 생활, 산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게 장소의 스토리지요.



장록동 묘지비보

이천시 장록동 앞들에는 연일 정씨의 선산을 비보하기 위하여 복두칠성 모양을 상징하여 만든 7개의 조산이 조성되었습니다. 풍수도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룡, 백회, 주작, 현무가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별자리이기도 합니다. 풍수에서 차용해서 땅이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되었습니다. 천지구도의 우주적 사유가 반영된 것이지요. 여기는 조산을 복두칠성 모양으로 조성했습니다. 매우 독특한 발상의 비보형태로서 우주적인 사유를 가진, 가치 있는 조산입니다.

원적산 금반지형 명당

원적산 금반지형지는 비결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백사면 원적산 아래에는 금반형지 명당이 있다고 하여 옛부터 전국 각지에서 풍수가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백사면 현방1리에 사셨던 최태석 씨도 그 중 한 분으로, 충북 진천에서 살다가 금반형지를 찾아서 1964년에 이주하였다고 합니다.

10여 년 전 만나보았을 때, 현재의 집터가 금반형지라고 믿고 있었습니

다. 직접 필사한 금반형옥룡자비결(金盤形玉龍子秘記)과 같은 비결 자료들과 이를 토대로 작성한 형세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¹⁸⁾ 시나 문화원에서 민속자료로 보관하시면 참 좋은 풍수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7. 오늘날 풍수의 가치는?

오늘날 풍수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지역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 역사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그 지역의 산과 땅, 강과 문화를 내 몸처럼 이해할 수 있는 시선이자 사상입니다. 풍수란 자연과 산천과 조화롭게 사는 지혜입니다.

또한 풍수는 동아시아의 오랜 유산으로 전승되어온 인류의 무형유산으로서 그 충분한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풍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범주에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에 해당합니다.

동아시아의 자연환경에 대한 지식 및 관습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중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공동 등재의 가능성도 타진하면서 이를 위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8) 필사본에는 금반형옥룡자비결(金盤形玉龍子秘記, 成居師道誥先生)과 여주이천금반형결(驪州利川金盤形訣, 成居師論), 금반형택지상모론(金盤形宅地像貌論), 금반형(金盤形, 春崔居師李達天訣), 여주이천금반형결(驪州利川金盤形訣, 朴尙義詩)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천의 천주교 이야기

- 이천의 순교자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다 -

김태진 베난시오 신부. 2009년 이천 어농성지 전담신부로 부임하였으며 이천지역의 초기 천주교 전래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엄숙한 전례성가들을 벗어나 자유분방한 젊은이성가를 만들어 보급하는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다. 2001년부터 솔로음반을 발표하였으며 ‘마음을 드높이’, ‘축제’ 등과 같은 히트곡으로 청소년과 20~30대 신자들을 열광시키며 새로운 방식으로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있다.

1. 들어가면서

반갑습니다. 제 전공은 음악이고요 부전공은 실천신학이고요. 학사는 철학으로 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강의할, 내세울 수 있는 건 음악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역사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만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반만년 역사에서 이천에 가장 오래 산 신부이기 때문에 이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우선 천주교 신부를 처음 보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용어 정리가 중요한데요. 우선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수단이라 부릅니다. 까만색은 ‘세상에서 죽었다’를 의미하고요, 하얀 색 이 흰 로만 칼라는 순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까만색은 저 같은 바바리 신부들이 입는 거고요, 주교님들은 남색, 추기경님들은 붉은색, 교황님들은 흰색을 입습니다. 그런데 원래 교황님이나 추기경님들도 까만색은 기본입니다.

천주교라는 말은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있죠. 전체는 아시다시피 가톨릭(Catholic)이라 부릅니다. 두 가톨릭이 있어요. 서쪽엔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가톨릭과 동쪽엔 안티오키아와 이스탄불(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정교회(Orthodox)로 불리는 가톨릭이 있습니다.

정교회와 가톨릭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작기도로 성호를 긋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을 하는데, 왼쪽을 먼저 하는 데는 천주교이고, 오른쪽을 먼저 하는 데는 오쏘독스(정교회)입니다. 축구를 할 때 골을 넣고 성호를 긋는 모습을 보면 오른쪽을 먼저 하면 천주교죠.

서쪽 가톨릭은 로마의 주교, 교황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예요. 동쪽 가톨릭은 오쏘독스(정교회)라고 하는데 이들은 자신도 주교라 로마교황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터키는 무슬림이 장악했으니까 터키 쪽에서는 약하고, 다음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아프리카 쪽 콥트 정교회가 있습니다.

가톨릭과 정교회는 신학적으로는 ‘성령’에 관한 문제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성령은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로부터도 나온다.”는 입장. 즉 삼위일체 교리이고, 동방정교회는 “성령은 오직 성부에게서만 나온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基督教)라는 말을 쓰는데 교리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전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 삼위일체의 교회인데 기독교라는 표현은 성자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우리 신앙을 다 담지는 못하죠. 그리스도교가 처음 아시아로 왔을 때 흔히 ‘야소교’(耶蘇敎), ‘천주교’(天主敎), ‘기독교’(基督教) 이런 말을 썼는데 그 외에도 ‘두사교’(陡斯敎)라는 말도 있습니다. 데우스를(Deus는 라틴 말로 ‘신’이라는 뜻이죠) 중국말로 읽으면 ‘두사’(陡斯))가 됩니다.

‘천주’라는 말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부터 말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천주교가 중요한 이유는 천주교 역사가 이제 2015년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선교사 파견과정이 생략된 민족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원래 모든 종교는 선교사가 파견을 나가서 그 사람들이 선교를 하면서 교회가 생기는데 그 과정이 없이 자생한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입니다. 교황청에서도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가 중요한데 양평, 여주, 이천, 광주에서 스스로 생긴 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땅입니다.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한국 종교사의 흐름

우선 구석기 시대 때는 70만 년 전 무덤의 형태를 보면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적토를 써서 사후세계를 인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6000년경 범신교, 다신교, 일신교 등 이런 종교의 공통점은 모든 인류가 다른 자연물보다 뛰어나다는 것과 인간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기원전 10세기로 단군 건국신화에서 하느님이 나오죠. 흔히들 건국신화라는 말을 쓰는데 건국신화에서 하느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종교적 심성을 타고 난 민족은 많지 않습니다. 있다고 해야 유태인 정도지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느님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태어나는 겁니다.

건국신화에서 하느님 환인, 환웅, 단군 등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환웅이 누구냐에 대해 가르치는 책은 없었다는 거지요. 철기 시대는 기원전 4-1세기로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무천), 삼한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 것이 나옵니다. 하늘이 무엇이나에 대해 알려주는 책은 없습니다.

삼국시대에는 3세기경부터 불교를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통일신라 때는 7세기에 시작된 화랑도가 있는데 이게 불교와 도교가 합쳐진 거예요. 고려 때는 국교로 불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호국불교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장경을 간행하기도 해요. 조선 시대에는 유학자들, 신진 사

대부가 집권하면서 불교를 억압합니다. 유교를 강조하면서 고등종교였던 불교가 뒤로 밀려가는 맹점이 있었죠. 이를테면 산천, 신령님, 일월성신, 무당 등이 있는데 현재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미신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3. 천주교의 중국 전래

그 다음 기독교계가 중국으로 오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스토리우스교가 있습니다. 당나라 때 경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원래 콘스탄티노플 주교였는데, 기독교 내에서 그리스도 논쟁이 붙어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사람의 아들이냐를 가지고 동서교회 신학자들이 엄청 싸우게 됩니다. 그리스도론 논쟁 하에서 정치적인 주도권 싸움이 있었어요.

로마 쪽은 교황이 거기 사니까, 이스탄불(콘스탄티노플)은 황제가 사니까, 로마 아래쪽에는 알렉산드리아 주교, 동쪽에는 안티오키아 주교... 4대 주교들과 귀족들이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재를 했던 사람이 네스토리우스 주교입니다. 한 때는 이단자로 몰리다가 복원이 되었습니다. 이 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인간의 어머니냐 라는 싸움에서 '성모님은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하자' 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탄불에서 쫓겨나 동쪽으로 올 때에 처음으로 아시아와 기독교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경교의 영향으로 불국사에 가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느 한 순간에 생긴 게 아니라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생기게 됩니다. 기독교계의 사상이 동서양의 문화가 오가는 교류를 통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경교는 당 태종 때부터 중국에 전래(635년)되어 성행하다가 중국인 신

자의 부족과 사제를 양성하지 못해 외국인 신자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 쇠퇴를 하게 됩니다. 천주교가 중국에서 세력이 커지게 된 시기는 원나라 몽골 때입니다. 무슬림세력이 확산되면서 지금의 소아시아 땅인 팔레스타인 쪽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탄불과 아시아, 유럽이 이어지는 보스포루스 해협까지 다 무슬림이 장악을 하게 된 거죠. 무슬림 세력이 동쪽으로도 확장되어 오다가 13세기에 몽골제국이 등장하면서 결국 싸움에서 지게 되고 무슬림이 약화가 됩니다. 무슬림 땅에는 4한국이 세워집니다. 이 원나라를 통해 실크로드가 뚫리고 이 때 드디어 원나라에 카톨릭이 알려지게 되죠.

원나라 조정의 대신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원나라와의 싸움에 진 고려인들이 원나라에 볼모로 가서 천주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원나라에 카톨릭이 알려졌고 교황 그레고리오 10세는 마르코폴로 부자를 원나라에 파견하기도 합니다. 마르코폴로(1254~1324)는 이탈리아로 돌아가 중국에 대한 책을 내게 되는데 바로 동방견문록이지요. 이 책을 통해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원나라 쇠퇴 후 무슬림이 다시 힘이 세지면서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경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 천주교의 영향력이 끊기게 됩니다.

무슬림이 아시아와의 교류를 막자 유럽에서는 새로운 루트가 필요했지요. 그 때 유럽에서는 ‘후추’를 원나라를 통해 맛을 본거죠. 후추 무역으로 투르크(오스만 투르크)의 세력이 커지죠.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고 이슬람화 시키면서 오스트리아 빈까지 쳐들어옵니다. 유럽은 해로에서는 키프로스나 몰타에서 막아내고 육지에선 빈에서 막아냅니다. 겨우 투르크 세력을 물리친 거죠. 스페인이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스페인에 남아 있던 무슬림들이 아프리카로 밀려나긴 했지만 서양은 아시아로 가는 다른 루트를 찾기 위해 항해술이 발달하죠. 항해를 하면서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인도를 발견해 동인도 회사를 차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르틴 루터 신부님이 종교개혁을 하죠. 이 부분은 잘 아실 것 같아 넘어갑시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 확산되면서 천주교가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수신을 해야 한다고 생겨난 게 트리엔트 공의회(1534년)입니다. 공의회를 통해 교황님이 속해있는 예수회가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는 캐치프레이를 걸고 아메리카도 가고 아시아로 오게 됩니다. 아시아로 오면서 처음으로 천주교가 뿌리를 내린 곳이 인도이고, 중국과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지나치고 전국시대 내전 중인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포르투갈 신부님들이 일본에 총과 대포를 전해주고 전국통일 후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일본이 서양과의 교역에서 부자가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부님을 태우고 가는 상인들이 이윤을 남겨야 되겠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때까지 동쪽 끝에 가면 ‘금’의 나라가 있다는 환상에 젖어있었습니다. 마르코폴로가 잘못 쓴 이야기를 믿고 일본에 온 거지요. ‘금’은 조선 정부가 더 많았지요. 일본은 ‘은’이 많아요. 전 세계 은 가격이 폭락할 정도로 일본이 은을 팔아 대포와 총기를 구입하게 됩니다. 재력이 쌓여 군함도 만들죠. 일본에 왔더니 ‘금’이 없으니까 조선에 ‘금’이 많더라는 상인의 말을 듣고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라는 성인이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려다 1552년 중국의 어느 섬에서 열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어 천주교가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죠.

1581년에는 마테오리치(1552~1610) 신부님도 중국에 들어옵니다. 서양의 철학 체계와 신학 체계를 잘 정리했던 신부님이죠. 명나라 말에 교황청에서 예수회의 많은 신부들을 파견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중국 사람들이 서양의 문화에 충격을 받았던 것은 지리학입니다. 아시아는 지도가 완성이 안 되어있는데 유럽은 많은 지도를 가지고 있어 중국은 깜짝 놀랐어요. 또 발달된 수학을 들 수 있습니다. 수학이 중요한 이유는 월력을 쓰기 때문입니다. 일식, 월식 등 월력을 계산하는데 서양의 수학이 너무나 잘 맞았던 것이죠. 천문학, 항해술, 발달된 무기 등이 중국에 굉장히 충격을 주게 됩니다.

아담 샬(1591~1666)이란 신부님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들어가 만난 신부가 이 분인데, 소현세자는 병자호란으로 청

나라한테 패하게 되어 볼모로 끌려가지요. 소현세자는 심양 북경을 전전하다 아담 샬 신부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에게 수학도 배우고, 신문물을 접하게 됩니다. 아담 샬 신부는 북경에 천문대를 지었습니다, 중국 황제가 천문대에서 일식 월식을 맞추는 것을 이 사람한테 시켰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아 ‘광록대부’란 벼슬도 받고 천주당(남당과 동당)도 건립합니다.

특히 소현세자가 거처했던 문연각이 남당 가까이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자주 왕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현세자와 함께 따라간 가신들, 내관, 호위무사, 시녀들이 천주교 신자가 됩니다. 영세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볼모로 끌려간 소현세자는 1645년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귀국한지 한 달 만에 34세의 젊은 나이로 죽죠. 안타깝게 서양문물과 발달된 과학체계를 잘 알았던 소현세자가 죽게 되는 거죠.



조선사절단과 빈번한 접촉이 있었던 천주당. 왼쪽은 동당, 오른쪽은 남당

그때 소현세자와 함께 영세를 받고 돌아온 무사, 내관, 시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천주교를 했다면 천주교의 시작이 빨라졌겠지요. 청나라와 왕래를 하면서 서양에 대한 사상과 지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단초를 푸신 분이 이수광(1563-1626)입니다. 지봉유설을 쓴 분이죠.

4. 조선 학자들의 천주교 연구

천주교의 평등에 대한 사상

조선시대 양반들은 무엇을 목표로 살았는가? 군자를 목표로 살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서당에 가는 거죠. 조선 시대 전체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이 총과 효입니다. 조선을 설명할 때 충과 효, 군자를 빼면 설명이 안 되죠. 이 과정에서 천주교를 받아들인 사람들 역시 군자가 되기 위해 이 길을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리학에서 한계를 느낀 것이죠.

천주교의 기본 사상, 우주관과 세계관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불교도 인정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을 성리학은 지워버립니다.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다음의 일을 어찌 말하겠는가, 살고 있을 때의 일도 잘 알지 못하면서.’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후 문제에 대해서는 유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굉장히 빈약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1770년 정조가 임금이 될 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요. 양반들이 두고있는 부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문제였지요. 남자들은 양반인데 부인들이 양반이 아닌 경우가 많아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서자가 되죠. 양반은 부인이 네 명까지 있었는데 대부분 서자들은 서녀와 결혼을 하고 서녀는 양반들과도 결혼을 하죠. 서자, 서녀들이 중인 계급을 형성하는데요. 평민이랑 결혼해서 나온 아이는 결혼관계가 복잡해 집니다. 이에 반해 적자에서 나온 아이는 계속 귀족이 됩니다.

그런데 천주학이 사상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것은 만인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허균은 천주교를 굉장히 좋아해서 영세를 받고 북경에도 두 번 다녀옵니다. 허균이 쓴 홍길동전에 서자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절실했던 것이죠.

평등에 대한 사상과 자유. 여기서 자유는 여성의 자유입니다. 여자들이 둘째부인 셋째부인으로 가는 것을 싫어한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일부일처제였죠. 그래서 여자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몰락한 양반의 여자가 돈

많은 영감에게 팔려가는 경우가 정조 임금 때 피크에 달했던 것이죠.

유학의 현세관은, 유대교의 사도가이파와 아주 닮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부자가 된다. 권력이 높아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의 귀족계층이 사도가이파인데 우리 성리학자 양반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지요.

그런데 평민들과 천민들은 신분적으로 높아질 수도, 복을 받지도 못하는 계층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50년 동안 양반은 끝까지 양반인데 서자는 물론 평민들은 인생이 역전할 기회가 없는 거죠. 이 평민들도 고려 때 귀족이었는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사실 양반 상놈이 없죠. 귀족 왕족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350년 동안 중인, 평민, 천민으로 살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상이 센세이션을 치게 됩니다.

조선 유생들의 천주교 서적 탐독

또 조선의 식자들인 성균관 유생들한테 히트를 친 책이 <천주실의>, <칠극>, <교우론> 같은 책이었습니다. 천주교의 신학과 스콜라 철학이 담겨있는 책이 <천주실의>고, <칠극>은 지옥으로 이끄는 일곱 가지 죄를 말하는데 교오 간린 미색 질투 탐도 분노 해태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이것을 교오(교만)에서 검소로, 간린(인색)에서 베풀음으로, 미색(욕정)은 순결함으로, 질투는 사랑으로, 탐도(식탐)는 절제로, 분노는 너그로움으로, 해태(게으름)는 근면으로 이기는 것이 칠극입니다. <교우론>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입니다. 성균관에서 왜 인기를 끌었냐면 우리는 유학에 봉우유신이란 좋은 말이 있는데 거기서 끝이에요. 천주교의 신의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베풀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친구다.’입니다. 성균관에서 크게 인기를 얻게 되죠.

영조 임금이 돌아가시고 정조 임금이 되면서 신분제에 대해 혁신적인 일을 하는데 평민들도 과거시험을 볼 수 있게 열어놓았습니다. 양반들, 적

자들만 과거를 보았는데 이것을 열어놓으니 평민들은 돈이 없어 못보고 중인들이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중인들의 대부분은 의사, 약사, 번역사, 장사치들이 시험을 볼 수 있게 열어놓아요. 평등이란 게 조선사회에서 뭔가 시작되고 있고 특권층을 타파하게 됩니다. 1791년 특권층에게만 명주, 종이 등 전매권을 준 것을 회수해서 자유 경제를 만듭니다. 비단 팔던 사람이 다른 물건을 못 팔았는데 이제 팔게 하는 거죠. 이게 <신해통고>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유와 평등사상이 천주교와 함께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수광, 유몽인, 허균 등이 서양의 책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서학과 천학을 구분해야 되는데 서학은 역사지리, 천문, 지리 수학, 무기학 등을 합쳐서 서학이라 부르고 철학, 신학 체계를 천학이라 합니다. 천주학은 하대해서 부르는 말이죠. 그것을 연구를 한 사람이 성호 이익입니다. 안산의 반월에서 살던 분인데 여기에 남인계 학자들이 공부를 하러 갑니다. 안정복, 권철신, 홍유한 등 남인계 학자들이 공부하게 되는데 <천주실의>와 <칠곡>을 순전히 학문으로 연구를 합니다.

조선 유학자의 천주교 수용 과정

이익은 이걸 매우 좋게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이 잘 통했던 이유가 천주교의 유학 학풍을 보면 이황, 이익, 권철신, 정약용으로 내려오는데 이황의 <성학십도>가 십계명과 너무 닮았던 것이죠. ‘천주학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왼쪽: 성호 이익, 오른쪽: 안정복

어느 날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피바람이 불겠다고 판단을 내리죠. 제자들과 연구를 하던 도중에 이익 선생이 돌아가시고 광주 사람 안정복,

권철신이 수제자죠. 안정복 선생은 남인의 최고 공부를 잘했던 사람인데 <동사강목>을 쓰면서 고조선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했어요. 안정복은 천주교가 사단이 날 것을 알고 미리 권철신에게 사단이 날 것이라 말하지만 권철신은 아니라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권철신이 양평에서 훈장을 하고 있는데 순조는 임금이 된 지 1년 만에 세자를 세우고 세자의 두 번째로 높은 훈장으로 권철신을 세웁니다. 그래서 권철신 밑으로 학자들이 모여들어 이가환, 정약전, 정약중, 정약용, 이기양, 윤유일, 유헌검, 이존창, 김범우, 이벽, 이승훈 등등이 양평에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천학은 학문이 아니라 교리다. 군자가 되기 위해서 이거 한 번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양평은 큰 동네였고 이천은 여주의 부속도시 같은 곳이고 양평은 수원급의 도시였거든요.

천주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면 굉장히 다양한 군상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두 번이나 욕을 보인 일본, 우리랑 피가 비슷한 여진족. 이 치욕을 씻기 위해 우리가 중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들에게 고조선 역사가 중요하게 된 것은 청나라로 쳐들어갈 명분이 필요한 거죠. 전쟁의 명분을 고조선의 역사에서 찾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느님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유학에서 하느님에 대해 가르쳐주는 거라곤 상제밖에 없잖아요. 요순 임금이 하늘에 대해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상제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사상이 동양에는 없습니다. 불교도 극락과 지옥이 있는데 명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는. 젊은 혈기에 빨리 대포와 총을 많이 사서 쳐들어가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학계에서는 잘 말하지 않는데 중국에 성절사, 동지사 가 갈 때에 여자들이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쁜 딸을 낳으면 울었답니다. 엄마들이. 그러니 얼마나 치가 떨립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빨리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임금에 대한 충성심도 있었어요. 천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당대 최고의 학자 이가환, 정약용 등이 이렇게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정조가 죽고 다시 서인계 노론 벽파가 집권하면서 1801년 신유박해 때 삼백 열세 분이 돌아가시고, 기록상 만 명이 죽습니다. 기록상 만 명이니 까 최소 만 오천에서 이만이 죽은 거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천주교 랑 연관이 안 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인이나 아들 을 천주학생이라고 잡아다 죽였을 때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호미나 낫이 라도 들고 동헌에 찾아가 항의라도 할 텐데 천주교에서는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유는 충(忠)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에 대한 시각이 약간 다른 것이 천주교의 충(忠) 관은 임금 에게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데 임금이 하늘로부터 신권을 받아 임금이 되었으므로 하늘을 먼저 충성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순교를 한 것 입니다. 물론 천주교에서 동학으로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서 박해가 심하니까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란 이 일어나지 않은 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5. 이천 지역의 순교자 이야기

금사리 윤유일 일가

이천지역의 천주교 전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과평 윤씨가 천주교를 받아들이면서 온 가족이 영세를 받은 최초의 집입니다. 대부분 한 사람이 영세를 받는 일이 많지만 집안 모두가 영세를 받은 것이죠. 이 집은 여주 와 이천이 만나는 금사리 사람들입니다. 양평으로 권철신에게 공부를 하 러 가죠.

천주교에서 제일 중요한 의식이 미사입니다. 어떤 종교건 개신교도 예 배가 중요하죠. 불교는 법회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신부가 없으니 미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사를 집전할 신부님을 모시러 북경에 가게 됩니다. 이 역할로 북경에 가신 분이 어농리의 윤유일(1760~1795)입니다.

참고로 조선의 학자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대과 시험을 봐서 영



왼쪽: 윤유일 바오로, 오른쪽: 윤유오 야고보

원쪽: 윤유일 바오로, 오른쪽: 윤유오 야고보

스, 다시 말해 ‘세인트’(성인)가 되는 겁니다. 세인트 밑에 있는 것이 뷰티풀의 어원인 ‘베아토’(복자)입니다.

북경에서 주문모 신부님을 모시고 오려고 노력한 분이 복자 윤유일(바오로)입니다. 윤유오(야고보)는 이분의 동생이고 윤점혜(아가타)와 윤운혜(루치아)는 이분의 사촌 동생입니다.

이수광부터 허균, 유몽인, 정두원, 홍대용, 박지원... 이들이 북경을 갔을 때 큰 충격을 받는데 조선시대에 이천사람이 서울에 올라가 명동성당을 처음 본 거 같은 거죠. 큰 성당건물과 이 안에 오르간 소리, 원근법이 있는 그림들, 조각상들을 보며 충격을 받은 거죠. 윤유일 어른신이 처음 간 곳이 북당이고 남당에서 주교님을 만나고 주문모 신부님을 모셔옵니다.

1795년에 주문모 신부님 체포령이 내리자 그는 도피생활을 하면서 전도에 더욱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용인, 수원, 당진, 예산, 전주 등으로 교세가 퍼지게 됩니다. 주문모 신부님을 창동 낙원상가 있는대로 피신시키고 윤유일 어른신이 대신 잡혀서 순교한 것이 1795년입니다.

윤점혜, 윤운혜 자매

이분이 중요합니다. 윤점혜와 윤운혜는 금사리 파평윤씨 집안에서 태어

의정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와는 달리 학자는 정치판에 뛰어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소과는 보지만 대과는 보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분이 그런 분 중의 한 분입니다. 얼마 전 천주교 시복식이 있었는데, 천주교 최고의 영예는 산투

난 자매인데, 희한하게 첫째 딸은 서녀이고 둘째 딸은 정녀입니다. 집안에 애기가 안 태어나서 첩실을 들여 언니가 먼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난 거죠. 하지만 윤운혜는 서녀인 언니 윤점혜를 잘 따릅니다.



윤점혜는 결혼을 거부한 첫 번째 여자입니다. 서녀니까. 여성의 자유를 말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일찍부터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자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남장을 하고 지내거나 과부처럼 행세하며 동정녀 공동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두 자매 모두 20대에 돌아가십니다.

윤유일이 주문모신부를 모시고 입국하다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남장을 하고 지내거나 과부처럼 행세하며 동정녀 공동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두 자매 모두 20대에 돌아가십니다.

1801년 신유대박해 때 언니 윤점혜가 체포되자 윤운혜는 남편을 피신시키고 혼자 포졸들을 기다려 체포됩니다. 여자를 저자거리에서 참수하는 것은 민심을 고려해 비공개 처형을 하는데 윤운혜의 경우 서소문에서 공개로 참수형을 치릅니다.¹⁹⁾

도곡리 정광수와 윤운혜

윤운혜와 함께 있는 이분은 동래정씨 정광수로 여주 도곡리 사람입니다. 이천 두미리까지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 무관 집안이어서 부모는 무관을 시키려고 했지만 정광수는 문과 공부를 합니다. 윤유일을 따라 양평에 같이 가서 공부를 하다 윤운혜에 반해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집안의 반대가 심하자 같이 야반도주를 했고 부친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청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옵니다.

예의 바르고 예쁘고 한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 아버지는 매우 흡족해 하지만, 큰 아들인 정광수가 한 달 쯤 지나서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하자

19) 천주교 박해사를 보면 불에 태우는 화형과 죽을 때까지 포를 뜨는 능지처사 같은 형벌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있었어요. 이런 형벌이 우리나라에선 세종대왕 때부터 폐지가 됩니다.

집안에 난리가 나죠. 조선에서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건 큰일이죠. 정광수는 “아버지, 어떻게 이 나무토막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까. 음식을 차려놓는다고 해도 그 분들이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왼쪽: 윤정혜, 오른쪽: 정광수와 윤윤희

부친과 다툼 후 여주 남한강에서 배를 타고 다시 서울로 가는데 천주교 신자들이 60냥을 꺾 주어 경복궁 오른쪽 벽동(송헌동)에 집을 사게 됩니다. 이곳에서 묵주를 만들어 팔고 그림도 그려서 팝니다. 주문모 신부님이 들어온 데는 계동(가회동)이고 아주 가깝습니다. 천주교가 조

선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홍도도 천주교를 좋아했지요. 우리는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다각적인 시점으로 보듯이 소실점, 원근감 있는 그림을 처음 본 겁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서양의 음계 ‘시와 파’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을 겁니다. 우리의 멜로디와 다르니까요. 정광수는 밤이면 잠을 안주무시고 〈천주실의〉, 〈칠극〉, 〈영원여작〉 등을 필사 작업을 합니다.

신유대박해가 일어나자 정광수는 양평, 여주를 거쳐 이천을 지나 충주로 도피를 합니다. 충주 사람들이 천주교에 후한 이유가 충주가 도청소재지 격이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도청소재지가 공주로 되어 반골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로 많이들 도망을 갑니다. 그 사이 아내 윤윤희가 서울에서 잡혀서 5월 14일 참수를 당합니다. 정광수는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인 이천을 지나 여주에서 자수를 해서 부인을 따라 순교를 하게 됩니다. 부부 순교자가 많지 않은데 열 남짓 됩니다.

구시리 조증이

대월면 구시리(다래촌)에는 조증이의 친가가 있는데 남편은 충주사람 남이관이란 분입니다. 이분들은 꽤 오래 살으셔서 1839년에 돌아가신 순교자들입니다.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기해박해 때 조증이 할머니가 친가에 가서 피신해 있으라고 하여 남이관은 구시리에 와서 숨어 지내다 구시리에서 체포가 됩니다.

순교하면서 남기신 말씀이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르지만 한날 한시에 하늘에 갑시다.’가 대사인데 이 분은 ‘내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네. 하지만 이렇게 되었으니 같은 장소에서 죽읍시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조선의 사형은 도청소재지에서 사형을 집행하는데 경기도 관할인 서울 서소문에서 집행이 됩니다. 이후 경찰청 관할이 수원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수원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동산리 이호영, 이소사 남매

다음에 동산리 이야기입니다. 1801년 신유대박해가 일어나자 신태보 등 용인의 신자들이 이천 동산리 산세가 깊은 대덕산으로 피신을 오고 이후 박해가 있자 원주로 갔다가 상주, 청주로 갑니다. 호법면 동산리(동산밀)는 순교자 이호영(베드로 1803~1838)과 그의 누이 이소사(아가다 1784~1839)의 고향입니다. 이들은 1835년 기해박해 때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옥중에서 서로 격려하며 같은 날에 순교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병고로 누이보다 6개월 먼저 순교해 기해박해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이후 교우촌이 형성된 곳이 정은, 정베드로 같은 정씨를 중심으로 한 호법면 단천리(단내)입니다. 정은은 1866년 병인박해 때 체포되어 그의 재종손이었던 정베드로와 함께 순교합니다.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천에 어떠한 순교의 역사와 정신이 있었는지 과거를 알고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 후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돕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종교는 다를 수 있어도 우리 후손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평등과 자유와 박애와 사랑입니다. 부족한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기원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신교, 민초의 삶에 스며들다

- 덕пл교회에서 처음 시작된 ‘민중과 함께 하는 삶’ -

최태욱 현재 예수님의 교회 목사. 여주 단현리 출신으로 1993년 감리교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1992년부터 강화 고구리교회, 작은교회, 김포 쇄암교회 등에서 목회를 했으며,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으로 일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충남 서산·태안 지역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작업을 했다. 2011년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여주이천지역의 초기 기독교 선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한 바 있다.

1. 들어가며

구성서 목사에 대한 기억들

저는 고향이 여주읍 단현리입니다. 단현리에는 ‘새재’, ‘은행백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저는 은행백이에서 태어났는데 동네에 큰 은행나무가 박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전에 있는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에 2011년 1월부터 2016년 초까지 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에는 소중한 자료가 많습니다.

혹자는 한국기독교 역사 자료의 절반이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와 관련된 정부기관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나름 자료를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박물관에는 참 소중한 자료가 많이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목사이지만, 일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곳의 자료를 대하면서 기독교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한국기독교 역사에 정설로 얘기 되는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들도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향 여주의 기독교 역사가 궁금하고 어린 시절 추억도 있고 해서 고향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천의 기독교 역사를 접하게 된 것은 구연영이라는 인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구연영의 둘째 아들이 구성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구성서, 구성서, 구성서’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할아버지도, 저희 앞집에 살았던 임두현 장로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구성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천 구성서의 ‘조선기독교동지회’

여기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1945년 8월 해방 직후 설립된 최초의 기독교 단체입니다. ‘조선기독교동지회’ 라는 단체입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조직되었는데, 이 단체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취지서를 발표합니다. 이 취지서를 작성한 사람은 조선기독교동지회 회장, 구성서 목사님입니다.



구성서가 작성한 ‘조선기독교동지회 취지서’

로님들입니다. 감리교회는 복흥파 토대 위에 현재까지 이루게 된 것입니

감리교는 해방 후에 두 개의 파로 나누어집니다. 그 하나는 재건파, 또 하나는 복흥파입니다. 복흥파는 친일파 쪽의 인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해방되고 난후에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90% 이상이 복흥파 목사, 장

다. 조선기독교동지회에 구성서,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장님이셨던 변흥규 이런 분들은 재건파이였습니다. 재건파 목사님들 중에는 교회 임지가 없거나 미약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전면에 나서시지는 않지만 구성서 목사님은 재건파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것은 감리교역사에 잘 드러나지 않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에서 우연히 ‘조선기독교동지회 취지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 1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1947년 『조선연감』에서 이것이 해방 직후 설립된 최초의 기독교단체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다음부터 인터넷을 통해 알리게 되었습니다.

장춘명, 장량헌의 충주 3.1만세운동

구성서 목사님하고 친하신 분들이 있어요. 바로 장량헌 목사님입니다. 장량헌 목사님 둘째딸이 살아 계세요. 장호원 지나서 감곡에 계십니다. 어렵게 목사님의 딸과 연락이 되어서 구성서, 최영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보았더니 장량헌 목사님만 잘라서 보내신 거예요. 이 귀한 사진을... 가슴이 덜컥해서 얼른 사진 한 장을 다 보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사진을 복원해 스캔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장량헌 목사님은 1970년대에 집을 나가셔서 실종되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건데 이분이 충주지역 3.1만세운동을 학생



장량헌 목사 -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들에게 전파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장량헌 목사님이 총주로 갔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 장량헌 목사님의 할아버지 장춘명 목사가 총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파송권이 있는 선교사가 그를 총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장춘명은 구연영의 친구였습니다. 장춘명이 의병출신으로 총주로 내려가서 3.1만세운동을 배후에서 조종을 했습니다. 구성서와 가장 친한 후배 중의 한명이 장량헌 목사님입니다. 아마 장춘명은 구연영의 부하 정도 되는, 그래서 호에 두 분 다 ‘춘’(春)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춘명, 구춘경 두 분 모두 봄 ‘춘’(春) 자를 중간에 사용하셨습니다.

구성서, 장량헌, 최영래의 활동

그리고 또 한분 최영래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장춘명, 구성서, 최영래 세분은 친한 선후배지간이었어요. 최영래 목사님은 1930년대 여주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여주 가남 맹골교회 최초의 기독교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저는 구성서, 최영래, 장춘명을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한시기는 1920~3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친하게 지냈나를 생각했습니다. 물론 모두 서울 감리교협성신학교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장량헌은 총주와 강화, 구성서는 이천, 최영래는 여주 등지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최영래 목사님이 여주중앙교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세 분이 의논을 했고, 장량헌 목사님은 최영래 목사님에게 강화에 와서 목회를 할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각기 다 떨어져 있는데도 이분들은 친분관계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따라 올라가 보니 그 위에 구연영과 장춘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의병출신이었고, 덕플교회 출신이며, 목회자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1900년대 이전에 맺어진 이들의 끈끈한 관계가 그 자식들 또는 손자들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천과 여주의 기독교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물들이 자식 손자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해서 과연 유지가 될까요? 아니죠. 그들이 그만큼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교인들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을까요?

임두현 장로 이야기

장량헌, 구성서, 최영래에 대한 이야기는 어렸을 때 늘 듣고 자랐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여기 계신 이천 분들 중 80대 넘는 기독교인들은 그분을 아실 것입니다. 임두현이라는 여흥 감리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숨은 고수입니다. 바로 앞집에 사셨습니다. 제 전공이 전쟁이었습니다. 전국곳곳에 다니면서 전쟁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죽고 죽었는지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동네에서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동네마다 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는 단한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장호원에서 희생된 기독교 청년 신○○의 이야기를 녹취하던 중 신진리라고 우리 옆 동네 출신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전쟁 당시 우리 동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할아버지의 후배였고, 연세는 90세가 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수복 직후 경찰을 도와 치안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임두현 때문이야. 그 임두현의 말 한마디면 좌익이든 우익이든 고개를 숙였어.” 우리 동네 경찰도 있었고, 남로당 출신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두현이라는 장로님이 딱 버티고 서서 “사람 다치게 하지 마라” 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네 어르신들도 그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임두현이 누굴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로 기억됩니다. 우리 집과

뒷집 할아버지 사이 마당에 있는데 장로님이 제게 오시더니 저를 꼭 끌어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백 원짜리 신돈, 처음 나왔을 때 백 원짜리 동전 그것을 제 호주머니 넣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이 나라의 동량이 돼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교회 다니는 학생 중 다수가 100원짜리 동전을 받았어요. 등록금이 없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시골집 문은 안 닫잖아요. 몰래 봉투에 돈을 담아 집에 두고 나오셨어요.

깜깜한 밤에도, 달이 안 뜬 밤에도 교회를... 산을 넘어가야하는데 교회를 맘대로 다녔었어요. 마치 아스팔트길 같았어요. 임두현 장로님은 제 기억에 늘 상 뒤통을 들고 다녔습니다. 옛날 분들 잘 입는 하얀 한복에 한복조끼 입으시고, 늘 상 삼을 들고 다니셨어요. 이 양반이 왜 삼을 들고 다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그분이 1975년 쯤 돌아가셨을 때, 그해 여름에 예배당을 갈수가 없었어요. 길에 골이 너무 많이 파져 있었어요. 삼을 들고 다니시면서 그 길을 평평하게 만드신 거예요.

임두현 장로님의 아버지가 임기용 장로님이십니다. 임기용 장로님 그리고 최영래 목사님 아버님은 바로 구연영과 장춘명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1930년대 그 암울한 시기에 뭘 하셨을까 그리고 1950년도에 전쟁 끝나고 나서 뭘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희 동네 9가구가 살았는데 학교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 이 교실 반만 했는데 그 학교가 참 이뻐요.

여러분 김재한 전도사님이라고 군량제일교회 설립하신 분이 계세요. 군량리에도 학교가 있었어요. 1930년~50년대까지 이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학교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아는 것은 여주에 교회가 있는 동네에는 조그만 학교들이 다 있었어요. 민족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실력을 양성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셨던 겁니다.

구연영, 장춘명의 기독교 계몽운동

기독교 민족주의는 1930년대로 들어오면서 몇 가지 방향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실력양성이었어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하면 두가지파가 있었는데 첫 번째 파는 도산 안창호 흥사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지회 계열이 있었어요. 이 동지회 계열은 이승만 박사가 주도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국내조직은 YMCA를 중심으로 흥업구락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실력, 즉 경제력의 향상, 교육, 농촌계몽 등을 통해 독립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아직 연구가 부족하여 확정하기 쉽지 않지만, 그 출발점은 양평 신원리에 몽양 여운형 선생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방 바로 직전에 건국농민동맹이라는 단체가 몽양 선생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데 이 분들 중에 몇 분이 이천과 인접한 여주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또한 몽양 여운형의 가장 직계 제자가 김용기 장로가 광주 분이거든요.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농촌에 이상향을 건설하려고 했던 분으로 유명하지요. 또한 이천 대월면 출신 유달영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지요. 광주, 이천, 양평, 여주에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농촌에 학교를 세워 계몽사업에 앞장서고, 농촌이상향을 건설하려 했던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1900년대 구연영, 장춘명으로 대표되는 이천과 여주의 강력한 기독교 민족주의가 1919년 이후 방향전환을 해 농촌계몽운동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해방 후 농민동맹과 교육운동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1900년 전후로 이천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활동했기에 그 영향력이 1930년대를 관통하고 전쟁을 관통하고 1960대까지 이어졌는가. 그 동력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찾고 싶었어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찾기 매우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이천지역 초기 선교의 특징 - 경계를 넘는 공감

초기 이천지역 개신교인들은 세민대중(細民大衆)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양반, 중인, 천민이라는 계급이 유지되던 1900년 전후 이천지역에 전래된 감리교는 신분계급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평등사상을 내세우면서 계급을 실질적으로 철폐해 나갔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병들고, 가난하고, 천대받은 세민대중들의 아픔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천지역 감리교 초기 선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공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신과 처지와 입장이 같은 사람들이 공통의 사안에 대해 같은 입장을 지닐 때, 상호 공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감은 때로 자신과 다른 처지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끼리의 강한 공감은 우리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타자 화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공감은 입장과 처지가 다른 개인과 집단의 의견에도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공감이라는 것은 자신과 입장과 다르거나 반대되는, 즉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경계와 진영을 넘는 공감은 때로 나와 우리에게 기득권과 이익을 내려놓으라고 주문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천의 초기 기독교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연영 관련 자료를 읽기 시작한지 근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다가오지 않아요. 의병장이었대, 민족을 위해 싸웠대, 또 순국을 했대, 기독교 신앙 입각해서 철저하게 살았대,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 파고들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구연영을 비롯해서 장춘명.. 이런 덕플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을 움직이게 한 동인이 뭐였을까?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의 얘기 한마디에 교인이 됐을까! 그 힘이 뭐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것을 아~ 사람들이

이들의 말과 행동에 공감을 했겠구나. 구연영의 말에, 장준명의 말에, 덕
뜰교회 교인들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했겠구나. 그러면 초기 이천의 기독교
교인들은 주민들로부터 어떻게 이러한 공감을 끌어 낼 수 있었을까? 그들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 덕뜰교회

여기 이천에 처음으로 교회가 들어온 게, 그러니까 박해숙이란 분이 교
회를 다닌 것이 1897년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것이 1899년입니다.
1899년부터 이천 덕뜰에 정식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1903년, 불과 4
년 만에 1,357명의 교인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한국기독교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폭발적으로 이천의 기독교가 막 번져가는 겁니다. 어
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시간에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섰는가? 그
실체를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유인물을 읽어가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지역에 가장 먼저 들어 온 교회는 감리교회였다. 1903년, 감
리교 선교사 스웨러는 이천지역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수원으로부터 약 100리 거리에 있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사역의 중심지 이천으로 갔다. ... 이천에는 116명의 입교인, 838명
의 학습인, 403명의 원입인이 있다. 예배당으로 사용되는 11개의 건
물이 있으며 전도부인을 위한 훌륭한 주택이 있다.²⁰⁾

1897년, 상동교회 의료선교사 스크랜턴이 이천지역을 여행했을
때 덕뜰(현재의 덕평)의 박해숙이라는 사람이 교인이 되었다. 2년
후인 1899년, 그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음으로 덕뜰교회가 시작

20) 「Annual Repot」 (1903), 368.

되었다. 그로부터 4년 후 이천지역의 교인 수는 무려 1,357명이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여주, 진천, 충주 등 덕플교회에서 세운 교회의 교인 수를 제외한 것이었다. 1903년 5월, 감리교 잡지 「신학월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리천지방에서 시작하여 교가 점점 번성하여 나아감으로 리천지방 일곱 골 외에 원주와 진천과 목천과 청주와 전의와 문의와 연기와 공주와 또다른 골에까지 교회가 번져 나갔는데....²¹⁾

1903년에 이천에 약 1,400여명의 교인들만 생긴 게 아니고 이것이 덕플교회가 공주까지 전도를 했고, 동쪽으로는 원주까지, 북쪽으로는 아직 규명이 안됐지만 양평까지 그게 불과 4년만입니다. 그 출발지가 어디냐. 그게 오천 덕평 인터체인지에서 양지방향으로 가다보면 1키로 지점에 이천쌀밥집 근처에 있는 덕플교회입니다.

몇 년 전에 이천에서 청주까지 일일이 옛날 길을 다니며 답사해 봤습니다. 여기가 박해숙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사진 찍은 건너편에 있는 집입니다. 이곳이 1920~1930년대 덕플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것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덕평IC 인근에 있는 옛 덕플교회 터.

21) 「신학월보」, (1903년 5월), 98-99.

덕뜰교회는 북쪽 길을 따라 오천, 궁평, 노루목에 교회를 설립했다. 동쪽 방향에 있는 여주, 원주, 장호원, 충주를 선교했다. 또한 남쪽방향에 있는 백암, 죽산, 진천, 청주, 공주, 연기까지 선교했다. 덕뜰에 교회가 설립된 지 4-5년 만에 수천 명이 교회를 나왔고, 수십 개의 교회가 설립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단서를 죽산교회 여자 교인의 장례식에서 찾을 수 있다. 죽산교회 교인들은 모두 천민계급에 속하는 백정들이었다. 이 여자 교인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1899) 죽산교회에서 두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 그런데 어느 한 여인이 병이 들었고 날이 지남에 따라 가망이 없다는 것이 확실시되었다. 그녀 자신이 몇 시간 밖에 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내 옷을 빨고 나를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혀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이 깨끗하기만 한 저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 이에요”라고 말을 했다. ... 그리고 나서 그녀는 찬송을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 이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연약해서 손을 앞뒤로 흔들기만 하였다. ... 찬송이 끝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로 조용히 갔다. 이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천민의 하나인 백정계층이었다. 그러나 기독교의 평등화의 힘이 특별한 예로 나타났다. 주위의 30~50리 되는 5개 교회에서 모든 계층의, 유형의 신자들 - 그중 양반과 관리도 있었다. - 이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100명도 넘게 와서 장례를 치렀다. ... 귀족인 양반과 관리들도 관을 들어 자기 어깨위에 얹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무덤에 까지 갔다.²²⁾

덕뜰교회 초기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

22) 「MAMEC」 (1900), 수원. 공주 구역 보고.

습을 통해 주민들은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감의 동인(動因)이라고 생각합니다.

1903년에 죽산교회에서 학습 세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주관한 사람이 스크랜턴 선교사와 덕뜰교회 구연영입니다.

이 교회는 1897년에 설립된 곧은골 교회(당시 죽산군 백암면 백봉리)이거나 죽산에 있는 교회²³⁾로 추정된다. 1900년 당시 50리 이내의 감리교회는 덕뜰교회 등 몇 개 밖에 없다. 따라서 덕뜰교회 교인들이 이 장례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덕뜰교회 교인들은 당시 죽산군에 속한 백암장을 자주 다녔다. 또한 백암보다 훨씬 먼 죽산과 진천까지 장을 보러 다녔다. 존스 선교사와 함께 1903년 하와이 이민을 떠났다 돌아온 덕뜰교회 최석만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백암 방면 언덕 위 소나무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달고 교인들을 맞이했는데 그들은 대부분 백정들이었다고 한다.

구연영, 한창섭 등 양반들이 적지 않았던 덕뜰교회 교인들은 백정출신 여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그녀의 관을 직접 짊어졌다. 보고서에도 양반과 관료가 관을 직접 짊어졌다고 했다.

양반과 천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경계가 존재한다. 이 경계를 유지하는 것은 양반에게 각종 이익 때문이다. 양반이라는 계급은 경제, 정치, 문화, 생활, 관직 등 중인과 천민들이 누릴 수 없는 각종 기득권과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덕뜰교회 교인들은 이것

23) 1903년 2월 「신학월보」에 의하면, 스웨터 목사와 덕뜰교회의 구춘경, 고시영은 죽산 장선이(현재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장선이골로 추정-인용자)에서 교회 교인들과 함께 학습문답을 했는데 참석인원이 40명이었고 여기에는 청주 토옥골 교인 이행하 외 2명과 청주 평촌, 연기 새말, 조촌 장터 등 각지의 교인 84명에게 학습을 주었다. 이곳이 죽산교회일 가능성도 있다. 이곳은 덕뜰교회에서 약 20Km 거리에 있다.

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 경계를 허물고자 했다. 백정 출신 교인의 장례식에서 나타나듯이 그것은 양반 출신 교인들과 천민 출신 교인들이 상호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고통을 공감함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바로 죽산교회는 교인이 모두 백정이었어요. 덕뜰교회는 무과 양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백정교회에 들어가는 것도 껄끄러울 텐데 그곳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서 여자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900년대입니다.

저는 덕뜰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경계, 진영밖에 있는 ‘우리’라는 테두리를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람들의 모습, 삶, 고통을 자기 몸처럼 인지했다는 것에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스크랜턴과 상동교회

덕뜰교회의 성장 동력은 교인들이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서 상호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는 이교회의 모체가 되었던 상동교회 스크랜턴의 삶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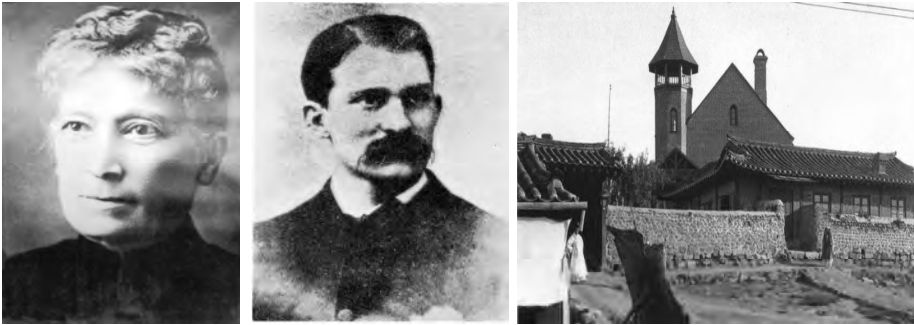
이화학당의 초기 모습

1885년에 한국에 도착한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M. F. Scranton)과 아들 스크랜턴(W. B. Scranton)은 한국선교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메리 스크랜턴은 서대문 성벽 안에 여성을 위한 학교를 설립했다. 그녀는 서대문밖 성벽에서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다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학교가 이화여자대학의 모체인 이화학당이였다.

의사인 아들 스크랜턴은 상인·결인·부랑인들로 넘쳐나는 남대문의 상동, 갓바치·백정 등 천민들의 거주지였던 동대문 성벽, 공동묘지와 전염병 환자들을 격리수용하던 서활인서(西活人署)가 있어 사람들이 접근을 꺼려하던 애오개에 각각 시약소를 설립하고, 환자들을 진료했다. 이들은 가난, 질병, 가부장적 차별로 인해 내몰린 세민대중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다.

미국의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과 뉴욕의과대학을 나온 스크랜턴은 한국에 와서 안락하고 편안한 정동병원 생활을 정리하고 동대문 성벽, 애오개, 상동에 병원을 세웠다. 그는 부랑인, 백정, 전염병자 수용지역을 찾아가 그들을 치료한다. 백인인 동시에 미국인인 그는 종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민대중의 삶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왼쪽: 메리스크랜턴 여사, 가운데: 그의 아들인 스크랜턴 목사, 오른쪽: 상동교회 초기 모습

덕플교회 박해숙이 아들 스크랜턴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아들 스크랜턴은 예일대 출신이고, 동기 중에 대통령도 있어요. 스크랜턴은 미국이라는 우월의식, 백인이라는 우월의식을 자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우월의식으로 조선의 백성을 바라보기보다 고통당하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경계

를 벗어난 것입니다.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종 간의 계계, 대국과 약소국이라는 경계를 넘어선 것이죠.

5. 구연영 - 양반의 경계를 넘어선 공감

자신의 경계를 넘어 세민대중의 삶을 공감하는 삶을 살아간 스크랜턴과 덕뜰교회 교인들 삶은 구연영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구연영의 약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1865년생으로 호는 춘경(春景)이었다. 18세 이전에 변씨(변미례)와 결혼하여 정서(1883년생), 성서(1894년생), 완서, 종서를 낳았다. 20여세 때 선향인 경기도 광주군 도착면 궁평리에 정착하였다.



춘경 구연영의 모습

구연영은 무가(武家) 출신 양반이었다. 그가 30세가 되던 1895년 6월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나고, 11월 15일 단발령이 공포되자 전국 각지의 유생들이 의병을 일으켰다. 이천에서 조직된 의병은 제천의 유인석 의병과 함께 중부지역 의병운동을 주도했다.

이천의병의 핵심 인물은 김하락이었는데, 구연영도 이천창의군 중군장으로 김태원, 조성학, 신용희 등과 함께 의병활동을 하였다. 구연영은 1896년 5월 중순까지 6개월 동안 이천 넓고개, 원주, 광주 남한산성, 이천 이현, 압곡사(경북 군위군 고로면 낙전리) 등지를 다니며 전투를 벌였지만 실패하고 광주 궁평 집으로 귀가했다.²⁴⁾

24) 서울에서 단발령을 피하여 남하한 김하락과 그의 동지 조성학·구연영·김태원·신룡조 등은 이천 화포군도령장 방춘식과 협력하여 포수군 100명을 모집했다. 이들을

6개월 동안 집에 칩거하다가 서울 상동교회 스크랜턴을 찾아가 기독교에 입문했다.

‘덕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는 1897년 2월부터 1899년 3월까지 견습, 1899년 3월 세례, 이후 3년 동안 매서인 활동을 했다. 그는 2년이라는 짧지 않은 견습 기간을 보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그에게 큰 변화가 나타났다. 그것은 그가 양반이라는 경계를 넘어 세민대중(細民大衆)과 함께하는 삶의 지혜와 기쁨을 얻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의 가장 큰 변화였다. 그는 이 시기 양반, 중인, 천민이라는 전통적인 제도와 문화를 넘어 인간 모두가 평등하다는 새로운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전도를 힘쓰는 중 인류평등을 주장하시고 동중(洞中) 상인 급 노복(常人 及 奴僕)등 에게 까지 존칭어를 사용하시니 당시에 보는 이들이 미쳤다고 까지 하였으며....²⁵⁾

나누어 거느린 구연영 등은 양근·용인·지평·광주·안성·음죽 등지를 다니며 3, 4백 명의 의병을 모집하였다. 이 무렵 안성에서는 민승천이 따로 상당수의 의병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김하락과 구연영 등은 이들과 이천에서 회집하여 이천창의군을 편성했다. 당시 이 군의 중군장은 구연영이었고, 창의대장은 민승천, 각 군지휘는 김하락이었다. 이천창의군은 1월 17일에는 이천 냇고개에서 복병계를 사용하여 일군수비대 100명을 물리쳤다. 이천창의군은 2월 25일에 이현에서 여주의진과 통합하여 포군 1,800명과 그 밖에 장관·종사 등 2,000명의 대병력이 되었다. 당시 구연영은 중군장이었고, 대장은 박준영, 김하락은 군사검도지휘를 맡았다. 이천창의진은 2월 12일 새벽, 이천을 기습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당시 구연영은 이현 동구를 지키며 분전하였으나, 2일 만에 일본군에게 패해했다. 구연영은 원주로 피신했다가 20여 일만에 이천에 귀환하였다. 이후 의병들은 진지를 광주 남한산성으로 옮겼다. 그러나 관군 측의 이간책에 넘어간 김극성과 박준영의 배신으로 인해 1896년 3월 22일 남한산성에서 퇴각했다. 이후 구연영과 김하락 등은 김하락의 고향인 경상도로 옮겨 그곳에서 모병한 후 압곡사(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낙전리)에 집결했다. 5월 14일 첫 전투 이후 10여 일 동안 의병은 계속 패배했다. 1896년 5월 27일 그가 김하락과 함께 한강을 건너 이천에서 의병을 일으킨 지 6개월 만에 다시 고향인 광주로 귀향했다. 6개월 동안 집에 칩거한 후 1897년 2월, 서울 남대문 안 상동교회의 스크랜턴을 찾아갔다.

25) 「감리회보」27호 (1935년 3월), 10.

의병활동 후 6개월 동안 침묵하며 칩거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대안을 찾다가 스크랜턴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기독교인 되었습니다. 덕플 교회에서 1899년 한창석, 창춘명과 박해숙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견습 기간이 길면 6개월에서 1년인데, 구연영은 2년이 걸렸습니다. 왜 유독 구연영만이 견습 기간을 오래 두었을까. 아마 삶이 변하길 바랐을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어떤 것이냐. 양반을 벗어놓길, 바꾸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겉모습뿐만 아닌 속까지 양반을 내려놓고 실질적인 생활 토대까지 확 바꾸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된 삶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을까요.

‘구연영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부터 노비들을 풀어주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존대어를 사용했다. 집안에서는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고, 결국 가문에서 쫓겨났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구연영이 경계를 넘어 천민처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공감한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경계를 넘으면서 양반으로서의 기득권과 특권을 모두 포기했기 때문이다.

권서인 구연영은 광주 도척면 노곡리에서 성서와 문서를 팔며 전도를 하고 있었다. 노곡리는 구연영의 집이 있는 궁평리와 이웃한 곳이었다. 의병장 출신 구연영이 책을 팔며 전도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를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때 ‘조상 귀신’이 들어갔다는 여인이 지나갔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구연영은 그에게 다가갔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구연영은 그녀를 치료하고자 했다. 실패하기라도 하면, 큰 수치를 당하는 것은 물론 실없는 사람이 될 판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인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고, 치료에만 집중했다. 처음 해보는 것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는 설교조로 여인에게 말을 했다. 양반처럼 그러나 실패했다.

이어 성경책을 읽고 찬송을 불렀다. 여자는 여전히 치료되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상황을 계속 주시했다. 온 몸이 땀으로 젖었다. 동네 사람들은 ‘조상귀신’이 ‘예수귀신’보다 강하다고 수군거렸다. 그때 구연영은 “성부, 성자, 성신이며 내 안에 거하소서”라는 말을 따라 해보라고 했고, 여인은 어렵게 이 말을 따라하던 중 혼절했다. 이후 여인의 병은 치료되었고, 구연영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했다. 여인은 이전과 달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저는 이것이 구연영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구연영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동네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반면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그녀가 가까이 오는 것조차 꺼려했을 것이다. 구연영은 양반이라는 경계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편견의 경계를 넘어서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는 구연영이 그녀의 처지와 아픔을 공감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실패할 경우 의병장 출신 양반으로서의 위신은 물론 전도자로서의 앞날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위해 기도한 것이다. 이것이 구연영 방식의 공감이었고, 전도방식이었다.

그가 기독교인이 되어서도 구국운동을 계속한 것은 바로 이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도 고통당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고통당하는 개인과 민족을 똑같이 보고 있었다.

그가 말은 교회마다 구국회를 조직, 민족계몽운동을 전개했는데, 특히 친일어용단체인 일진회(一進會)의 실체를 폭로하고 일본의 음모를 규탄하는 집회를 자주 열었다. 일본헌병대는 ‘경성 동편 10여

군에 구연영만 없으면 기독교도 없어질 것ियो 배일자(排日者)도 근절될 것이다'라고 했다.²⁶⁾

1904년 경 구연영은 군량리 들에서 집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에 무려 2000명이 모였습니다. 구연영의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부터가 아닌 오천, 덕뜰, 군량, 여주 범숫, 가남 맹골 다 시내에서 멀리 7-8키 이상 떨어져있는 곳에서부터 교회가 생겼습니다. 덕뜰교회부터 라인을 그어 가보면 덕뜰교회, 범숫 처리, 처리에서 더 가면 옛날 뱃길이 나와요. 의병이 다녔던 길, 바로 제천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 바로 우리 고조할머니가 살던 곳이었어요. 전해 내려오는 얘기는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는데 쫓딱 망했데요. 우리 집이 부자니까. 강 옆에 있고 하니, 밤만 되면 수백 명의 사람이 찾아 온데요. 우리할머니는 무서우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밤마다 가마술 3-4개에 밥을 하신데요. 그 쌀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가 밤에(그때는 대부분 두툼한 옷을 입었는데) 참기름 들기름을 손바닥에 발라 '아이고 수고 하네'하며 쓰담으셨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동네사람들 이었데요.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데요. 어쨌든 그 라인은 의병들이 다녔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맹골에 사는 최씨, 자네 밥 좀 해' 하면 얻어먹고. 군량리 김씨네 가면 밥 얻어먹고, 그래서 맹골의 최씨가 예수 믿게 되고... 구연영이 예수 믿으니까.... 장춘명이 예수 믿으니까.... 의병 활동하던 사람들이 모두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어쨌든 사람이든 민족의 문제를 대할 때든지 어떤 사람들 대할 때든지 구연영은 경계를 넘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삶을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많은 이익들을 포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 하려는 사람일 수 있어.

26) 이덕주, 『한국교회처음이야기』 (서울: 홍성사, 2006), 214.

그런데 저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제가 목사지만 부끄러워요. 자기만 옳다고 해요. 자기 교회만 옳다고 해요. 일반사람들은 예수님의 예자만 나와도 도망잡니다. 어떡하다 이렇게 됐지. 그러기 때문에 저는 덕플교회 교인들과 구연영, 장춘명의 신앙생활을 기독교인들이 좀 똑바로 봤으면 좋겠어요. 진영을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우리교회’를 넘어서 우리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들을 충분히 공감하려고 했던, 이 이천의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것을 좀 봤으면 합니다.

1904년부터 구연영은 일제의 친일단체인 일진회의 정체를 폭로하는데 주력하였다. 일진회는 1904년 8월 18일 송병준이 일본군을 배경으로 조직되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병탄될 때까지 일제의 군부나 통감부의 배후조종 하에 침략과 병탄의 앞잡이 행각을 벌였다.



구연영과 함께 순교한 구정서

구연영은 일진회의 내막에 숨겨진 일제의 조선침략정책을 폭로하는 한편, 교회조직을 통해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여 일제의 경제침탈을 방어하고자 했다. 1904년 겨울 군량리에서 구연영이 연설할 때, 약 2,000명이 집결할 정도로 그에 대한 이천주민들과 교인들의 지지는 매우 컸다. 또한 아들 정서와 함께 교회청년들을 중심으로 구국회를 조직하였는데, 여기에 장춘명, 고시영, 안경진, 박종석, 김제안, 원용한, 한창섭, 함동의, 안석희, 정기영, 박성현 등이 참석했다.

일본헌병대는 “경성 동편 십여 군에 구연영만 없으면 기독교도 없어질 것이요, 배일자(排日者)도 근절된 것”이라고 할 정도로 구연영은 요주의 인물이었다. 결국 구연영은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1907년 8월 24일 이천 장터 미류나무에 묶인 채 아들 구정서와 함께

총살당하였다.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는 피하지 않고 순국하였던 것이다.

6. 장춘명 - 생존의 경계를 넘는 공감

구연영과 함께 의병활동을 하다가 개종한 장춘명은 구연영과 마찬가지로 덕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덕뜰에서 견습을 마친 장춘명은 세례를 받고 여주와 양평, 장호원, 충주에서 전도활동을 했다. 구연영이 광주 동부와 이천을 담당했고, 한창섭이 진천과 청주를 담당한 것으로 보아 이들이 선교지역을 서로 분담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912년, 덕뜰교회 최초 교인인 박해숙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근일에 려주와 리천 각 교회의 형편을 보니 ... 장춘명씨가 목사로 승품을 받고 동군 읍으로 반이하니 각 교회에서 환영할시 三十여명 형제가 二十리 켜지 나와서 영접하엿스며 당일 수백 명 형제 주미가 장목소를 마자 한량업시 기쁜뜻을 표할시.....²⁷⁾

장춘명이 여주읍으로 파송될 때 30여명의 교인들이 20리 밖까지 마중을 나옴, 수백 명의 교인들이 교회에서 그를 환영했다. 그가 이렇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간단했다. 자신의 재산을 모두 거두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교인 중 집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을 사주었다. 굶는 사람이 있으면 몰래 곡식을 그 사람의 집에 놓고 왔다. 이렇게 살다보니 그는 재산이 없었다. 결국 노년에 맹골교회 예배당 한편에 작은 방을 마련하고 거기서 노년을 보냈다.

27) 「조선그리스도인 회보」(1921년 5월 30일), 258-259.

장춘명이 임두현 장로님의 담임목사였습니다. 장춘명 목사님은 귀골이 장대하고 그런 분이예요. 1915년인가 여주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해요. 장춘명이 왔으니까.... 너도나도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충주로 파송을 당했어요. 선교사가 가라고 했어요. 그때 충주의 교회는 조그맣고 여주의 교회는 상대적으로 큰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거기서 불평불만을 갖지 않고 1919년 충주 31독립운동의 배후에서 조종을 하며 활동을 했어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소유욕이 없었던 겁니다. 김제안, 그 양반도 나중에 진짜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때 그분들은 그렇게 사는 게 기독교인들의 삶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노년에 자기생존권을 내려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떻게서든 우리는 자기 생존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1899년 3월, 덕뜰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그는 여주 지역을 담당했다. 장호원, 점동면 처리, 여주읍 등 여주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의 전도로부터 시작되었다. 1903년 한 해 동안 여주지역에서 교회를 다니겠다고 말한 사람만 1,004명이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노년의 생활을 통해 알 수 있다. 은퇴 후 그는 맹골교회 예배당 옆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살았다. 일본군과 맞서 싸우던 의병이었고, 수천 명을 전도하였으며, 충주의 3·1운동을 주도했던 목사치고는 외롭고 쓸쓸한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장춘명의 모습이었다. 타자의 삶을 공감하기 위해 생존의 경계를 넘어서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장량헌 목사님도 결국은 할아버지의 유지를 따라 정말 가난하게 사시다가 치매 걸려서 집을 나가셔서 행방불명 되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임두현 장로님 아들이 임순혁 장로님, 임순혁 장로님 동생이 임순목 감독입니다. 1970년대 감독을 하셨어요. 임두현 장로님의 아버지 임기용 장로님 집에는 환자들이 수십 명이 일 년 내내 들끓었어요. 환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것을 다 먹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곤 구연영식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7. 나오며

독일의 인류학자 얀 아스만(Jan Assman)은 “종교가 상호 문화적 번역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종교가 타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면, 다른 종교가 추구하는 진실을 서로 공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갈등과 분쟁이 아닌, 상호 이해와 조화로운 삶이 가능해 진다는 것입니다. 이 글의 방식대로 말하면, 경계를 넘어 타자의 삶과 문화를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이천지역의 기독교인들의 삶과 문화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기독교인, 즉 자신들의 삶과 문화를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경계를 넘어 타자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되돌아 봐야 합니다.

이천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정당화하고 강화시키기보다는 경계를 넘어 타자의 삶을 공감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삶과 문화는 단순히 기독교인들에 제한된 것은 아닐 겁니다. 경계를 넘어 타자의 삶과 문화를 공감하고자 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 지역의 전통 중에 하나로 남았으면 합니다. 이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이루는데 큰 디딤돌로, 씨앗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의 불교문화, 천년을 굽어살피다

- 미륵신앙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평화로운 세상 -

보문스님 이천 영월암 주지스님으로 1987년 용주사 송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무국장 역임. 현재 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장으로 있다. 2013년 '이천 영월암과 전통 문화 공간의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영월암의 문화유산을 지역문화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 등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1. 들어가는 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천의 영월암은 설봉산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사찰입니다. 얼핏 '이천의 불교문화, 천년을 굽어 살피다'라는 거창한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작은 절처럼 느끼실는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영월암은 이천의 그 어느 사찰보다 이천 불교의 역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절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전북 정읍, 무주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일찍 출가를 하였는데 1973년,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 처음으로 온 절이 바로 이천의 영월암입니다. 그래서 출가한 스님의 입장에서 마음의 고향은 40년 이상 인연을 맺어온 영월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자도 아니고, 학문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한 스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도 영월암 주지이기 때문에 부족한

저를 초청해주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영월암에 대해서 조금 아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지한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초과일 이후 보름정도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영월암이 비록 작은 종교공간이지만, 이천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대표적인 사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 또한 영월암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며 이천의 역사를 공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비록 강의내용이 깊이도 없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지라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종교란 무엇일까요? 저는 종교란 인간이 살면서 만든 하나의 정신문화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류의 역사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고득락(離苦得樂)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괴로움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우리가 소망하는 바이고,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곧 종교의 역사이자 가치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종교에서는 인간은 절대적인 유일신에 의해 창조되어 신의 은총에 의해 행복을 보장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른바 유일신적 종교관인데 이는 인류의 종교사에 있어 주류를 이루는 사상입니다. 이에 비해 불교가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 주고받는 일종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관계를 궁구하고 깨달음을 얻어, 궁극적으로 행복을 얻는 과정을 체계화한 것이 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괴로움을 벗어나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의 가치가 인류의 역사와 궤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천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천이라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겪어왔으며 그 괴로움을 어떻게 이겨왔는지, 기나 긴 세월 속에서 불교가 지역공동체로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고자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성찰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이 역사 속에서 이천의 불교문화로 나타났을 것이라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2. 삼국시대 ‘북악사’의 창건과 불교문화의 태동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천에는 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대월면 대포리에 항공작전사령부가 있고, 장호원의 7군단, 원적산에 있는 기동중대, 그리고 이번엔 마장면에 새로이 특전사 사령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전쟁 시기가 아닌 요즘도 군부대가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이천은 예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조금 더 보충하면 이천은 중국과 왕래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비옥한 한강유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군사지역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며 이천시지에서 이천의 산성山城을 다룬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찬찬히 내용을 훑어보니 이천은 삼국 중에서도 백제와 인



설봉산성 1차 발굴조사로 출토된 함통명벼루



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부발에 있는 효양산성의 안쪽에서 백제인 주거지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천의 대표적인 산성인 설봉산성도 백제가 축성한 산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삼국이 치열하게 각축을

별이던 장소답게 이천에서 고구려와 신라의 흔적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설성산성은 신라의 장수가 눈이 녹은 길을 따라 성을 쌓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이천과 가까운 이포에 가면 여주의 파사산성이 있는데 여기도 신라에서 축성한 산성입니다. 또한 이천은 충주-음성-장호원으로 이어지는 육로와 여주-양평-이천으로 이어지는 수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천은 3세기 후반 근초고왕 때 백제가 처음 진출한 이래로 옛 백제의 주요무대였다가,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정책으로 백제의 수도 한성이 함락되자 남천현으로 편입되어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진흥왕 때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 최북단의 전초기지로 ‘남천주’라는 행정관청을 설치하고 ‘남천정’이라는 군사조직을 주둔하며 신라의 땅이 됩니다.

이처럼 삼국이 통일되기 전까지 이천은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라 문무왕에 의해 통일을 이루고 안정을 찾은 통일 신라 초기 이후에야 비로소 이천의 불교문화가 태동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천의 주요 사찰 중에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사찰은 두 개 정도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영원사와 영월암입니다. 영원사는 선덕여왕 때 해호선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데 처음 창건할 때는 영원사가 아니라 영원암이라는 작은 절로 창건했습니다. 반면 영월암은 처음에는 ‘북악사’라는 큰 절로 창건되었다가 나중에 영월암으로 바뀐 경우입니다. 영월암의 창건설화에 따르면 신라 문무왕 대의 의상대사가 북악사라는 절로 창건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데, 제가 추적한 바에 의하면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일 수 있다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가 설봉산성을 발굴조사하기 시작하면서 흥미로운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1차 발굴에서 함통 6년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벼루가 나왔고 2차 발굴 때는 신장상(神將像)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조사에서 대사(大寺)라는 명문이 새겨진 암키

와가 출토되었는데 모두 사찰과 관련 있는 유물입니다. 예를 들어 1차 발굴조사에서 발견한, 함통명 벼루에 새겨진 사하가(寺下家)라는 글씨를 통해 설봉산성 근처에 사찰이 있었고, 벼루의 주인이 사찰 아래 마을에 사는 이천사람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2차 발굴조사에서 나온 신장상은 그 자체가 불교에서 쓰이는 유물로, 설봉산성 근처에 절이 있었을 근거가 되며, 3차 발굴에서 찾은 암키와에는 대사, 즉 큰 절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설봉산성 근처에 큰 절이 창건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영월암에는 불상광배와 연화대좌라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향토유적 제3호로 지정되어있지만 내년쯤 전문가를 초빙하여 문화재적인 가치를 재평가를 받아 새로이 문화재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불상광배를 보면 두 줄의 용기선으로 두광과 신광을 표현하는 기법이라든지 3구의 화불을 표현한 점 등은 통일신라의 광배에 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연화대좌를 보면 전체적으로 3단으로 구성하고 중대석에 불상과 신장상을 표현한 점, 상대석에 화문을 새긴 점 등을 볼 때 불상광배와 마찬가지로 통일신라 말이나 고려 초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좌대와 광배가 있는 영월암의 상황을 고려할 때, 영월암의 전신인 ‘북악사’가 신라 문무왕 대의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설이 아주 근거가 없는 낭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옛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천시지에 「통일신라 헌강왕 대에 남천군의 승통, '훈필스님'으로 하여금 왕실 별장을 택하여 정장을 구획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통



영월암의 석조광배

(僧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신라시대의 승려 관직입니다. 즉 신망이 있는 고승으로 하여금 승려들을 관리하도록 나라에서 임명한 공식적인 관리입니다. 승통이라는 말을 처음 쓰게 된 것은 신라 진흥왕 대의 일입니다. 고구려의 유명한 고승인 해량스님이 신라로 망명을 합니다. 신라 입장에선 존경받는 고승을 대접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신라는 해량스님을 승통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유명한 신라의 고승, 자장을 사가 당나라에서 신라로 귀국하자 대국통으로 임명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대국통은 승통보다 높은 직급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라에 승관제도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훈필스님’도 이천의 옛 지명인, 남천주의 승통으로 임명되었고, 따라서 이천에도 승통이라는 직책을 맡은 큰 스님이 기거하는 절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라의 문무왕은 626년에 태어나 661년에 즉위하고 68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의상대사는 문무왕보다 1년 앞선 625년에 태어나 702년에 열반하셨습니다. 만약 영월암 창건설화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영월암은 문무왕 즉위 연간인 661년부터 의상대사가 열반하신 702년 사이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제 추론에 비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통일신라시대에 설봉산성 인근에 큰 절이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고 여러 정황 상 이것이 ‘북악사’가 아니었을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고려시대 이천불교 -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고려시대는 실질적으로 이천의 불교가 가장 꽃을 피웠던 시기입니다. 「이천지역 주요 마애불 및 석불상 유물 현황표」를 보시면 석탑을 제외한 마애불과 석불상만 무려 16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성된 시기는 대부분 고려시대이고 분포지역도 이천의 각 읍면에 골고루 자리 잡

고 있습니다. 이중 국가지정문화재가 두 점 있는데 장암리의 태평흥국명 마애보살반가상과 영월암의 마애여래입상입니다.

「이천지역 주요 마애불 및 석불상 유물 현황표」

no	유 물 명	지정 번호	조성 연대	소재지	크기 (m)	특 징	비 고
1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보물 822호	고려 초기	관고동 영월암	9.75	시무외인 미륵불	국토수호 산성수호
2	태평흥국명 마애보살반가상	보물 982호	고려 초기	마장면 장암리 경종6(981년)	2.57	미륵보살 반가상	마을수호
3	어석리 석불입상	유형문화재 제107호	고려 초기	장호원 어석리	4.2	미륵불상	마을수호
4	소고리 마애여래좌상	유형문화재 제119호	고려 후기	모가면 소고리	5.3	미륵불 좌상	
5	소고리 마애삼존불상	향토유적 제8호	고려 후기	모가면 소고리	2.2	미륵불	해학적 정감있음
6	자석리 석불입상	문화재자료 제41호	고려 예종	설성면 자석리 연화정사	3.6	미륵불상	치병
7	이평리 미륵불상	문화재자료 제70호	고려 후기	이평리 마을입구	1.5	미륵불상	마을수호
8	관고리 석불입상	향토유적 제6호	고려 후기	관고동 법왕정사	4.0	미륵불상	마을수호
9	갈산리 석불입상	향토유적 제7호	고려 중기	갈산리 마을입구	4.2	미륵불상	마을수호
10	대포리 석조여래입상	향토유적 제11호	고려 중기	대포리 도로변	2.3	미륵불상	마을수호
11	동산리 마애여래좌상	향토유적 제9호	고려 중기	대포리 도로변		아미타불 좌상	마을수호
12	선읍리 석불입상	향토유적 제10호	고려 초기	설성산 신흥사 진입로 입구	2.5	미륵불상	마을수호
13	군량리 석불좌상		미상	군량리 야산 부처성골짜기	1.0	석가모니불 결가부좌	마을수호
14	두미리 미륵당석불		고려 후기	두미리 미륵당	1.0	미륵불상	마을수호
15	칠성사 석불좌상		조선 초기	율면 산성1리	1.1	미륵불상	저수지
16	해룡사 석불좌상		고려 후기	대월면 대흥리 해룡사	1.0	석가모니불 결가부좌	절터에서 이전

장암리 마애불의 경우 바위 뒤편에 태평흥국6년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고려초기의 불상임이 확실하고 영월암의 마애불도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표에는 없지만 이천지역의 석탑도 대부분 고려시대 석탑입니다. 따라서 이천의 불교문화는 고려의 불교문화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월암의 마애여래입상은 거의 10m에 가까운 커다란 불상으로 설봉산 중턱에서 동남방향, 그러니까 이천 시내를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관촉사의 은진미륵불상이 논산의 너른 평야를 조망하는 것과 같은 형상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숨어있습니다.

고려시대 이천의 불교를 알아보기에 앞서 미륵신앙, 보다 구체적으로 미륵하생(下生) 사상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륵하생 사상은 지금부터 56억 7천만년이 지나, 현명한 왕인 전륜성왕이 나타나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태평성대가 되면, 도솔천 내원궁에 머물고 계시는 미륵부처님이 세상에 하생하여 세 차례 설법을 통해 많은 중생을 구제하고, 마침내 평화롭고 행복한 융화세상이 도래한다는 믿음입니다. 그에 비하여 미륵상생(上生) 사상은 융화세상이 도래할 56억 7천만년을 기다릴 수 없으므로 중생이 십선계를 잘 지키고 보살행을 닦아 미륵보살이 계시는 도솔천 내원궁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믿음입니다.

고려시대에 성행했던 미륵하생 사상은 인간세상이 태평성세에 이르러야 비로소 미륵부처님이 인간계에 하생하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태평성세를 이루기 위해 국가수호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미륵부처님이 전란으로부터 백성을 지켜준다고 여겼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에 미륵불상이나 미륵보살상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천을 지키는 군사적 요충지였던 설봉산성에 이천 시내를 조망하는 미륵불을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월암의 마애불은 특이하게 미륵불이면서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가한 전륜성왕의 모습을 이천지역의 고려인이 그대로 담아낸 것입니다. 정법으로 평화로이 나라를 다스리던 전륜성왕은 미륵부처님이 세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상에 오시자 부처님 앞에서 출가하기를 원하며 절을 드리는데 전륜성왕이 고개를 들자 머리카락이 저절로 삭발이 되고 몸에 가사를 걸친 스님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영월암의 마애불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처님의 머리모양인 꼬불꼬불한 나발(螺髮)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석불의 뒤에 올라가면 희미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마애불이 지장보살상이라든지 나한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미륵불을 조성하며 전륜성왕의 모습을 함께 담은 마애불이라 생각합니다. 미륵(彌勒)을 범어로 마에트리야(Maitreya,) 또는 메테야

(Meteya)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시아와 뜻과 어감이 비슷합니다. 게다가 미륵부처님은 56억 7천만년이 지난 미래에 오실 부처님으로 융화세계를 주관하는 분입니다. 여러모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불교에는 삼세불 신앙이 있는데 과거에도 부처님이 오셨고 현재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듯 미래에도 진정한 행복을 위한 진리를 제시할 부처님이 오신다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은 한명이 아닙니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품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미륵부처님이 주관하는 융화세계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들의 수명이 8만 4천세로 건강하고, 키도 지금보다 훨씬 큰 16장(丈), 그러니까 4.75m가 되고, 사람들이 지혜와 복덕을 갖추고 있어서 평안하고, 땅은 거울같이 평탄한 금모래가 깔려있고, 밤마다 이슬비가 내려 낮에도 먼

지가 나지 않고, 사방에는 꽃이 피고 오곡과 과실이 넘치는, 전쟁과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입니다.

이러한 융화세계를 꿈꾸는 미륵신앙은 고려시대에 성행했는데 말씀드렸 다시피 이천의 마애불과 석불상은 대부분 고려시대의 것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기원하는 미륵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려 말의 고승, 나옹스님이 어머니의 천도를 위해 영월암 마애여래입상에 기도했다는 일화가 지금도 이천에 구전되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볼 때 군사 요충지인 이천에 창건한 ‘북악사’를 중심으로 이천에도 미륵신앙을 위시로 한 찬란한 불교문화가 피어났다고 봅니다.

4. 조선 송유역불 - 국난 극복의 호국과 민중의 삶을 어루만지다

조선전기 폐불정책 - ‘북악사’가 사라지다

조선왕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송유역불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와 고려로 이어진 불교를 억제하고 성리학을 국가의 주요이념으로 삼아 새로이 조선을 만들어가자는 정책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새 나라의 도읍을 정할 때 나옹스님의 제자인 무학대사에게 큰 도움을 받았지만, 태조 이성계조차 도첩제를 강화하고 사원 재산을 통제하는 등 송유역불 정책을 단행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원의 재산인 전지를 몰수하고, 승려가 되려면 양반은 포 100필, 평민은 150필, 천민은 200필을 관에 납부하여야 도첩을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조선 태종 대에 이르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됩니다. 종전 불교의 11개 종파를 7개로 통폐합하고 허가를 받은 사찰, 그러니까 일종의 공인 사찰을 정하여 사찰의 수를 242개로 제한합니다. 요새 가게를 낼 때 나라에 허가받듯이 사찰도 신고하고 허가를 받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왕사와 국사, 능사 제도를 폐지합니다. 왕사와 국사는 왕의 자문을 맡고, 종교와

국민의 정신적인 지도자역할을 하던 큰 스님인데 삼국시대부터 이어온 승 관제도가 고려시대에 체계화된 것입니다. 능사는 임금이나 왕족이 승하하여 능을 세울 때 왕족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지은 사찰입니다. 이천과 가까운 여주 신륵사도 세종대왕의 능사입니다. 일종의 공인된 사찰인데 이를 ‘자복사찰’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자복사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천지역의 불교가 고려시대에 비해 쇠퇴했을 거라는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성군인 세종대왕 대에는 그나마 남아있던 7개의 종가를 선·교 양종으로 통폐합하고, 242개 공인사찰의 수를 36개로 대폭 축소해버립니다. 성종은 아예 도첩제 제도 자체를 폐지하여 스님이 되는 공식적인 절차를 생략해버리고 불경을 인쇄하는 간경도감도 없애버렸습니다. 또한 사찰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등 불교 억압이 극에 이르자 수많은 승려가 반강제로 환속하였고 대부분의 사찰이 황폐화되어 마침내 사찰공동화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조선의 폐불정책은 나아질 기미는커녕 오히려 더욱 가혹해집니다. 연산군은 스님을 아예 관노로 만들어버립니다. 승과제도는 폐지되고 선·교 양종의 본사도 없어집니다. 이로서 조선 중종 이후로 불교는 종교로서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신라시대 이후 조선초기의 기록에서 ‘북악사’가 사라진 이유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중기 이전에 있던 방번사찰

그러나 조선의 불교는 임진왜란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지만 우리 스님과 불자들이 지켜야할 다섯 개의 계율이 있습니다. 이 중 제1계가 바로 불살생(不殺生)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생물일지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죽이지 않는다는 계율입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나 외적에 의해 무고한 백성이 목숨을 잃고 국토가 불타는 상황을 맞이한 스님들은, 비록 과거를 하더라도 칼과 창을 들고 일어나 나라를 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때 활약한 대표적인 불

교계 인물이 서산대사와 사명당스님입니다. 얼마 전 개봉한 「명량」이라는 영화에서도 스님들이 왜군과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산과 강, 바다를 가리지 않고 일어난 수많은 의승군의 활동을 선조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송유역불의 조선사회라도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목숨을 던진 조선불교계의 노력과 성과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사회에서 불교는 전란이후 어느 정도 종교적인 지위를 회복합니다.

또한 선조 이후 이천과 가까운 남한산성의 방비를 위해 의승군 제도를 정비하고 경기도 내에 14개의 ‘방번사찰’을 둡니다. 방번사찰이란 산성 방비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의승군 활동을 하는 공인사찰입니다. 이천에도 1개의 방번사찰이 있었는데 아마도 ‘북악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천의 불교도 이때부터 호국불교의 성격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잠시 기록에 등장하는 이천지역의 사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조선 중종26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불우」 조에 이천의 주요사찰로 안흥사, 정악사, 안양사, 입석사가 보입니다. 효종6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지』에는 정악사, 안양사, 입석사가 기록되어 있고 안흥사가 빠져있습니다.

영조36년 편찬된 『여지도서』에 ‘부 서쪽5리 설봉산 기슭에 북악사가 있다’는 기록이 발견되며, 신경준이 편찬한 『가람고』에서도 마찬가지로 북악사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기록상으론 효종6년(1655년)에서 영조36년(1760년) 사이에 북악사가 중건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후기 다시 사라진 ‘북악사’

그런데 이후의 기록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무 3년, 즉 1899년에 편찬된 『이천부읍지』에 분명히 북악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대정오년 고적조사보고』에는 영월암도 아닌 영월암 ‘부지’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부지’ 위에 있어야 할 영월암 혹은 북악사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사라진 영월암에 대한 의문은 1907년 이천에서 벌어진 동학농민운동과

무장 항일투쟁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 말 일제침략기에 이천에서는 설봉산을 중심으로 동학민중봉기와 무장 항일투쟁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특히 1907년 고종황제가 일본에 의해 강제로 퇴위하고 신식군대가 해체되자 신식군대의 중대장 격이었던 허준이 설봉산을 중심으로 극렬한 무장투쟁을 벌입니다.

그러자 일제는 이천의 독립군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천관내 4개의 읍면과 12개의 동리의 민가 1천여 가구를 불태워버리고, 수많은 양민을 학살한 사건, 바로 ‘이천총화사건’입니다. 이때 설봉산에 숨어 투쟁하던 무장군인도 무참히 살해당하는데 영월암도 일본군에 의해 불태워져 폐사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일제는 이천에서 끊임없이 항일무장투쟁이 일어나자 이천관아에 일본군을 주둔시키고 1914년에 기존 관아와 객사를 해체하여 아예 이천경찰서를 설치합니다.

유림과 불자들이 협력해 영월암 대응전을 세우다

하지만 이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일제는 이천사람들의 여론을 의식하여 이천관아 입구에 있던 2층 구조의 문루를 이천향교 앞으로 옮겨 풍영루라는 누각으로 다시 세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방 이후 향교 앞의 이 누각은 노후로 인하여 결국 무너져 내리고 그대로 방치되고 맙니다.



Facade of Ich'on Police Station.

일제강점기 이천경찰서(이천 관아)의 전면

이천경찰서
전면

그런데 이 누각의 운명이 재미있습니다. 당시 영월암의 주지스님은 유림계 사람들과 협의를 하여 무너진 누각의 부재를 1949년에 영월암으로 옮깁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 유교와 불교는 서로 반목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영월암의 불자들과 이천의 유림의 협상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영월암 관련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천향교를 지을 때 영월암 스님과 불자들이 내려가서 목수 일을 하며, 인력도 지원하고, 물자도 지원을 했었다는 기록이 이천향교의 상량문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영월암과 이천유림이 서로 도왔던 역사가 있어 누각의 부재가 영월암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949년에 영월암으로 올라간 부재로 원래 다음해에 건물을 지으려다가 전쟁이 나서 3년 후인 1953년도에 영월암의 대웅전으로 재탄생합니다. 이천의 영월암 건물에 이러한 이천의 역사가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5. 강의를 마치며

지금까지 설봉산 영월암의 역사를 배경으로 이천지역의 불교문화를 유추해보았습니다. 신라 문무왕 대에 창건되었다는 ‘북악사’는 설봉산성의 출토 유물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천 영월암의 전신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신라가 한강유역에 진출하며 이천의 불교문화가 태동하였고 통일신라와 고려 초에 더욱 성숙한 불교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군사요충지였던 이천에 미륵신앙을 위시로 불교문화가 더욱 융성하였는데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영월암의 마애여래입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란하게 빛나던 이천의 불교문화는 조선의 숭유억불정책으로 인해 어두운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그나마 공인된 불교공간이라 할 수 있는 ‘자복사찰’이 한 군데도 없었던 이천의 불교계는 거의 아사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중에 나라를 위해 분연히 일어난 의승군 활동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합니다. 이후 이천지역에 지정된 ‘방번사찰’을 중

심으로 이천의 불교는 종교적 위상을 되찾고 새로이 역사에 전면에 등장합니다. 전란의 상처를 수습하고 삼정의 문란 등 조선후기의 어려운 백성을 보듬었던 영월암은 설봉산에 근거한 동학농민운동과 항일운동으로 인해 다시 한 번 폐사의 위기를 겪었으나 고난을 잘 이겨내고 해방이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며 영월암을 통해 이천의 불교역사를 되돌아보니, 자연스럽게 앞으로 종교가 이천이라는 지역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단 불교만이 아니라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계 전체가 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종교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종교가 하나의 권력으로 군림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서양의 중세시대에는 교황이 국가의 왕보다 더한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도 있었고, 조선이 송유억불정책을 시작하게 된 배경도 천년이라는 세월동안 불교가 세력화되어 백성의 삶과 유리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종교가 탄압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종교가 맞닥뜨린 문제는 오히려 국가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외면 받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유래가 없던, 국민소득 3만불이라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혼과 소망을 채우는데 있어 더 이상 종교가 아닌 국가와 사회에 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종교가 권력을 가지고 기득권을 향유하거나 신앙인의 바람을 저버린다면 마땅히 신자로부터 배척받을 것입니다. 종교도 결국 인간세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신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천의 불교도 이천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시민사회의 정신문화를 성숙하게 하고 이를 승화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종교계도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

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종교의 벽을 넘어 민중의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안고 가는 것이 앞으로 종교가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의 네버엔딩 스토리

- 지역의 문화자원은 어떻게 콘텐츠가 되는가 -

최재현 소릿길컴퍼니 대표. IT와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창업활동으로 ‘청년창업 2030 우수프로젝트’를 수상했다. 그는 원래 용인대에서 검도 등 체육을 전공한 무예청년이었다. 그러나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둔 후 문화콘텐츠 분야를 공부하면서 여행과 문화공연을 융합하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현재 ‘국악과 함께 떠나는 여행 소릿길’이라는 테마로 국악인이 해설을 맡아 지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소릿길컴퍼니 대표 최재현입니다. 저는 창업을 하면서 지역 경제 활동과 연결해서 관광상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행, 국악, 이벤트를 묶어 소릿길이라는 프로젝트를 잡았습니다. 먼저 제가 일하고 있는 소릿길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제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이야기꾼 만자이

일본에서 활동을 할 때 느낀 건데 오사카에 가면 만자이 센터가 있습니다. 오사카 시내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데요. 그게 뭐하는 줄이냐 물어보았더니 일본 전통문화 경극 ‘만자이’를 보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만자이는 일본 고유의 전통 경극인 거죠. 만자이는 두

명이 경극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고 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은편에 일본 계란빵집이 있는데 만자이 주인공들이 캐릭터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란빵 간판이 움직이는데 캐릭터 하나하나의 더빙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궁금증이 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왜 판소리꾼을 찾지 않을까? 안동에서는

탈춤공연과 소리공연을 하지요. 하지만 왜 한국인들은 우리문화 공연을 보며 지루해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만자이는 보통 2명 이상의 이야기꾼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한국의 정서는 일방향적인데 일본 만자이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넘어지면 그것 가지고도 이야기가 되요. 일본의 사례를 보여줬던 이유는 보통 기본 구성이 두 명입니다. 하나는 정설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반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하나는 바보를 말하죠. ‘야 직진해.’ 하면 벽이 있어도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이 만자이 구성인데 이것에 반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선사인이란 사람인데 캐나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만자이가 너무너무 좋아서 아예 국적을 일본으로 바꾸어 만자이 이수를 받습니다. 외국인들도 이야기를 들으러 만자이를 많이 찾아옵니다. 이야기 재미에 빠져서 이 분도 무형문화재로 불리는 유명한 만자이꾼을 찾아가요. 만자이가 되고 싶으니 자기한테 만자이 교육을 시켜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표준 일본어와 오사카 사투리까지 넘나들며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개인적 만자이 센터가 생겼어요. 크기가 이 교실의 3분의 1정도 되겠네요. 그런 곳에 사람들이 열 명 정도 들어가는데요. 나중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서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외국인 관광객

입니다. 이 친구가 아주 재밌는 것은 이야기가 영어로도 가능하고 일본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이게 뭐 소리야. 왜 그런 거야’ 이럴 때 이게 왜 웃긴 줄을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 대목은 이런 겁니다.’ 이런 농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웃어요. 일본인은 자기들 문화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웃는 것을 보고 또 웃어요. 한바탕 웃고 나서 이야기를 또 전개해요. 실제적으로 캐나다 사람이 쓴 일기 같은 것으로 만자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분한테 감동을 받았어요.

일본의 사례이긴 하지만 배울 것은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의 배우려는 자세가 전통을 지켜가면서 타 국민에게까지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유튜브에 ‘선사인’이나 ‘만자이’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한국어 버전은 없어도 영어 버전 자막도 많이 나옵니다. 이분 때문에 흑인 만자이도 생기고 여성 만자이도 생깁니다. 경극 형태의 만자이도 있는데 외국인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요르단 다마스쿠스의 이야기꾼

여기는 요르단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요르단은 미디어가 들어오면서 전통문화였던 이야기꾼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움직임이지만 소수의 힘으로 이야기가 재탄생하게 됩니다. 일반 목욕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요르단 다마스쿠스에서 활동하는 이야기꾼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 가는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보면 장터에 가도 이야기꾼이 있고요 씨름판에 가도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이야기꾼을 알아보기 힘들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언제든 중단되었던 부분부

터 이야기를 복원해 시연합니다. 한 번 보시겠습니다. 여성은 문화적 차이로 종교의식에는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지만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교리를 동화 형태로 만든 것이죠.

2. 이야기를 어떻게 자원화하고 콘텐츠화 할 것이냐?

이야기를 ‘자원화’ 하는 게 필요하다

여기서 잠깐 저를 논하자면 저는 운동을 했거든요. 검도 선수를 했거든요. 용인대를 들어갔고요. 부상으로 다시 공부를 하면서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해서 현대모비스에 연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차가운 기계를 만지고 손에 기름칠을 하고 이런 상황이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무작정 오토바이를 삽니다. 전국 여행을 시작을 한 거예요.

스포츠로 머리를 깎고 한 달 반을 여행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자기도 하고 공양 밥도 먹어보고 교회에서 아는 분들도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런데 ‘하동’이란 곳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하동이 어떤 곳인 줄 몰랐어요. 하동에서 실제 반달곰을 키우고 있는지도 몰랐고 고로쇠가 유명한지도 지역민담 설화가 그렇게 재밌는 줄도 몰랐어요. 술 한 잔 걸치실 때 기분 좋게 ‘야, 우리 마을에서는 누가 어땠는데...’ 이게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소릿길 프로젝트를 하게 된 두 번째 계기가 있었어요. 일본에는 한국여성과 결혼해서 식당을 하는 일본남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을 와서 저에게 하는 말씨가 ‘한국은 볼 게 없어’ 라고 해요. 그때 제가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명동 갔다 왔어, 동대문 갔다 왔어, 남대

문 갔다 왔어, 인천, 부산 제주도 갔다 왔어. 나 한국 여행 다 했어.’ 그런 말을 들으면 화는 나지만 뭐라 반박을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딜 가면 좋은지 저 또한 몰랐으니까. 저 또한 자신 있게 어디가 좋다고 소개를 못 했어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 오사카 간사이에 가면 국수가 유명하지요. 이 국수는 물과 면이 유명한데 지방에서 올라온 좋은 소금으로 만들어서 좋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부산어묵 맛있어.’ ‘영덕 대게 맛있어.’ ‘그게 유명해.’ 이런 말 밖에 못 했어요. 정말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는 뭐가 유명할까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 스토리는 뭘까, 지역 민담은 뭘까... 그런데 알아보니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런 작업을 이미 다 한 거예요.

이걸 어디서 알아볼 수 있냐 하면 관할 시청, 도청에 가면 문화관광과가 따로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지역 민담설화를 다 모아 놔습니다. ‘아, 그랬구나.’ 했는데 이걸 정작 잘 풀어내서 제대로 활용하는 지역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지요.

신윤복의 그림에서 ‘풍류’를 찾다

혹시 간송 선생님 아세요. 제가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걸 너무 보고 싶어서 거기에 달려갔어요. 거기서 신윤복 선생님 작품을 보았는데 저는 이 세 가지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이야기꾼의 기초는 뭘까? 그건 ‘풍류’다. 풍류는 ‘기’, ‘예’와 같이 즐길 수 있었던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관객과 무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나 있는 곳이 무대고 한판의 놀이 터가 됩니다. 배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었고요. 이동하면서도 소리를 하고 지나갈 수 있었고요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복원해 보자 현실에 맞게... 그래서 소릿길이 됐죠.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김종현 소리꾼과의 만남입니다. 국악과를 전공을 하면서 고법을 전공한 친구입니다. 타악도 할 수 있고 소리도 가능하고 문화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입상경력도 많고 한 친구지만 이 친구와 저와의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그 예로 국악에서 춤도 있고 악기도 있고 소리도 있는데 이 친구는 늘 소리를 으뜸으로 쳐요. 속된 말로 콧대가 높아서 그걸 꺾기 위해서 너무 화가 나지만 제가 많이 참습니다.

저는 문화콘텐츠를 공부했습니다. 저 친구는 국악을 공부했습니다. 함께 힘을 내면 더욱 잘 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었죠! 저희 콘텐츠 업계에 OSMU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One Source Multi Use' 인데 하나의 자원을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의 원천소스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려던 사람이 글썽 하나만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나는 이 친구를 달달 볶아서 끄집어내야 하는데 이 친구는 '내가 왜 해요. 난 국악 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업에 나를 끌어들이세요?' 늘 이릅니다. 그 분이 지금 저 뒤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왔습니다.

보령시 프로젝트

제가 보령시와 소릿길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보령시에서 김좌진 장군 갈매꽃 성지, 배 탈 수 있는 곳도 있고, 도미부인 설화가 있습니다. 저희 소릿길이 다른 관광가이드나 여행사와 다른 점은 가이드 역할로 국악을 이용했다는 것이 좀 특이하죠. 여행객들과 다니면서 그곳의 역사와 문화, 설화를 가이드하는데 그 방식이 오블리가토(즉흥연주)입니다. 국악으로 여행을 풀어낸다고 할까, 대화에 음악을 입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방식이 아니고 국악의 요소 중 하나인 '아니리' 리듬을 타며 얘기하는 방

식입니다.

이것을 통해 평소 들어보지 못한 어감과 말투와 아이디어를 끄집어 낼 수 있어요. 지역 고유의 민담 설화를 한국적 코드에 맞게 재구성해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에 여러 문화유산들이 남아 있지만 근거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도 있고 장소도 있는 것들. 이게 실질적 유산이자 전통으로 바뀌어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주민 참여로 이어지는 관광 상품을 말씀 드렸는데 보령시 쪽과 이야기하다 보니 이게 기록에 의하면 한국에 첫 선교사가 들어온 곳이 바로 보령시란 겁니다. 돼지감자가 들어오고 머루가 퍼진 기록이 남아 있어요. 시골 어르신들은 어느 지역이나 같겠지만 어선 하나 가지고 자식들을 대학에 보낸 분들입니다. 논농사, 밭농사하며 자녀 대학 보내시고 어렵게 지냈던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가져와도 아무도 활용을 못합니다. 저희가 ‘이건 중요한 건데’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역 민담설화가 많은데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왜 못 살리죠. 좋은 음식이 있는데 ‘스토리’는 없어요. 그러니 스토리를 잡으세요. 제주도로 치면 음식에 보말도 있고 몸국은 있는데 뭘 맛인지 몰라요. 그냥 몸국 먹는다 몸국 먹는다 이러지요.

삼색나물의 비밀, 음식에 이야기를 입히다

제가 얼마 전에 나라님이라는 한정식 식당에 갔거든요. 나라님이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하나의 재



있는 예를 발견했어요. 삼색나물! 모든 한정식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냥 먹으면 몰라요. 제사상에 참기를 살짝 넣고 비벼먹는 그런 음식 정도로 알고 먹는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색나물 하면은 도라지하

고 고사리하고 시금치가 있지요. 이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한정식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만드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식당에 가면 이 세 가지 나물이 꼭 나오는 거 같아요.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이게 한식당 규정인가?”

“어 이걸요.. 뿌리 채소인 도라지는 조상님을 뜻하고, 줄기 채소인 고사리는 부모님을, 잎 채소인 시금치는 자손을 뜻해요. 옛날부터 우리 한식은 이렇게 밥상에도 의미를 담아서 올렸어요.”

저는 2012년도에 시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와 닿았던 것이 있는데 하나의 단어에도 의미와 감정을 실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앞서 설명드린 삼색나물의 의미를 아는 분 있었나요. 저는 제사상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알고 나서 먹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삼색나물이 처음에는 한날 비빔밥의 재료였거든요. 조상을 의미하는 뿌리채소와 부모님을 뜻하는 줄기채소, 잎채소는 또 자손을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나물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한국인인데 이걸 모르고 먹었던 거예요. 이 맛이 어떨까. 이게 맛이 최고다. 어디 식당이 맛 집이다. 줄을 30분을 서서 들어가 먹었더니 아 그 맛이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맛이 그 맛인데 가끔씩 사연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혹시 소머리국밥의 기원을 아세요? 어느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노부부가 논농사 밭농사를 하며 사십니다. 할아버지가 기력이 떨어져 할머니가 소머리를 사가지고 와서는 가마솥에 넣고 주변에 나는 온갖 약재를 다 넣고 끓였는데 그걸 드시고 나서 할아버지의 기력을 낫게 했다는 향토음식의 어원이 있어요.

인천 차이나타운에 가면 ‘공화춘’이란 곳이 있습니다. ‘공화춘’은 우리나라 요리에서 고급 레스토랑이죠. 현대 지금의 ‘공화춘’은 그 자손들이 영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빼앗아 간 겁니다. 실

제 그 옆 옆집에 손녀가 운영하는 음식점 ‘신승반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춘’이라는 이름을 못 씁니다. 왜, 브랜드에서 졌어요. 공화춘이란 브랜드는 전국 1위의 음식점인데 자손이 그것을 못 지키고 직원들이 그것을 지켜낸 거예요.

슬픈 일이죠.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식, 평범하게 먹는 음식이지만 저도 나물에 이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고요. 한정식에 이런 의미를 알려주지 않고 음식을 내놓아요. 어쨌든 의미를 모르고 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런 음식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수견, 장호 개 이야기

혹시 ‘오수견’ 이야기 아시나요? 주인을 지킨 강아지 설화가 많은데 주인이 개울가 옆에서 잠을 자다 산불이 나니까 개가 물을 적신 다음에 주인을 살렸다는 이야기죠. 그게 어디 지역 설화일까요. 전북 임실 오수죠. 그런데 오수 지역에서 이 ‘오수견’을 복원하겠다고 합니다.

오수견이 뭔데요. 낮잠 자는 개? 그럴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일본 앞잡이들이 많이 잡았고요. 불경스럽다고 잡고.... 일본에서는 새빨간 것은 안 좋아합니다. 삼살개, 풍산개도 요즘은 순종인가 의심을 받는데 어쨌든 전통견을 복원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잡종견을 만들어내는 것이 됩니다.

중국에 ‘장호’라는 개가 있습니다. 황실 개이고 되게 특이합니다. 충성심이 엄청납니다. 8역을 주고 사온 새끼가 할아버지가 죽자 자살을 합니다. 할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해서 옥상에서 뛰어내린다든지 창문을 깨고 몸을 던집니다. ‘충직’에 대한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호라는 개는 원래 없어요. 티벳에 사는 고대견입니다. 중국 애들이 이걸 비싸게 가져와 브랜딩한 겁니다. 어느 순간 중국 전통견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수견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장호를 사왔어요. 옛날 토속견의 형태를 가진 것과 교배를 해요. 이게 오수견이 됩니다. 전통견이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닌 건 아니에요. 오수견의 의미는 고려

시대 문인 최자가 쓴 보한집에서 나와요. 주인을 구한 강아지란 것이지요. 하지만 잘 모르는 내용은 이와 같아요!

‘잠에서 깨어나 개가 자신을 구한 것을 알고 개의 주검을 묻어주고 자신의 지팡이를 쏘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뿌리를 내려 실제 나무로 자랐다고 해요. 이게 ‘개 오’(獒)자와 ‘나무 수’(樹)를 합하여 이 고장의 이름을 ‘오수’(獒樹)라고 부르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특정 개가 아닌 충직한 개의 이야기란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릿길의 스토리텔링 방식

제가 아까 제 회사의 슬로건을 말씀 드렸지요? ‘국악과 함께 떠나는 여행, 소릿길입니다.’ 이천문화원에서 아기장수 설화를 파일로 보내주셨는데 이런 민담 설화를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아니리’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대화에 음악, 리듬을 입히는 방식입니다. 자진모리 장단, 중모리 장단은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제가 아쉽지만 소리로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아니리로 한 번 들어보세요. 대사에 음악을 살짝 입히는 거죠. 아니리가 길어지면 사람이 집중하는데 2분을 못 넘어요. 이번엔 자진모리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관광지를 가면 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문화해설사는 뭔가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서울 이태원쪽을 가는데 이쪽은 원래 이쪽엔 뭐가 있었고 여긴 예전에 나루터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저희는 좀 독특하죠.

해설을 국악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정형화된 내레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행객들과 소통하며 상황에 맞게 변형을 하지요.

‘아니리’란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아니리’가 표준어로 왔다가 갑자기 전라도 사투리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재밌는 것은 관객들이 웃고 특히 돌발 행동들도 많이 하잖아요. 창극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아니리’란 방식은 약간 노래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친구가 잘못되면 대신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저 친구가 넘어졌는데 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의 박수 한 번 주고~~’ 하면서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이 저희 소릿길 방식이라 보면 되요. 한 명을 놓치지 않고 한 명을 위한 서비스로 가겠다는 게 우리의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님 수라에 올라갔던 음식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시나요? 저도 잘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복원된 요리가 수천여 가지로 알고 있어요. 제주도 말고기도 있을 겁니다. 제주도에서는 임금님이 먹던 고기라고 합니다. 진실은 모르지만 당나귀를 드셨다고도 하구요. 용인시에 ‘동키쵸’이란 곳도 있어요. 당나귀 고기를 스시화도 시켰고 곰탕도 있고. 이런 스토리를 가진 식당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감 있게 해야 합니다. 임금님 수라에 올라간 것은 말고기가 아니라 당나귀입니다. 그때 당시 당나귀 고기는 정말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신뢰가 가잖아요. 저 친구, 저보다 어린 종업원이 저걸 알기 위해 얼마나 공부했을까. 나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거죠.

솔직히 이천쌀을 홍보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쌀이 좋다. 물이 좋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스토리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악을 쓴다고 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국악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니가 뭔데? 이런 분들 때문에 많이 낙심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국악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면 다들 좋다 하시면서, 국악공연이나 티브이 프로그램을 보자고 하면 조금만 트시다가 다른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안 보는데 이런 큰 문제예요.

2015년 콘텐츠 활성화 한다고 애썼는데 먹튀 당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한 프로젝트에 보통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리죠.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서류만 받으시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잠수했어요.

기획서 다 써 드렸더니 다음부터 연락이 안와요. 그런데 저희는 항상 이렇게 당해요. 그래도 제 나이 때 쉽게 이런 일들에 도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넓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6개월 동안은 제 돈 들어가며 뛰어다닌 겁니다. 슬픈 얘기와 함께 저희 돌아가는 시스템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관광상품 하는 거는 다른 지역들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관광 하시는 분들 존경하신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저 분들 자기 뼈와 살을 깎고 일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봤고 노력하는 것

도 봤고 감동도 봤어요. 저는 이렇게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지역에 뛰어 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천지역 쌀을 만든다던지 문경지역 오미자를 키운다던지 농이를 키운다던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브랜드를 못하고 계세요. 저희는 브랜드를 입히고 콘텐츠와 이야기를 입히고 있다고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중국의 장예모 감독 아시지요. 중국에 대규모 녹차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을 데리고 옵니다. 주민들이 배우로 탈바꿈 합니다. 다른 말로 전통 극 방식이라든지, 자연물을 이용해 녹차 밭에서 일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실제 주인공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 삶을 극화시켜 놓은 실제 관광 코스로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3. 이야기를 마치며

저희의 사업아이템은 소릿꾼입니다. 국악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잘 이끌어내야 합니다.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축제 때 공연물, 가이드스토리텔링, 주민이 안 움직이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 가이드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술교육사나 해설사 분들을 병행하든지 지역주민들이 교육만 하면 되거든요. 시험패스하면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의사항을 만들어 시에 요청을 하면 될 겁니다.

국악은 아이들한테 아직 낯설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다가거나 하면 즐기도록 합니다. 아이들의 방식으로 익히게 놔두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장려해서 국악 전공자들이 학교로 들어갑니다. 강사로 방과 후 활동 이런 게 아니라 정규수업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세대보다 접근도가 높아요. 저학년부터. 특성화 유치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요라든지, 장고를 친다든지 합니다. 그 시간에 아이들이 스스로 한 번 장단에 맞춰 자기가 아무거나 가나다라마바사 치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만큼 순수해요. 제가 실험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저를 붙잡고 “샘, 저 발이 반짝거려요.” 이러는 겁니다. 발이 저리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요. 이거를 이런 단어 선택을 저희는 상상할 수 없지요. 교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접근 방식은 그냥 인정하면 되요. 죄송하게 애도 안 키워 본 사람이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하늘은 왜 파래?” 그러면 ‘대기권에 태양광이 반사되어 수증기가 반사되고....’ 이런 말을 못해주잖아요. 그런데 명언이 있더라구요. 그럼 인정하면 되요. “넌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 “하늘은 번개가 치고 번쩍여서 명이 들어서 파래.” 그런데 아이들의 이런 발상 하나가 다르게 가요. 실직한 예가 있어요. 네델란드 지역 애한테 아이들을 방목을 해요. 다빈치 교육법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인 예가 뭐냐면 “오늘은 뮤지컬 시간이

야. 뭘 할까?” 그러면 아이들끼리 역할을 나누고 대사는 이렇게 하고 주인공이 애니까 이렇게 바꿀래요 합니다. 여기 주인공은 금발이지만 이 친구는 흑인이예요. 그래서 까맣고 흑진주 같은 친구하고 바꾸는 겁니다. 음악은 그냥 장단만 틀어줘요. 아이들은 장단에 맞추어 자기들끼리 뮤지컬을 짜 와요. 유아교육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제게 던지는 질문인데 저는 당당하게 방목하는 게 최고라고 말합니다. ‘정해진 틀만 지킨다면 너희들을 존중한다.’ 이릅니다.

저는 엄하게 자랐어요. 지금도 젓가락질을 못한다고 맞습니다. 운동을 하다 뼈가 다쳐서 저는 여기로 겨우 잡아요. 그런 거를 설명해 드리면 이해를 하는데 그 전에는 어르신들이 젓가락질도 못한다고 숟가락으로 때리셔요.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는데 나만의 스토리다 하며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면 인정 못 하세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정해주는 순간부터 서로가 화목해집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마음은 서로의 ‘진실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식들이 즐길수 있는 우리 문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재미로 살고 있고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 만나는 지점

- 우리가 이천의 기록자이고 우리가 이야기꾼이다 -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문화비평가이자 실천학자. 대안학교 맑은샘솟는학교 설립. 장애인교육기관 베다니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90년대 한국의 경제를 견인해온 대기업과 저임금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환경·교육·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며 통섭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과학기술과 물질문명, 성과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천에 왜 인문학이 필요한지, 어떤 인문학이 필요한지 이야기한다.

1. 나라마다 독특한 전통이야기꾼이 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인문학 강좌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천을 스토리텔링하다’라는 주제로 이 시간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끝까지 참여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하나의 강의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강의마다 비약이 있는 것 같고, 또 간극이 너무 커서 그 사이의 틈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부담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을 일일이 녹음을 하고 그걸 다시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려면 좀 시일이 걸리겠지만 책으로 나오게 되면 전체 내용을 일관되게 살펴보고 되새김질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천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에 활자문화가 있습니다. 석가

탐에서 발견된 세계최고의 목판 인쇄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그렇구요, 1377년 인쇄된 직지심경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팔만대장경은 또 어떻습니까? 조선 초기에는 금속활자를 통해 서적을 보급해서 새로운 국가이념을 공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계미자가 나왔고 경자자, 병진자, 갑인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병진자는 세계 최초의 납활자였고, 갑인자는 우리나라 금속활자 인쇄술의 완성이라고 할 금속활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활자문화가 갖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건 책이 일반 백성들에게 널리 보급되기 보다는 양반계층에게만 보급되어 지식을 소수 엘리트 집단이 독점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조선 명종 때 윤춘년이 서적을 팔고 살 수 있는 서점을 세우도록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식은 국가가 관장을 하고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서점은 아직 없었고 사대부 집을 찾아다니며 책을 팔거나 대여하던 책 거간꾼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책쾌’(冊快), 혹은 ‘서쾌’(書快)라고 불렀는데 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선 후기에 오면 고정된 장소에서 독자를 기다리며 책을 빌려주는 책대여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쾌가’(快家)는 책 거간꾼의 집, 책쾌의 집을 일컫는 말인데 언문소설을 베껴쓰고 빌려주는 일을 했어요. 17세기 후반에는 전문책대여점인 ‘세책점’(貰冊店)이 생겨났습니다.



왼쪽: 조선시대 거리에서 이야기하는 전기수. 오른쪽: 이란의 전통이야기꾼 모르셰드

하지만 책값은 여전히 비쌌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18세기에 언문소설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해주는 ‘전기수’(傳奇叟)가 등장합니다. 전기수는 이야기를 구술하면서 청중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묘사를 더 구체화시키거나 순발력 있게 애드립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수의 이야기가 어찌나 호소력이 있던지 ‘임경업전’을 듣던 구경꾼이 모함을 당한 임경업이 죽는 장면에서 그만 전기수를 죽이는 일까지 벌여졌습니다. 이야기에 감동한 어느 부자가 전기수를 양아들로 삼기도 하고, 사대부 집안의 안채에까지 드나들면서 부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던 전기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기수의 이야기에 조선 백성들이 폭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란의 전통이야기꾼 ‘모르셰드’(Morshed)는 고대이란의 신화, 고전민속 이야기들을 극장과 카페, 공공장소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연합니다. 터키에도 전통적인 이야기꾼이 있는데, 이 이야기꾼을 ‘메따흐(Medaah)’라고 부릅니다. 메따흐는 찻집이나 작은 무대 위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고 흥내를 내면서 공연을 하지요.



왼쪽: 이자람의 ‘억척가’ 포스터. 오른쪽: 극단 목화의 ‘템페스트’

우리나라에는 소리꾼이 있습니다. ‘판소리’라는 장르를 가지고 다양한 창작 판소리를 시도해온 소리꾼 이자람의 경우 판소리 브레히트 ‘사천가’, ‘억척가’ 같은 실험적인 작품들을 내놓았어요. 소리꾼 이자람이 풀어놓는 이야기에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독특한 감각이 있고 익살과 재치가 녹아 있습니다. 억척가에서는 1인 15인 역의 연기를 시도하기도 했고... 청중과 소통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2011년 에든버러 축제 때 한국최초로 연극 ‘템페스트’가 초청을 받아 공연을 했습니다. 연극인 오태석 씨의 극단 목화의 연극입니다. 셰익스피어 원작의 ‘템페스트’는 원래 배경이 이탈리아 밀라노와 나폴리인데 이걸 5세기의 가락국과 신라국의 이야기로 기막히게 바꿔놓았습니다. 극의 방법을 동양적 도술로 치환했습니다. 극단 목화는 전통극 형식으로 현대사회의 문제와 갈등을 표출시키는 독특한 연극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2. 그럼 우리 이천의 이야기꾼은?

지난 2014년 12월 이천의 단월초등학교 강당에서는 이천에서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재미난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단월초등학교 4학년 풍물반 어린이들과 이천문화원 소슬패 풍물단이 어울려 창작풍물극 ‘북하의 노래’를 공연한 겁니다. 학부모들과 동네 주민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전교생 초등학생들이 관객이었습니다. 여섯 마당으로 이루어진 풍물극은 이천을 적시며 흘러가는 북하천을 의인화해서 이 땅을 살다 간 이름 없는 백성들과 이 땅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풍물극은 이천을 상징하는 4개의 이미지를 끌어와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게 합니다. 북하천, 구만리뜰, 수여선, 그리고 설봉산성의 이미지가 무대 뒷배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이천의 역사와 함께 흘러온 북하는 바로 이천사람들 자신이고 그래서 “북하야, 북하야!” 하고 부르면 학생들은 “네!” 하고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삼국시대에 설봉산성을 쌓기 위해 산과 들에 널린 돌들을 어깨에 둘러매고 축성하는 모습, 일제 강점기에 수여선 철도로 이천에서 수확한 쌀이 수탈되어 실려가는 모습,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구만리뜰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며 풍요의 땅을 선사했던 복하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 풍물극은 이 땅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왼쪽: '복하의 노래' 공연에 참석한 단월초 어린이들. 오른쪽: '경기민속문화의 해' 선포식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이천거북놀이 질라아비 이일규 씨

4월 11일 경기도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경기민속문화의 해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지요. 선포식 행사로 마당놀이 판이 벌어졌는데 양주별산대놀이와 이천거북놀이가 선을 보였습니다. 거북놀이는 경기 남부와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전승되어온 민속놀이입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50호로 지정이 되어서 이날 초청을 받았습니다. 거북이는 무병장수, 만복을 가져다주는 신령한 동물입니다.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벽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수숫대를 벗겨서 거북 모양을 만든 다음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 농악대와 함께 마을 가가호호 돌아다니면서 복을 빌어주는데 여기에 '질라아비'라는 길잡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북놀이의 이야기 흐름을 끌고가는 거지요. 소리꾼인 겁니다. 그런데 이날 질라아비가 거북놀이 '밖'으로 행군을 했습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이런 책이 있잖아요, 한비야가 쓴.

거북놀이 공연이 모두 끝났는데 질라아비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마이크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행사 사회를 본 겁니다. 말하자면 판소리 행사진행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방식의 판소리 행사진행이 굉장히 실험적이기도 하고 관객들의 주의집중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질라아비를 맡은 이일규 선생님은 단연 최고의 MC(사회진행자; Master of Ceremonies)였습니다.

3. 우리는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가

최근 들어 ‘아카이브’(Archive)란 말이 우리 사회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 하면 ‘기록물 보관’, 기록물 보관소’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보면 조선시대에 실록을 보관하는 사고(史庫)가 있었잖아요. 그게 일종의 아카이브인 거지요. 로마시대에도 집정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작성된 문서를 보관, 보존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온갖 종류의 기록물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지역의 역사를 위해 가지고 있는 기록물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조선시대에 정부가 책을 양반계층에만 보급했다고 했잖아요. 지식을 독점하고 통제해온 거지요. 중앙집권체제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어서 우리가 지역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중앙관료나 지방에 파견되어온 관리가 써놓은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지역의 역사, 주민의 역사, 진정한 주민자치를 하려면 주체적으로 이천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지역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형태의 자료란 무엇일



까요? 그 지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록들입니다.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 그들이 겪었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그들의 기억과 증언들, 소송이나 재판기록들, 그들이 보존해온 옛 사진앨범, 들과 논밭에서, 그리고 일하면서 불렀던 노래, 그들이 기록한 농사 일기, 가계부, 업무일지, 봉급명세서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를 기록한 녹취기록들, 그림이나 스케치, 그리고 그들이 재현해 놓은 음식이나 춤사위, 손으로 만든 물건들도 그 시대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입니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자료들이야말로 지역문화를 생동감 있게 전달해주고 주체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록물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지역에서 기존의 문화재 개념으로 분류되지 않는 형태의 유물이나 기록물, 그리고 비지정 무형문화유산 등에 대한 조사, 정리 작업을 해서 이를 기록하고 메타자료화 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현실은 이런 새로운 영역의 메타데이터²⁸⁾를 기록하고 생산해내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의 개념, 문화의 범주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문화재’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게 문화재로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상을 보여주는 물건이나 예술, 문화 같은 것이 이제는 문화재로 이해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화유산의 개념은 전통문화의 발굴, 보존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이것을 물려줄 것이냐 하는 상속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커다란 변화의 의미를 읽어내기도 힘들고 또 따라가기도 버거운 게 오늘날 지역의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역에 대한 기록을 복원하고 또 앞으로 기록을 해야 할까요? 고작해야 과거의 읍지류, 문집류를 찾아보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겁니

28) ‘메타데이터’라는 것은 그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 대한 속성정보라고 할 수 있다.

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그 시대를 몸으로 겪으며 살아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의 삶의 내용이 곧 우리 지역의 소중한 기록인 겁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요. 그러니 이분들이 하나하나의 살아있는 도서관인 겁니다. ‘휴먼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지요.

휴먼라이브러리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지역 도서관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주 신선한 발상에서 시작이 되었지요. 지역에 왜 독특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요리를 잘 하신다든지, 약초에 대해서 잘 아신다든지, 농사를 그 지역에서 수십 년 해오셔서 농작물 재배에 도가 트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경험과 삶의 지혜를 대출해서 실생활 속에서 전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인 인적 자원들을 책으로 보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생업기술과 체험들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통해 그런 좋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 마포에서 운영되는 숨쉬는 도서관, 서울숲 청소년 리빙라이브러리, 수원시평생학습관이 운영하는 휴먼라이브러리수원 같은 게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도 이런 살아있는 책을 발굴해서 네트워크할 필요가 있어요.

4. 지역의 이야기가 주목받기 시작하다

21세기를 지식정보화 사회,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사회라고 말합니다.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ITC)이 발달하고 네트워크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시민들은 일방적인 정보의 수혜자에 머물러있지 않고 이제 스스로 정보를 생산해내는 생산자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공영역에서 생산되는 기록 이외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소통의 기록, 민간영역에서 산출되는 다양한 일상 활동의 기록, 그리고 그밖에도 새로운 형태의 기록들이 속속 등장

하면서 이제는 기록물이 ‘공공기록 중심’에서²⁹⁾ 그 사회를 충실히, 그리고 다양하게 반영하는 ‘민간기록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의 변화를 잘 읽어내야 합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기록 작업의 예를 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업 기록, 인도, 파키스탄 같이 그 지역 출신들이 만드는 기록, 그리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나 집단의 기록, 노인층의 기록, 소수자에 대한 기록 등 그동안 무시되어왔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와 역사를 기록 작업을 통해 다시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나 공동체 위주의 기록 작업이 전문적인 기록 작업 오픈소스 프로그램³⁰⁾을 기반으로 천 개 이상이나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록작업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 테리 쿡(Terry Cook)

기록작업의 새로운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테리쿡(Terry Cook)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지요. 이제껏 보관해온 기록과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기억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총체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만일 우리가 보관해온 기록이 극히 일부이고 그 기록마저도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가치와 관점에 따라 취사선택된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기억도

29) 유럽에서는 모든 공공영역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다.

30) 전문적인 오픈소스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 아키마티카(Archivematica), 아툼(AtoM), 오메카(Omeke)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이다. 관련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 쓸 수 있다. 영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공동체 아카이브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이트도 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을 남기고 그 밖의 것들은 망각의 강으로 내던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지역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복원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남겨진 기록은 무엇일까요?

싫든 좋든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남겨진 기록들은 우리를 제한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길고 긴 세월동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배제하고 주변화시켜서 어느덧 우리자신과 떨어져있습니다. 남겨진 기록들을 연구하고 분석해보지만 그 기록이 정작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알려주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은 그들의 기록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관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관점으로 취사선택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기록의 여기저기에 흩어진 기억의 잔재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지역에서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5. '경기도'는, '이천'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가?

우리 이천의 현실은 어떨까요? 지역성의 중요성을 얼마만큼 절실하게 깨닫고 있을까요? 지역주민이 스스로의 눈으로 지역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관 중심의 기록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영역의 기록 중심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천이 지배 권력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천의 기록 작업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천의 사회상과 주민들의 일상성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천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이천의 정체성을 말하기에 앞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겪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을 이천도 똑같이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이해의 맥락에서 논의한다면 경기도는 서울을 떼어내고 말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우선 ‘경기’(京畿)라는 이름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경기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1000년 동안 붙여진 지명입니다. 중국의 주례에서 도성 사방 1천리의 지역을 ‘왕기’(王畿)라 했던 것처럼, 당나라에서 도성 안을 ‘경현’(京縣), 도성 밖을 ‘기현’(畿縣)으로 구분한 행정제도를 모방해서 고려 성종 14년(995년)에 6개의 ‘경현’, 7개의 ‘기현’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종 9년(1018년)에는 이 지역을 묶어 경기(京畿)라고 불렀습니다. 이 때를 경기제도가 시행된 원년이라고 본다면 3년 뒤인 2018년은 ‘경기천년’이 되는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천년의 역사를? 아니면 인구가 1200여만 명으로 2014년부터 서울의 인구를 넘어선 것을? 일리가 있습니다. 천년동안 경기도는 늘 서울의 주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넘을 수 없는 서울을 드디어 넘어섰다니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경기도의 정체성과 그 내면에 숨어있는 충동과 욕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기가 지리적으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서울에 버금가는 행정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경역에 사는 주민들도 중앙에 편입되는 특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은 거지요. 그렇지만 경기도는 자기 내부에 결코 넘어서서는 안 되는 금지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지방에 대해서는 수도권으로 서울과 같은 지위를 누리지만 결코 서울을 넘보아서는 안 된다는 금계입니다.

경기도는 지금 무엇을 기록하려고 하는 걸까요? 경기도는 과연 무엇을 기

록해야만 하는 걸까요? 경기도는 정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경기도는 어느덧 서울이 힘을 잃자 늘어난 인구를 자랑하고 예산규모를 자랑하면서 또 다른 권력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중앙권력의 주변을 기웃거리며 수도권이라는 지배층적 사고방식을 아직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시선을 내부로 돌려볼까요?

경기도가 오래도록 서울에 가졌던 피해의식이 경기도 내부에서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구역 같이 중첩된 규제에 따른 주민생활의 피해, 농촌지역과 신도시지역 간의 갈등, 사회양극화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이 경기도에서 심화되고 있습니다.³¹⁾ 경기도는 과연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경기도의 미래와 다른 지역의 상생을 위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제 경기도는 또 다른 천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시선,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개발과 보존, 인간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서로 대립하는 구조에서 만들어진 원심력을 이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6. ‘경기도’와 ‘이천’이라는 한계 돌파하기

이제 ‘경기도’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경기’(京畿)라는 지명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지난 천년동안 이 지역을 살아온 주민들에게 씌어온 경기도라는 굴레를 벗어던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의 퀘벡 주는 그 지역의 정체성과 발전을 위해 캐나다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묻는 투표를 여러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31) 더 큰 문제는 경기도의 인구집중이 단순히 인구집중화에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복지, 산업 관련 시설들이 병행하여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데 있다. 더 나아가 집중과 집적에 따른 이익은 수도권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지만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집중에 따른 비용과 불이익은 사회에 전가되거나 경기도 내의 비수도권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지난해 9월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제주도는 2005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로 갈 것을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했지요. 그 결과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인 정책결정과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어느 정도로 지방자치의 의지를 가지고 있나요? 서울의 주변부로서의 광역이 아니라, 이제는 서울 없는 경기도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지난 천년의 세월동안 경기도는 서울 없이 존재할 수 없었는데... 더구나 근대와 산업화 사회를 거치면서 여전히 서울의 주변부로 성장해온 전력과 경제적 종속성을 생각할 때 그런 일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아닐까요?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기나긴 세월 동안 서울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었고 서울 사람들이 잘 살아야만 경기도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경기도가 서울에 달린 것이 아니고 서울의 모든 것이 경기도에 달려있습니다. 서울의 천만 명 시민들의 식수원과 그들이 먹는 먹거리, 그들이 소모하는 전력과 도시기반시설, 그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처리... 어느 것 하나 경기도라는 기반이 없이는 하루도 유지되기 힘든 구조 속에 놓여있는 겁니다.

서울 없는 경기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경기도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경기도 안에 여러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지역들은 경기도가 있기 전부터 있어왔고 경기도가 생기고 나서도 그 지역의 주민들은 줄기차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온 그들의 지역이건만 그 지역에 대한 기록들은 그들이 남긴 기록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파견된 관료들이 남긴 기록이 대부분이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런 성격의 기록들에 의존한다면 이렇게 해서 구성되고 재현된 지역의 역사가 과연 우리들의 삶과 일상을 온전히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7. 낙후지역이라고? - 개발의 관점, 도시의 관점 벗어던지기

농산어촌을 낙후지역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익숙합니다. ‘낙후지역’이라고 하면 개발에 상대적으로 뒤쳐진 지역이나 도서지역, 산간오지, 접경지역 같은 곳을 말하지요.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입니다. 이런 낙후지역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인구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도 위축되고 그래서 활력을 잃어가고 분위기가 매우 가라앉아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후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균형발전 개념과 마찬가지로 다분히 그 지향점에 있어서는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건 아닐까요? 낙후지역이 규모가 큰 국책사업이나 기업을 유치해서 도시지역으로 도약하지 않고서는 낙후지역을 졸업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개발의 관점, 도시적 관점이 아니라 생활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낙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빈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도시, 경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생태적 환경 속에서 주민이 공동체적으로 살 수 있는 마을과 지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많은 미래학자들이 우리 사회가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산업사회, 하드웨어 중심의 사회에서 유연하고 콘텐츠가 풍부한 사회로, 그리고 감성을 중시하는 사회, 꿈과 감동을 주는 사회로 나아간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콘텐츠와 소재가 되는 것이 바로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지역의 이야기라고 하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담과 전설 같은 것만 우선 생각하는데 현재 그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 일상적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채록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록이나 기록이 갖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기록의 한계를 뛰어넘어보자는 겁니다. 기록은 결국 그 기록을 기초로 해서 다시 사람들의 기

역을 재현해 낼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다시 소생시키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은 학자나 기록자의 역할이기 보다는 본질적으로 그 지역을 살아온 민중들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작업들이 의미가 있고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8. 우리가 우리 삶의 기록자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런 장황한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고있는 지역을 다른 사람들 손에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의 이야기는 주민들의 관점에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기록되고 남겨져야만 합니다. 마을지를 전문가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신탁통치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작업’이라는 게 일종의 권력이거든요.

서당, 서원과 향교,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방문화원이 하나의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과거와 전통이라는 자원에 사로잡혀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과거의 기록에 매달려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게 향토사의 실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기록들이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그 당시 사회질서를 주도했던 사회적 산물인 겁니다.

그 기록들이 그 시대의 가치를 뛰어넘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을 하는 거죠. 특히 지역에 남겨진 기록들 중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찾아보면 그 시대의 삶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의 가치를 실록이라든지, 중앙사의 역사적 기록이 미처 메꾸지 못한 부분을 채우는 부차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한 지역의 역사는 결코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연구해온 향토사는 결국 소수 지배계급의 기록을 정당화하고 그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기제로 이용되어온 거지요. 아프고 쓰리지만 이걸 인

정해야만 합니다.

기록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아직까지도 그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숙고해보면 지금 지역의 상황이 그렇지 않은가요? 특히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여전히 그 명칭에서부터 경기도는 이제껏 사회를 지배해 왔던 이데올로기에 적절히 편승해서 권력을 누리고 그 영향 속에 경기도의 기억을 재구성해보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향토사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기록과 전통에 매몰되어 그 속에서 지배권력이 생산한 기록들을 영구적으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선택하고 특정 지배계급이 생산한 기록에만 관심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분명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런 편중성과 불균형을 극복하려면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만들어가야 할 기록작업은 무엇이며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묻고 고민해야만 합니다.

한글창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백성들을 어리고 무지한 자들로 보지 않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 이를 위해서 문자를 만들고 활자를 만들고 책을 간행해서 널리 민간 대중에 보급하는 것. 지식을 중앙권력이나 특권계층이 독점하지 않고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 하지만 정말 그런 것만을 의도했을까요? 그 보다는 당시에 새로 세워진 조선의 세력을 공고히 하고 그 기반을 확고히 하려고 한 의도가 숨어있는 거지요. 그래서 용비어천가 같은 걸 만드는 거지요.

8. 다시 페르세우스로! - 나는 진정 충실한 기록자였나?

제가 첫 강의 때 페르세우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좀 생뚱맞은 이야기라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천의 이야기를 하자는 건데 왜 자꾸 서양 이야기, 서양신화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 같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 고대의 영웅 페르세우스를 우

리가 사는 이 시간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페르세우스는 절대권력의 올림포스 신들이 제공해준 무기와 방패에 힘입어 스스로의 눈으로 세상과 지역을 바라보지 않고 거울방패를 통해 메두사를 바라보려고 했어요. 권력은 늘 우리에게 세상을 직접 바라보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들이 은혜롭게도 베풀어준 도구와 무기를 통해 사물을 보고 살아가며 그들이 제시해준 지침에 따라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어느덧 중년이 된 페르세우스가 몸이 자주 무거워짐을 느끼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무슨 파킨슨병인지, 몸이 점점 돌처럼 굳어져 가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페르세우스는 돌아와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기 위해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언제 메두사가 내뿜는 치명적인 방사능에 오염이 되었는지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그에게 잊혀진 기억이 무엇이었는지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지요.



‘나는 진정 충실한 기록자였나?’

‘내가 기록한 기록들은 내가 왜 여기까지 왔으며 누가 나를 도왔고 용기를 주었으며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꼼꼼히 기록했었나?’

‘혹시 내가 기록에서 누락했던 중요한 사실들은 없었나?’

페르세우스는 문득 자기가 놓치고 만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젊은 날 메두사가 있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나왔지만 성급한 마음에 신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신들의 힘으로 메두사가 있는 곳을 알아냈고 신들이 마련해준 샌들을 신고 단번에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준비해준 투구와 칼과 방패, 그리고 메두사의 머리를 넣을 자루에 이르기까

지... 페르세우스는 정작 자신의 힘으로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회오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나의 기록에는 온통 신들의 이야기만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세리포스 섬의 사람들, 나를 안아주고 옛이야기를 들려주던 아주머니, 고향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그만 빠트렸다.’

‘그리고 메두사를 찾아 세상 끝으로 가는 여정 중에 만났던 사람들, 친척들, 님프들과 노파, 또 알게 모르게 내게 물과 먹을 것을 주고 잠잘 곳을 마련해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그들이 사는 모습은 어떠했는지 왜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못했을까?’



페르세우스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가 기록한 영웅담은 사실상 그의 이야기라기보다 그를 도운 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가 신세를 진, 신들에 대한 기록을 우선 하려다 보니 그 속에 자신이 자라온 마을의 이야기, 함께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페르세우스는 자신의 본질에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야말로 민중에 대한 기억을 털어내고 그가 보았던 진실의 많은 부분을 왜곡시켜왔던 원인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그가 세상의 다양한 현실과 가치들을 외면하려고 했는지, 왜 편향적으로 민중들의 삶과 일상의 모습을 쓸데없는 것으로 보고 기록에서 제외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명백해진 겁니다. 이제 그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인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신적인 요소를 더 강화시킬 것

인지, 아니면 자신의 신적인 부분을 내려놓고 인간들과 똑같이 흠과 약점이 있는 모습으로 그들 속에 섞여 그들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지 결단을 해야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침내 페르세우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드리워진 신적인 부분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는 기록자로서의 권력을 내려놓은 것이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민중의 삶을 들여다보게 된 거지요. 이제 페르세우스는 기록자(Archivist)로서 과거처럼 독점적인 권력을 갖고 기록하기 보다는 그가 겪은 사건에 대해서 함께 목격한 그 지역의 민중들이 말하는 이야기와 증언에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르세우스 이야기는 신들의 세계에 편입된 영웅의 신화라는 판본도 있지만 그와는 전혀 다르게 페르세우스가 인간적으로 겪게 된 수많은 경험과 다양한 민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민간전승의 여러 가지 판본도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기록 자체 보다는 그 기록이 누구에 의해 어떤 의도로 기록되었으며, 그 기록을 선택하고 보존하고 남긴 것은 누구였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기록이 우리가 가진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기록은 그 시대의 기억을 재현하는 수단이고, 그 기억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리 쿡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록물 이외에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선뜻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천에 대한 고문서, 읍지류, 실록에 기록된 그들 권력층의 기록들... 고려 말에도 똑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만이 남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삼국사기가 전부라면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바로 지역에서 전승되는 이야기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것이기에 이야기는 과거로 그치지 않고 나에게서 현재가 되며 그 이야기를 또 다시 이어감으로써 우리들의 미래가 됩니다. 그렇게 지역의 이야기는 그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삶을 담아내

며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민중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묶어내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이 바로 ‘공동체 기록작업’(Community Archives), 또는 ‘마을 기록작업’입니다.

권력에서 소외된 민중, 중앙권력의 변두리로 밀려난 지역... 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보존하고 재현할 수 있는 권리가 그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공동체 기록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권력에 의해 끊임없이 소외되어온 민중들, 평범하게 살아가는 주민들의 일상적 삶을 복원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늘 방치되어 왔던 그들의 사회적 기억을 회복해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찾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강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천의 기록자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이천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이천을 기록해야 한다.’ -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록작업은 이제 더 이상 왕조를 개창한 가문이나 개국에 참여한 공신, 권력을 독점하는 특정계급이나 집단, 그리고 그들의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만들어진 중앙집권적 기록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일방향 기록을 탈피해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 사회적 공공성을 모색하는 민간영역의 집단들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기록방식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을 구성하는 여러 공동체의 기억을 복원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 소중한 작업을 누가 해야 할까요? 기록관에게 맡길 겁니까? 대학교수에게? 아니면 전문적인 아키비스트를 고용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기록자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 삶의 아키비스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는 지역의 기록자다!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지역문화의 기록이 시작될 수 있고 우리 이천의 이야기가 풀려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9. 마무리하면서 던지는 질문들

이제 오늘로 ‘이천을 스토리텔링하다’ 인문학 강좌가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강좌에 참여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인문학의 가치가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과연 그래야 하는 건지 되묻는 힘을 길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도발적인 질문들을 자주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이천을 변화시킬만한 질문들을 한 가지씩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슬라보예 지젝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지식인은 다른 사람이 정해 놓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이 올바른 접근법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지식인이라고 생각한다...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전문가보다 근본적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지성인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진정한 통합을 위해선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표현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질문》

“우리 이천이 보유하고 있는 조각 작품이 많으면 훌륭한 조각공원을 만들 수 있는가?”

(대답1) 그동안 이천에서 국제조각심포지엄을 18회 개최를 했다. 심포지엄을 통해 이천시에 기증된 작품들이 300여점을 넘는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긴 시간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조각심포지엄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세계적인 조각공원을 만

들 수가 있다. 이제 준비를 해야 한다.

(대답2) 조각공원이란게 그저 작품만 모아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뉴욕 허드슨 강변의 스톰킹아트센터(Storm King Art Center)처럼 세계적인 조각공원이 되려면 조각공원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 무엇인지, 그런 일관된 정신과 세계관에서 작품을 배치하고 구성해야 한다..



스톰킹아트센터(Storm King Art Center)

우리 이천의 조각심포지엄은 그동안 18회를 이어오긴 했지만 아쉽게도 일관된 철학과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일정한 공간과 간격을 두고 배치한다고 해서 그게 다 세계적인 조각공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조각심포지엄을 통해 새로운 예술의 흐름과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그래야 세계적인 조각공원도 조성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질문》

“우리 이천에 도예종사자, 요장이 많으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도예도시가 될 수 있는가?”

(대답1) 이천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도예도시다. 340여 개가 넘는 요장이 이천에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도자명장들이 이천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도예산업이 전반적으로 하향곡선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신문면 고척리에 도자예술촌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천을 도자메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대답2) 이천은 도예를 도자기로만 생각한다. 생각이 멈춰있는 것이다. 왜 좀 더 다양한 시도를 못하는가? ‘도자예술’이란 그릇뿐만 아니라 도자의 물성을 가지고 어떤 예술적 표현을 시도할 것이냐, 그리고 도자를 이루는 불, 물, 흙, 공기라는 4원소를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세계의 배합과 조성, 배치를 시도할 것이냐의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천의 도예는 너무 전통에만 사로잡혀 있다. 전통을 재현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전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서 어떻게 새로운 걸 끄집어내고 창조하느냐 이런 고민이 부족하다. 그런 시도가 없으면 이천도예의 미래는 없다.

Ⅲ. 지역 기반, 주민 중심의 문화를 꿈꾸며



모든 것은 이야기다

- 세상은 이야기와 그림으로 가득 차 있다 -

민병은 | 문화집합36.5 공동대표.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원, 한국문화의집협회 상임이사 역임. 문화예술경영을 공부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현장에서 실천해온 그는 동네에서 주민들과 이런저런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생활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현장에서 새롭고 도발적인 예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천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생활 속 풍경을 담아내는 ‘미래의 유물전’을 2015년 10월 이천아트홀에서 개최했다.

1. ‘혼자’ 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이야기다

안녕하세요, 민병은입니다. 이렇게 많이 성원해주셔서 정말 놀랍구요. 제가 ‘미래의 유물전’ 준비를 하면서(말이 좀 충돌되죠?) 고민을 좀 했어요. 이천 어르신들을 만나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동안 살아오신 이야기나 생활 속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담아내야 하나,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출을 시켜야 하나 고민을 꽤 심하게 했어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가 바로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유물전도 결국 이천사람들의 생활 속 이야기를 형상화하는 거예요. 요즘엔 참 스토리텔링이란 말이 일반화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럼 왜 지금에 와서 사람들은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사실은 저희 시어머님만 해도 옛날이야기를 정말 좋아하세요. 그 옛날이야기가 정말 ‘옛날옛날 호랑이

가~' 하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몸으로 겪으셨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시는 걸 저도 옆에서 들으면 정말 재밌는 거죠.

왜 이렇게 재미있을까? 어쩌면 같은 시대를 지나오면서 저도 며느리였고 또 어머님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세대는 다르지만요.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무엇을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급하게 준비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건 나만의 '이야기', 또는 너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젯밤에 누가 까치가 우는 꿈을 꿔다고 하면 아침에 뭐라고 하세요? 반가운 손님이 오시려나보다 이러잖아요. 까마귀가 울면? 네, 흉조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까마귀를 길조로 보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꿈에 소를 보면? 네 조상님을 봤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어쩌면 '이야기'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공통감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통감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형성되는 문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이야기에 열광할까 잠깐 생각해봤는데 이동준 국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이야기를 혼자 떠들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혼자 떠드는 사람을 미쳤다고 하죠.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의 핵심이고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화두인 것 같아요.

더불어 함께하고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개인화 되어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서 '이야기'가 중시되는 것은 이야기를 통해 함께 공감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지만 결국은 문화예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과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문화예술 속에서 ‘스밈’이라고 얘기하죠. ‘스밈’, 제가 좋아 하는 단어인데 스며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그림의 역사 - 느낌을 그리는 시대로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현란한데요. 르네상스 시대 그림이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워낙 많이 회자되는 그림이라서... 보티첼리가 그린 이 그림에 나오는 인물

들은 실존하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신을 그린 거지요. 서양에서 대개 그리스 로마신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신을 인격화해서 인간세상에서 모든 일들에 관여하는 신을 얘기하잖아요. 르네상스 화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것은 이야기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인간의 모든 일들을 이야기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읽는다’ 는 얘기 들어보셨죠? 미술의 역사에서 보면 화가들이 안 보이는 것을 그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화가들은 상상을 통해서 신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고대와 중세, 르네상스 시대까지만 해도 이런 걸 그렸습니다.

그림에 보면 가운데 있는 이 여신이 ‘비너스’래요. 비너스가 아름다운가요? 비너스의 머리 위에 보시면 날개가 달린 ‘큐피드’가 눈을 가린 채 화살을 쏘려고 하고 있죠? 비너스의 아들이잖아요. 대개 큐피드가 옆에 있

으면 그 여신이 바로 비너스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숲 속 나무 사이에 시커멓게 생긴 친구가 보이죠. 바람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봄바람의 신 ‘제피로스’인 거죠. 바람을 그림으로 그릴 수 없으니까... 바로 그 옆에 여신 ‘클로리스’가 있어요. 바람이 이 여신을 데려온 거죠. 바람의 신이 이 여신을 쫓아와 겁탈하려는 모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신은 다급하게 도망치다가 붙잡히는 거죠.

어쨌든 바람이 클로리스에게 다가가면서 봄이 오는 거예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바람의 신이 입으로 여신에게 봄기운을 불어넣고 있어요. 그러자 여신의 입에서 꽃이 토해져 나오지요. 그 옆에 비너스 여신 만큼이나 아름답게 꽃의 화관을 쓰고 있는 여신이 있지요. 꽃의 여신 ‘플로라’예요. 클로리스가 꽃의 여신으로 변해서 꽃을 뿌리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의 제목은 ‘봄’(La Primavera)이에요.

그리고 요 세 명의 여신들은 ‘삼미신’인데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어요. 이 삼미신을 향해 큐피드가 화살을 쏘려고 하는 거죠. 큐피드의 아래 있는, 그림의 중앙에 있는 여신이 ‘비너스’예요. 진정한 봄의 주관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누구나 하면 머리에 쓴 모자랑 다리에 신은 날개 달린 샌들을 보니 바로 ‘머큐리’ 인걸 알 수 있어요. 그리스신화의 ‘헤르메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볼 때 이 모자와 신발을 신었으면 헤르메스예요.

전령사지요. 이 그림에선 봄의 전령사. 왜 그 ‘헤르메스’ 라고 하는 명품 있죠? 명품가방으로 유명한... 그게 헤르메스에서 온 건데, 왜 헤르메스에서 이름을 따왔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옛날에는 없는 것을 그렸어요. 신화로만 전해져온 이야기를 그림으로 상상해서 그렸죠.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바로크 시대라고 하지요) 없는 것을 그리기



보다는 이 세상에 실제로 있는 것을 그리게 되죠. 사진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귀족을 그리기도 하고 교황을 그리기도 하죠. 제가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분이 로마 카톨릭에서 유명한 교황님이시래요. 그래서 정말 근엄해 보이죠? 벨라스케스가 그린 교황 ‘이노센트 10세’ 초상입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 이런 분이 계셨구나,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그림이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그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주문한 사람이 이것을 그려달라고 하면 화가는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돈 받고 그려주는 거였기 때문에 예술가의 감수성이 제대로 들어가 있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뛰어난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느낌을 그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엔 없는 것을 그리다가 어느 시기부터 있는 것을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 시기로 넘어오면서 화가들은 사실대로 그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느낌을 그리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교황이에요.

이노센트 10세 교황인데 작가가 다르죠,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영국의 화가가 그린 거예요. 아까 것은 1650년경에 그려진 거고 이건 1953년도에 그려진 거니까. 확실히 화가의 느낌이 그림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교황이 권위의 상징인 옥좌가 아니라 마치 전기의자에 앉



아있는 것처럼 꼼짝도 못하고 갇혀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그림으로 표현이 되요.

3. 세상은 텍스트와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심우도’(尋牛圖)라고 하는 그림인데 왜 절에 가면 사찰 벽면에 그려놓은 벽화가 있잖아요. 동자스님이 잃어버린 소를 찾아 떠나는 그림을 말합니

다. 벽면을 돌아보면 까만소가 어느 장면에서 하얀소가 되는 그림도 있고, 하얀소를 찾아 다시 데려오는 그림도 그려져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저게 뭘까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제가 어렸을 때 절에 갔을 때 그랬었어요. 그 그림이 깨달음을 찾아가는 과정을 열 개의 소와 동자스님의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글을 못 읽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림으로 나타내서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어요. 주로 종교 쪽에서 많이 썼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처음엔 그림도 없었지만 그림으로 많은 걸 전달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텍스트, 글로 나오게 되죠.. 활자와 인쇄술이 발달하고 책이 대중들에게 보급되면서 글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시절이 오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말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중에 아주 유명한 ‘블레이드 러너’ 아시죠?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기계로 만든 인간 싸이보그가 인간과 공존하는

시대에 살게 될 거라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21세기 초 인류는 대단히 진화한 싸이보그를 만들어서 다른 별에 보내죠.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지구로 가져오게 하는데, 싸이보그가 너무 인간답다 보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살고 싶어.’ 근데 이 싸이보그는 수명이 딱 4년만 살고 죽게 돼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는 더 살고 싶으니까 지구로 침입을 해요. 그럼 뭐해요, 이런 싸이보그를 전문으로 잡아 폐기시키는 형사한테 붙잡히는데...

하지만 형사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분간을 못하잖아요.. 근데 분간하는 방법이 ‘이야기’였어요.. 이야기로 분간을 해요. 홍채를 딱 보면서 이야기를 시켜요. 근데 애네들의 기억 속에는 어느 정도의 기억이 있어서 얘기를 다 하는데,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사막을 지나가다 뜨거운 태양 아래 자라가 뒤집혀져서 발버둥치고 있어요. 자라는 서서히 말라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하고 홍채만 바라보죠. 정말 똑같은 인간인데.. 그때 ‘난 싸이보그다’ 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기발하죠? 그래서 인간이 싸이보그와 똑같지만, 감정까지도 다 똑같지만 최후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야기였어요. 추억이 있죠, 경험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자라가 뒤집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뒤집어주죠. 버둥버둥하고 있으니까... 근데 싸이보그한테는 그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셨죠? 사막에 버둥버둥 대고 있는 자라를 아마 이미지로 그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어찌 보면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이야기와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미지와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건 옛날 삼성로고인데요. 별 세 개. 별이 삼성이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표시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그냥 글자만 남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나하면 옛날엔 이 로고라고 하는 것이 글자체가 아니라 이상한 심벌이었어요. 아까 국장님도 이천을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그런 심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그림은 다람쥐입니다. 아까 제가 ‘까치가 왜 좋은 소식인가요?’ ‘왜 까마귀가 우리한테는 흉조인가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애가 다람쥐 인데 한 때 시티뱅크의 심벌이었어요. 근데 시티뱅크는 다국적기업이죠. 왜 애를 시티은행을 상징하는 것으로 했을까요? 맞습니다. 다람쥐가 저축의 상징인거예요 정말 제가 아는 분이 다람쥐 집을 발견했는데 도토리 22개 밤 2알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애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집을 어떻게 찾을까요? 먹이를 감춰놓은 창고를 어떻게 찾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 딴 데로 말이 썼나 모르겠는데... 빛의 각도로 자기 창고를 찾더라고요. 대단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시티은행에서 다람쥐를 심벌로 쓰다가 결국 다람쥐를 폐기했어요. 왜 폐기했냐 하면 아프리카 쪽에서는 정말 다양한 여러 부족이 있지만 어느 부족에서는 다람쥐가 뭘 상징하느냐 하면 도둑놈을 상징한대요. 맞아요. 창고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 도둑놈을 상징할 수 없으니까 이걸 폐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들어가 보면 정말 재밌고 다양해요. 그 안에는 정말 이천사람과 이천지역만의 문화가 있을 수 있고, 또 한국의 공통적인 문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새 이야기들이 담겨진 문화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의 고유한 문화가 무엇일까. 여기 이천에서 굳이 이천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이야기꾼을 길러내려고 하는데는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천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잘 담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들을 저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상상의 세계가 있구요, 보이는 현실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또 거기서 나오는 느낌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엔 문화적인 요소가 있죠.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 스페인 스머프마을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는 스페인에 있는 시골마을인데요. 혹시 스머프 아세요? 네 만화 주인공이죠. 아주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서양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스머프가 굉장한 인기였죠. 지금도 새로 방송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스머프마을이에요. 네 조금 있다 한번 보시구요. 스머프마을이 스페인의 한 동네인데요,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정말 산 속에 있는 요만한 동네예요.



원래 여기가 동네 마을 집들의 담벼락 색깔이 하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얀 집에 빨간 지붕이 있는 그런 동네. 정말 동화 같은 느낌이죠? 근데 스머프마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소니 회사가 스머프 영화를 새로 찍으면서 홍보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동네에 칠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 동네를 바꾸는 계기가 되죠. 스머프라고 하는 동화이야기, 가가멜이라는 악당이 나오고 톨톨이 스머프부터 해서 쭉~욱 나오죠. 그 쪼그마한 요정들이 벌이는 얘기들.. 개네들 마

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이 마을을 변화시키게 되죠.



‘스페인에 위치한 스머프마을이 유명한 관광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주민이 2백 명에 불과한 이 작은 마을에 지난 1년 사이 12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스페인에 위치한 이 마을은 스머프마을로 불리

니다. 고풍스러운 하얀색 집으로 유명했던 이 마을은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스머프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마을전체를 파란색으로 칠한 것입니다.

영화사측은 홍보행사가 끝나면 마을을 원래의 하얀색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종료기간이 다가오자 마을사람들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스머프마을을 구경하기 위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스머프마을 주민들은 현 상태를 계속 이어가자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인구가 2백명에 불과한 이 마을은 지난해 동안 12만 5천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현재의 마을은 스머프가 자신의 고향이라고 착각할 만큼 완벽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무려 9천 미터에 달하는 마을은 주택은 물론 묘지의 색깔까지 밝은 파랑으로 칠해졌는데요, 시청에 전화를 걸면 대기자들을 위해 스머프 주제가가 흘러나옵니다. 마을의 웹사이트에서는 스머프에 관련된 행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머프마을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고요했던 마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마을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하얀색마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은 게 2012년도였으니까 3년 전 얘기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하얀 마을로 돌아갔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아직도 건재하구요 관광객들도 여전히 이 마을을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마을에 들어서면 이 가면, 모자를 쓰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스머프 모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스머프마을의 최대호텔이 있지요. 이런 것까지...

게스트하우스까지 진행이 되면서 마을 구석구석에, 이 마을의 일상생활에 다 스머프가 스며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페인트 회사에 취직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유지보수하고 칠해야 하니까. 기업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개구쟁이 스머프라고 하는 이야기 구조의 만화영화인 거죠. 이게 이렇게 한 동네를 바꾸어 놓은 것이죠.

이게 굉장한 비약일 수 있겠지만 뭐 이천이 그렇게 변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알고 보면 이천 곳곳에도 숨은 진주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찾아내고 알아보는 눈이지요. 그래서 새로운 눈,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캐냈으면 합니다. 앞으로 좋은 이야기들로 이천만의 이야기를 꾸며 가면 재밌을 거 같습니다, 이천에서 훌륭한 이야기꾼들이 계속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문화 정체성, 어떻게 세워야 할까?

- 지역문화의 미래 가치에 대한 자각 -



임재해 | 안동대 민속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민속학연구소장을 겸하고 있다. 우리 전통과 문화가 녹아있는 민속문화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민속문화지킴이'라고 지칭한다. 실천민속학회장, 한국구비문화학회장, 비교민속학회장,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장, 문화재위원 등을 역임하고,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이사과 안동문화지킴이 일을 하고 있다.

1. 정체성을 묻는 까닭과 자기 정체성 성찰

“너는 누구냐?”

“저는 쿠파부인입니다. 시장의 안사람이지요.”

“네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목소리가 다시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제니와 피터의 어머니입니다.”

“네가 누구의 어머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선생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너의 직업이 무어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목소리와 여자는 묻고 대답하기를 계속했다.³²⁾

32) 장영희,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샘터, 2009, 193-194쪽.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네 종교가 무언지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매일 교회에 다녔고 남편을 잘 내조했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네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네가 누구인지 물었다.”³³⁾

“너는 누구냐?” 죽어서 저 세상에 가면 하느님이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쿠파부인처럼, 또는 제니와 피터의 어머니처럼 끊임없이 엉뚱한 답만 늘어놓을 것인가.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도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 사람들은 뜻밖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알지 못한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묻지도 않고 성찰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 현관 기둥에 새겨져 있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그리스의 일곱 현인 가운데 한 사람인 탈레스(Thales)가³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나?’ 하는 질문을 받은 탈레스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며, 쉬운 일은 남을 충고하는 일’이라고 대답하였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늘 인용한 까닭에, 흔히 그의 말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기 일쑤인데, 무엇보다 자기의 무지(無知)를 아는 엄격한 철학적 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소크라테스는 이 격언을 자신의 철학적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공자도 ‘정말 아는 자는 스스로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가장 무식한 사람은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잘 안다고 착각하기 예사이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 관해서 묻지 않는다. 성찰이 없는 탓이다.

하느님이나 염라대왕은 저승에 온 신참자를 향해 “너는 누구냐?” 하고

33) 장영희, 위의 책, 194쪽.

34)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로서 일곱 현인 가운데 일인자이자 밀레토스학파의 시조이다. 만물의 근원을 추구한 철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의 아버지’라 일컬었다.

끊임없이 묻는다. 그들은 절대자이자 심판자이므로 마땅히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남에게 그런 질문을 할 처지에 놓여 있지 않다. 오히려 신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나는 누구인가?”하고 자문하는 성찰이 필요하다. 학술논문이란 사실상 자문자답하는 활동이다. 연구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그에 알맞은 답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논문 집필이다. 머리말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자’고 엉뚱하게 말한 까닭도 이 때문이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어찌 남이 누구인가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묻는 이 질문은 모든 삶의 출발이다. 불교에서도 견성(見性)하면 성불(成佛)한다고 했는데, 견성이란 곧 자기 본성을 투철하게 아는 일이다. 자기 본성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찌 부처가 되기를 꿈꾸겠는가. 신학자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의 참된 기쁨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했다.³⁵⁾ 자신을 가두는 감옥은 곧 잘못 알고 있는 ‘자기’, 또는 착각하고 있는 ‘자기’를 말한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자기 정체성에 대한 포착이 긴요하다.

이처럼 동서고금의 현자들과 철학자들은 두루 자기 자신을 아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철학적 사유는 물론 학문의 앞도 자기로부터 시작되어서 가족과 이웃, 고을, 나라,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차례이다. 자기와 이웃을 알지 못하면서 나라와 세계를 안다는 것은 우물 안도 모르면서 그 바깥세상을 안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나는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자문보다, ‘너는 누구이며 당신들은 무엇인가?’ 묻는 데 익숙하다. 학자들도 자기 학문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 없이 남의 학문에 대한 비판에 골몰하기 일쑤이다. 그것도 외국학문을 인용 또는 표절해서 자기 학문인 것처럼 위장하는 학자일

35) 장영희, 같은 책, 같은 곳 참조.

수록 그런 경향이 더 심각하다.

자기 마을과 고장, 지역사회는 알지 못하면서 나라를 알고 외국과 세계를 알려고 한다. 하회별신굿에 관해 묻지 않으면서 일본의 마쓰리와 브라질의 삼바축제에 관해 묻는다. 한국의 꼭두각시놀음에 관해 묻지 않으면서 일본의 분라꾸와 베트남의 수중인형극에 관해 묻는다. 마을사와 지방사를 알지 못한 채 한국사와 중국사에 관해 질문하고, 마을의 당신화와 성주풀이를 알지 못하면서 중국신화와 그리스신화에 관해 묻는다. 자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를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관해서는 타자가 규정해 주는 대로 알면 된다고 여기는 것일까? 앞쪽이라면 자만이거나 무관심이고, 뒤쪽이라면 종속적이고 안일하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또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나날의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생명행위를 지속하는 맹목적인 존재일 수는 있어도 사유하는 존재로서 온전한 인간이라고 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남이 규정하는 대로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타율에 따르는 종살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타자의 규정을 객관적이며 과학적이라 여기는 식민주의자들이 있다. 자문화를 자기 스스로 읽으려 들지 않고 외국 이론들에 맡기는 것이 식민지 지식인의 전형이다. 자기 정체성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 스스로도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다.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확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이름도, 주소도, 직업도, 종교도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 주지 않는다. “나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사람인가?” 자기 이야기를 아름답게 할 수 있고 그 이야기에 공감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널리 확산하게 될 때, 내 정체성은 분명해진다. 이야기를 많이 알고 이야기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 역량보다 자기 스스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스스로 전설의 주인공이 되고 나아가 신화의 주인공이 되면 자기 정체성은 오롯이 확립된다.

지역 정체성도 자기만의 훌륭한 이야기를 가지는 데서 확립해야 오래 지속되고 널리 확산될 수 있다. 일화가 많이 전하는 인물이 훌륭한 정체

성을 지닌 인물로서 위인의 반열에 오르는 것처럼, 감동적인 전설이 많은 지역이 훌륭한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고 모두 가보고 싶거나 본받고 싶은 지역으로 주목받게 된다. 이때 전설은 꼭 문학적인 필요가 없다. 경험의 이야기나 사실의 이야기도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성공사례로 거론되는 특정 지역의 이야기들도 살아 있는 전설이자 훌륭한 신화가 되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구호와 지역 정체성의 어긋남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자기 지역을 홍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호를 표방한다. ‘하이 서울’은 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가벼워서 격이 떨어진다. ‘컬러풀 대구’는 선정적일 뿐 알맹이가 없고, ‘다이내믹 부산’은 목표의식이 불분명하다. 모두 영어인 것도 세종의 한글창제 뜻을 거스르고 있다. 부제를 덧붙여서 서울은 ‘세계 일류도시’, 대구는 ‘희망의 도시’, 부산은 ‘미래도시’를 내걸었다. 일류, 희망, 미래는 한결같이 상투적이고 진부한 구호다. 더 큰 문제는 도시의 구체적 실상이나 문화적 정체성과 전혀 맞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 일류도시 하면 서울이 떠오르는가. 희망의 도시가 대구라 생각되는가. 미래의 도시는 부산이 맞는가. 도시의 실상과 관계없는 빈말일 뿐이다.

이와 달리, 아름다운 우리말로 자기 고장의 자연과 문화의 실상을 개성 있게 드러낸 자치단체도 적지 않다. 강릉시의 ‘솔향 강릉’, 구례군의 ‘자연으로 가는 길’, 고흥군의 ‘지붕 없는 미술관’,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등이 좋은 보기이다. 세계 최고나 세계 일류, 무슨 수도(首都)와 같이 과장된 겉치레를 지양하며, 소박한 우리말로 자기 고장의 개성을 정직하고 알뜰하게 나타냈다. 그 속에 자기 고장의 정확한 이해와 독창적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런 가운데도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가 단연 으뜸이다. 한마디로 삼국유사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는 군위의 지역의식이 놀랍다.

일연 선사가 삼국유사를 집필한 인각사가 군위에 있어 군위는 삼국유사를 생산한 산실로서 삼국유사의 고장으로 표방할 만하다. 나는 삼국유사가 없었으면 고조선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삼국유사를 민족사의 가장 소중한 고전이라고 여기며, 우리 시대의 삼국유사를 남기려고 애쓴다.

군위는 인각사에 상인 스님이 부임한 이래 일연학연구원을 꾸리고 삼국유사 축제와 학술대회, 발굴작업, 복원사업 등을 꾸준히 해 왔다. 최근 정호완 교수를 중심으로 ‘삼국유사 가온누리’ 연구를 수행해 경북도의 3대문화권 조성사업 최우수상을 받고 정부의 관련 정책 기본계획 사업에도 포함되었다.

군위군청도 직제를 개편해 삼국유사 담당 직원을 새로 두었으며 학술·종교·문화·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로 삼국유사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삼국유사박물관을 비롯하여 신화체험마을, 향가문예마을, 민속문화체험마을, 삼국유사 이야기학교, 삼국유사학회, 삼국유사연구원 설립 등 그 추진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갓 걸치레에 그치지 않고 실속 있는 구상이 뒷받침되고 있다. 인구 2만 5000명의 군위가 삼국유사를 근거로 민족문화의 중심지를 넘어서 세계를 겨냥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꿈꾸는 데에는 그만한 연구와 오랜 노력이 뒤따른 결과이다.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처럼 구호는 소박하되 내용은 알차야 한다. 한갓 눈가림으로 자기 지역 자랑을 과대표장하는 거창한 구호는 구두선일 뿐이다. 우선 눈에 띄는 볼거리 사업의 전시행정에 치중하느라, 자기 고장의 진정한 문화 정체성을 찾아내고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실천활동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자기 지역에 문화적 보배가 있는 줄 모르고 바깥세상만 넘겨본다. 그러므로 나는 문화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자고 주장한다. 우물 안을 잘 알아야 바깥 세계도 잘 알 수 있다. 군위는 우물 안인 자기 지역문화를 제대로 포착했다. 우물 바깥을 아무리 잘 알아도 자기가 사는 우물 안을 알지 못하면 결국 자기 세계를 잃어버리는 격이다.

그런데 대부분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우물 밖의 올챙이가 되어 판

세상을 꿈꾼다. 안으로 내실을 다지지 않고 밖으로 허세를 추구하는 까닭이다. 시원찮은 대학일수록 세계 일류대학을 표방한다. 세계 일류대학은 그런 표방이 필요 없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도 그러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구호이다. 촌사람들이나 수도를 동경하지 서울사람들은 수도를 동경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원생활을 동경하여 주말만 되면 회색도시를 탈출하여 부지런히 녹색시골로 푸른 바다로 이동하느라 교통 혼잡을 조성한다. 그럼에도 이런 정체성을 표방하는 것은 지역문화의 실상과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 발상과 공감에 의한 까닭이다. 더 문제는 이러한 지역 정체성 표방은 구호로만 있고 실제로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이다.

지역문화를 안다는 것, 알아야 지킨다는 것, 지켜야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것, 정체성이 뚜렷해야 문화자원이 된다는 것, 문화자원이 두둑해야 미래문화 창조가 가능하다는 것은 거의 연쇄적 관계에 있다. 나를 알아야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지키려면 나는 누구인지 끊임없는 자기 탐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문화 정체성을 찾는 일은 지역문화를 아는 일이며, 그것은 곧 지역문화를 조사하고 탐구하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문화 정체성을 지닌 전통문화, 민속문화, 무형문화들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지역문화 조사를 장기지속적으로 하여 갈무리하는 일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면 대부분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니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상품으로 생산 가능하고 문화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문화 정체성을 제시해 달라고 하기 일쑤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다. 그런 것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아는 체하는 주장일 뿐 실효성이 떨어진다. 당장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문화 자원이 있다면 문화상품 전문가나 문화기획자, 문화산업 경영자들이 그냥 둘 까닭이 없다. 그들은 지금 그런 기발한 상품 거리들을 찾아 전국의 지역문화를 열람하고 있다. 그럴듯한 것들은 이미 상품화 과정을 거쳤다.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그 일을 직업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중요한 것은 지역문화 상품화나 콘텐츠화가 아니다. 지역문화를 조사하고 정체성을 찾고 지키며 가꾸어 가는 것이다. 그 자체가 지역문화의 가장 큰 결실이다. 하회탈과 탈춤이 상품화되면서 하회마을은 이제 살판났다고 생각하면 하회마을은 거기서 끝이다. 하회마을의 정체성을 지키며 우리시대 하회탈과 탈춤을 새로 만들어서 더 보태어가는 일을 해야 미래가 있다. 닭을 잡아 황금알을 빼내지 말고 그 닭을 기르는 것이 미래 가치이다.

아버지가 게으른 아들에게 과수원 어디인가 황금을 물어두었다고 유언했다. 그 황금을 찾아내기 위해 과수원 밭을 구석구석 갈아엎었다. 그랬더니 과수원에 황금은 보이지 않고 황금보다 더 귀한 사과 풍년이 들었다. 진정한 황금은 과수원을 과수원답게 가꾸는 것이다. 지역문화 정체성으로 무엇을 한몫 챙기려드는 순간 길을 잘못 들게 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하는 지역문화산업을 대부분 실패하게 마련이다. 빨리 성과를 거두기 위해 졸속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역문화의 상품화나 활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지역문화 자체를 조사하고 지키고 가꾸고 연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무한한 미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까닭이다.

3. 민속조사가 거둔 지역문화 유산의 성공 사례

지역문화의 잠재력은 무한하지만, 그 미래 가치를 아무리 강조해도 구체적인 사실로 입증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지역문화의 봄을 만들어야 미래문화의 여름을 전망할 수 있다. 그러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주목함으로써 현지조사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지역문화의 전통이 문화산업과 현대 문화로 어떻게 재창조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안동지역의 사례를 보기로 들어본다.

크게는 하회탈춤, 작게는 안동간고등어와 버버리찰떡 등의 훌륭한 보기

가 있다. 안동간고등어나 버버리찰떡은 한 세기 전에 융성했던 안동지역 무형문화의 전통이다. 오래 단절되었던 전통이지만, 최근에 그 명성을 되살려 간고등어 산업과 찰떡사업을 시작하여 지역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그 브랜드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안동간고등어는 코레일 열차 판매 특산품 제1호 상품으로 지정되었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외국으로 수출까지 한다.

안동버버리찰떡은 전통방법에 따라 떡메로 찰밥을 쳐서 찰지게 만든 뒤에 각종 고물을 묻혀 옛맛의 별미를 낸다. 제과점에 밀려 잃어버렸던 인절미의 전통을 되살려 전국적인 상품으로 성장시켰다. 이렇게 얻은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각종 축제를 지원하거나 주최한다. 안동간고등어의 ‘안동석빙고장빙제’나 ‘서부시장 간고등어축제’, 그리고 버버리찰떡의 ‘수능기원 누보축제’ 등이 그러한 보기이다. 무형문화가 문화산업의 성공 자원이 되고 성공한 문화산업은 다시 무형문화의 전통을 되살리거나 새로운 무형문화를 창출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

안동간고등어와 버버리찰떡은 오래된 안동의 민속이자 무형문화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 먹거리들은 1970년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현대의 새로운 먹거리 상품에 밀려나게 되어 30여 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문화되돌이 현상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사라졌던 간고등어와 찰떡이 다시 주목받으며 지역의 문화산업으로 자리잡았다. 두 문화상품은 이미 오랜 전통으로 검증된 것이자 건강한 먹거리로 재인식되면서³⁶⁾ 미래의 식문화 가치까지 지니게 되었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하회마을을 넘어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창출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세계화를 성큼 이루어낸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보기이다. 하회별신굿 탈춤이 안동의 지역문화에 머물지 않고 민족문화를 넘어 세계문화로 발돋움했기 때문이다. 지역문화가 곧 세계문화라는 논리를 넘어서 마을문화가 곧 지구촌문화를 이룬 보기인데, 그러한 운동은 세 갈

36) 간고등어는 등 푸른 생선으로서 다양한 건강 기능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찰떡은 속이 쓰린 사람에게도 쉽게 소화될 수 있는 건강음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래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탈이 문화상품 또는 관광기념품으로서 문화산업의 자원이 되고, 둘은 탈춤이 세계화되어 안동을 국제탈춤축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셋은 탈춤의 세계화와 더불어 하회마을이 민속마을로 널리 인정받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다.

마을에서 오랜 세월 잠자고 있던 하회탈은 최근에 마을의 범주를 벗어나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국보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속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단골 모델 노릇까지 하는 비약을 이루었다. 관광상품이나 관광포스터, 웃음을 상징하는 광고도안 등에 하회탈이 디자인 소재로 널리 이용되고, 앞으로 또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지 알 수 없다.

하회탈이 문화산업 도안으로 활용된 사례들만 하더라도 유명 탤런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며 각종 광고 모델 구실을 하고 있다. 하회탈은 목걸이와 빵, 초콜릿 등의 디자인에도 이용되고 앞으로 각종 도안에 이용될 미래까지 생각하면 그 문화경제의 가치는 무한하다. 하회탈이 그런 구실을 하게 된 것은 민속학자들이 탈과 탈춤을 발굴하고 연구하여 학계와 문화계에 그 가치를 널리 알린 까닭이다.

하회탈은 약 7백년 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론되는데, 다양한 문화상품으로 널리 이용된 것은 최근 30년 사이이다. 안동문화연구회 회원과 하회탈 조각가 김완배 명장이 협력하여 처음으로 하회탈을 이용한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하회탈은 그 자체로 재현되어 문화상품 구실을 하지만, 이제는 탈의 형상을 이용한 목걸이와 제과, 장승 등 다양한 공예품으로 문화상품 구실을 하고 있다.

하회탈놀이도 마을 탈놀이에 머물지 않고 지역문화로서 고을탈놀이 구실을 하였다. 일제강점기 이후 전승이 중단되었다가 1970년대 말에 주민들과 민속학자들의 노력으로 새로 복원되어 전승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기 시작하고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자, 전국적으로 여러 행사에 초청되어 공연하는가 하면, 외국공연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마을민속으로 전승되던 하회탈놀이가 지역문화에서 민족문화로, 더 나아가 국제문화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하회탈을 만들거나 팔아서 먹고사는 사람들은 물론, 탈놀이를 전수해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되고 각종 공연으로 생계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여럿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다. 안동에서 국제탈춤축제 기획이 가능하고 또 어느 정도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잡게 된 것도 하회탈놀이가 하회마을에서 전승되었기 때문이다. 하회탈춤이 국제탈춤축제 구상의 자원이자 발상의 씨앗 구실을 한 것이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문광부 최우수축제로 지정되어 한국 대표축제로 자리잡았다.

하회마을이 민속학자들의 조사연구로 널리 알려지고 탈과 탈놀이가 유명해지면서 민속마을로 지정되는가 하면, 학자와 학생들의 민속답사지로 부각되었다. 국내학자들의 답사는 물론, 세계적인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가 1981년에 하회마을을 답사했으며,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도 하회마을을 공식 방문했다. 그러자 하회마을은 문화마을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마침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데 결정적 구실은 마을 안팎의 두 가지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는 하회탈춤처럼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이 있었다는 점이며, 둘은 민속학자들에 의해 하회마을의 민속조사가 거듭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하회탈춤이 마을 안에서 불씨 구실을 하였다면, 민속학자들은 마을 밖에서 불쏘시개를 지피고 부채질을 한 셈이다.

1950년대에 송석하와 최상수 등의 민속학자들에 의해 하회탈과 하회탈춤이 처음 조사보고되기³⁷⁾ 시작하고 1960년대에 김택규에 의해 하회마을 조사연구서³⁸⁾ 간행되며 하회탈이 국보 12호(1964년)로 지정되었다. 1970년대에 지역 문화인들과 민속학자들의 조사연구에 의해 하회탈춤이 복원 공연되며, 1980년에 중요무형문화재 69호로 지정되고 1984년에 마을이 국가중요민속자료 122호로 지정되었다. 1999년에 엘리자베스2세 영국여왕, 2005년과 2009년에 부시 전 미국대통령 부자가 제각기 방문하고,

37) 崔常壽, 『河回假面劇의 研究』(考慮書籍株式會社, 1959).

38) 金宅圭, 『同族部落의 生活構造研究』(靑丘大學出版部, 1964).

2010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하회탈춤은 귀중한 무형문화유산이지만 민속학자가 조사하기 전까지 7백 년 동안 잠자고 있었다. 민속학자들의 관심에 의해 하회탈과 탈춤, 별신굿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보고서와 저서로 간행되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하회탈춤의 무형문화유산이 민속학자들에 의해 조사되면서 10년만에 탈이 국보로, 30년만에 탈춤이 중요무형문화재로, 35년만에 마을이 국가중요민속자료로, 50여 년 만에 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처럼 하회마을이 세계의 마을이 된 것은 학자들의 무형문화 조사연구가 시작된지 불과 50여 년만의 일이다. 만일 하회탈춤이 없었다면 하회마을은 민속학자들의 주목을 끌 수 없었을 것이다. 하회탈춤이 있어도 민속학자들이 민속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회마을이 주목을 끌기 어려웠을 것이다. 초창기에 하회탈춤을 조사한 민속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대단한 성과를 예측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세계문화유산 제도도 없었다. 민속학자로서 학술적 관심 때문에 조사를 한 것이다.

만일 최근에 비로소 조사를 시작했다면, 하회탈과 탈춤 모두 부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조사 시기 전후에 하회탈 2개가 분실된 것을 고려하면, 그 동안 하회탈 다수가 도난되었을지도 모른다. 하회탈춤의 연행내용은 우리 탈춤 가운데 가장 불확실한데 더욱 불확실하게 조사되어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하다. 복원이 가능해도 전승자가 사망하여³⁹⁾ 무형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 비로소 조사하기 시작했다면 그 결과가 일반화되기 어려워 국제탈춤페스티벌은 물론 외국공연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하회탈춤의 영국 현지 공연은 꿈도 못 꾸다. 하회탈춤에 매력을 느낀 영국여왕의 하회마을 방문도 보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연쇄적 과정을 고려하면 하회마을의 세계문

39) 1928년 하회탈춤이 마지막으로 공연할 때 각지역을 한 이창희 기능보유자가 1995년에 작고했다. 따라서 지금은 아무리 알뜰하게 조사해도 마지막 연행자가 작고한 까닭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어렵다.

화유산 지정은 기대할 수 없다. 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 지정도 상상할 수 없다.⁴⁰⁾ 따라서 50년 전의 민속조사가 하회와 양동 두 마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 단초를 제공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지역문화유산은 미래에 어떤 가치를 발휘할지 알 수 없으며, 지금 서둘러 조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 하겠다.

4. 탈근대의 두 방식과 미래사회의 세 전망

지역문화유산의 미래 가치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려면, 미래문화를 전망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문화가 지역문화와 거리가 먼 상황으로 간다면 굳이 지역문화 조사와 보존, 연구에 알뜰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미래문화의 전망을 알고 그쪽으로 가는데 지역문화유산이 어떤 구실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래문화를 전망하고 미래 가치를 말하는 것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로 가기 위한 것이다. 미래로 정확히 나아가려면 미래문화도 예측해야 하지만 미래로 가는 방법도 포착해야 한다. 미래를 예측해도 미래로 가는 방법을 모르고, 미래로 가는 방법을 알아도 미래문화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사실상 미래로 갈 수 없다.

미래로 간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다가올 시대로 간다고 여기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극적으로는 누구나 그러한 미래로 가고 있다.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일의 미래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극적이고 자연적인 미래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문화적인 미래로 가려면, 지금 여기의 문화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곧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화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조를 흔히 탈근대라고 한다. 그러므로 탈근대가 곧 미래로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0) 양동마을은 하회마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계획에 뒤따라 동행하여 얻은 결과이다.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경향을 학계에서는 흔히 탈근대주의(post modernism)라고 한다. 탈근대는 근대의 한계로부터 벗어나야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말이다. 따라서 탈근대는 근대의 주류 사조인 합리주의와 과학주의, 자본주의, 물질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의 새로운 체제를 기획하고 구상하는 것이다. 탈근대가 구상하는 미래사회는 근대사조와 달리 감성주의, 문화주의, 생태주의, 탈물질주의 체제를 지향한다. 한 마디로 인문주의와 만나는 것이 미래 가치라 할 수 있다.⁴¹⁾

탈근대의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위적 창출의 탈근대이고, 둘은 전통적 계승의 탈근대이다. 전위적 탈근대는 현재에서 미래를 창조적으로 구상하여 다가올 사회로 성큼 나아가는 진보적 혁신성을 띤 것이라면, 전통적 탈근대는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전통사회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이어받는 보수적 혁신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미래 창출의 탈근대가 진보적이자 전위적이라면, 전통 재창조의 탈근대는 잃어버린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자 과거를 현재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탈근대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고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단선적 진보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전통으로 되돌아가서 미래의 길을 찾는 것이다.

현재의 모순을 극복하는 길은 미래와 전통의 두 길을 함께 가는 변증법적 방식을 취하는 데서 열어가야 한다. ‘미래로 나아가는 탈근대’와 ‘전통으로 돌아가는 탈근대’는 서로 상반되는 방향 같지만 추구하는 가치는 서로 일치한다. 탈근대가 추구하는 가치는 전근대 시기의 전통문화에 갈무리되어 있는 까닭에, 가장 전통적인 것이 가장 미래적인 것이다. ‘오래된 미래’ 또는 ‘오래 된 것이 더 오래 간다’는⁴²⁾ 인식이 그러한 사유에 기초

41) 임재해, 전통 속의 미래 인식과 민족문화의 지속성 가치, 『장수사회의 인문사회적 이해』를 주제로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이 주관하는 학술대회(2014년 10월 22일, 구례섬진아트홀) 발표논문집, 25쪽.

42) 임재해, 『민속문화의 생태학적 인식』(당대, 2002), 7쪽.

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하는 일은 사실상 탈근대로 가는 문화적 자산을 풍부하게 확보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무한대의 미래를 다루는 것은 태양계의 소멸까지 추론하는 천체학자들의 몫이고, 역사학 수준의 미래를 추론하는 것은 인문학자의 몫이다. 역사학 수준으로 미래를 3 단계의 시기로 나누어서 예측할 수 있다. “하나는 단기적 미래인식으로서 문화콘텐츠의 진로를 전망하며, 둘은 중기적 미래인식으로서 문화되돌이 현상을⁴³⁾ 주목하고, 셋은 장기적 미래인식으로서 다음 세기를 생태주의 세기로 전망한다.”⁴⁴⁾

첫째 단계는 최근 2, 30년 사이의 사회변동을 근거로 한 미래 예측이다. 덴마크의 미래학자 톨프 옌센은 『드림 소사이어티』에서⁴⁵⁾ 미래는 신화의 시대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한다. 미래는 딱딱한 ‘기술’에서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감동’의 사회로 간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를 풍부하게 채워줄 수 있는 콘텐츠웨어에서 마침내 인간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휴먼웨어(humanware)가 존중받는 시대로 나아간다는 말이다. 최근 시대의 흐름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가) 하드웨어 → 나) 소프트웨어 → 다) 콘텐츠웨어 → 라) 휴먼웨어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미래사회는 ‘신화의 사회’이자 ‘판타지의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를 구성하는 소재가 신화와 같은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중요한 콘텐츠웨어이면서 또한 휴먼웨어이다. 이야기보다 인간을 감동하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는 신화의 시대 곧 이야기 산업시대로 나아간다고 전망한 것이다.⁴⁶⁾ 그러므로 미래 가치를 확보하려면

43) 임재해, 디지털 시대의 고전문학과 구비문학 재인식, 『국어국문학』 143(국어국문학회, 2006), 37쪽에서 ‘문화적 유훈현상’을 다루었는데, 이후부터는 이 현상을 ‘문화되돌이 현상’이라 일컬었다.

44) 임재해, 전통 속의 미래 인식과 민족문화의 지속성 가치, 17쪽.

45) 톨프 옌센 지음, 서정환 옮김, 『드림 소사이어티』(한국능력협회, 2000).

46) 임재해, 사이버공동체의 소통양식과 설화 전승양상의 재인식, 『구비문학연구』

지역의 이야기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보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둘째 단계는 최근 50년 사이의 문화변동을 근거로 한 미래 예측이다. 전통적인 농업사회가 해체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서구적인 생활세계를 향해 나아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제의 영향을 신문명으로 받아들이다가 해방 이후에 미군 주둔으로 미국 중심의 서구문화를 현대문명으로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잃어버린 전통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우리밀과 토종밤, 토종꿀, 토종닭, 토종돼지 등을 다시 찾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문화되돌이 현상’이라고 일컫는다.

문화되돌이 현상이란 외래의 신문화에 대한 선망 때문에 버려 놓았던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민속지식의 가치가 재인식되어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말한다. 오히려 고급문화와 현대문화의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문화가 민속문화이자 전통문화라는 자각이 일기 시작하여, 알게 모르게 잊혀진 민속문화를 다시 찾아 향유하고 단절된 전통문화를 새삼스레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문화가 미래의 첨단문화로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⁴⁷⁾

문화되돌이 현상이 전통문화로 되돌아가는 복고주의로 간주되어 배척되기도 하지만, 이 현상은 전통으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지금 여기로 끌어와서 현재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문화를 과거화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문화를 현재화하는 것이 문화되돌이 현상이다. 그러므로 전통문화는 미래에도 창조적 혁신의 자산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

문화되돌이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구체적 대상은 한결같이 지역의 민속문화이다.⁴⁸⁾ 옛날 ‘살림살이’로 돌아가려고는 하지 않아도 옛

22(한국구비문학회, 2006), 10쪽.

47) 임재해, 세계화 시대 한국 민속학의 현실적 과제와 자각적 전망, 『比較民俗學』 50(比較民俗學會, 2013), 206~210쪽에서 자세하게 다룬 내용이다.

날 ‘사람살이’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우는 아주 많다. 왜냐하면 전통 살림살이는 불편하지만 전통 사람살이는 오랜 동안 검증된 경험문화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익숙하다. 유형의 살림살이보다 무형의 사람살이 전통이 미래의 문화자산이다. 그러므로 미래 문화로 순조롭게 가기 위해서도 지역의 민속문화 유산을 조사하고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단계의 미래 인식은 100년 단위의 세기적 변화의 추세를 근거로 한 장기적인 것이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면 다음 세기인 22세기는 어떤 세기일까. 우리 세대가 경험한 세기는 20세기와 21세기이다. 경험한 세기부터 분명하게 포착해야 미래 세기의 예측이 정확할 수 있다. 20세기에 견주어 21세기는 상대적으로 문화적 창조력이 중요한 시기이자 학문적으로는 인문학문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세기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전의 19세기는 군사력이 문제되던 시기였다. 군사력을 앞세워 식민지를 정복하고 무력전쟁을 펼쳐 영토를 확장하던 시대여서 마침내 세계대전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식민지 개척을 다투던 군사력 중심의 19세기에서, 시장 개척을 다투던 경제력 중심의 20세기를 거쳐, 문화적 우위를 다투는 창조력 중심의 21세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21세기를 가리키는 시계탑은 문화 창조력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가리키게 마련이다.⁴⁹⁾

문화주의는 사실상 인간중심주의이다. 따라서 생태위기 속에는 속수무책이다. 인간중심의 문화주의는 생태학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이다. 자연히 다음 세기에는 문화 창조력보다 생태학적 지속 가능성이 더 긴요한 가치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 동안 발표한 시대구분론과⁵⁰⁾ 생태주의 체제 논의를⁵¹⁾ 이 자리에서 다시 정리하면, 인류

48) 임재해, 세계화 시대 한국 민속학의 현실적 과제와 자각적 전망, 『比較民俗學』

50(比較民俗學會, 2013), 206~210쪽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49) 임재해, 위의 글, 165쪽.

사회의 미래는 생태주의 시대로 나아가야 지속가능성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시대구분론이나 역사의식은 지나간 역사에 대한 구분과 해석에 머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역사 만들기를 실천하는 전망 제시까지 이어져야 한다.

19세기	20세기	21세기	22세기
군사주의 시대 → 경제주의 시대 → 문화주의 시대 → 생태주의 시대			
(무력전쟁)	(무역경쟁)	(문화교류)	(생명상생) ⁵²⁾

우리시대 전후의 역사를 세기 단위로 거칠게 구분하고 미래를 전망하면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리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또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시대구분론의 중요 기능이다.

금세기의 문화주의는 물론, 22세기의 생태주의 시대를 열어가는 문화도 도시사회의 첨단문화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통문화유산이 결정적 구실을 한다. 지역문화의 전통은 자연생명을 섬기며 공존하는 공생성과 자연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성을 잘 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생태계 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역문화유산의 미래 가치는 문화의 세기를 만들어갈 뿐 아니라 생태학적 미래체제를 만들어가는 데에도 긴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50) 임재해, 韓國民俗史 時代區分의 實際와 歷史認識의 展望, 『한국학연구』 1(단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4), 189~254쪽.
- 51) 임재해, 민속문화의 생태학적 성격과 문화다양성의 세계화, 『한민족연구』 2(한민족학회, 2006), 147~178쪽; 민속학에서 본 민족주의와 문화 정체성을 넘어서는 생태주의, 『한민족연구』 9(한민족학회, 2010), 31~82쪽.
- 52) 임재해, 세계화 시대 한국 민속학의 현실적 과제와 자각적 전망, 『比較民俗學』 50(比較民俗學會, 2013), 200쪽 참조.

5. 안동의 정체성과 성주의 본향으로서 미래 가치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논리적으로 아무리 주장해도 구체적인 논의에 이르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안동의 지역문화를 사례로 미래 가치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성주신앙의 본향이라는 안동문화의 정체성을 주목해 보기로 한다. 안동의 정체성을 말하는 관용구들은 안동양반, 안동소주, 안동포, 안동식혜, 안동간고등어, 안동찜닭, 안동깍쟁이, 추로지향 안동, 안동하회마을 등 상당히 많다. 무엇 하나로 한정하지 말고 안동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서 미래 가치를 찾아야 한다.

지역에서 전승되는 이야기가 지역 정체성이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이야기가 있는 안동의 전통문화유산이 중요하다. 노래로 전승되고 드라마나 영화로 공유되면 더 효과적이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면 더 바람직하다. 그러한 미래 가치를 잠재하고 있는 것이 안동이 성주신앙의 본향이라는 점이다. 성주의 본향 제비원에는 수 많은 이야기들도 전승되고 있다.

안동은 성주신앙의 본향이자 민족신앙의 메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국 각지에서 성주굿을 할 때, ‘성주의 본향은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라는 성주풀이를 노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동은 전국 유일의 민족신앙 성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성주신앙의 본향이자 성지인 제비원 현장에는 거대한 마애불과 우람한 칠성바위, 3층석탑, 연미사 등 다양한 문화재들이 있을 뿐 아니라, 역원과 미륵불, 연자루, 대부송에 얹힌 역사 전설, 그리고 세조와 세종, 이여송, 연이처녀, 목수 등이 등장하는 각종 인물전설들이 생생하게 전승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으로 성지순례를 떠날 것이 아니라, 안동으로 민족신앙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주굿은 무당이 하는 집안굿과 풍물패가 하는 풍물굿으로 두 갈래를 이룬다. 풍물굿은 정월 대보름에 지신밟기로 하는 반면에, 무당굿은 가장의 나이에 따라 성주받이 굿으로 하는데, 한결같이 집안의 평안과 번영을

비는 것이다. 성주굿에는 민속종교로서 가신신앙뿐만 아니라, 민속음악으로서 풍물, 세시풍속으로서 지신밟기, 무속신화로서 서사무가, 건축문화로서 성주풀이, 화목한 가정으로서 부부관계, 신비체험으로서 종교적 영험 등 아주 다양한 종교문화와 예술문화가 복합적으로 버무려져 있다. 그러므로 성주굿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곧 민족문화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성주신은 가옥신이자 건축의 신이다. 집집마다 가신신앙으로 섬기는 집안성주에서부터 마을회관의 동네성주, 시군 청사의 고을성주, 정부기관의 나라성주에 이르기까지 성주는 모든 건축물에 자리잡고 있는 건축신이다. 요즘 새로 짓는 현대 건축물에도 상량식을 하며 성주를 모시는 풍속이 지속되고 있다. 성주신앙은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 정서와 소망을 담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안동의 지역 전통이자, 한국의 민족 전통으로서 미래 가치를 지닌 문화이다.

안동에는 성주신앙의 성지답게 훌륭한 건축 문화유산이 가장 풍부하다. 가장 오래된 건축물 봉정사를 비롯하여, 가장 학문적인 건축물 도산서원, 가장 자연친화적 건축물 병산서원 등 지역의 고건축물이 한국 건축문화의 전통을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안동은 건축학 전공자들의 답사 1번지 구실을 한다. 우리 고향에 고건축 유산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은 건축신인 성주신앙의 성지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성주신앙과 건축물, 목수, 소나무 등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민속학과 건축학, 생태학의 복합적 연구가 기대된다.

미래 가치는 신기술에 있지 않다. 신기술은 쉽게 따라잡을 수 있지만 오래된 민속문화의 전통은 따라잡기는커녕 흉내조차 낼 수 없다. 최근에 하회별신굿탈놀이가 문화재로 지정되고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처럼, 민속문화의 독창성이 우뚝하게 주목받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문화의 대표 브랜드 구실을 하게 된다. 한국의 굿은 인도의 불교와 힌두교, 중국의 도교와 유교, 일본의 신토 등과 함께 민족문화의 전통과 독창성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종교문화이다. 그러한 종교문화의 메카가 바

로 안동이다.

미래로 갈수록 전통문화 유산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된다. 그러한 문화 유산 가운데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 안동의 성주굿이다. 따라서 안동의 문화인은 한국 굿문화의 성지답게 성주굿과 성주풀이 문화를 가꾸어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성주굿을 지역문화로 전승하고 민족문화로 재조명하는 일은 안동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자 미래의 인류문화 유산을 가꾸어 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문화발전이나 산업화의 길 모색은 모두 미래를 내다보는 일과 만난다. 문화발전은 지금 여기서 더 바람직한 내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미래 전망의 길이다. 문화 산업화는 우리가 오랫동안 누려왔던 문화를 내일의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생산적 문화기획이다. 따라서 지역문화 정체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과거의 전통을 이해하는 데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문화산업의 길을 생산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새삼스레 지역문화가 문제되는 것은 우리시대에 과학기술과 산업이 그 자체로 문제되지 않고 문화가 긴요하게 접목되어야 한다는 점이 상식화 되고 있는 까닭이다.

시민에게 예술은 왜 이로운가?

- 주민이 예술가가 되어 마을과 생활을 바꾸다 -

임승관 |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문화바람’ 대표. 인천에서 태어나서 미술을 전공했다. 졸업 후 미술과 활동을 하면서 만난 활동가들과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사회 참여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해야 시민문화도 바뀐다는 말을 싫어한다. 17년 동안 문화수용자운동과 생활예술을 통해 시민과 함께 아름다운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는 문화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문화는 시민이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1. 예술이 무엇인지 되물어야 한다

만나 뵈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제가 아까 살펴보니 ‘문화바람’ 공동체와 인천문화원이 닮은 게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생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고, 회원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나누고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그렇구요. 지역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 또 회원 수가 저희랑 비슷해요.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 ‘문화바람’은 철저히 민간에서 시작했습니다.

시민문화예술센터는 1996년도에 40~50명의 회원으로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왔습니다. 중간에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문화바람’이라고 하는 문화수용자 운동을 선포하면서 재창립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민문화예술센터가 96년부터 8년 동안은 지하 등에서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주민과 함께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동네에서 가

족적으로 지냈습니다.

문제는 아주 뽄뽄 뭉쳤지만, 숫자도 적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단체가 지역에서 존재감이 없어 지역 문화정책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 오다가 2004년도에 이래가지고는 우리도 계속 못할 것 같고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회원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원을 굉장히 늘려야 회비가 늘고 회비로 상근비와 월세도 낼 수 있잖아요. 회원이 굉장히 많으면 문화예술정책 관련 공무원 분들도 이야기를 귀담아 듣잖아요. 하지만 몇 명 되지 않으면 듣지 않아요. 너희가 누군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방법은 회원을 많이 늘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회원이 많이 늘은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꽃’과 ‘아름답다’의 결합

꽃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꽃이란 말을 들으면 특별한 슬픈 기억이 있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은 다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게 ‘꽃’이 언제부터 아름다웠을까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인간이 인류 최초부터 보자마다 꽃이 아름답다고 느꼈을까? 원시 공동체 일 때도 그랬을까... 수렵생활을 했을 때도 그랬을까? 라는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고 굉장히 저를 설득했던 이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수렵생활 할 때는 꽃이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동물을 잡으려고만 뛰어다니는데 도대체 꽃과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근데 수렵채집 생활을 멈추고 농경 정착생활을 하면서 이제 씨 뿌리고 곡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이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꽃은 이때부터 의미가 있었을 거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기 전에는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면 열매가 열리는 거고 그 연관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꽃이 피면 열매가 열

리고, 열매가 열리면 우리가족이 먹고 살 수 있겠구나를 안거죠. 꽃은 생명과 직결되면서 수십만 년 동안 아무 의미 없이 왔던 것이 그때부터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꽃은 생명처럼 소중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고 지금까지 소중한 사람한테 꽃을 주는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론이었습니다.

굉장한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문화와 예술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그런 것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미학적으로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한테 ‘선’하고 ‘이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술은 우리에게 정말 이로운건가?

이천문화원이 50여년이 되었습니다. 이천문화원에 1600명이나 되는 많은 회원이 회비를 내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왜 하는지요? 멋있으니까? 다 아니까? 문화를 안 하면 좀 미개해 보이니까? 아니면 문화예술은 무조건 좋은 거니까? 아까 ‘꽃은 무조건 이쁜 거야!’ 라고 했을 때의 질문처럼 ‘예술은 무조건 좋은 거야!’에 대해서도 과연 그런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 답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자살율, 삶의 만족도

그럼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것을 한번 봅시다. 자살율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수준과 비슷한 4개 나라의 자살률 그래프인데, 이 빨간색이 우리나라입니다. 끔찍한 것은 65세 이상 자살률이 너무 높습니다. 외국에서 이런 현상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경제적인 이유때문인가? 혹시 노인 자살을 권장하는 문화 같은 것이 있는 건가? 아니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자살을 권장하는 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삶의 만족도 지수가 꼴찌입니다. 평균보다 훨씬 밑입니다. 경제소득과 삶의 질은 내가 느끼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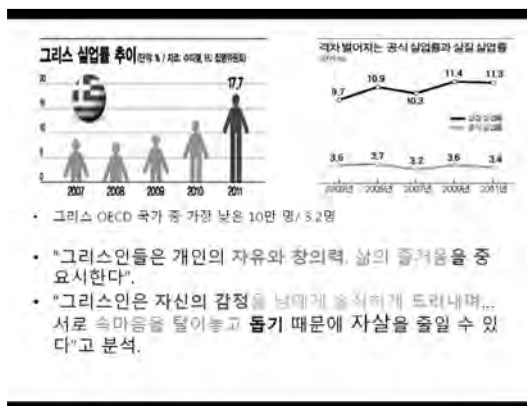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를 한번 봤어요. 이 표는 지난 2015년 2월 달에 발표한 것입니다. OECD 가입 국가 중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십대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옥상에서 뛰어 내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자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내전이 일어나는 중동에서도 이렇게 많이 안 죽습니다. 그곳에서 사고로 죽으면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 우리는 돈을 못 버니까. 취업하기 어려우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일 자살을 안 하는 나라를 살펴봤습니다. 그리스예요. 그리스에는 실업률이 17%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발표 3.4%, 공식 실업률 11.3%입니다. 그리스가 훨씬 높지요? 그런데 자살률은 제일 낮아요. 취업, 그러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 국민의 특징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것 중에서 의미 있는 것 두 개를 보았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개인의 창의와 창조력, 삶의 즐거움을 중요시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도 뒷풀이 하면 노래방 가고 노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제도 좋아합니다. 이것은 그리스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솔직하게 드러내고 속마음을

털어 놓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즉 잘 듣는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집 안 사람들이 건 친구들이건 누구에게나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살률이 줄 것 같아요. ‘그럼 그거였구나.’ ‘소통이 문제고 만나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감정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더 자살률이 위험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조사를 봤습니다. 2007년부터 12년까지 6년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역시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식’을 제일 많이 한데요. 사람들 안 만나고, 등산 이런 것도 안합니다. 집에 그냥 혼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현상중 하나가 포털사이트 인터넷에 급속하게 늘어난 것이 인터넷 카페의 변화입니다. 인터넷 카페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폐쇄 되고 있어요. 페이스북도 잘 안합니다. 이제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잡담이라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제되어 올라옵니다. 그럼 어디로 이동했냐 하면 ‘카카오톡’입니다. ‘카톡’은 자기에게 검증된 사람들 하고만 얘기 하는 거예요. 점점 남한테 받는 상처나 또는 모멸감이 건디기 힘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눈에 띄기도 싫은 것입니다. 내가 글을 올리면 ‘좋아요’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궁금해서 밤새 봐야하는 이런 것이 싫어진 것입니다. 반대 의견이라도 올라오면 섭섭하고 싫어요. 이게 너무 불편해서 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은 아는 사람들과 서로 존중하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볼 사람들인데 이상한 말 하겠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열린 공론장이 축소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역에 문화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저희가 2005년도에 생활문화예술 문화수용자 운동을 선포했을 때 굉장히 많은 작가들과 선배들이 우려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런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작가들의 문화상품이 팔리지 않는 것. 공연을 만들어도 봐주지도 않고, 그림을 그리면 와서 보지도 않고 사주지도 않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눈썰미가 있어야 뭘 살 것이고 내가 알아야 볼 것 아닙니까. 일단 ‘작가들의 작품을 알아보는 귀 명창을 만들자’ 이게 그 명분이었습니다.

귀 명창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명창이라도 그의 정체성은 그냥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귀 명창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강사도 되고 공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화산업도 키울 수 있어요. 아까 그 도자기도 그렇고 아리랑도 그렇고 막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적 감수성은 생활예술을 매개로 한, 혹은 예술을 매개로 한 동아리 안에서 소통과 배려, 호혜를 통해서만 생긴다는 거예요. 관련 대학원만 나온 사람들은 이런 게 없어요. 많이 배운 것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것이고 그곳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지요.

‘생활스포츠’는 여러분에게 더 익숙하실 겁니다. 생활체육 지원정책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사실 88년도 올림픽 이후 급성장 했습니다. 전국에 경기장, 수영장, 체육관을 아주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의도하지 않았지만 프로스포츠가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국제대회 나가서 일등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골프, 수영에서 금메달을 땀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즉 생태계가 작동하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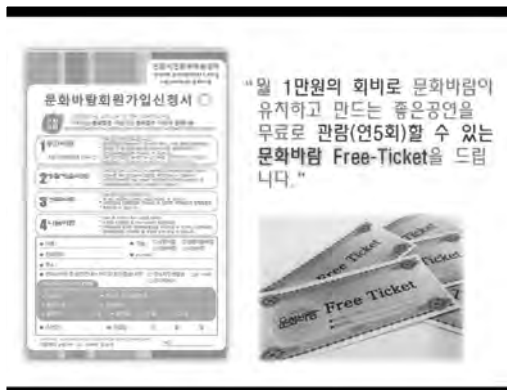
여러분들도 프로스포츠 선수 이름 웬만하면 다 아시죠. 심지어 부인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러니 선수가 어떻게 연습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객이 많아지고 관객이 많아지니 기업이 투자가치를 보게 됩니다. 이것

이 홍보가 될 것이라 판단되니 기업이 투자하게 됩니다. 기업이 투자하게 되니 양질의 훈련을 받게 되고 그러면 선수의 실력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은 더 재밌어 지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시작이 뭐였을까요. 조기축구입니다. 축구 했던 사람이 축구 보는 것이고 테니스 치는 사람이 테니스 관람을 합니다. 테니스 안치는 사람은 절대 안봅니다. 안치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되게 재미없어요.

문화바람의 저변확대 운동

이렇게 문화생태계를 만들려면 저변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회원 카드를 만들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인천은 문화예술 공연이 잘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만원씩 내서 그 돈이 모이면 양질의 공연을 인천에서 공짜로 봅시다.’ 라는 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천에서 성공한 거예요. 인천에서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인천에는 공연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사들도 인천에 가면 망한다는 게 정설이었어요.

그래서 인천은 광역도시인데도 문화예술공연 전국투어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에요. 250만 인천 사람들은 문화 유목생활을 했습니다. 공연하나 보려면 애들 데리고 가방 들고 서울로 갔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일 년도 채 안 돼서 우리 회원이 3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공연에 인천시민 1600명 왔습니다. 회원 400명 빼고 나머지는 모두 돈을 내고 공연을 봤습니다. 물론 회원들은 공짜로 봤습니다.

그 공연이 있는 뒤에도 회원은 계속 늘었습니다. 회원이 늘어나면서 동

아리가 급속도로 팽창했습니다. 동아리 회원이 늘어나니 연습공간이 좁았습니다. 십시일반 돈을 걷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50평이 좀 안 되는 공간에 방음실과 회의 등을 하는 마루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임 전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부엌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부출자나 지원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아리 대표들로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이 운영위원들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고 있습니다. 회원 스스로 공간과 사업에 대한 창조적인 자율성과 책임의식은 방침이나 지침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화바람은 회원들의 주인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정된 작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려면 회원의 자발성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의식을 높이려면 실제로 주인이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업기획과 재정운영에 대한 참여와 통제권한이 있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런 권한이 없으면 주인으로서 자발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기획과 재정을 관리할테니 여러분들은 결정 난 사업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바랍니다.’ 이런 사업형식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아무리 친절한 관계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져도 주인으로서의 창조성과 특히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극복하는 책임의식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강사도 중요합니다. 강사는 공동체를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기능숙련을 위주로 끌고 갈 수도, 관계를 중시하는 공동체로도 그 성격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연습을 어느 정도하면 발표도 중요합니다. 자존감과 정체성을 인정받고 느끼려면 권위 있고 훌륭한 시스템을 갖춘 발표 공간이나 장이 있어야 해요.

동아리란 이런 것이다

문화바람에서는 ‘끼까뻘쩍 시민축제’를 10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는 무대에 설 수가 없습니다. 대신 도와 줄 수는 있어요. 이때 문화바람에 속하지 않은 다른 동아리들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

니다. 이때 그 사람들과 함께 동아리연합을 만들 수도 있어요.

동아리를 참여하는 사람에게
는 공통된 사항 같은데 처음엔
‘내가 동아리에서 활동해야지’,
‘붓글씨를 배워야지’ 이렇게 시
작했을 때는 만족의 원인이 자
신입니다. 내가 옛날에 하고 싶
었는데 못했던 것을 하면서 만
족을 느낍니다. 우리가 살 빠려
고 1월 1일에 휘트니스에 예약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뿌듯해하

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일정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근원이 바뀝니다.

바로 함께 모인 사람이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다니! 이해관계
없이 진심으로 위해주는 저 언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때부터 나의 속마음을 다 말해도 창피하지 않아요. 여기 안에서는 직업
과 상관없이,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우리는 같은 동아리 구성
원으로 당당하게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
적인 경험이나 생각이 모두의 문제인 공적인 것으로 바뀌어 소통을 하는
경험도 이때 이루어집니다. 공론장을 경험합니다.

경쟁과 소비가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입니다만 현대인에게는 점점 자기
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공유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 없어집니다. 직장에서
도 집에서 사람들도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 줄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자신을 솔직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편한 공간을 제3섹터라고 하
는데 사실 이런 기능을 옛날에는 작은 교회 등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도 대형화 됐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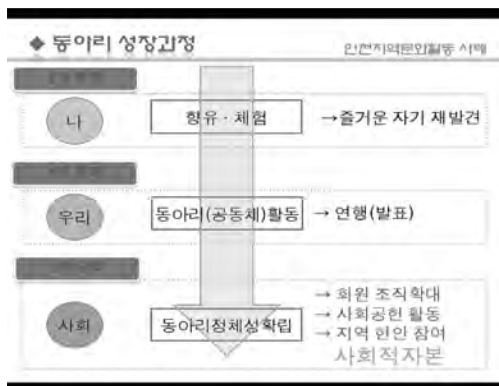
좀 과장된 이야기지만 남자들에게는 술집이 이 기능을 했어요. 단란하
게... 거기 가서 돈을 내면 내 얘기 다 들어줘요. 그리고 또 오면 ‘아 그때
그 얘기 어떻게 됐어요?’라는 배려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 술집도 망했고 나도 살기 힘들어서 못가요. 그럼 속상하고 답답한데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을까요?

이 역할과 기능은 생존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는 중년들은 ‘나는 이 사람들과 평생 함께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만 행복할 수 없어. 우리만 행복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함께하자. 고아원도 가고 지하철역에도 가고 어디도 가서 우리 이렇게 행복해 질 수 있는 것을 자신 있게 알리자”라고 하는 게 사회공헌인데 이런 현상은 보통 3년이 지나야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성한 동아리한테 지원요건으로 사회공헌을 넣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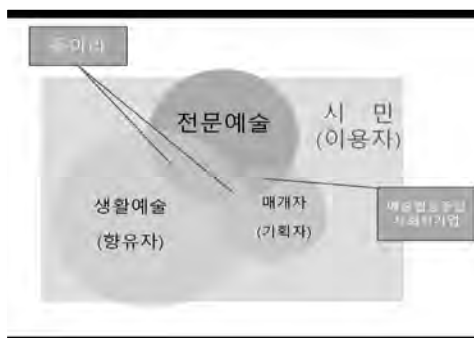


사회공헌은 함께 결정하고 나가는 사람과의 신뢰 정도가 높아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간에 단단한 결속과 믿음이 있어야 해요. 내가 남들 앞에 노래를 할 때 안 틀리겠다는 기능적 수준의 완성이 아니라 나랑 함께하는 사람과의 믿음과 신뢰로 나가는 거예요.

2. 생활예술, 마을과 주민에게도 아름다운가?

전문 예술가와 생활예술가라는 다른 범주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부터 일어나는 현상인데 ‘예술가’와 ‘매개자’라는 전문가가 만나면 예술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술가도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전문예술가’와 ‘향유자’가 만나면 ‘동아리’가 생기고 ‘매개자’, ‘예술가’, ‘향유자’가 만나도 ‘동아리’가 생깁니다. 우리 문화바람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 잘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요. 제가 볼 때는 배우는 게 목적의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뒷풀이가 목적인 거 같아요...



거기서 서로 얘기하고 위로 받고 챙겨주고... 예를 들면 생활에서 느낀 소소한 공유. “우리 유모차 안 쓰니까. 네가 써.” 이런 거요. 그런 호혜적인 관계에 속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천문화원도 안정적인 연습공간이 낡아서 새로 지어야 할 거라

고 들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낡습니다. 이게 제3섹터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지트예요. 너무너무 속상하면 확 떠오르는 나만의 공간이 여기여야 하는 거예요.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든 곳에서 빠져나온 느낌을 갖는 곳이지요.

좀 더 나아가 ‘오너쉽(ownership)’이 있으면 이곳을 거점으로 창조적인 지역사업이 가능해 집니다. “여기 제2강의실에서 주민은 위해서 김장을 하고 싶은데!” 냄새나는 그런 건 이곳에서 하면 안 된다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곤란해 질 수 있어요. 동아리에서 우리 마을에 필요한 독거노인들을 위해 김장을 담가 주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해야지요.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두부를 만들고 그걸 주민들이 사 먹으면 좋겠다! 이런 결정이 실행되는 겁니다. 이런 역동성은 자기 공간일 때 가능합니다.

지도교사, 강사의 영향력은 굉장히 큼니다.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지만 경쟁적인 기능을 중시하면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배타적인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플룻 동아리였는데 준비물이 천만원짜리 플룻이라고 하면 아무나 오지 말라는 거죠. 생활체육도 동아

리별로 종류에 따라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1, 2등하면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오디션을 본다고 하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오면 우리가 지잖아요.

생활예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프로 예술가들은 그런 것을 감수해요. 전문프로 예술가들은 예술작업을 하기 위해서 생활을 포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귀 자르는 거예요. 그림 그리다 말고 애들 처자식 다 두고 타이티 섬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본 생활예술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생활예술은 우리 애가 아프면 어떻게 되나요. ‘나 한 달 쉴게’ 바로 얘기 합니다. 즉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합니다. 생활예술과 전문예술은 그렇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케아와 케이크믹스의 사례

다음은 자발성과 주인의식에 대한 좀 다른 예입니다. ‘이케아’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케아 만들어 보신 분 계십니까! 이케아 가구는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습니다. 만드는 과정이 즐겁지도 않아요. 이것을 하루종일 만들고 있으면 아이와 집사람이 굉장히 한심하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다 만들면 어떤 가구보다 애착이 갑니다. 은근히 닦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품에 개입을 했으니까요.



다음은 ‘케이크믹스’라고 하는 거예요. 1974년에 처음 생산된 제품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칼국수나 수제비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이 케이크를 만들어 먹어요. 손님에게 자주 만들어 대접합니다. 이것에 착안해 만든 것이 케이크믹스입니다. 재료에 물만 붓고 섞어 오븐에 넣으면 케이크가 완성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게 안 팔렸어요.

희한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원인조사도 하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뭘 했나하면 재료 성분에서 계란하고 식용유를 뺐어요. 소비자가 넣으라고. 그리고 나니 내가 계란을 하나 더 넣고, 올리브유를 넣을 수도 있는 창조적 개입이 가능해 진 겁니다. 이제는 오븐에서 땡 하고 나오면 “먹어봐 이거 내가 만들었어, 맛있을 거야.” 할 수 있고 “어! 맛있네!”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맛없다고 해도 나랑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과정에 개입을 할 수 있으니까 보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업에 주인의식을 갖게 하려면 개입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별걸 다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 따로 꾸려서 혹은 대위원에서 결정해가지고 통보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발성이 안 생깁니다.

문화원은 주민에게 무슨 의미인가?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문화바람은 주변 주민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문화원에 오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오는 분들처럼 물리적으로 못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개입할 수 있게 만들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진처럼 아마도 어디에나 이런 곳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문화바람 바로 인근입니다. 10년 이상 이곳은 불법 쓰레기 투기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지역마다 한 두 곳은 다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저길 바꿔보자는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바쁘신 분과 연령층 높은 분들을 위해서 그림 설문지로 만들었어요. 아까 그 쓰레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걸 화단으로 만들까요. 담장으로 할까요. 쉼터로 만들까요 선택하게 말이죠. 게다가 그림을 보고

선택하게 하면 아무리 바빠도 금방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설문지를 돌린 거죠.

그 쓰레기를 보아야 하는 지역주민 4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두 가지로 추려 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다시 4가지로 자세하게 나누어 설문을 다시 받았습니다. 주민은 이제 두 번 개입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설문엔 그냥 지나가던 일이 이제는 설문하던 할머니가 “우리 집에 흙이 있어.” 흙을 기부하고, 만원씩 기부를 받으니 꽃가게에선 꽃으로 기부하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틀도 안돼서 완성 됐어요. 참 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 위의 기와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마침 석가탄신일 일주일 전이라 스님이 보시곤 기와를 기부하셨습니다. 쌓는 방법 몰라서 어찌어찌 해서 쌓았어요. 그런데 작은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쓰레기가 쌓여 있던 곳인데, 그 흔한 쓰레기가 계속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저도 맨날 그곳을 다니는데 저는 사실 쓰레기가 보이면 줍습니다. 왜 줘냐 하면 설문 할 때 11명이 의견란에 ‘그거 화단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의식이 변해야 된다. CCTV를 달아야 해결된다’. 이랬습니다.

사실 참여주민 모두가 이 의견에 모두 공감하지만 나는 벽화로 했으면 좋겠다는 등 세부사항을 체크한 것입니다.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 되고 나니까. 화단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종이컵이 있으면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거봐 안 된다고 했지!” 아~ 묘한 책임감이 발동합니다.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스스로 쓰레기를 줍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저 말고 1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개입해야 자발성과 주인의식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가 1년이 지난 지금도 깨끗해요. 만약에 저기를 정부에서 지원 받아 예술가들이 참여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했다고 칩시다. 지원 받아서 전문가들이 하면 더 멋있겠죠. 그러나 거기엔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스토리’입니다.

동네에 딸이 방문해서 “엄마 저거 이쁘다.”하면 엄마가 딸한테 할 얘기가 한 3분은 되요. 저거 흙 갖다 준 할머니도 내가 아는 사람이고 저거 기와 올릴 때 어떻게 했네 하면서요. 그런데 프로젝트 사업으로 돈을 더 많이 들어서 더 멋있게 하면 그 할머니가 할 얘기가 있습니까? “몰라” 이겁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있으면 주울까요? 안줍지요. 계속 쌓이면 두고두고 보다 민원 넣어요.



‘개입’이라는 것은 자발성과 주인의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후 옆 마을 주민들이 전봇대 주변 쓰레기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또 설문을 했어요. 설문지 결과는 상상을 넘는 파격적인 안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전봇대를 뽑아 이전 하는 것 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주민들은 저것을 20년 이상 겪은 분들입니다. 여기에 쓰레기가 모이는 원인은 전봇대입니다. 옛날에 화단도 만들어 봤었는데 나중에 쓰레기 때문에 화분이 안보이게 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문을 하고 방법을 알아보았더니 정말 방법이 있었습니다. 주민 몇 명이 서명 받아서 한전에 서류를 제출하면 저 전봇대가 옮겨지더라고요. 아~ 지혜는 이런 거구나 했습니다.

문화를 매개로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자 마을 현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마을에는 주민들과 상인들이 있는

데 이해관계가 조금 달라요. 상인들은 여기 돈 벌러 오는 곳이고 주민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갑을 관계는 아니지만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해결을 하면 마을주민들에게 이 공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 수십만 년 동안 아무 의미 없던 ‘꽃’처럼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공간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문화를 매개로 마을공동체는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만든 두부, 콩나물을 주민이 구매하여 더 이상 종이박스 줍지 않고, 마을 담장이 없어지고,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일들 속엔 우여곡절, 갈등과 해결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축제로 녹여 놓으면 됩니다. 우리 옛날에 강강술래 부르며 축제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마을 축제를 외부사람들이 와서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저 대목에서 숙연해지는지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 저거 지난 4월에 우리가 대판 싸운 것이 잘 해결된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게 마을축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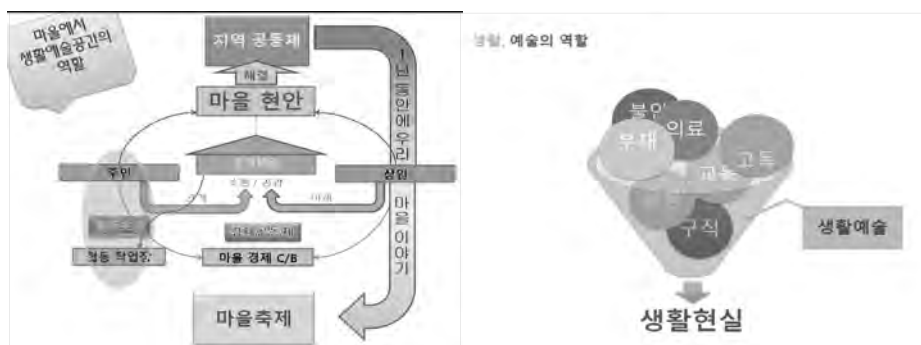
3. 자생적 생활예술 활동은 스스로 지속가능한가?

이런 생활예술활동은 재정자립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가? 문화바람 경우에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늘어나면 회비도 물론 늘어납니다. 그러나 월세 늘어나는 속도를 절대 쫓아 갈 수가 없어요. 회원이 대부분 같은 시간대에 오니 장소가 더 많이 필요하고 월세도 함께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커뮤니티가 생기면 정부의 돈을 빌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단 전세나 구입자금입니다.

시 금고나 정부가 사회적 금융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리고 장기 저리로 대출을 갚습니다. 회비나 자력으로 20년 15년 장기 저리로 갚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우리 모두의 공공 공간이 되는 거예요. 위탁이나 월세지원 같은 제도와는 느낌이 완전 다르죠. 우리

가 정수기 렌탈해서 3년 사용료 내면 내꺼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개 택시와 영업택시 어느 것이 더 화려합니까? 저는 지방에 내려갔을 때 개인택시에 나이트 가면 있는 밀러볼 있는 것을 봤어요. 내 것이면 창의 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가 생기면 처음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만 갚아나갑니다. 자세히 보면 기존의 정부 돈은 그대로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과 같습니다. 은행도 위험이 없습니다. 일정기간 원금과 이자 받아요. 나중에 이 단체가 해산하면 공간을 팔아 회수하면 됩니다. 손해 보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경제형 마중물 지원제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마지막으로 예술이 ‘꽃’과 같은 유용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많은 생활 속 난관들이 있습니다. 교육, 아이 돌봄, 구직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예술’도 있습니다. 급하지 않아 좀 뒤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을 통해서 전체의 난관을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술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로 모여서 잡담하고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서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활예술로 모였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누구나 얘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특정한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소집되면 얘기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회적 지휘와 경험이 달라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예술은 모두의 개입과 창조적인 참여로 지역을 바꾸고 삶의 질을 스스로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천을 스토리텔링하다

이천 인문학 총서 2

2015년 12월 25일 초판 1쇄 인쇄

2015년 12월 25일 초판 1쇄 발행

지 은 이 이 동 준 외

펴 낸 이 조 명 호

기록정리 안병문, 이동준, 이미경, 이선민, 황은영, 이성경

펴 낸 곳 이천문화원

주 소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163-19

등 록

전 화 031-635-2316

팩 스 031-637-7486

홈페이지 www.cc2000.or.kr

제 작 도서출판 흥익기획 02-2274-8110

※ ‘인문학으로 이천읽기’ 강좌를 기록, 정리, 요약하는 과정에서 강연자의 강연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